



제12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내 이름을 불러줘!

행정안전부

2009

08

제 12 회 공 무 원 문 예 대 전



내 이름을 불러줘

제12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초판인쇄 | 2009년 9월

초판발행 | 2009년 9월

발행 | 행정안전부

발행처 |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Tel, 2100-4257 / Fax, 2100-4369

펴낸곳 | 에스제이 070-7011-7364

* 이 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2009



제 12 회 공 무 원 문 예 대 전

풍부한 감성과 창조성이 가슴으로 함께하는 공직사회를 조성

올해로 공무원문예대전이 열두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문학을 아끼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주옥같은 작품들을 엮어 수상작품 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예창작 활동을 통하여 보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98년 처음 실시된 공무원문예대전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대표적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문예대전에 응모한 3천여편의 작품들은 일상의 바쁜 일과 속에서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창작활동을 해온 결과물로서 공직자들의 문학사랑을 통한 사람과 세상에 대한 깊은 성찰에 대하여 진심어린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 올해는 참가자도 많았지만 출품작의 수준이 높아 심사위원분들의 고심이 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공무원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언어를 표현매체로 하는 문학은 문화예술의 기본으로 사람과 사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깊은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사람과 사회에 대한 사랑으로 고양시켜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꿔나갈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문학활동은 공직자 본인의 정서함양과 자아실현은 물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무쪼록 문학활동을 통해 다듬어진 공직자 여러분의 풍부한 감성과 창조성
이 가슴으로 함께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보다 따뜻한 행정서비스를 펼쳐나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문학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주옥같은 작품을 모은 「제12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문학을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
분 모두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9년 7월

행정안전부장관

이낙환



인류를 구원할 서사(敍事)의 지평 앞에

인류는 현대문명의 초고속 속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녹색의 지구를 초강력 거미줄처럼 뒤덮어 숨통을 옥조이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고등 통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세끼 밥 먹는 일은 잊는 경우가 있어도, 인터넷을 열지 않고는 건디지 못할 만큼, 그 거미줄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숨 막힐 만큼 묶어 놓고 있습니다. 인류는 편리라는 속도문명의 종점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는지, 생각 없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설은 죽었다, 이제 인간의 영혼은 더 이상 활자(活字)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문예 창작도 인간의 영혼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류는 역사상 다시없을 지식 팽창의 세계를 누리고 있고, 테크노피아를 구가해가며 온갖 과학 물질문명을 누려가며 지구촌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매일 넘치는 정보 속에서 모든 것을 한 손아귀에 넣을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천명한 디지털 시대의 컴퓨터는, 인간 지능의 2억 배에 가까운 속도로 사람을 앞질러 간다고 장담했습니다. 컴퓨터, 전자오락, 휴대폰, TV, 스포츠, 섹스의 범람, 그 속에서 도덕률은 무너져 가고, 사람의 감성(感性)이 남아 날 것 같지를 않은 시류가 범람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동차의 속도와 전자제품의 편리와 영상매체의 어지러운 눈짓에 휘말려 감동(感動)을 잃어가고, 슬픔도 눈물도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 행정안전부는 12년 제 공무원문예대전 시상 계획을 세워 공무원들의 정서함양을 독려해 왔습니다. 96만 여명에 이르는 공무원 중에, 이번 공모에 응모한 숫자가 3,300여명에 이르는 작풍 앞에 우선 압도되었습니다. 더구나 단편소설부문에서 아흔 여섯 명의 작품이 앞에 놓였을 때,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빈틈없이 공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적지 않은 분량의 소설을 완결하여 응모한 그 성실함과 결단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 시조, 수필, 동화, 동시, 희곡 등 다른 부문을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들도 경

건한 자세로 긴장하여 공정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지만, 소설은 편당 원고지 100여 매가 넘는 그 분량 앞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옷깃 가다듬고 창작에 전념했을 응모자들의 작품을 가볍게 읽어 넘길 수 없다는 중압감이 긴장을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소설부문에는, 기성작가들 못지않은 기량으로 쓰여진 소설들이 적지 않아서, 등위를 정하는 일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제(主題), 구성, 전개, 삶에 대한 근원적인 고통을 파헤친 기량, 그리고 영혼 구원의 가능성을 천착한, 심각한 주제를 다룬 소설도 적지 않았습니다. 등외로 제쳐 놓기에 아까운 작품도 있었고, 등위를 정하기에 갈등을 겪게 만든 소설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문예대전이 12회를 거쳐 오는 동안, 시와 소설이 최우수상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동화를 장려하겠다는 심사위원들의 뜻이 강하여 적지 않은 고심 끝에 동화부문에 최우수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섯 개 부문을 통틀어 그 중에서 대통령상을 정한다는 당국의 운영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공무원문예대전에 정성껏 응모한 모든 분께 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분 한분은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고 그 구원의 길을 모색하는 영혼의 길잡이들임을 믿고 싶었습니다.

지구 환경 문제, 인간 탐욕과 정신없이 내리막길로 쏘나 박히는 인류 타락의 문제,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 마비증상을 일으켜 가고 있는, 가치관이 전도된 인간 심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응모자들의 성실성에서, 저 개인으로는 구원에 대한 희망을 만난 기회여서 감동이 깊었습니다.

사람의 유전인자 속에서 서사성(敍事性)이 지워지지 않는 한,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음을 확인하게 만들어 주신 응모자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수상(受賞)의 등위에 들지 못했다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간직하고, 그 감성으로 삶의 향기를 영혼의 숨결로 나누는 응모자들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심사위원장 정연희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 8 발간사 행정안전부장관
10 축사 심사위원장
563 심사평

시부문

최우수상

- 19 조용한 저녁 _ 안태현 | 성남서초교

우수상

- 21 12월의 입 속에서 _ 박해술 | 부산 개성중
23 윗새오름 까마귀 _ 김영옥 | 시흥 정왕초교
25 남편의 다림질 _ 곽향련 | 경남 은광학교
27 조각보 사랑 _ 박순숙 | 서울 월계중
29 아버지의 시집 _ 김일곤 | 광주 어등초

장려상

- 31 나무들의 무덤 _ 장성호 | 국토해양부
33 동피랑 _ 권순태 | 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35 아버지의 바다 _ 정석교 | 삼척시청
37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_ 정해광 | 광주지방검찰청
39 그림자 _ 윤상근 | 경주초교
41 유리 _ 손현승 | 서울시청
43 오동도 _ 이사라 | 보건복지가족부



시조부문

최우수상

47 소금_ 문제완 | 전남 화순우체국

우수상

49 내 핏줄속의 이 말발굽소리_ 방승길 | 전, 우정사업본부

51 반구대 암각화기_ 노희석 | 영등포구치소

장려상

53 삶의 바다_ 신기용 | 국방부

55 허전한 날_ 노경애 | 김천 대신초교

57 황혼과 파도_ 이종문 | 전, 중부지방국세청

59 벚꽃_ 김만옥 | 부산경남본부세관

61 서랍속의 기억_ 정승렬 | 경기도청



수필부문

최우수상

65 뿌리_ 정성희 | 대구교도소

우수상

71 산길_ 김영복 | 수서경찰서

77 쭉국_ 손달호 | 포항 이동중

장려상

83 고택 _ 임종훈 | 대구 상원중

89 손 _ 최계순 | 경북 고령군보건소

95 오후 2시 _ 권소연 | 대구 남도초교

101 점 _ 하상만 | 의정부 효자고

107 변신 _ 이옥희 | 대구 장산초교

113 등지 _ 강별모 | 전, 철도청

119 개꿈 _ 김영수 | 외교통상부

125 표류 _ 최재호 | 충북 보은군청



단편소설부문

최우수상

135 정지선 위의 서번트 신드롬 _ 김대성 | 동안양세무서

우수상

163 연리지 _ 김소윤 | 전주시청

189 그물 _ 남경희 | 전, 용인 현암초교

장려상

215 거미, 다가오다 _ 이재곤 | 영천 중앙초교 하남분교

239 군자란 _ 김영희 | 전, 성북구청

255 지상의 틈마다 안개가 스며들다 _ 김명자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75 고막손 _ 윤찬모 | 양평군청



동시부문

최우수상

303 가로수 아저씨 _ 박영식 | 남울산우체국

우수상

305 강나루 _ 껍해익 | 곡성군청

307 첫 눈 오는 날 창문보기 _ 문현식 | 고양 가좌초교

장려상

309 내 짝꿍은 자폐아 _ 남석우 | 대구 남부교육청

311 산은 심심하지 않겠다 _ 김현호 | 장수군청

313 호박풍선 _ 한광일 | 파주 삼성초교

315 혼자서 _ 임동학 | 포항 유강초교

317 뿌리 _ 김종훈 | 울산 신복초교



동화부문

대상

321 내 이름을 불러줘 _ 우소영 | 부천 부명정보산업고

우수상

331 선생님 바보 _ 박재광 | 수원 오목초교

장려상

343 아저씨의 자식들 _ 안상문 | 고양 성신초교

353 감사합니다 _ 김술립 | 진, 인천 병방초교

363 엄마새와 아기새 _ 전병호 | 인천 중부경찰서

373 할머니의 풍어제 _ 신하나 | 포항 동부초교



희곡 · 시나리오부문

최우수상

385 청산도 _ 정재학 | 영암 도포중

우수상

407 꿈꾸는 도서관 _ 김수만 | 전, 정독도서관

장려상

425 외로운 외출 _ 박병두 | 수원 서부경찰서

521 새정읍사 _ 은종민 | 정읍시청

시 부 문



최우수상

조용한 저녁 _ 안태현

우수상

12월의 입 속에서 _ 박해술

윗새오름 까마귀 _ 김영옥

남편의 다림질 _ 곽향련

조각보 사랑 _ 박순숙

아버지의 시집 _ 김일곤

장려상

나무들의 무덤 _ 장성호

동피랑 _ 권순태

아버지의 바다 _ 정석교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_ 정해광

그림자 _ 윤상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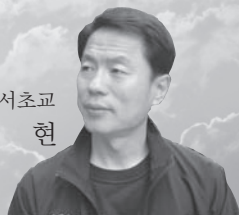
유리 _ 손현승

오동도 _ 이사라



조용한 저녁

성남 서초교
안 태 현



이 무거움은
지구의 반대편에서 흘러왔을 것이다
대양과 대륙을 건너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의 표정으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하루살이 같은 저녁을 먹고
문득 나를 내려놓을 때
나의 무거움은 나의 살불이 같다는 생각을 한다
저녁에는 오로지 조용히 앉아
내압을 확인할 뿐이다
수많은 발자국과 어지럽게 얹힌 길들
시공을 넘나드는 관계들의 날갯짓이 빠르고 힘차서
이 지구의 반대편 누구라도
심호흡을 하고 있으리라
담수보다 누수가 더 무거운 일
종일 몇 뿔박의 구름 같은 시간을 가슴에 채워 넣으며
창공을 차고 오르는 새가 되고 싶었으나
조용한 저녁에 오는 시간의 누수는
흘겁의 영혼을 불러온다
찍찍 갈라진 틈으로 불칼 같은 뜨거움을 들이댄다
무거운 내편으로 지구가 기울고 있다



나의 내면에 파문이 이는 시간은 저녁이다
저녁으로부터 꽃이 피고
저녁으로부터 길이 열린다
문득 내가 낯설어질 때 나는 나에게 가장 가깝다
담수보다 누수가 더 무겁다는 것을 느낀다
시를 담으려는 노력보다
시 아닌 나의 일상을 흘려보내는 일이 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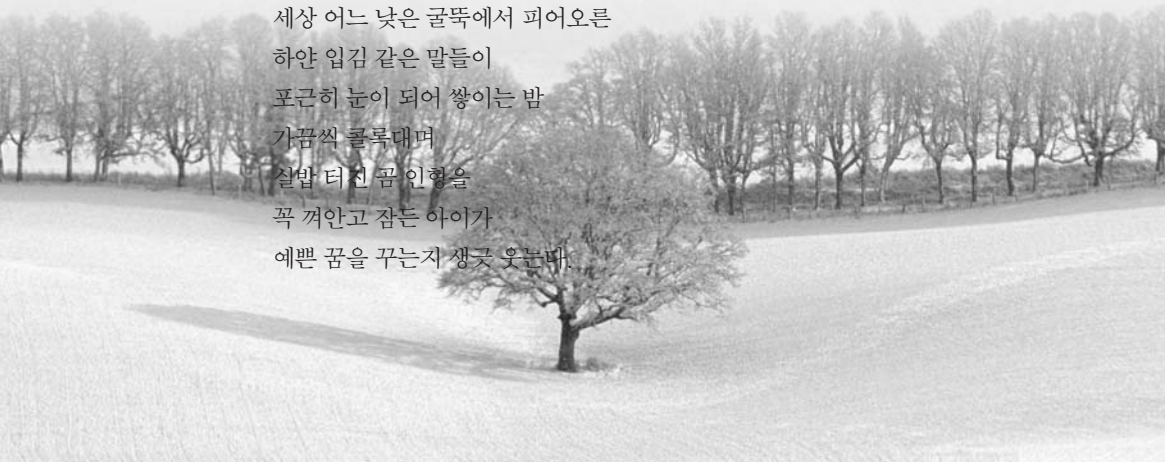
조용한 저녁에 오는 시간의 누수를
오롯이 받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정진하는 일만이 보답하는 일이라

12월의 입 속에서



부산 개성중
박 해 술

눈 밑이 시커먼 아내처럼
형광등이 입김에 젖어 꿈뻑대다
단칸방 설움을 꿀꺽 삼킨다.
치통처럼 뿌리까지 달라붙은 공복감
정지된 시계가 밥 달라고 목비권을 행사한다.
붕대 칭칭 감아 밤새 신음하던 보일러
우리를 12월의 입 속으로 몰아넣었다.
달력 속 함박눈
내리다 지친
그 속 작은 집을 꿈꾸던 아내는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린
한 달의 날짜들을 조금씩 허물어
이불 속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오늘 아이와 함께 할인매장 전기장판 사러 가
곳곳에 늘려 있는 장난감 진열대를
요리조리 피해 온
눈물 찌릿한 삶의 바겐세일을 이야기했다.
꿈도 오래 씹으면 단물 빠진 껌이 되는
성한 것 하나 없는 입속의 하루
몇 마디 따뜻한 말들을 서로 조제하며
내일은 제법 포근하리라는 일기예보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느껴진다.
세상 어느 낮은 굴뚝에서 피어오른
하얀 입김 같은 말들이
포근히 눈이 되어 쌓이는 밤
가끔씩 콜록대며
설악 터진 꿈 인형을
꼭 껴안고 잠든 아이가
예쁜 꿈을 꾸는지 생긋 웃는다.





항상 가족과 함께 꿈을 가꾸어 가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며, 아버님을 비롯하여 항상 옆에서 시인이라고 추켜세워 주던 사랑하는 아내 이미화님과 우리 은동, 규동 예쁜 아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그리고 문학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영정 앞에 무릎 꿇고, 보은의 잔을 올리고 싶다.

윗새오름 까마귀



시흥 정왕초교
김 영 옥

한라산 윗새 오름 눈 덮인 가지에
까마귀 한 마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검은 차도르를 칭칭 감고 앉아
처연하게 뒷모습을 보이는 이집트 여인처럼
까만 쫘지 깃 다소곳이 접어 내리고
어깨 잔뜩 웅크린채 앉아있다
제 흥에 겨워 부르던 노래
음표처럼 흩어진 허공에 멀리 못 박혀 있는 시선
굳게 다문 부리에서 제 몸보다 무거운
침묵이 뚝뚝 떨어져 내리고 있다
까마귀 가지 옆에 빨간 마가목 열매조차
지금 까마귀의 위로가 되지 못한다
쉬이 자리를 박차고 날아오를 기세가 아니다
저 허공에 꼭 차 있는 그 무엇이
발톱을 가지위에 묶어 놓고
날아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모르는 사연, 또는 몰라도 상관없을
남의 말 하듯 함부로 까탈릴 수 없는
어둡고 쓸쓸한 마음의 통증 하나
누구에게든 없으랴
제 몸뚱아리 하나 보다 훨씬 커다란 부피
훨씬 우울한 고통의 무게에 눌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뒤엉킨 혼돈의 미로에서
더듬거릴 때 있지 누구든, 저 까마귀처럼
때로 먹먹하게 혼자일 때가 있지





6월 24일 교내자율장학의 날, 좋은 수업 실기대회 동료교사 3차 수업공개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쉬고 있을 때 꿈결처럼 날아든 휴대폰의 문자. 그것은 공무원 문예대전 우수상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 휘둥그래진 눈, 직접 확인해보고서야 이완된 몸은 동실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시절 교내백일장대회에서 처음 詩와 인연을 맺고부터 온 몸에 칭칭 나를 휘감고 있던 시심은 자아정체성을 잃고 살던 중년 어느 날, 나를 다시 흔들어 깨웠습니다. 봄에 피는 장미는 겨울이 오기 전, 늦가을에도 피어나 나를 늘 설레게 합니다. 좋아하는 말 중에 감모여재(感慕如在)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그리워하던 그가 다시 찾아와 내 이름을 불러 준 그는 내 뒤늦은 사랑이었습니다. 평생 그와 더불어 살아갈 것 같은 뜨거운 예감!

때때로 나의 구원처럼 여겨지던 시를 만나고부터 그와 함께하는 불면의 밤은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를 애인처럼 껴안고 뒹굴며 밤을 하얗게 밝혔던 수많은 날의 습작이 마침내 첫 번째 열매가 되어 가지에 달렸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창 밖에 자귀나무의 꽃벼슬이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올 여름에는 신갈나무 숲속에 들어가 시의 계곡에 발 담그며 여름을 보내고 싶습니다.

우연처럼 행운처럼 큰 힘을 실어주신 심사위원 김송배 시인님과 성춘복 시인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푸르른 시의 계곡에 하얀 종이배를 띄우고 시의 강줄기를 따라 드넓은 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끝없이, 끝없이...



경남 은광학교
곽 향 린

남편의 다림질

그러니까 내 얼굴에서 물새가 꿈지를 칠 즈음,
남편은 나를 다리기 시작하였다.

가는 팔과 휘어진 목언저리를 잡고 처음 입맞추던 순간처럼
따끈따끈한 나를 다렸다.
그때마다 내 눈가에 일던 파문이 사라졌다.
깃을 털던 물새가 날아가고 수면은 평평해졌다.
구불구불 옛길 위로 새로운 길이 생겼다.
가끔은 플러그를 뽑아 두고 남편이 외출을 하면
몸의 길이 사라졌다. 몸은 마음에 갇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함께 지나온 시간보다 몇 천 배 빠른 동력이 나를 통과했지만
양금은 남아 있었다. 때론 남편이라는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다.
외출을 타듯 빨랫줄에서 필러이는 오후
플러그를 다시 꽂아 납작해진 가슴과 한아름 출렁이는
허리선을 따라가며 나를 곧잘 일으켜 세우는,
그는 내 몸속의 지도를 읽는데 익숙해져 간다.





늘 짝사랑이었던 시
오늘은 나를 돌아봐 주었다.
살짝 웃어 주었다.
부족하지만 이제 그만 나에게 와도 된다고
살포시 안아주면서
문학의 세계에서 시 발을 일구라고
이상을 꿈꾸라고
등을 토닥인다.

우수상 소식에 유월의 더운 햇살도 웃는다.
문학과인연을 조금 더 가까이 맺어준 심사위원님들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문예대전 관계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조각보 사랑

내 사랑은 작은 땅에 피운 꽃
서로의 눈빛에 흔들리며 길을 내고
서로의 몸짓을 안으며 아랫목을 만든다

사는 일이 술기를 잇듯
어깨 어느 부분 박음질 되는 것인지
어긋난 곳을 돌려 보면 등이 당긴다
모서리를 덧대다 고개를 들면
시침핀에 굽힌 손등
바늘 끝에 이슬이 맺힌다

텃밭에 일구어 감친 울타리
술기 뒤집듯 저녁놀은
무명실도 금빛으로 물들인다
향아리 뚜껑에 자리한
자잘한 꽃이 바람에 떠가면
방석을 내밀 듯 어깨로 앉는 안식
제 빛을 다스리고서야 물들일 수 있는 곳이라고
뜰엔 색동 꽃들이 핀다

서울 월계중
박 순 숙





색종이 묶음을 받아든 것 같이 내 속에는 각각의 색깔이 뚜렷했다.
원색의 열망이 들끓었고, 그 열망을 표현할 길 없어 넘어지고 또 일어서는 시간을 보냈다.
이제 시를 통하여 삶의 의미와 깊이를 알게되었고, 이제는 덜 어리석게 살게 되어 기쁘다.



광주 어등초교
김 일 곤

아버지의 시집

아버지의 쟁기질 하는 모습은 언제나
가편이었다
탈고라도 하듯이 씨레질이 끝나면
흙덩이들의 몽니도 저만큼 풀려서 누렁이

한 숨 돌리고 섰던 위낭소리가 풍경이 될 쯤
논바닥은 등을 내밀어 당신의 원고지가 되었다
푸른 펜촉으로
아버지는 남실남실 시를 쓰셨다
아버지는 무명시인
세 마지기 논배미가 가난한
그의 평생의 시집이었다.

나이 오십이 넘어서서야
그나마 나에게도 어렴풋이 읽혔던
푸른 표지의 시집 한 페이지

어쩌다 섬진들녘 지나쳐 가는 날이면
왜 이리도 아프게 넘겨지던.





따뜻한 시의 집을 짓고 싶어

그 넘쳐나는 그리움을 감당 못해 당신을 향해 쓰고 또 지우던 글을 덩석 부치고 말았다.
행운이었을까? 첫눈 같은 당신의 회신을 받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더 많은 글
을 써 보라는 격려인 줄 압니다.

“국그릇에 드나드는 손가락이 국 맛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내 마음이 아직도 어둑발이고,
내 시가 맛을 알지 못하듯이. 그러나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그리울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세상의 거친 은유에 대해 자꾸 연민하면서 시 속으로 몸을 담그려 합니다.

악어에게서 풀려나려는 저 절실한 누처럼 끝까지 시를 붙잡고 늘어져, 언어의 무늬를 맞추고
모서리를 궁굴리며 따뜻한 시의 집을 짓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무원문예축제 한마당을 마련해 주신 행정안전부와 부족한 글을 어여뻐 보아주신 심사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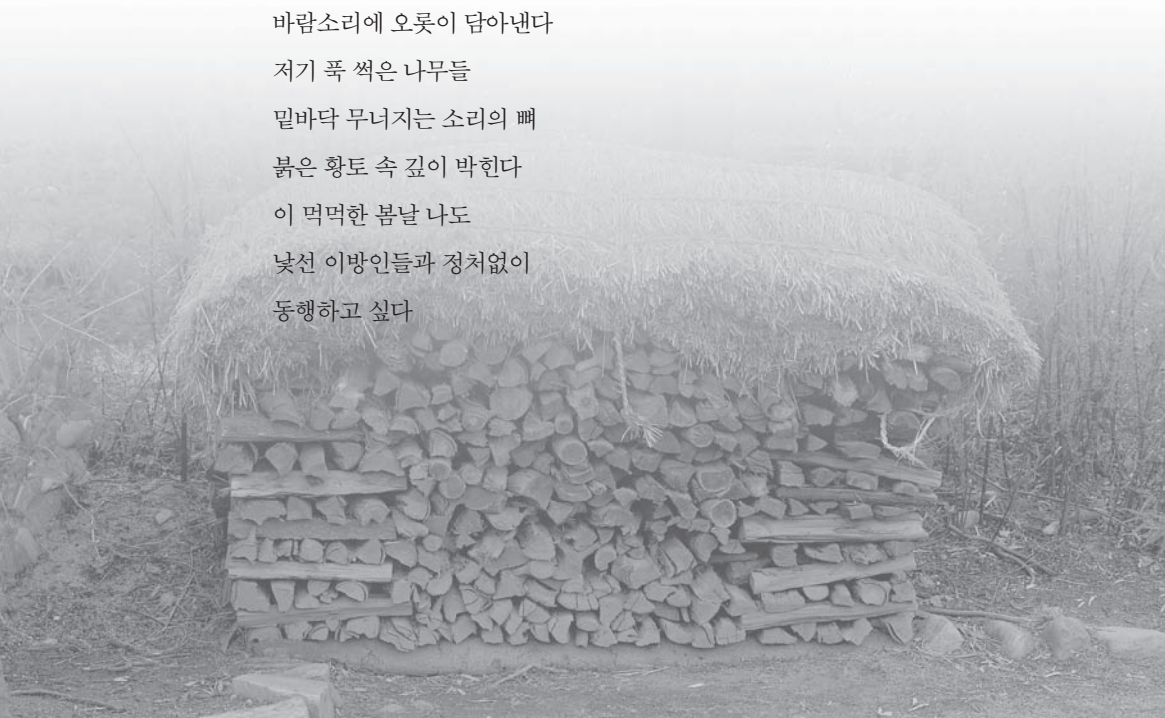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동료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글다듬기를 할 때면
돋보기만큼 너머로 고언을 아끼지 안했던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나무들의 무덤

우면산 중턱마다 터 잡은
푸석푸석한 통나무들
장작더미처럼 켜켜이 쌓여
수 년째 동행하고 있다
길 잃은 작은 날짐승만
잠시 머물다 가는 그 곳
바람소리만 아득히 들려온다
비쩍 마른 살과 뼈들이
바람과 함께 사그라지고 있다
죽어가면서도 낯선 이방인들
서로 부둥켜안고 동행하고 있다
지난 술한 나날들
슬픔과 기쁨의 소용돌이
바람소리에 오롯이 담아낸다
저기 폭 썩은 나무들
밑바닥 무너지는 소리의 뼈
붉은 황토 속 깊이 박힌다
이 먹먹한 봄날 나도
낯선 이방인들과 정처없이
동행하고 싶다



국토해양부
장 성 호





어스레한 달빛
공원 가는 길 가로수 밑
낮선 이방인들 뒤엎켜 누워 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아
따순 저녁 식사하던 그 시절
추억하고 있을 게다
이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가족의 품 그리워하며
한데에서 멀며 바짝바짝 말라간다
그날 밤, 빈속에 찬 소주 털어 넣으며
지그시 눈 감고 있다
찬 바람이 불어 올 때마다
거르렁거르렁 가래 끓는 소리
귓전에 광광 들려온다
얇은 종이처럼 온몸 점점 구겨진다
머지않아 제 몸이 썩어도
누군가 뼈 거둬주는 이 없을 게다
찬 바람 세차게 불어 온다
물기 빠진 저기 낙엽들,
구뚝발에 치여 바스락거린다

* 이땅의 이방인들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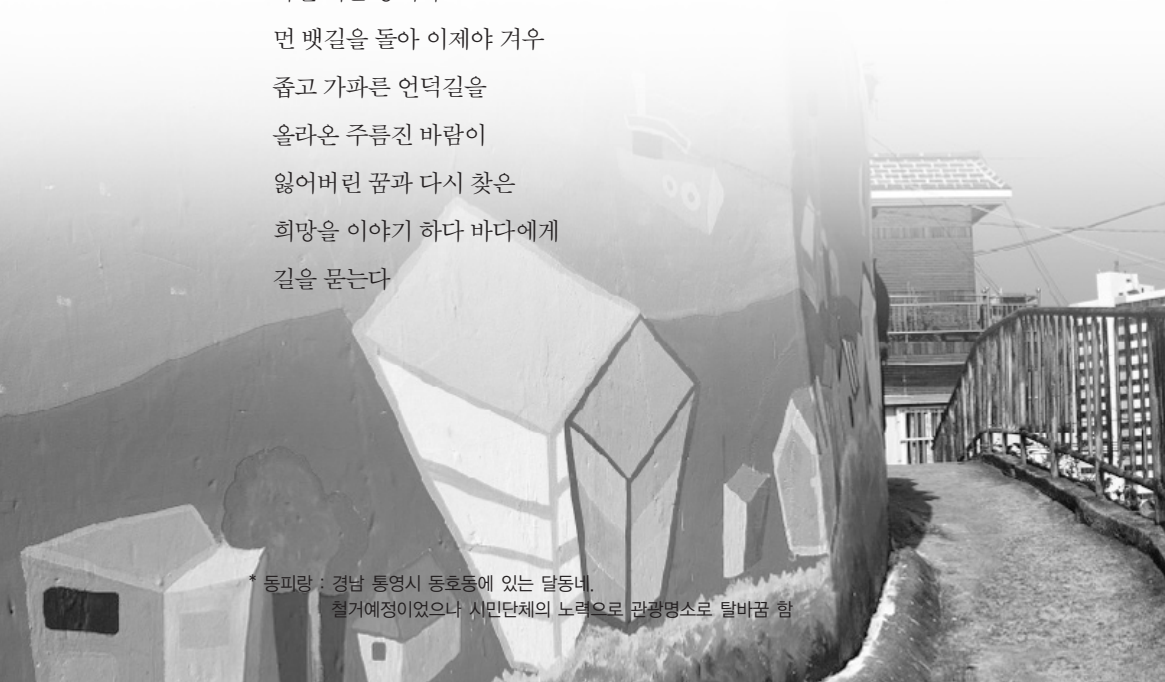
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권 순 태

동피랑

노파는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며
많이 해 보았다는 듯 자세를 잡아 준다
서울서 온 대학생은 연신 사진을 찍고
노파는 바다의 사진첩에
뽀얀 젊은이를 새겨넣고
청년은 추억의 책갈피에
알록달록 바다의 배경만 채운다
사랑에 빠진 물고기와
꿈을 전하는 코끼리와
바다를 향해
사철 피는 동백과
먼 뱃길을 돌아 이제야 겨우
좁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온 주름진 바람이
잃어버린 꿈과 다시 찾은
희망을 이야기 하다 바다에게
길을 묻는다

* 동피랑 : 경남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달동네.

철거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관광명소로 탈바꿈 함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참 오래도 입고 있습니다.
1년만, 5년만 하다가 벌써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저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안쓰러워합니다
이정도 세월이면 적응할 법도 하건만,
갈수록 힘이 듭니다.

정작 벗으려던 옷은 벗지 못하고
몸살 마음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마치 알몸으로 거리에 나온 기분입니다.
詩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한 것을
굳이 뽑아주신 것은
더 고민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척시청

정 석 교

아버지의 바다

갯내 깊게 젖어드는 밤이면
바다를 향해 머리를 두고 잡니다
맹렬한 꿈이 일으켜 세운 새벽
득달같이 치달은 선창가에
먹빛 기운은 아직 서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허다한 한숨들
가난 한쪽 배어 먹은 처마 끝으로
수평선 겹질 벗기듯 솟는 여명
주절주절 이간질하는 바다는
오랜 기다림을 배우게 합니다

산산이 풀어졌던 파도
아침이면 일어서는 버릴 수 없는 바다
비린 내음 가시지 않는 팔뚝에서
푸른 바다를 봅니다

대숲 찾아드는 소쩍새 울음
가위눌림으로 깬 밤
봉창으로 별들이 기웃거린 새벽
닷 올린 배들이 다시 바다를 엽니다





늘 목말라 하면서 가끔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싶은 시(詩)의 노래, 그래서 고적한 밤바다는 슬픈 울음을 토해낸다.

힘오스런 세상의 다툼이 있다면 싱싱한 바다를 보라. 억척스런 삶의 생존을 위한 투쟁들을 느껴보라. 가슴 저 밑 지저오는 파고의 격량이 빈 마음을 가득 채워 줄 것이다.

해거름 저녁답이면 어선은 출항준비를 한다. 몇 번의 뱃고동 울리고 배는 거친 물이랑을 헤치며 포구를 빠져나와 바다를 향한다.

심해의 전설을 퍼 올리는 어부의 구리 빛 팔뚝, 어느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아름다운 삶이고 충직스런 생활이다.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내 살들아 내 살들아

밤 내 후벼내었던 내 살들아

커다란 눈 껌껌껌껌 밝은 소가 운다

저 건너 쉼 앞 바닷물에 폭 잠기면 동쪽으로 흘러갈까 살
들이 돌아 내 시린 뼈 사이들을 채워 마른자리에 등 안 꺾
이고 하룻밤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을까 생채기만 남은 푸
른 살들이라도 잘 버무려 뼈와 뼈 사이를 메우고 하얀 뺨
조각들에 처바르면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라도 굳은 대문
두드려 목소리 들을 수 있을까 파넬래야 파넬 가슴 더 없어
구겨진 담배 은지 아무는 상처 가려워 눈물 고이도록 긁어
대듯 긁어 대는데 세상은 하늘처럼 바다처럼 낮설기도 멀
기도 하여 번듯한 소 한 마리 마음대로 갖지 못하는구나 맑
은 눈은 홀로 떠돌아 아스파라가스 예쁜 손끝에 실린 아이
들 목소리에 살점을 말라 낸 뼈의 의지 가슴팍을 도려낸 그
리움은 하얗게 타오르는구나 뚝뚝 떨어지던 피가 말갭게
부스러지며 갈라진 뺨조각 틈새로 구물구물 기어 나오다
뜨거운 햇살에 스스로 말라 붙어 가난한 물감 어수선했던 붓
끝에서 먼지처럼 날리는구나 후여 후여이 가난한 집의 지
붕에서 멀리도 날리는구나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검찰주사

정 해 광



그들의 방은 좁았고, 부엌도 좁았고, 바다는 여유있게 섬까지 안고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깊었고, 소는 낡은 방 벽에서 여전히 맑은 눈만 껌벅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걸어나와 말을 걸어줄 것같아 파르스름한 담배연기 날리며 한참을 마당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담벽 스치고 내려앉는 꽃이파리 하나하나 헤아리다 조그만 가슴 하나도 채울 수없는 우리는 참으로 가난하고 때론 잔인하기까지 하면서도 결국은 무기력한 존재에 다름아니어 앉은 자리 툭툭 떨어내고 바람에 밀려 해지는 거리로 나서며 이제 막 반짝이기 시작하는 별빛같은 편린들을 서투른 바느질로 몇 가닥 꿰어 보았습니다.

자욱한 산안개 걷히고, 모처럼 나선 길목에서

딸아이와 사진을 찍고 소리 맑은 풍경을 두 개 샷했습니다.

하나씩 나눠 가지고 바람탄 듯 흔들었습니다.

넌리 들리라고 오늘처럼 여전하라고…….

그림자

별빛 다시 물려오는 오붓한 밤
별이 되고픈 내가 부시를 친다.
애달픔 달라붙은 몸
빛의 곁에 누워 어둠을 만진다.
삼단으로 몸을 꺾는 언어들
버티고 선 가파른 벽 격렬하게 일렁인다.
미미한 후광으로 남으려는 인내의 몸놀림
우주를 품으려는 듯 적막에 기대어
한 밤의 허기를 채운다.
빛과 부딪친 소리 없는 얼굴
기억을 켜들고 수호신인양 한곳에 몰린다.
사라지고 풀어지는 것은 슬픈 일
이상의 상상에서 부서졌다 다시 살아나
환청처럼 버티고 선다.
세월 죄어오는 시간의 행색
누더기 생이 세상을 호령할 듯
두 눈 부릅뜨고 어둠을 밀고 있다.
내 비어버린 환상, 어둠의 틈새를 밀고
어제처럼 그저 우두커니 숫대처럼 서 있다.
제 빛깔을 피워내지 못하는 점자들처럼
쓸쓸히 저항하는 그림자
응축된 시어를 흔든다.



경주초교

윤 상 군



세상의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찬란한 빛, 그 빛을 받치고 있는 것은 편안한 안식을 주는 그림자 이니까요.

장려상에서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오랫동안 품고 살아온 숙제가 풀리는 듯 한없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두근거리던 가슴 진정이 되니 잠시 일어났던 일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어 더러 겁이 났지만 소망하던 일이라 전력투구 할 작정입니다.

항상 지켜보며 용기를 북돋아준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황폐한 마음밭에서 겨우 싹트기 시작하려는 시 공부 무디고 삭막한 감성을 닦고 갈아서 자신을 더욱 담금질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리

방안에 새가 뛰어 들어왔다
어머니가 오래전에 사다 놓은
달마가 그려진 향아리 뒤에 숨었다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면
향아리 뒤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그 까만 콩 같은 눈과 마주치고는 했다
몇 번 막대기로 찔러보았으나
새는 좀처럼 날아가지 않는다 가끔
환한 창문으로 날아가 몸을 부딪치고 다시 숨는 걸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 눈치다
컴컴한 한밤중에 까닭모를 위통으로 불을 켜보면
달마의 눈을 쫓고 있는 검정머리 진박새를 만날 수 있다
유리창에 여러 번 머리를 찢은 후에야
보이는 것은 모조리 나갈 수 없다고 믿는 나에게
작은 박새는 무슨 은유일까 며칠 후 새는 방안을 떠나고
향아리 안에 새가 남기고 간 쪽지 같은 것털이 남았다
며칠 동안 박새가 품다 날아간 비듬들이 폴폴 떨어진다
오래 전에 내 몸에 들어와 아예
빠가 된 먼지들이 있다
나는 단지 그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부락일 뿐이니
함부로 그 지붕을 흔들어 박새를 쫓을 수는 없는 일
유리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노란 장판 위에
저 혼자 달마를 그리고 있는 저녁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밖이 흰히
내다보이는 벽을 만들고 유리라고 부르며
그 깨지기 쉬운 성질을 두려워했다



서울시청
손 현 승



내가 태양과 가장 가까웠을 때 푸른 이파리의 잎맥들을 눈여겨보지 않아도 되었을 때 구름 위를 뒹굴다 산란해 놓은 알들이 노란 난황을 터뜨리며 밤마다 유리창에 줄줄 흘러내릴 때 그 빗물이 스민 천장에 이 세상에는 없다는 지도가 그려질 때 천장에 고였던 바닷물이 한꺼번에 얼굴로 쏟아질 때 아들과 내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 그래, 겨드랑이에 서로의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을 때...

오동도

허리 뒤춤에 동백꽃을 매달고
동백열차가 지나간 길엔 철로가 없다
보이지 않는 철로 위에
환영(幻影)처럼 하나씩 놓여지는 침목들을 딛으며
나는 네 안으로 한걸음씩 들어선다

동백열차가 멈추고
사람들은 수런거리며 제각기 흩어져 가는데
음악 분수를 지나고 동백나무 숲길을 따라
늙은 시누대들이 허리 굽혀 터널을 지은 곳까지
침목들은 줄지어 놓여 있고
나는 동백꽃 지는 순간처럼 빠른 세월을 거슬러
늙은 시누대 터널을 빠져나와
푸르고 깊은 너의 눈과 다시 만난다

괜찮으냐고 네가 묻는다
사는 것이 다 그런 거라고 네가 또 대답한다
나는 그저 예전처럼 눈물 고인 눈으로
너의 푸르고 깊은 눈만 들여다본다

너를 떠나며 나는
내 앞에 놓여진 침목들을
하나씩 지워가며 나온다
언젠가 내가 다시 너에게로 갈 때
철로 없는 동백열차 길엔 또 다시
이끼 낀 침목들이 줄지어 놓일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이 사 라



서른이 넘어서 뒤늦게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밤낮없이 일에만 몰두해서 살아온 날들이었다. 몸이 다 망가지기 전에는 주말이면 혼자 산행을 하기도 했지만 글쓰기, 여행, 영화, 음악, TV, 그 모든 것들과 거의 담을 쌓다시피 하고 살았으니 가히 인간의 삶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3년 전에 내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으니, 건강을 완전히 잃어 큰 수술을 두 번 받고, 휴직을 한 데다 마음의 감기까지 겹쳐 그만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심한 홍역을 치렀던 것이다.

하지만, 꼭 걸림돌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이 일을 계기로 지나온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바꿔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 덕에 작년부터 글쓰기와 여행을 통해 마음 다스리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언제부터인지 여행길에서의 느낌들이 머릿속에서 한 편의 시가 되어 저절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이는 격랑도 차츰 잠잠해지고 건강도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니까..

아키타의 수빙의 숲에서 처음으로 다시 한 번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순간과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려는 마음때문에 괴로워하던 순간들을 지나 올흥도 여행길에서 처음으로 캄캄하기만 했던 미로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길 위에서 서성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았던 느낌..

그동안의 아픔과 치유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시들 중 5편을 응모하여 예상치 못한 상까지 받고 보니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글쓰기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욕심도 슬며시 생기려고 하지만, 아직은 그냥 예전처럼 여행길에 혹은 일상에서 가슴을 파고드는 느낌들을 그 때 그 때 글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의 작은 행복을 지켜가고 싶다.

시
조
부
문



최우수상

소금_문제완

우수상

내 핏줄속의 이 말발굽소리 _ 방승길

반구대 암각화기 _ 노희석

장려상

삶의 바다 _ 신가용

허전한 날 _ 노경애

황혼과 파도 _ 이종문

벚꽃 _ 김만옥

서랍속의 기억 _ 정승렬





전남 화순우체국
문 제 완

소금

태평양 바다 물결 간절함으로 밀려와
신안 염전 텃밭에서 햇볕 담아 말린 자태
심해의 슬픈 속울음 가슴에다 묻어둔다

곰삭은 오장육부 해풍으로 어루만지고
천일염은 간수 빠진 알갱이로 남겨지면
증발된 작은 영혼은 계보 되어 맴돈다

염부 소원은 육각의 결정체로 피어나고
염원 같은 태양 별에 잘 익은 바다 물결
우리 집 베란다에서 고운 숨을 쉬고 있다





2008년도 11월에 신안문화원에서 개최한 『소금이 있는 풍경』 사진전시회를 위한 출사 길에서 만난 염부들의 찌디 짠 눈길을 기억한다.

큰 바다 큰 물결이 부서지면 기화 되어 구름이 되고, 굳어지면 고체 알맹이가 소금으로 남는다. 염부들 수고로 소금이 담긴 포대가 택배로 배달되면서, 대양의 물결이 염전을 거쳐 우리 집 베란다로 장소 이동하며 숨을 쉬는 모양이 가슴 벅차다.

시문학을 수학한 세월이 미천하지만 광주시인협회 백일장 장원에 이어 또 다른 꼭지점에서 만난 영롱한 이슬방울이 모쪼록 반갑다.



(전)우정사업본부

방 승 길

내 핏줄 속의 미 말발굽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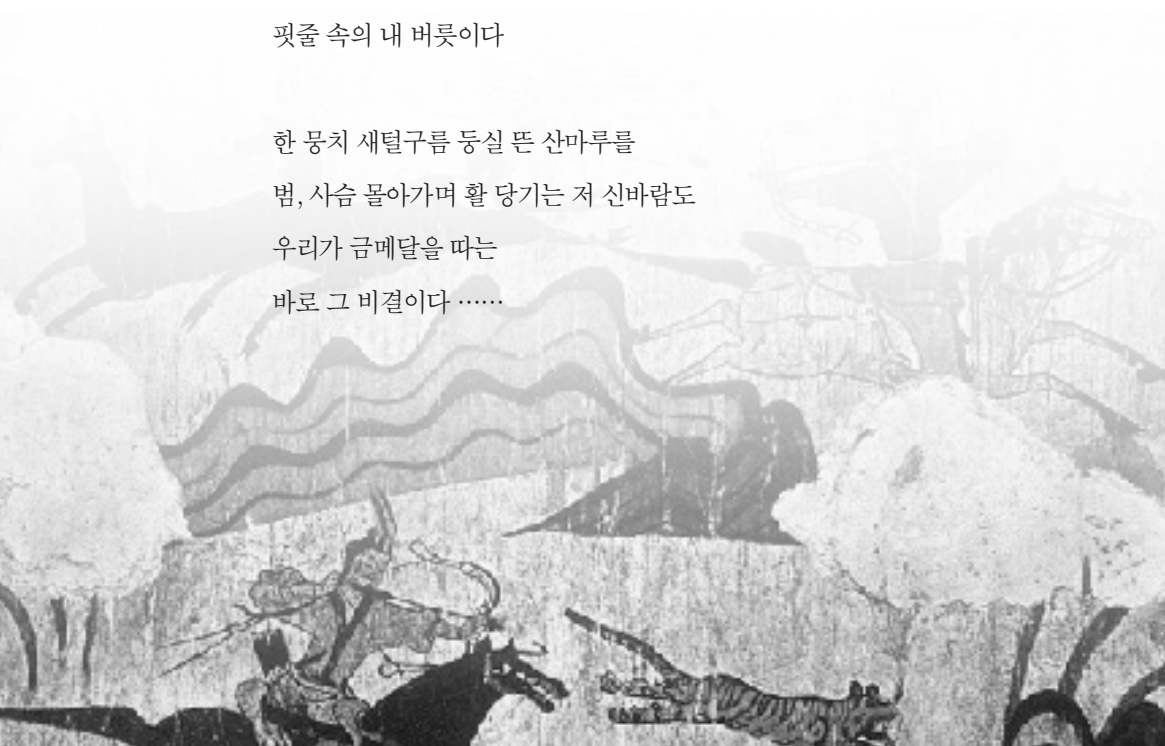
- 무용총 수렵도 앞에서

1

더께 낀 천 년 세월 뭉개듯 북, 북 지우고,
화공은 가 버리고 묘지기는 문을 닫았다
눈총기 밝은 나에게
안복(眼福)마저 줄 수 없단다

그렇기로 산자락 출렁이는 말발굽소리에
쫓기는 사슴무리 귀 쫑긋 엮스치는
한바탕 저 사냥놀이는
핏줄 속의 내 버릇이다

한 뭉치 새털구름 둥실 뜬 산마루를
뵈, 사슴 몰아가며 활 당기는 저 신바람도
우리가 금메달을 따는
바로 그 비결이다



살아서 받은 복을 널방 안에 옮겨놓고
 훗세상 꿈꾼 삶을 오늘껏 누린 이어
 그 넓이 스며든 자리
 한 줌 흙도 뜨겁다만

저렇듯 벽에 가려 녹진녹진 무너지는가
 춤사위에 묻혀간 듯 화공은 손쓰지 않고
 금이 간 회벽에 기대어
 내 숨결만 깊어진다

깨진 돌 하나에도 사무치는 고구려 하늘
 성벽길 따라 피는 코스모스꽃은 알고 있는지
 뒷덜미 아린 내 통점을
 사랑사랑 쓰다듬는다



고구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철갑의 강골 사내들이 말잔등에 우뚝 올라앉아 메뚜기떼처럼 밀려오는 수나라 대군을 눈 부릅뜨고 내려다보고 있다. 그리고 당나라 대군을 핏발 선 눈으로 노려보고 있다. 파국이 오고 있는 것이다. 을지문덕 장군은 어디 있는가? 양만춘은? 연개소문은 어디 잠들었는가? 고구려가 무너진 건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의 균열 때문인 경우다. 지금 우리 (한반도) 는 너무 오래 균열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들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의 3대 불가사의의 하나라고 하던가. 나는 평양에서 났다. 다섯 살 박이 나를 업고 월남하신 아버지는 지금 철원에 누워 계시다. 그 훈이나마 모시고 자유롭게 가서 늘 말씀하시던 '선교리' 를 걷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고대 왕국 고구려의 옛 터전에도 자유롭게 가서 찬찬이 둘러보며 그 웅혼한 넋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래야 벽화들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손을 쓸 텐데... 이 시조는 내 이런 열망을 확인하는 안타까운 기도쯤 되겠다.



영등포구치소
노 희 석

반구대 암각화 記

가끔은 산을 닮은 늑대울음 토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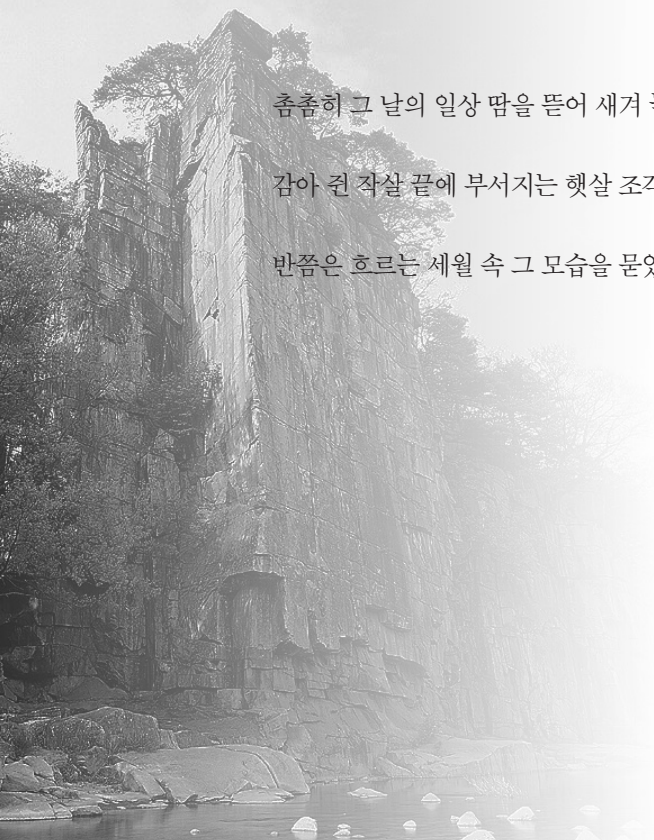
깎아지른 벼랑 끝에 칙닝쿨 뒤엎켜도

먼 바다 배 띄울 날을 귀 기울여 듣는가

쭈뼌히 그 날의 일상 땀을 뜯어 새겨 놓고

감아 쥔 작살 끝에 부서지는 햇살 조각

반쯤은 흐르는 세월 속 그 모습을 묻었네





문득 원시가 그림다. 자연 그대로 살아가던 원시인의 삶이 무척이나 그리워진다. 인위에 물들지 않은, 그 순수가 온전히 새겨진 반구대 암각화, 삶이 하나의 축제였던 그 시절,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 그들의 피가 아직도 나에게 흐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국방부
신 기 용

삶의 바다

파도가 달빛을 덮고 누운 밤바다
숨이 찬 그물망이 바동대는 황금어장
만선의 오색 깃발이 갯바람을 부른다.

꿈길에 잡힐 듯 말 듯 더듬어 보는 고깃배
말 없는 정화수가 그리운 파도 소리
화들짝 웃음꽃 벌듯 만선 소식 들리는가.

활짝 핀 꿈길에 고된 삶을 비취 놓고
층층이 얼싸안고 오색 깃발 나폴대며
향긋한 삶의 바다를 잇대어 껴매 보자.





바닷가에 동그마니 앉아 꿈을 키울 적 나를 돌아본다. 바다의 꿈으로 밥을 지어 먹고, 파도의 꿈으로 젊음을 펴고, 갈매기의 꿈으로 높이 날고 싶어 했다. 바다는 나의 꿈을 키웠고, 삶의 깨달음을 안겨 주었다. 하늘과 땅을 잇는 태양이 바다의 품을 드나들을 보고 있노라면, 바다는 삶이고, 어머니다. 지금은 조각배 같은 소박한 꿈으로 잔잔한 사랑의 꿈길을 걷는 것을 작은 행복이라 여긴다. 그렇게 여기며 바다의 낮과 밤을 바라보며 살리라.



김천 대신초교
노 경 애

허전한 날

뿌려둔 앞마당에 실눈 뜨는 저 상추씨

고목나무 가지 끝에 겨울새는 떠났는가

설록차 한잔의 봄을 우려내고 있는데

별명이 딱따구리인 내 친구가 찾아와서

형클어진 내 머릿속을 휘젓고 돌아간 후

창가에 파리를 트는 해는 길기만 하네





밀가루를 찰 지게 반죽을 해서 냉장실에 넣어둔다.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방망이로 밀고 당겨 일정한 크기로 만두피를 찍어 만두를 빚어 먹는다. 그런데 만두를 빚을 때마다 모양과 맛이 천차만별이다. 반죽이 질척해서 만두 옆구리가 터진다거나 만두소 배합이 맞지 않아 맛이 느끼할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쓴 글이 마음에 들 때가 있는 것처럼, 쫄깃쫄깃하고 감칠맛이 날 때도 있다.

아직은 남들에게 만두를 잘 빚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퇴고를 반복하듯 만두를 빚다보면 만두의 그 오묘하고도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비법을 터득할 수 있으리라.

아직은 크기가 일정하지 못하고 들쭉날쭉이다. 심 없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독자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함축의 묘미를 살린 좋은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좋은 영감(靈感)을 얻어 삶이 힘들 때마다 작은 희망 하나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에 글을 쓴답시고 밤늦도록 등을 돌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나에게 남편이 한마디 했다.

“삶의 향아리에다가 자꾸만 채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던 일도 서서히 접어야 할 나이라고……”

채우고 채워서 스스로 빛날 수만 있다면 멈추지 않을 거라고 남편에게 대꾸를 하면서도 오죽 소홀 했으면 저럴까 싶어 미안해했는데, 뜻밖의 기쁜 소식에 남편에게 조금은 면목이 서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미흡함이 많은 글에 애정을 보내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백수 문학관에서 함께 글공부를 한 도반들과 강의를 맡으신 백수(白水) 정완영선생님께 이 기쁨을 전한다.

황홀과 파도

지는 해 품어 안은 하루 낮의 끝자락.
오늘도 아쉬움 남아 목을 늘인 긴 그림자.
속세의 몸부림 넘어
정토세계(淨土世界)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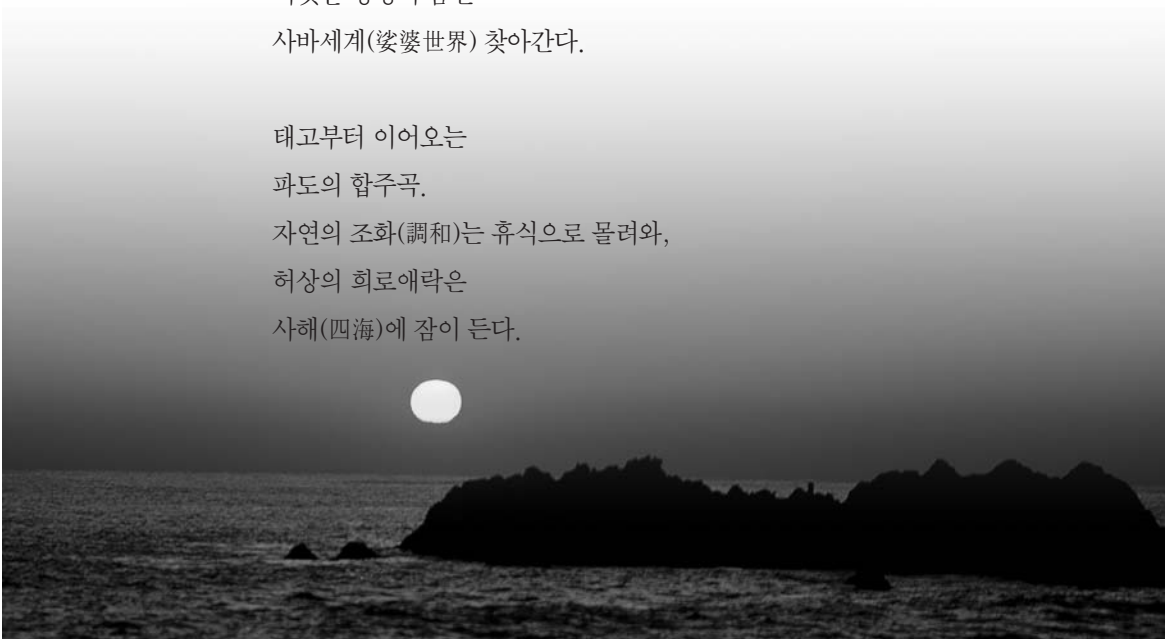
수평선 끝을 찾아 한 뼘 한 뼘 지는 해.
하늘 반(半) 노을 반(半)
정지된 우주공간.
원시(原始)의 바다냄새는
창조주의 땀 냄새.

타다 남은 붉은 놀
수평선에 묻히면,
파도의 노래는 별들을 불러오고,
비릿한 생명의 숨결
사바세계(娑婆世界) 찾아간다.

태고부터 이어오는
파도의 합주곡.
자연의 조화(調和)는 휴식으로 물러와,
허상의 회로애락은
사해(四海)에 잠이 든다.



(전)충부지방국세청
이 중 문





세월 따라 속절없이 살다 보니 70세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시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까. 한 세상 살다 보니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시 공부를 할 겨를이 없었다 하면 핑계일까요?

나이 들어 습작을 하여 보았지만 신통치 않았고, 시간 지난 뒤에 읽어보면 녀두리만 같아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또 읽고 또 쓰고 고쳐보고 계속하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내일도 또, 또 계속하여 읽어보고 써보고 고쳐보겠습니다. 저의 졸작을 추천하여주신 심사위원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의 졸작을 펴 보일 공간을 마련하여주신 행정안전부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더 공부해보라는 증표로 알고 지금부터 자신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경남본부세관

人山 김만옥

벚꽃

더러는 봄날에도 눈 내리는 날 있었지만
이 봄도 벚꽃피어 하얀 눈 속에 갇혔네.
세상이 적막한 것이 꽃 무덤 속인 듯싶다.

호기심 무더기로 하얗게 쏟아놓고
행어나 꽃샘추위에 벌 나비들 놀랄새라
눈발을 헤쳐 온 그 얼굴이 너무 창백해

바람이 불면 우수수 웃음소리 환하고
딸아이 예쁜 얼굴 디카로 오래두면
탐스런 그 얼굴에 보조개로 피는 하얀 꽃.





기쁘다는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벚꽃 길을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그 화사한 모습에 때로는 숨이 멎을 것 같기도 했고, 바람이 불면 우수수 떨어지는 그 웃음소리에 취해 적막한 세상에 갇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창백한 벚꽃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엔가 벚꽃에 묻혀 사진을 찍는 아가씨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아이를 디카로 오래보았습니다. 벚꽃 한 송이가 딸아이 얼굴에 보조개로 피어나면서 그제서야 벚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청
정 승 렬

서랍속의 기억

긴 어둠 낮 삼아서 서랍 안쪽 움츠리다
살 비벼 터 잡아야 한 뼨 남짓한 공간
차라리 날개 펼치고 폴폴 날아서 갈까나

발 닿을까 다투었던 시샘 많던 어린 시절
잊고 싶은 지난 시간 차곡차곡 쌓아두며
찌들은 하루를 접고 남인 듯이 청하는 잠

가지가지 칼칼한 성깔, 툭툭 내뱉는 저 말투
깜냥대로 묻어 살고 길이 들던 윗목 구석
언제나 뒤돌아보면 따라붙는 설운 자취.





삶에 있어 가끔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걸어 온 길을 뒤돌아 볼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 본 길, 황토 먼지 날리는 구불구불한 길, 그 길의 끝 쪽, 푸른 숲에 가려져 실루엣으로 보이는 고향 집, 그 집의 사랑방에는 살아 온 풍경들이 스케치되며 오래된 서랍 속처럼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한 기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
필
부
문



최우수상

뿌리 _ 정성희

우수상

산길 _ 김영복

쭉국 _ 손달호

장려상

고택 _ 임종훈

손 _ 최계순

오후 2시 _ 권소연

점 _ 하상만

변신 _ 이옥희

등지 _ 강별모

개꿈 _ 김영수

표류 _ 최재호





대구교도소

정 성 희

뿌리

그 혼한 풀들조차 죄다 뿌리를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돌기만 했단 말인가. 내 그림자가 길게 자리를
잡힐 때서야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고슴도치 가시처럼 돌아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태평양을 건너온 거인에 가리어 고향이 지닌 아늑한 세상을
망각해 왔었던 것이다.



뿌리

어깨너머로 바다가 한눈에 모여든다. 쪽빛으로 흥건히 물들인 비단 보자기가 구겨진 듯한 바닷가, 그 너럭바위에 앉아 처얼썩 처얼썩 화음을 내며 물 위로 널뛰는 파도의 날렵한 춤사위를 바라본다. 뱃고동 소리보다 더 크게 포효하는 파도는 공중을 향해 포물선을 그리며 그 너머의 세상을 기웃거리기라도 하듯 해면 밖의 유희를 즐긴다. 바구니에 담아둔 게 마냥 담 넘어 검푸른 물살이 요동치는 더 먼 바다로, 더 넓은 세상으로 소용돌이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원추형의 꼭짓점이 닿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암호 같은 삶을 살다 간 이상의 날개처럼 날아보고 싶었던 것도 아닐까.

어디선가 바람 한 자락이 불어와 내 몸을 휘감고 있던 대저예의 그리움을 건드린다. 그 긴 꼬리에 묻은 낯선 문명의 냄새는 갇힌 액자 속의 풍경 같은 고답적인 틀에 얽매인 자신을 풀어주고 싶은 욕망으로 꿈틀거린다. 거대한 명석말로 밀려왔다 부서지는 희뿌연 물태를 보며 어제가 오늘인 양 맛있는 내 삶의 제한된 반경에 염증이 도진다. 색주가의 수박등같은 화려한 문명의 자궁을 그리며 수평선으로 태두리 쳐진 궁륭 저편 닿을 수 없는 먼 곳을 향해 해파리처럼 떠다니고 싶었다.

내가 있는 땅은 너무 비좁았다. 모뎀발로 훌쩍 뛰어도 북한산에 닿을 만큼 좁다란 땅이 발아래 어설픈기만 했다. 거대한 서구문명과 아름다운 인공의 조화가 어우러진 드넓은 땅을 향해 줄달음치고 싶었다. 서쪽

바다를 자맥질하며 건너온, 흰 치마를 두른 보헤미안은 그렇게 내 안의 잠을 깨웠다. 나는 수평선 너머 태평양의 푸른 바다를 향해 눈썹을 휘날리며 찬란한 유채색의 꼬드김 속으로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그 바람대로 한국에 주둔한 미 군속 남편을 만나 호적을 옮겨 분갈이를 했다. 성조기를 배경으로 몽고족의 후예임을 애써 감춘 흔하디흔한 동양인의 얼굴이 새겨진 신분증을 건네받았다. 한국 땅 안에 있는 그들만의 치외법권 지역을 내 집인 양 자유롭게 드나들며 새로운 환경과 이국의 풍물에 축수를 모아 그 별천지세계로 숨는 것이 흥미로웠다.

발정 난 구렁이처럼 온몸을 뒤틀며 파고드는 미합중국의 화려한 관능의 색채를 기웃거리며 그 원색의 도발적인 요란스러움에 발 놓을 틈 없이 신났다. 추자벌레가 살아 꿈틀거릴 것 같은 짙은 눈썹을 쌓아둔 코 큰 사내들이 황소개구리처럼 와글와글 떠들어댄다. 몸통둘레 만큼이나 우렁차게 새어나온 목소리는 미국의 젊은 역사를 대변해주는 듯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들린다. 나른한 햇살을 즐기는, 가늘고 긴 목에 화려한 장신구를 단 여인들은 그들의 강력한 경제력을 말해주는 듯 어딘지 모르게 귀티가 난다. 꽃무늬를 그려놓은 것 같은 정원에 잘 다듬어진 잔디와 눈부시게 청청한 수목들로 울타리 쳐진 녹색의 조경은 바깥세상 잡목들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도도함이 엿보인다. 마치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미군부대가 우리 땅의 우듬지 자리를 차지하고선, 그 주변과 구획을 지어 경계를 하듯이.

나는 알롱달롱 색들인 머리에 무르팍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검정 고무신을 신은 한국인이다. 거울 속에 비대칭적으로 비친 모습을 보며 내 삶에 녹아있던 값싼 서구문화에 대한 숭배의식을 축출해 내려는 내 적척신도 없이 세계화만을 부르짖으며 대한민국을 대한미국으로 전환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허나 내가 만든 신미국은 낯선 표정으로 갈

옷을 입은 한민족의 조상을 닮은 어설픈 이방인을 냉랭하게 구분하는 듯했다. 바람에 휩쓸려 땅 위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허공 속을 떠돌다가 길가 한 구석으로 패대기쳐진 쓰레기처럼, 나는 객지의 추녀 밑을 깃드는 나그네 꼴이 되고 말았다. 그제서야 미국사회가 쌓아놓은, 낮지만 두터운 장벽을 죽는 날까지 부수어버릴 수 없다는 걸 직감하였다. 아무리 서양 사람의 흉내를 내어도 빈대떡에 케첩을 발라먹는 격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미군부대 담벼락을 따라 걷는다. 육중한 시멘트 숲 사이로 행한 공허가 보인다. 마을조차 없는 허허벌판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이다. 나는 광야에 홀로 선 외로운 문명인이 되어 풀기 없는 고개를 아래로 떨어진다. 잔디 사이에 돋은 잡풀에 두 눈이 머문다. 뿌리째 뽑으려 하니 막무가내다. 그 혼한 풀들조차 죄다 뿌리를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돌기만 했던 말인가. 내 그림자가 길게 자리를 잡힐 때서야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고슴도치 가시처럼 돌아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태평양을 건너온 거인에 가리어 고향이 지닌 아늑한 세상을 망각해 왔었던 것이다. 뉘 집 창문틀에 놓인 꽃병 가득 매워진 화초들을 바라본다. 뿌리가 뽑힌 풀들은 옛 토양이 그리워서인지 축 늘어진 사시랑이 같은 몸으로 두리번거리는 반쯤이, 땅을 잃은 실향민들의 울부짖음 같아 애처롭기 그지없다. 그들이 설 자리는 흙을 벗어난 허공이 아니라 뿌리가 박힌 대지가 아니던가. 파리한 이파리마다 맺힌 질은 그리움은 추신되어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나그네의 눈가를 적신다.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물속에 던져버린 내 고향을 자루가 긴 뜰채로 건져낸다. 그의 애절한 눈길을 애써 외면해 편치 못했던 나의 양심도 건져낸다. 고향의 살 냄새가 난다. 턱 밑까지 차오르는 반가

움에 아무 말도 못한 채 내 집으로 데리고 온다. 대문을 활짝 열어 안방에다 모셔두고 길게 심호흡을 한다. 내가 뻗은 어둡고 탁한 기운을 응심 깊은 그분은 고스란히 들이마신다. 절대적 타인으로 봉사 오 년, 병어리 오 년, 귀머거리 오 년의 한 많은 낮선 세월들을 퍼 담아 그동안의 한과 설움을 몽땅 쏟아낸다. 그분은 설익은 패기에 찬, 비루하고 속절없는 시간들을 몽근한 구들목에다 묻어 따뜻하게 데워준다. 그분의 품에 안긴 나는, 마음속 지도에 더 넓어진 영토를 가진 새로운 땅을 발견한다. 그 땅 위에다 부레와 같은 자신을 단단히 매달아 두어 동면에 든 과리한 세월들을 숙성시킨다.

자숙의 시간을 거치면서 쫓겨 나던 내 안은 뽀얀 분으로 단내를 풍기기 시작한다. 어느 누구의 폐부도 거치지 않은, 맑고 청량한 고향의 첫물을 들이키며 이전의 죄들을 조아리고 참선에서 깨어난다. 탄 사람이 되어 긴 여행을 끝낸 나는 까탈스럽게 품격 있는 자리에 놓여 현란하게 돋보이려고 경계를 짓는 외래 것보다, 소박하고 가난하지만 푹푹한 정이 깃든 우리 것이 좋아졌다. 잔가지들 다 쳐낸 몇 가닥의 잎만으로도 고향의 아름다움을 읽을 수 있는 함축된 여운이 좋아졌다. 부족한 듯 가난하지만 구수한 마음에서 더 담을 수 없는 삶의 여유로운 향기가 좋아졌다.

얼마 전, 전통적인 타악기와 현대악기가 어우러진 최소리의 드럼공연을 본 적이 있다. 한때 그는 우리나라 록밴드의 일대 획을 그었던 그룹 ‘백두산’에서 드럼을 연주한 대중 음악가였다. 서양의 선진문화에 물린 후에야 비로소 우리 것에 눈뜨게 된 그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며 천년 묵은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 전통의 소리와 춤, 무술이 신명나게 어우러져 온몸을 전율케 하는 그의 두드림은, 뿌리 깊은 한국인의 기백과 당

당함이 묻어난 정체성을 느끼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근원을 만난 듯 복채로 힘차게 영혼을 두드리는 그 절묘한 소리는 내 안에 식지 않는 깊은 울림이 되었다.

이제 나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졌다. 천혜의 지하자원이 풍부해서도 아니고, 세계의 금융을 거머쥔 경제력을 가져서도 아니다. 그렇다고 남들이 넘보지 못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서도 더 더욱 아니다.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내가 태어난 고향이 나의 중심이고, 원주를 이탈하려는 당신의 자식을 태반 안으로 품기 때문이다. 겨울눈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실지언정 그 고향은 웅달이듯이, 서구의 발달된 문명이 아무리 좋을지언정 내가 있어야 할 본향은 호랑이의 기개가 서린 조선 땅이 아니던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정착할 땅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쿠르드족이나 니카라과 난민들을 생각할 때면, 작지만 아무진 내 땅, 내 나라가 있다는 것은 여간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수평선 너머 세상을 떠돌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른 탕아를 주소하나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려온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만선의 깃발을 달지 않더라도, 칭칭이소리가 없이라도 좋아라. 빈 배에 아름다운 강산을 싣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싣고, 아름다운 아리랑을 싣고 선, 양수처럼 출렁대는 어릴 적 내 강보이던 고향의 자궁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면, 늙어 쇠잔해진 고향의 허리에다 명주실같이 질긴 닻줄을 바투 동여 메고는 가나안의 복지땅을 지키는 등대지기가 되리라.



드디어 수필이 내게로 오고 있다. 잘 정돈된 사유와 다양한 경험, 그리고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간 내면의 감성을 담은 한 폭의 수필이 내 안으로 오고 있다.

재주만 갖고는 고수가 될 수 없기에, 충실히 내공을 쌓아 세월의 풍화에도 마모되지 않는 맑은 영혼이 깃든 맛깔스런 글을 쓰라고 수필은 그렇게 내게 일러준다.

순간순간 나태한 마음을 잡아 일으켜 수필에 대한 나름의 안목을 심어주신 곽흥렬 지도 선생님과 부족한 글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전해 올린다.



산길

꿈이 있는 봄과 같은 청춘의 시절이 있고

여름에는 초록터널처럼 울창한

숲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기도 있다.

또한 인생의 가을을 음미할 수 있는 계절엔 열매를 맺으며,

낙엽으로 뒹굴던 추억은 버리고 비우며 홀로선 채 나목이 되어

눈보라와 비바람을 견뎌야 하는 차가운 겨울이 있음이다



수서경찰서

김영복

산 길

산길은 가슴으로 오르는 길이다. 마치 어머니의 손등처럼 세월의 흔적이 보인다. 산길을 오르다 보면, 사람들의 잦은 발길로 어머니의 손등에 쏘은 힘줄처럼 나무뿌리가 길바닥에서 앙상하게 드러난다. 가고 오는 세월은 사람들의 발길을 여전히 재촉하고, 풍파에 지친 고목들은 이제 뿌리조차 드러낸 채 무언의 메시지를 전한다. 수용과 관용의 품을 열고 살라는 어머니의 절절한 삶처럼.

산길은 좁아도 좋다. 더러는 가운데 나무가 한 두 그루 있어도 괜찮다. 애써서 뽑거나 등치를 잘라 낼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 두고 조금만 비켜서 가다보면, 차츰 훤히 길이 된다. 또한 길 가운데 바위가 하나 있어도 좋다. 어차피 조금만 돌아가면 또 하나의 길이 열리기에 불평하는 사람은 드물다.

때론 곱이 돌아가는 산길에서 인생길과 흡사함을 느낀다. 그 곳에도 희로애락의 사계(四季)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길은 인생길의 단면도와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꿈이 있는 봄과 같은 청춘의 시절이 있고, 여름에는 초록터널처럼 울창한 숲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기도 있다. 또한 인생의 가을을 음미할 수 있는 계절엔 열매를 맺으며, 낙엽으로 뒤덮인 추억은 버리고 비우며 홀로선 채 나뭇이 되어 눈보라와 비바람을 견뎌야 하는 차가운 겨울이 있음이다. 다시 새순이 돋는 새 봄을

준비하기에.

봄에 오르는 산길은 새순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나뭇거리
는 새순들이 나뭇가지 끝에서 자기를 봐 달라는 듯 행인들의 눈길을 끌
곤 한다. 겨우내 홀로 다져온 뿌리로부터의 고독한 절규가 아닐까. 봄
바람으로 흔들림을 통해 나무는 수액을 전달받고 새순을 틔워낸다. 실
바람이라도 불어오는 봄날이면, 나무는 온 몸으로 말을 걸어오는 듯하
다. 누구나 아픔이나 흔들림 없이 성숙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주고받
는 이치, 심고 거두는 순환의 관계, 나눔과 배려의 몸짓이다. 이 또한 기
다림의 미학이 아닐까.

어릴 때, 우리 집 뒤에는 작은 산이 있었다. 밤나무골이란 언덕과 계
곡이 있어서 친구들과 거의 산에서 알밤도 줍고, 다람쥐를 좇으려다 미
끄러지기 일쑤였다. 어머니께서도 산에서 버섯도 키우며, 조그만 산밭
을 일궈 고구마 같은 뿌리 식물을 손수 가꾸셨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은 산 속에서 자랐기에, 다 자란 후에도 산의 품속을 여전히 그리워하나
보다.

산을 오르내리다 보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갖가지 생각들이 따라
온다. 특히 내가 처음 지계를 질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중학교를 졸업
하고 겨울이 오기 직전인 듯하다. 나뭇짐을 지고 산길을 내려오다가 내
키보다 큰 지계를 이기지 못해 뒹굴었던 것이다. 마침, 욕심껏 나뭇짐
을 잔뜩 묶었던 지계가 돌부리에 걸려 산중턱에서 아래로 굴러 나뭇짐
이 전부 흩어지고, 빈 지계를 옮기면서 지고 와야 하는 순간도 있었다. 아
버지는 지계뿔뿔을 더 짧게 고쳐주며 나무를 하지 않겠다는 나에게 괜
찮다고 격려를 해주셨다. 몸을 다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고. 짐을
지고 산길을 내려오는 길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나는 그 때서야 최초로

느꼈다. 내려오는 산길은 가벼울수록 좋다. 산길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가는 것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내 생애 풋풋한 봄날 같은 날은 언제였던가. 배낭을 하나 달랑 메고 고향을 떠나 서울역에 내려던 청년시절도 있었다. 땅거미가 내려앉을 시각인데, 배가 많이 고팠고, 어디에서 하룻밤을 투숙해야 할지 몰라 서성이다가 호떡가게에 들렀다. 얼른 호떡을 굽는 아줌마에게 경상도 사투리로 말했다.

“호떡 퍼떡 하나 주이소”.

“호떡은 있는데, 퍼떡은 없는데요?”

하면서 웃으시던 너털웃음의 그 아줌마는 지금도 그렇게 농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낙천적으로 생활을 즐기고 있을까. 산천초목이 변하듯 나에게도 이미 그 시절이 추억으로 남을 뿐이다. 그 즈음에, 나는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기위해 상경했던 터였다. 어느 덧 30년이 되도록 공직자로서 공무를 수행했고, 부지런한 계절도 수없이 지나갔다. 마치 내가 아슬아슬한 산길을 미끄러질 듯했으면서도 재도전하고 잘 오르내렸듯이...

결혼 오 년째를 맞던 여름이었다. 금방 소낙비가 쏟아질 듯 했어도, 나는 퇴근 후 가까운 곳으로 산행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예측대로 중턱을 오르는데, 굽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소나기였다. 떡갈나무 사이에 숨었어도 옷은 흠뻑 젖고 말았다. 그래도 끝까지 정상을 올랐다. 집안에 물이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뛰어내려 왔다. 빗줄기에 젖은 옷보다 등산화에 물이 흥건히 들어갔기에, 내려오다가 그만 넘어졌다. 마음은 급했고, 발목을 삐쳤기에, 도저히 일

어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산속에서의 막막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다행이 저 만치서 산길로 내려오는 인기척이 들렸다. 그 때처럼 간절히 산길을 응시한 적이 있으랴. 그 때, 그 산길은 나의 구원자가 내려오는 길이었으니까. 그 날에 산길에서 만난 행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또 겹쳤다. 낮은 지반으로 인해서 집안에 물길이가 들이닥친 것이다. 아이들도 어렸고, 신혼 때 장만했던 살림살이가 모두 물에 젖지 않았던가. 난감했다. 흙탕물이 스쳐간 자리에서 가재도구를 닦던 우리 부부는 먼 산을 바라보고서 눈물을 흘치기도 했다. 저지대에서 살았던 그 시절을 지금 떠올리면, 산 중턱에서라도 살림을 살고 싶었으니까. 이제와 생각해도 앞친 데 덮친 꼴이었다. 내가 산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마도 물이 시기를 했을 수도 있으리라. 너무도 황당했던 그 날을 되돌아보면...

어제는 휴무라서 잠시 어머님을 찾아뵈었다. 인생의 가을을 보내고, 나목이 된 고목처럼 홀로 누워서 차디찬 겨울을 보내시는 어머니다. 어머니는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했지만, 누운 채로 아들이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따스한 표정으로 포근한 가슴을 열며 반갑게 맞아 주셨다. 누가 나를 이토록 반겨주겠는가? 항상 온 마음과 정성으로 아들을 반겨주시던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라면, 그 사랑의 눈빛과 몸짓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식사 후, 나는 조용한 틈에 어머니의 손톱을 깎아 드렸다. 우리 사 남매를 키우시느라, 한 순간도 손에 물이 마를 수 없었던 어머니였다. 어찌면 그렇게도 손등에 굵은 힘줄이 드러났는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깡마른 손등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더욱 애처로웠다. 이 가냘픈 손으로 봄이면,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산나물을 뜯고, 머루나 다래 같은 산열매를 가득 자루에 담아 오셨던 기억이 새롭다. 콧등이 쪼

한 아들의 마음을 어머니는 아시는 듯, 움직이지도 못한 채, 멍하니 창밖을 보고만 계셨다. 굽이 돌아온 산길을 더듬어 보면서 조심스럽게 내려가시는 눈빛이 역력했다. 그렇다. 누구의 인생에서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없으랴. 어머니의 생애도 나의 지나온 삶도.

나에게 산은 마치 고향 같아서 어머니의 품속처럼 포근함을 느낄 때가 많다. 나는 혼자 산행을 하며, 산길에서 갖가지의 상상력으로 종종 즐기기도 한다. 가슴으로 오르는 산길은 내게 어머니의 품속 같다. 그 때마다 혼자 주고받는 느낌의 대상은 나무 등걸도 좋다. 내 속에서 나를 찾으며 정신없이 산길을 걷다보면, ‘과연 사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이을 때가 많다. 그렇고 보면, 욕심내지 않고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오르는 산길이라면, 더할 수 없이 좋은 수행이 아닐까.

산길은, 나와 주위를 돌아보는 기회요, 삶을 바라보는 거울이기도 하다. 숲에서 나오면 숲이 보이듯,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 아닌가. 산길을 통해 나무를 보고, 숲을 보며, 나를 관조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가르침을 어디서 찾겠는가. 오늘도 산길은 나에게 끊임없이 교훈한다. 산길은 나에게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에서도 어머니처럼 수없이 달래듯 성급하지 말도록 타이른다. 좁으면 좁은 대로, 사람이 가는 길엔 기쁨과 보람이 늘 숨어있다고. 언제나 넉넉한 품으로 수용과 관용의 삶을 살라고. 그냥 말없이.



먼저 보잘 것 없는 저의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족이란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아내와 아들들에게도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이 있기까지 독서토론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특히 불편한 거동으로 항상 격려와 힘이 되어주고 있는 병상의 어머니께 이 영광을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 불철주야로 병상을 지켜주고 있는 형님과 형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쑥 국

시금하고 군내 나는 짬지 통을 밀치고 봄의 상큼한

향기를 싣고 오는 쑥처럼 김교사의 자기 연찬은 낱고 묵은 족쇄에

간혀 있는 나에게 언제나 신선함을 자극시킨다.

틈만 나면 그림 그리기 연수나 시작 수련으로

자기 향을 가꾸어 나감은 겨울잠을 자던 벌레들이 꿈질거리는 틈을 헤

집고 내민 쑥의 향기 같다.



쑥 국

묵은 음식들이 느끼해진다. 겨우내 온 집안 천장이나 마루 또는 벽지에까지 곰삭은 냄새들, 들척지근한 익은 지, 퀴퀴하고 찝조름한 젓갈, 굼굼한 청국장, 군내 나는 묵은 김치...

날 것이 그리운 지친 식탁에 봄의 전령사로 아침에 쑥국이 놓였다. 삼동 내내 밥상을 지켰던 찐지들의 소금기가 잦아질까 향을 움츠린다. 단순한 쑥 냄새를 넘어선 예사롭지 않은 내면의 향기, 통째로 봄을 전하는 쑥 국은 봄의 여신이다.

꽃샘추위를 밀치고 발독 둔덕에 보송보송 올라오는 쑥을 낚개로 뜯어 한줌 보낸다는 누나가 거는 전화선엔 쑥 향이 나폴나폴 날아들었다. 거실 바닥에 부은 쑥의 울울이 제법 실한데 어긋매끼게 돋은 가너린 잎가에 아직 끝 추위의 냉기가 건히지 않았다.

매운 꽃샘추위가 짙은 오늘 아침의 쑥국이 향기로운 것은 쑥 자체의 향이라기보다 겨우내 언 땅 밑에서 추위를 뚫고 나오려고 안간힘을 쓴 어린 쑥의 인고의 시간들이 향기로운 것이리라. 축고 긴 삼동 터널을 견뎌낸 노객 삼월을 뚫으려고 스스로를 채찍하고 참아 쑥의 천정이 열고 황폐해진 대가로 우리는 향기롭다 하지 않을까? 돌 틈에 쏘옥 내민 앙증스런 쑥 한 오라기가 온 하늘을 떠받치며 새봄을 이고 있다.

쑥의 향이 그저 생긴 게 아니었다. 꽃샘이 만물을 시샘하고 있을 즈음

봄눈 속에서부터 추위와의 끝없는 투쟁으로 동토를 헤집고 나온 인내에 있었다. 봄을 열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가혹한 극기에서 쑥의 향기를 느끼는 순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두 번이나 같이 근무했던 김교사의 향기가 문득 쑥 국 대접에 가득 펼쳐진다.

김교사와 함께 했던 학교는 유난히도 신학기부터 수레바퀴 굴러가듯 척척 잘 굴러갔다. 일이 많아 서로 꺼리는 교무 일을 시원스레 맡아 동료들의 긴장을 단숨에 녹여 주었다. 학사 업무를 맡은 그녀는 보사기에 일을 가득 싸안고 동안거에 든다. 초저녁까지 켜 둔 새하얀 형광등 불빛은 그녀의 책상만을 쓸쓸하게 비추고 있다. 가정 사정, 나이, 건강 같은 직원 신상을 유리병 들여다보듯 꼼꼼히 짚으며 용병술을 펼친다. 싸라기 햇살만큼 남은 커피 잔의 온기에 꽃샘추위를 달래면 잔에 묻은 빨간 립스틱 자국이 찻잔의 마지막 더운 기운을 붙들어 준다.

잔설 아래에서도 꺾이지 않고 끈질기게 피어나려는 쑥의 인내로 향기가 나뉘듯 온 삼동 내내 외로이 교무실을 지킨 그녀의 인고가 학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동력이리라.

쑥의 성정은 여성을 닮은 데가 있다. 여성은 섬세하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끝 추위까지 끈덕지게 견뎌 스스로를 내어주는 쑥의 향기, 여성의 냉한 것을 다스리는 따뜻한 속성, 어린 쑥이나 키가 큰 쑥, 생 쑥 마른 쑥도 창의적이고 생산성을 지닌다.

김교사의 생각은 쑥처럼 버릴 것이 없다. 미술을 전공한 그녀는 빈병, 교구 담았던 상자, 종이 컵, 심지어 끈의 나부랭이 하나라도 미술실로 끌고 간다. 허접잡은 껌테기들은 작업실 안에서 펭귄이나 인형 같은 제삼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새롭게 선보인다.

생 쪽으로 코를 막아 코피를 지혈시키고 마른 쪽은 기와 혈을 뚫는 뜸으로, 키가 큰 쪽은 모깃불이나 허수아비로 창조되듯 그녀의 생산적인 사고는 창의성의 훌륭한 소재가 된다.

김교사는 동료들의 농담이나 명절 후에 주고받는 시시콜콜한 시댁 흥까지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다. 시를 좋아하는 그녀는 슬쩍 뺨은 말도 주워다가 머리와 가슴에서 갈고 쪼아 자작시를 지어 되돌려 준다. 약쑥으로 뜸을 떠 혈과 기를 뚫어 정신을 맑게 하는 것처럼 고운 시로 정서를 녹여 화합으로 몰고 간다.

김교사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껴안는다. 그녀가 나타나면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이 꼭 채워지는 느낌이다. 주위들은 애기들을 가방에 담아 여기저기 입담 좋게 내주고 낮설게 들은 말들은 다시 챙겨 넣는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애기도 소복하지만 밴드, 구라분 같은 것도 뒤엎쳐 들어 있다. 가정사로 시달린 동료의 해쓷한 얼굴엔 구라분을 꺼내어 축축이 발라준다. 얼굴만 바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도 발라 황폐한 마음을 곱게 펴준다.

그녀는 갓 들어온 애송이 교사에겐 담임 선생님이다. 옛날 사환 누나가 때마다 쳐주던 종소리처럼 사소한 일까지 친절하게 귀에 넣어준다. 처음 하는 일은 긴장되고 즐겁다. 김교사는 잘한 일에 칭찬도 아끼지 않는다.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받아쓰기 공책에 빨간 색연필로 소라껍질 같은 다섯 개 동그라미를 쳐주던 할머니 선생님 같다.

시뭇하고 군내 나는 짝지 통을 밀치고 봄의 상큼한 향기를 싣고 오는 쑥처럼 김교사의 자기 연찬은 낡고 묵은 족쇄에 갇혀 있는 나에게 언제나 신선함을 자극시킨다. 틈만 나면 그림 그리기 연수나 시작 수련으로 자기 향을 가꾸어 나감은 겨울잠을 자던 벌레들이 꿈질거리는 틈을 헤

집고 내민 쑥의 향기 같다.

간절한 것은 화려함에 있지 않다. 사람 사는 냄새는 맨바닥에 있다. 돌 틈이나 밭둑 같은 맨땅에 트는 쑥의 향기는 얼어붙은 마음도 풀 수 있는 민초의 희망이다. 순탄하게 굴러가는 학사 바퀴의 동력이 김교사의 사소한 배려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부터라도 쾌적한 온실만을 찾지 않으련다. 그곳에 자란 풀에는 독특한 향을 만나기 어렵다. 쑥대밭이 되어도 다시 쑥대밭을 이룰 수 있는 쑥처럼 강인해야 척박한 땅에서도 매운 추위에도 향기를 내리라. 맛있게 먹은 국그릇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쑥 한 오라기에서 김교사의 인심이 대접 가득 차오른다.



수상의 굴레를 쓰고 돌아온 저의 글은 연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상을 지탱하고 있기에는 너무 초라하여 안쓰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원기를 돋우고 체질을 개선하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쉽게 얻으려는 마음을 다잡아 더 붙들고 늘어지며 고민하겠습니다. 부단히 정진 하라는 혹독한 채찍으로 수상 소식을 받잡습니다.

고택(古宅)

대구상원중 임 중 훈

명문가란 단순히 지체가 높고 부유한 집안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집안을 가리키며 그런 존경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역사적 검증을 거친 집안을 말한다



고택(古宅)

집이 있다. 집이되 수백 년을 거치며 잘 늙은 한옥(韓屋)이다. 잘 숙성된 장류(醬類)들이 깊은 맛을 내듯 잘 늙은 한옥은 세월의 흔적뿐만 아니라 그를 뛰어넘는 기품과 근엄함이 있어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경건하고 그윽하게 만든다. 더불어 그 집에서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의 행적이 당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의(敬意)를 받았다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후대에게 이심전심의 깨우침을 전하는 곳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백여 년 세월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이른바 명문가(名文家)의 고택(古宅)들은 건축학적 의미보다는 근시안적 사고와 그로 인해 나날이 천박(淺薄)해져 가는 삶을 경계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명문가란 무엇인가? 뛰어난 머리로 과거에 합격하여 삼공육경(三公六卿)을 줄줄이 배출한 지체 높은 가문인가? 아니면, 귀신같은 상술(商術)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집안을 이르는 것인가? 권력과 부는 실과 바늘 같은 것이라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 만인이 부러워하는 집안인가?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매월 학교로 보내오는 모 기업의 문화 홍보용 책자에 마음 깊이 와 닿는 내용이 있었다. 그달 치 주제가 명문가의 고택이었고 그를 개관하는 내용 중 명문가란 단순히 지체가 높고 부유한 집안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집안을 가리키며 그런 존경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역사적 검증을

거친 집안을 말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명문가가 시대를 불문하고 존재해야 하는 것은 축적된 존경이 특히, 난세(亂世)에 여론을 통합하는 구심점이 되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기에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리라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명문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이며 그런 사회적 자본이 없는 나라는 난세에 마땅한 구심점이 없어 구성원들이 사분오열로 피를 흘리기 마련이라는 것이었다. 이전에도 가끔 TV나 책을 통해 명문가를 소개하는 것을 보고 읽은 적이 있었으나 막연히 누대(累代)에 걸쳐 높은 관직을 제수 받은, 소위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것과 아흔 아홉 칸 기와집을 소유하고 땡땡거리며 산 세도가(勢道家) 집안이라는 정도로 인식했었다. 이를테면 통속적인 잣대로 거죽만 보고 그에 내재된 보다 중요한 요소를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책자를 통해 그 요소는 다름 아닌 당대 사람들이 표했을 존경의 정도가 척도가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타인능해(他人能解), 이는 모 명문가의 고방(庫房)에 비치해놓은 둥근 뒤주에 적힌 글귀이다. 이는 ‘누구든 쉽게 열 수 있다’는 뜻으로 뒤주에는 늘 일정한 분량의 쌀이 담겨있어 양식이 떨어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열어 쌀을 가져가게 했다는 것이다. 말만의 성찬이 아니라 나눔과 배려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덕행(德行)으로 이 가문은 이후 여러 차례의 위기가 닥쳤음에도 집이 불타거나 가족 구성원이 사상(死傷)을 입는 화(禍)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나눔과 배려가 가문의 내력으로 이어진 것을 적선지가(積善之家)라 한다면 그 결과로서의 필유여경(必有餘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과객(過客)의 대접에 소홀함이 없게 했고 일정한 토지 이상은 소유하지 않는 것을 가풍으로 삼은 가문과 임금이 여러 번 높은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끝내 고사하고 초야(草野)에 묻혀 후학(後學)을 양성하는데 진력하여 ‘백

의정승'(白衣政丞)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지닌 학자를 둔 가문이 있다. 인간의 마음은 때로 간사하여 끊임없이 분에 넘치는 권력과 부를 탐하게 만들고 그를 얻었을 때는 쉬이 오만에 빠져 그를 함부로 휘둘러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과정으로서의 깨끗한 권력과 부가 아니라 결과로서의 혼탁한 권력과 부로 덕(德)을 쌓기보다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은 자리로 혹은, 자신의 곳간에 더 많은 부를 쌓아두려는 과욕을 부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공존(共存)의 미덕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좌절을 증증시킨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불십년(權不十年)이며 부(富)는 삼대(三代)를 가지 못한다는 말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무리한 입신양명과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급급하여 종국(終局)에는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고 마는 것이다. 그에 비해 명문가들의 공통점은 욕심의 철저한 절제와 나눔의 실천을 가문의 핵심으로 삼아 그를 하나의 내력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대만이 아닌 먼 훗날을 내다본 안목과 혜안(慧眼)이며 그런 가문의 청규(淸規)가 가문의 안전(安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결같은 칭송을 얻어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질 때마다 마땅히 본받을 만한 귀감으로 구심점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시대를 불문하고 권력과 부로써 세상을 호령하는 일가(一家)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굳이 이전의 사례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당대에 정당하지 못한 권력과 투명하지 못한 치부(致富)로 패가망신을 한 경우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바 그 때의 그 권력과 부는 한 때의 헛된 꿈같은 것이며 결국 그 스스로를 베고 만 날카로운 흥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얼마 전 선종(善終)하신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식에 애도를 표하기 위해 운집한 그 많은 사람들은 추기경이라는 지위가 아니라 성직자로서 청빈했던 일생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긴, 그리하여 종교적 가

르침과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늘 낮은 곳으로 임하고자 했던 삶을 깊이
 흡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기(利己)와 그로 인한 몰염치가 극심한
 이 시대에 채우기보다는 비우기 위해 애써 스스로 바보 같은 삶을 살기
 를 간절히 원했던 그분을 사랑과 평등을 제일로 하고 실천하는 그리스
 도가문이라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 것인가? 권력과 부를 무조건적으로
 백안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이다. 다만,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정직하고 타당하게 행사되어 생전, 그리고
 사후에까지 그에 경의(敬意)를 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권력과 부는 온전
 한 것으로 후대에까지 기억되고 인용(引用)될 귀중한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존경(尊敬)의 함의(含意)에 대해 생각한다. 권력과 부로 당대를 호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며 한낱 헛된 껍데기에 지나지 않
 는다. 존경은 지나친 욕망들을 철저한 의지로 억제하고 끊임없이 스스
 로를 경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로 공동체의 삶과 정신을 보다 윤
 택하게 만든, 그리하여 끊임없이 회향(回向)을 실천하고 ‘노블레스 오블
 리제(Noblesse oblige)’를 온전히 실천한 이에게 바치는 많은 사람들의 마
 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난 자발적 헌사(獻辭)이다. 당대에 마땅히 존
 경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은 당대의 불행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
 라는 한 인문학자의 고백이 새삼 뼈아프게 가슴에 와 닿는다.

이 시대의 명문가를 생각한다. 이기와 탐욕이 아니라 나눔과 배려로
 당대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가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간직해도 좋을
 집 한 채 지을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을.



자칫 무미건조한 생활이기 쉬운 공무원 생활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문예대회가 있어 그나마 한 줄기 위안이 됩니다. 틈틈이 창작한 작품을 끝내고 보낼 때의 기분은 산고(産苦)를 치른 임산부의 그것과 같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문학이 죽었다고 하지만 인간과 다른 모든 것을 구분하는 요체 중의 하나가 문학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한 문학은 인간을 증명하는 요소이며 삶의 의미라고 여깁니다. 이전에 시와 소설로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인 수필에서의 이번 수상이 스스로를 증명해 본 계기가 되어 기쁩니다. 졸작을 심사하느라 고생하신 심사위원 제위께 감사를 드리며 마음을 다한 더 좋은 작품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손

삶이라는 인생의 바퀴도 녹이 슬고 닳게 되어 있는 것일진데 죽어
서 가져가는 것이 돈이 아닐진데도 다들 그 돈이라는 이름에 우리들 가
장 중요한 것들을 얹어 맨채로 그곳에 목매여 살고 있다.



경북 고령군보건소

최 계 순

손

잘 아는 사람중에 근검절약이 심하다 못해 그의 돈을 움켜쥐고 사는 듯한 이가 있다. 생활이 어렵다 보니 그것이 한이 되어 수십년의 직장 생활에서 잔돌이 행세를 하며 그녀는 많은 돈을 모았다. 그러나 대부분 부동산에 다 묻어 둔지라 일상생활에서는 현금이 잘 돌지 않는다. 그녀는 생활하면서 거의 돈을 쓰지 않고서 산다. 최저의 부식비며 기타 잡비는 최소한도로 쓰는것으로서 가족을 위한 외식도 없고 의복도 잘 사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게 된다. 비로소 그녀는 자기가 나이 먹은 것을 되돌아 보면서 간혹 내게 그동안 헛 살았다는 말을 종종 하곤 한다.

사람에게는 시기라는 것이 있다. 젊은 나이에 아이들과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지 그것도 나이를 먹으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문이다. 그런 그녀를 바라 보면서 나는 움켜만 쥐고 살았던 그 손의 아귀가 때로는 양갈스러워 보인다고도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여자로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미움함이 가슴이 답답하도록 미련해 보이기 때문이다.

내 직업이 그렇다보니 사람들에게 ‘건강해지는 법’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도 건강해지는기를 아주 많이 바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투자하는 것을 꺼린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을 많이 바라는 때문이다. 병이 생기면 초창기에 병

원에 가라는 이야기도 수십번 수백번 하지만 다들 예사로 몽기적거리며 큰 일이 나서야 그때부터 병을 다스리려고 동분서주한다.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준다.

차도 서울로 가자면 기름도 잘 넣어 주고, 엔진도 잘 갈아주고, 바퀴도 이상이 없는지를 잘 점검하여야 만이 서울로 잘 갈수 있다는 말을.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하여 내 건강을 위하여 아름다운 내 삶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거저 얻는 것이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의 이치까지도.

대부분 돈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면서 평생을 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민들 대부분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자녀 결혼시키는 것을 하지 못하는 탓이다. 그런 연유로 인하여 다들 나눠 가지는 것에 아주들 인색하다. 마음을 나누고 미소를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인간 관계는 달라진다.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것만 욕심내며는 친구도 선·후배도 없다. 돈이라는 데에 목을 매달고 살았다 보니 그녀에게는 변변한 친구도 없다. 욕심만 내니 누가 선 뜻 다가갈 것인가. 갈고리같이 중요하게 굶어 모았던 돈의 의미가 그녀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것들을 앗아 갔다는 것도 그녀는 모른다. 나이가 지긋하게 들면 베풀지 않는 손의 힘은 작은 도량과 심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바로미터다. 손에 조금씩 힘을 빼고 따뜻한 사랑을 담아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것, 위로해 줄줄도 아는 것,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일인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하여는 이해 못할 부분이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세상을 알았다는 말일 것이다. 그만큼 살아 왔기에 내 자식 귀한 것도 남의 자식 귀한것도 헤아릴 줄 알고, 남의 처지도 잘 헤아리면서 우리는 철이 들어 간다.

늘 방에 누워서 임종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하여 호스피스 간호를

한 일이 있다. 거동이 불편하여 기저귀를 차고서 남의 손에 의하여 대소변을 받아 내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 미래에 닥칠 일이 생각났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아기로 자랄 때 부모님에게 의지하여 기저귀를 차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또 다시 어른이 되고 죽을때 기저귀를 차는 기저귀 인생이 우리네 인생의 한 단면이다. 그런 일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이 오고 갔다. 너무나 서글프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젊음도 잠깐이고 이 시절도 가면 다들 노후를 바라보는 일일진데 남의 일로만 돌릴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평안한 죽음을 맞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위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삶이라는 인생의 바퀴도 녹이 슬고 닳게 되어 있는 것일진데 죽어서 가져가는 것이 돈이 아닐진데도 다들 그 돈이라는 이름에 우리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얹어 맨채로 그곳에 목매여 살고 있다. 그 돈으로 인하여 인생이 삭막해지기도 하고 윤택할 수도 있는 마이더스의 힘이지만은 그 균형이 깨질때는 불행과 탐욕의 결과를 빚기도 한다. 살면서 별탈이 없으면 그래도 사·오십대에는 약간의 먹을 것과 살 집이 마련되는 탓에 그런 나이에 와서도 손에 힘을 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가 아니겠는가. 손 안에 쥔 욕심과 손밖으로 보내는 여유가 다 같이 균형을 맞출 때 성숙한 한 사람으로 나이를 먹는 일일 것이다.

작은 손 하나의 몸짓에 내 주위를 밝게 할 수도 있고, 꼭 쥔 손에 의하여 매사에 불행과 탐욕까지도 초래하여 행복의 균형을 파괴하는 일들을 종종 본다. 돈과 집과 물질에 집착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손에 강약을 잘 조절하여 따뜻함과 약속을 주고, 누군가의 어려운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인정의 손길도 인생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벅찬 감동인가.

콩나물 장사를 하여 근검절약 모은 돈 전부를 학교에 희사한 정직한 할머니의 손도 있을 것이고, 자식의 앞길을 위하여 손발이 다 닳도록 땀 빠지게 노력하는 헌신의 손도 있다. 그리고 신을 위한 자리에 자기의 손을 다 바친 성직자들의 봉사와 기도의 손길도 언제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작은 손 안에 담긴 인생의 갖가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손과 미련한 손과 욕심의 손을 생각해 보면서 제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손은 어떤 모양인가를 잔잔히 되돌아 본다.



신록이 우거진 유월입니다. 글을 보내 놓고 당선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마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린 입상 소식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심히 보고 느끼면서 적어가는 에세이가 자꾸 그 자리가 커져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는 요즈음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낮추면서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살자고 매번 다짐하지만 어리석은 마음자락은 하루에도 열두 번 출렁거리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곳 고령은 대가야의 흔적이 군데 군데 남아 있는 작은 소읍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덕곡은 성주 백운동 국립공원이 가까운 청정지역이기도 합니다. 출근을 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풍경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오래 공직생활이 주는 매너리즘을 극복하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세상을 뜨겁게 호기심있게 더 넓게 보려는 시작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의식에 충실했던 전해린 씨를 닮고 싶어했고, 이미륵 선생과 같은 고결하고도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을 존경합니다.

사람의 맨 마지막을 말해주는 내 영혼의 곁을 언제나 맑고 깨끗하게 닦아 주려 합니다. 목련이 지고 만 나무의 곁가지를 잘라 주면서 작은 화단에 앉아서 조용한 행복을 느껴봅니다. 유월의 아름다운 날들이 소중하게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오후 2시



대구 남도초교
권 소 연

다 만든 장(醬)도 한 첵 묵힌 후에야 제 맛을 내듯

정점에 선 태양도 몇 시간 흐른 뒤에야 온 세상을 덥힐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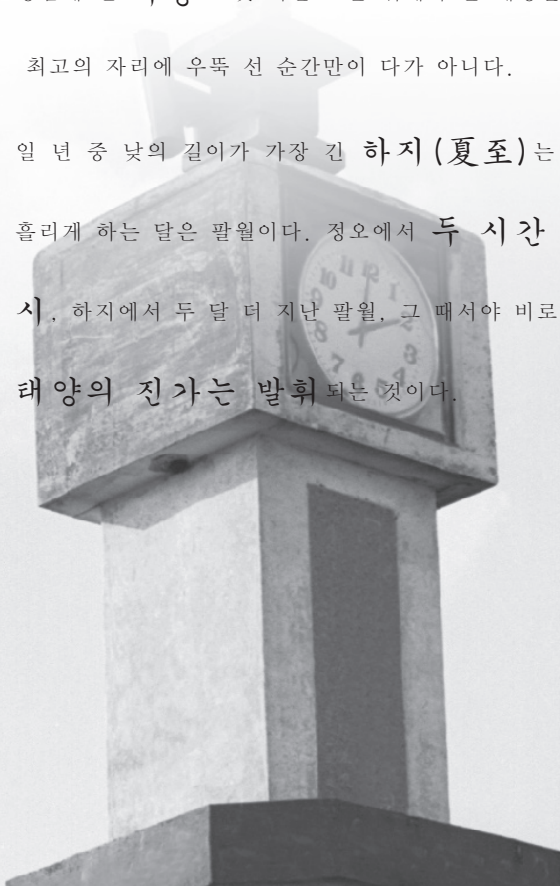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선 순간만이 다가 아니다.

일 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夏至)는 유월이지만 대지를 땀

흘리게 하는 달은 팔월이다. 정오에서 두 시간 더 흐른 오후 2

시, 하지에서 두 달 더 지난 팔월, 그 때서야 비로소

태양의 진가는 발휘 되는 것이다.



오후 2시

정오의 햇살이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발아래 흔적을 만든다. 하루 중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은 시각, 발밑에 찰싹 달라붙은 나의 분신은 떨어질 줄 모르고 따라다닌다.

겨울 햇살은 꼬리가 길다. 얇은 먼도날 같은 칼바람에 뺨이 발갛게 붉혀도, 자기 외에 다른 색을 허락하지 않는 웅고집의 눈송이가 천지간을 뒤덮어도 바늘만한 틈새라도 파고들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다. 제 아무리 붉은 눈덩이도 그렇게 찾아든 햇빛을 만나면 뻘죽한 수가 없다. 원래 모습은 오간데 없이 거무튀튀한 먼지들과 뒤섞여 스르륵 자취를 감추는 수밖에.

햇살의 꼬리는 집 안까지 흘러들어 나를 깨웠다. 삼한사온, 제멋대로인 날씨에 그 말이 무색해진 지는 오래 되었지만 며칠간 제법 매운 맛 보여주는 찬 기운에 겨울잠 자는 개구리처럼 방에 움츠렸었다. 그렇게 거리마다 행한 사람 냄새가 그리웠는지 겨울 빛 무리는 오전 내내 우리 집 창문을 푹푹 두드려 댔다. 결국 나그네의 옷을 벗긴 어느 동화에서처럼 햇빛은 뽁뽁 싸여진 내 이불을 걷어냈다.

오랜만의 산책이다. 그림자는 여전히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다. 지금은 태양이 주인공임을 아는 것일까. 정점에서 있던 태양이 서방정토를 향해 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그림자는 천천히 제 몸을 늘

인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 혹독한 광풍을 이겨낸 겨울 햇살도 어둠에게 맥없이 세상을 내 주어야 할 때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

한기(寒氣)를 머금은 한 줄기 바람이 무방비한 목 주위를 파고든다. 머리보다 손이 한 박자 빠르게 옷깃을 여민다. 갑갑함에 다 채우지 못했던 지퍼를 목께 까지 밀어 올리면 점퍼 끝 조그마한 쇠붙이가 고드름인 양 턱을 찌른다. 움찔 소름이 돈다. 아니, 아직은 아닌가 보다. 태양이 남쪽 하늘 꼭대기를 차지했다고 해서 주인이 된 것은 아니었다.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먼저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아직 닿지 못한 곳은 없는지 고루고루 햇빛을 보내주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임무다. 다음엔 대지를 일깨운다. 눈바람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을, 우는 아이 달래듯 조심조심 열려야 한다. 엄마의 눈빛처럼, 할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 흙은 조금씩 몸을 풀기 시작한다.

이제 보듬어야 할 것은 공기이다. 성난 듯 날뛰어대는 기류를 포근한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대기는 비로소 차츰차츰 잠전해진다. 구석진 곳 돌맹이 하나까지 뺀 햇빛은 온 세상의 따뜻함으로 대답을 듣는다. 하루 중 가장 온도가 높은 시각, 오후 2시이다.

다 만든 장(醬)도 한 철 묵힌 후에야 제 맛을 내듯 정점에 선 태양도 몇 시간 흐른 뒤에야 온 세상을 덥힐 수 있다.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선 순간만이 다가 아니다. 일 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夏至)는 유월이지만 대지를 땀 흘리게 하는 달은 팔월이다. 정오에서 두 시간 더 흐른 오후 2시, 하지에서 두 달 더 지난 팔월, 그 때서야 비로소 태양의 진가는 발휘되는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 오후 2시는 어떤 시기일까. 천구(天球)에 나고 지는 태양의 섭리에 지구(地球)에 나고 지는 인간의 시간을 비추어 볼까 한다.

먼저 해가 돌아나는 새벽 6시는 아이가 태어나는 시각이라 할 수 있겠다. 말쑥하게 얼굴을 씻고 지면(地面) 위에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하지만 세상에 나타났다고 해서 다 같은 해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밤새도록 기다리는 새해 첫 날의 태양일 수도, 구름과 안개 속에 갇혀 태어난 지도 모르는 태양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아침 9시에 해당하는 열 살까지는 턱없이 어린 빛이란 사실이다.

오전 9시에서 낮 12시까지는 거의 모든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십대 때이다. 세상의 한복판을 차지하기 위해 차근차근 오르는 시기다. 아무도 알아챌 리 없을 것 같은 움직임이지만 대지는 그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다. 간간이 비추는 빛에 풀잎은 차가운 이슬을 털어내고 꽃들은 고개를 든다. 순간순간의 노력이 모여 한 발짝씩 성장하면 높게만 보이던 정상이 성큼 다가온다.

남중환 태양시(太陽時)인 정오는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스무 살이다. 그 동안의 고달픔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평생 중 가장 아름답고 멋진 시기이기도 하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고 그 눈부심에 잠시 넋을 잃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오후 2시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했다. 하늘 꼭대기를 차지한 태양은 이제야 세상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위치에 선 것이다.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가야할 곳이 어디인지를 열심히 찾아야 한다. 꿈같은 이십대를 꿈만 꾸지 않고 꿈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다. 그렇게 저마다의 시간을 그물처럼 펼쳐내어 세상을 따뜻하게 채우고 나면 어느새 햇살은 저만큼 짧아져 있을 것이다.

오후 3시를 지나 저녁 6시에 다다를 즈음이면 본격적으로 기울어져 가는 자신을 느끼게 된다. 조금씩 늘어난 삼십대의 무게는 얼굴 한구석

에 주름으로 자리 잡는다. 따뜻한 기운은 서서히 열어지고 금가루를 풀어놓은 듯 찬란했던 위용(偉容)은 점점이 햇빛 조각들을 땅 속에 박은 채 사라져 간다. 해질녘을 지나 밤으로 흐르는 시간엔 노을조차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이다. 드리워진 어둠 속에 사십대는 그림자로 남았을 뿐이다. 하지만 태양 없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 그림자다. 세상의 뒤편길로 사라질 준비보다 먼저 해 둔 것이 있다. 바로 또 다른 태양이다.

사십대의 그늘 속으로 스며들 동안 그들은 남몰래 뽀뽀한 태양을 키우고 있었다. 자식들이라는 작지만 환한 빛이다. 그 햇살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부모는 기꺼이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줄 것이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하면 떠오르는 명대사 하나가 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누구나 한 때는 부모의 태양이었다가, 나중엔 스스로 태양이 된다. 그러다 그들도 과거에 자신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태양을 길러내는 그림자로 살아간다. 세상은 어쩌면 끊임없이 ‘내일의 태양’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겠다.

빛과 그림자,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존재해야만 하는 그들 속을 헤치며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린다. 한 가득 움켜쥐었나 싶으면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시간은 무심히 흐른다. 문 앞에 서서 문득 시계를 들여다본다. 긴 초침이 오후 2시를 향해 가고 있다.



바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글을 쓰는 것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선물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공무원문예대전에 응모하여 입상한 것은 저에게 더욱 기쁨을 줄 것 같습니다.



점

목도리를 한 여인의 눈 위에 떠 있는 검은 눈동자 속에

하얀 점이 찍혀 있었다.

커다란 그림 속에 점을 찍었을 뿐인데 여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살아 있다는 것은 저런 점을 놓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십 년 전 화가가 찍었던 점이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했다.



의정부 효자고
하 상 만

점

동백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를 뜯어보면 하얀 꽃잎이 하늘에 입을 맞추는 모양으로 뭉쳐 있다. 한 장씩 뜯으면 끝에 붉은 점 하나가 찍혀 있다. 그 붉은 점이 동백꽃 전체를 붉게 물들인다. 시 쓰는 형이 내게 해준 말이다.

점이라는 단어에 필이 꽃혔다. 과학책에서 나는 우주가 점이었다는 문장을 읽었다. 고온과 고압을 이기지 못한 점이 터져서 우주가 되었고 우주는 지금도 팽창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내용들로 이어졌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작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야 겨우 볼 수 있는 점에서 나왔다는 것이 신기했다. 나무도 돌도 사람도 지구도 달도 모두 작은 점 속에 뭉쳐져 있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 묘했다. 생각해보면 나 역시 하나의 점이었다. 어머니께서 나를 뺑하고 터트려 주시자 나는 세상에 나왔다. 점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내게 꽃혀서 멀리 떠나지 않았다.

예술의 전당에 갔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였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살다간 사람이며 이십 대 시절부터 벽화를 의뢰받을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화가였다. 그는 후배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예술가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가인 김영하의 데뷔작이었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소설에서도 클림트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 전시회는 21세기 마지막 해외공연이고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전시회였다. 개막식장에는 정치인을 비롯하여 유명 패션디자이너와 배우, 화가들이 참석을 하였다.

전시회장은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층은 초기 작품들이었고 2층에는 유디트를 비롯한 그의 대표작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미술에 조예가 그렇게 깊지 않지만 클림트의 대표작들은 한눈에 알아 볼 수가 있다. 그의 대표작 유디트에 등장하는 인물의 느낌은 묘하다. 이목구비는 뚜렷한 편인데 얼굴 전체의 느낌은 흐릿하다. 마치 사진이 약간 흔들린 느낌을 준다. 몽롱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지도 모르겠다. 그의 인물은 표정이 밝지 못하고 불쾌한 느낌을 준다. 아마도 인물이 불행한 이야기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불쾌한 느낌을 준다고 해서 그의 작품을 낮게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떤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작가의 뛰어난 능력이기 때문이다.

다른 미술가들과 다른 그만의 특징은 역시 부단한 연습의 결과였다. 전시실에는 수많은 그의 드로잉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클림트의 작업실에는 그런 습작품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한다. 습작기의 모습이란 다 비슷비슷하다. 언젠가 피카소의 전시회를 관람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피카소의 많은 드로잉 습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피카소의 그것이나 클림트의 그것이나 내게 별 감흥을 주지 못했다. 사실 습작품들 앞에 서면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하품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습작의 끝에 클림트는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인물을 창조하고 몽롱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표현법을 만들어 내었을 것이다. 수많은 습작의 과정 속에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나온 무엇이 클림트를 클림트이게 했을 것이다.

많은 작품들 중에 내 눈 길을 끈 것은 목도리를 한 여인이라는 작품이었다. 목도리를 한 여인의 눈 위에 떠 있는 검은 눈동자 속에 하얀 점이 찍혀 있었다. 커다란 그림 속에 점을 찍었을 뿐인데 여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살아 있다는 것은 저런 점을 놓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십 년 전 화가가 찍었던 점이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했다. 나는 그 점을 보기 위해 안전선을 넘어 머리를 기울였다. 그냥 아주 작은 하얀 점이었다. 다른 모든 일들이 그 점을 찍기 위한 지난한 과정으로 여겨졌다. 화가는 그 점을 찍기 위해 붓끝으로 온 몸에 있는 힘을 모았을 것이다. 그리고 수십 킬로그램의 나를 멀리서도 잡아당길 만큼의 빛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뭉클하였다.

다른 화가들처럼 클림트 역시 많은 누드화를 남겼다. 그림에 문외한이 남자들은 뛰어난 화가가 왜 별로 예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여자의 누드를 그렇게 그려냈을까 하고 의문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여자의 아름다움은 얼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에만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어떤 여성이든 타인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 같은 것이 있다. 가령 목도리를 한 여인의 눈동자에 찍혀 있는 하얀 점 같은 것. 나는 그 점을 자세히 보기 위하여 허리를 숙였고 내 머리는 안전선을 넘어가서 안내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그걸 발견하기 위해 화가들은 모델들에게 이런 저런 포즈를 요구한다. 그러다 가끔 거부할 수 없는 점에 매료되어 사랑에 빠지기도 했을 것이다. 클림트는 많은 여자들에게서 그런 점들을 발견하고 사랑에 빠졌다. 그는 후에 자신의 사랑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여자들을 보며 참 예쁘다라는 말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예쁜 여자를 밝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슬쩍 내가 예쁘다고 말할 때는 얼굴이나 몸이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목도리를 한

여인의 눈동자에 찍혀 있는 하얀 빛을 발견한 것이라고 흘렸다. 내 이야기를 들은 같은 산책팀 소속인 왕씨가 그 말을 주워 다시 던졌다. 그럼 진짜 예쁜 애들은 뭐야? 그건 그 여자 자체가 하나의 점, 그러니깐 점덩어리라는 말이지. 나는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대답했다. 내 본능적인 대답에 왕씨가 깔깔 웃었다.

곧 봄이다. 내가 사는 동네에 목련 나무가 하나 있는데 꽃이 피면 아이들이 꽃잎을 따서 풍선을 불었다. 나는 아이들의 입술이 봄을 퍼트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 목련도 자세히 보면 하나의 점에서 출발했다. 나무에 찍혀 있던 작은 점이 부풀고 부풀어서 터지면 목련이 되는 것이다. 점에 대한 나의 집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 어쨌든 오늘도 또 하나의 점을 발견하고 돌아왔다. 점을 발견한 날이면 이상하게 하루가 보람되다. 참 묘한 점이다.



나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대한 내 눈이 아주 높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아름다움에는 – 하늘을 날아가는 새의 비어 있는 뼈, 스스로 몸을 찢개며 푸르러지는 나무, 내 몸에 새겨야 할 주름을 자기 몸에 새긴 낡은 구두 – 이런 것들이 있다. 그것들도 모두 하나의 점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대구 장산초교
이 옥 희

변신

내 바쁘다고 아들에게 소홀하였더니
결국 녀석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낮에는 어떠했느냐는 의사의 말에,

중세를 한마디도 말하지 못한

엄마로서의 부끄러움과 가슴 아리는

미안함에 현기증마저 났었다.

역시 생명은 쉬운 게 하나도 없나 보다.

관심과 사랑으로 큰다더니, 아들도, 콩나물도 관심만큼 빛을

내고 사랑만큼 튼실해 진 듯하다.



변신

드디어 나왔다. 얼마나 기다렸던가? 까만 모자를 옆으로 살짝 젖히고 작은 머리를 내밀더니 살포시 얼굴을 드러낸다. 연노란 빛깔의 머리에 작고 투명한 아기 손 같은 어린뿌리도 함께 나왔다. 텃밭에서 심은 채소를 가져다 먹는 이들이 부러워 집에서 콩나물로나마 위로를 할까하여 시작한 것이 꽤 가슴을 설레게 한다.

흔히들 사먹는 콩나물이 성장 촉진제를 쳤는지, 국산 콩인지, 유전자 변형 콩인지의 여부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어느새 나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장바구니에 담는 버릇이 생겼다. 엿저녁 상에 오른 콩나물이 너무 통통하다고 콩나물도 날씬해야 제 맛이라고 투정들이다.

이참에 콩나물을 집에서 길러볼 요량으로 시장에 나가 갓 수확한 약콩을 한 뒷박 샀다. 올해 수확한 콩이 맞는지 물어보는 순간에는 벌써 내 눈앞에 나란히 서서 키 자랑하는 콩나물들이 아른거렸다.

새끼손가락의 손톱보다도 더 작은 약콩들을 깨끗이 씻었다. 차가운 물임에도 손가락 사이를 찰랑거리는 감촉이 오히려 상쾌하다. 물 받은 그릇에 잘 씻은 콩을 넣고 주방 한 자리에 가만히 모셨다. 무사히 콩들이 싹을 내기를 바라는 내 간절한 마음도 함께 담는다.

이틀쯤에는 싹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싹은 보이지 않는다. 그 조그만 콩들이 다 자란 울퉁만 해지긴 했다. 하루에 서너 번씩 물을 갈아 주며 내 마음은 조바심이 났다. 콩을 잘못 샀을까, 싹틔우는 방법

이 틀렸을까 안절부절못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뒤지며 콩나물 찾아 삼만 리도 했다. 그렇게 애를 태우더니 나흘이 지나고 닻새가 되자 까만 껍질을 밀어내며 아기 손 같은 어린뿌리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여기저기에서 일제히 내민 작은 싹들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마치 서넛 살 때 아들 녀석 볼 같다.

콩나물 싹 틔우기도 이렇게 힘들고 가슴 졸이는데,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일은 더 많은 공과 노력을 들임은 어쩔 당연하리라. 아들 녀석의 귀함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결혼 후 일 년을 넘기고서야 한 생명을 주시더니, 세상의 빛도 보기 전에 주신 분 뜻대로 거두어 가고 말았다. 주위의 친구가 둘째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의 속상함과 야속함은 병어리 냉가슴만 앓을 뿐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어느 누구를 미워할 수도 없었다. 오직 그 분, 삼신할미만이 우리의 원망 대상이었다. 때로는 따지고, 때로는 매달리며 기다림의 세월이 반년, 그 시간이 있었기에 아들 녀석이 더 소중하고 감사하다.

어린뿌리를 보인 콩들은 그동안의 애태움은 어디로 보냈는지 물만 먹고도 키가 눈에 띄게 자란다. 하나 둘 껍질을 훌러덩 벗더니 노란 머리에 하얀 속살을 보이며 부끄러운 듯 몸을 살짝 쏜다.

그 고운 자태에 마음이 쏠리어 콩나물시루 곁을 지날 때마다 물을 끼었다. ‘또르르~’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거실 가득하니 집안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콩나물 색깔을 눈여겨보고 물빛을 살피며 어찌나 신경을 썼는지 자다가도 몇 번이나 일어나 물을 주었다. 공이 든 만큼의 보람이 있었는지 콩나물밥 맛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고소하면서도 아삭하게 씹히는 게 어느 고급 음식과 비할 게 아니다. 가족들도 다른 때보다 맛있더니 부지런히 물을 준 보람이 있었다.

두어 번 뽑아 먹고 조금 해이해졌나 보다. 바쁘다는 핑계로 물 갈기를

게을리 했더니 물이 연한 갈색을 띠었다. 콩나물 빗갈도 수상해졌다. 뿌리 끝부분이 누렇게 변하더니 심한 것은 병든 닭처럼 축 처진 것도 보인다. 큰일이다 싶어 부리나케 물을 여러 번 갈아 주었다. 하지만 결국 나머지는 식탁에 오르지 못하고 끝을 내고야 말았다. 텅 비어버린 콩나물시루에 아깝고 속상한 마음을 대신 채웠다.

내 바쁘다고 아들에게 소홀하였더니 결국 녀석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낮에는 어떠했느냐는 의사의 말에, 증세를 한마디도 말하지 못한 엄마로서의 부끄러움과 가슴 아리는 미안함에 헉기증마저 났었다. 역시 생명은 쉬운 게 하나도 없나 보다. 관심과 사랑으로 크다더니, 아들도, 콩나물도 관심만큼 빛을 내고 사랑만큼 튼실해진 듯하다.

작고 까만 콩이 노란 머리를 달고 미끈하고 흰 몸에 가느다란 뿌리까지 갖추며 몸바꿈을 성공시켰다. 그뿐인가, 태초에 지닌 성분에도 없던 비타민까지 만들어 갖게 되니 이보다 더 완벽한 변신을 어디에서 또 볼 수 있을까 싶다. 콩의 몸 바꾸기는 어쩔 기적이 아닐까? 콩의 신분일 때는 물에 박박 씻고 이리저리 굴리나 콩나물로 변신한 후에는 줄기가 부러지랴, 색이 변하랴 햇빛 감추고 온도 조절하며 여간 신경 써 주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변신이다. 욕심 하나 없이 물만 먹고 자라서는 갖가지 영양소를 지닌 귀한 먹을거리가 되어 여러 가지 음식으로 우리의 입맛을나게 해 주는 고마운 몸바꿈이다.

야간 자습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새벽 한두 시까지 책과 씨름하는 아들은 어떤 변신을 꿈꿀까? 녀석의 마음에는 벌써 수십 차례 변신하여 동으로 뛰고 서로 날며 오만 가지 옷을 입고 온 세상을 누비고 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힘들어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애써 주어 여간 고마운 게 아니다.

그런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까 하여 나 또한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잦다. 조용하다 못해 적막한 한밤중엔 책보다 좋은 벗이 없다. 주위에 흠어진 책들을 뒤적이니 어느새 잊었던 어린 시절의 꿈이 찾아왔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다. 까마득히 잊고 지내던 그 샛노란 빛깔의 소망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철없이 마냥 좋아 혼자서 차지한 나의 꿈, 위인전을 읽으면 그들처럼 씩씩한 용사가 되고 싶었고, 소설을 읽으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생을 움켜지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차마 입 밖으로 드러내기에 부끄러운 어린 시절의 꿈이 지금 내 선 자리를 되돌아보게 한다. 앞을 향해 나아가기에 바빴지만 정녕 원하는 방향으로 전진하였는지, 어느 순간 멈춰선 시계바늘처럼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기를 주저하며 변신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는지…….

해묵은 쿵은 찌이 트지 않는다는데, 혹 나의 변신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은근히 조바심이 난다. 소스라치게 깨어난 어린 시절의 꿈이 이제 노년의 나침반이 되어 내 갈 길을 묻는다. 어느 방향이 참 삶이냐고. 어느 쪽으로 가야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것이냐고. 그 물음의 끝자락을 잡고 이런 저런 상념이 끊이지 않는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 그림이 완성되듯 내 인생의 퍼즐 조각은 어떤 그림으로 마무리될까.

샛노랑던 꿈이 황혼 빛의 삶이 된 지금, 그래도 두려워만 하지는 않겠노라고 책상머리에 다가앉는다. 주위에 흠어진 책들이 눈에 들어오며 정신이 밝아진다. 아들의 방에서는 아직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나의 마음에도 꺼지지 않은 불씨가 서서히 빛을 낸다. 그 불빛을 벗 삼아 인생의 고삐를 바투 잡는다. 인생 후반전을 위해 운동화 끈을 다시금 동여매어야겠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해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꿈을 물었다. 그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어떤 꿈을 가졌는지 생각해 보았다. 꿈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소하게 여겨질 줄이야.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꿈을 잃었다. 더 이상의 꿈은 없다는 듯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매시간 현실을 느끼느라 꿈꿀 여유가 없었다면 위로가 될까. 책을 더 가까이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자주 갖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둥지



(전)철도청

강 별 모

아뿔싸!

까치둥지에 날벼락이다.

죽제비 한 마리가 감나무를 타고 올라가 새끼까치를 잡아먹고 있었다.

까치부부는 새끼를 지키려고 사력을 다해 공격해보지만 새끼는 이미 죽

제비 입으로 다 들어간 뒤였다.



둥지

휴일을 맞아 모처럼 고향을 찾은 나는 집안을 두루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뒤란 감나무에서 까치소리가 한창이다. 둥지에서는 새끼 소리도 들린다. 소리를 따라 눈길을 옮기다보니 까치 두 마리가 번갈아 가며 먹이를 물어 나르고 있었다.

삼사월경에 집을 짓고 부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까치가 둥지선택에 새끼를 치다니... 나는 이해되지 않는 광경을 한동안 뉘 놓고 바라보았다. 백수를 바라보는 아버지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신다. “까치 한 쌍이 나뭇가지와 깃털 등을 구해다가 보금자리를 틀더니, 며칠 전부터는 때 아니게 새끼소리가 나더구나. 희한하기도 하지. 그러고는 바쁜 게야. 강추위가 오기 전에 새끼를 빨리 키우려고 저렇듯 분주하게 먹이를 물어 나르고.”

양지바른 울타리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사람보다 민감하다는 동식물이 계절감각에 둔해진 것은 이상기온 탓이다. 겨울철에 봄꽃이 피니 까치라고 헛갈리지 않겠는가.

그날 밤, 몸이 고단하여 일찌감치 잠을 청했으나 쉽게 잠이 들지 않는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홀로된 아버지의 편안한 여생을 생각해 새로이 집 짓는 일을 추진 중인데, 부모님이 보금자리로 꾸며 칠남매를 낳아 기른 둥지를 막상 들어내려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 재재거리던 우리 형제들의 웃음소리도 귓가에 감돈다.

그러다가 막 잠이 들려는 순간 까치의 자지러지는 소리가 났다. 뒤란에서 들리는 비명이다. 나는 벌떡 일어나 등을 켜고 감나무 쪽을 보았다. 이빨싸! 까치둥지에 날벼락이다. 족제비 한 마리가 감나무를 타고 올라가 새끼까치를 잡아먹고 있었다. 까치부부는 새끼를 지키려고 사력을 다해 공격해보지만 새끼는 이미 족제비 입으로 다 들어간 뒤였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족제비는 달려드는 어미까치까지 공격해 먹어치우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야 포만감에 젖었는지 사방을 한 번 쓱~ 둘러보더니 숲속으로 이내 몸을 감췄다. 불시에 새끼와 짝을 잃은 까치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끄억~거리고 있다. 이 모두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강자와 약자사이의 사건이었다.

족제비는 닭, 토끼 등이나 탐내는 줄 알았는데 나뭇가지 위 조류의 둥지까지 노리는 일이 의아하다. 생존을 위해서 서슴없이 힘을 행사하는 족제비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힘없이 스러져간 까치의 영상이 뇌리에 가득하다. 마음도 이쪽저쪽으로 치달는다. 따지고 보면 족제비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그러하듯 허기지기에 약자를 취한 것이겠지. 먹이사슬의 그물로 보면 이해가 가는 일이나 그 무작위한 잔인성에 놀라움이 더 컸다.

그 참혹한 상황을 목격한 나는 방에 들어와 잠을 청하려 했으나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겨울에 우리 집을 찾아온 귀한 손님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마저 몰려와 가슴을 짓누른다.

예로부터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라 여겨 사람한테 많은 사랑을 받아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나는 그만 힘센 놈에게 공격당해 죽어가는 까치를 보고 말았으니….

숙면을 취하지 못한 나는 날 밝기만을 기다려 일어났다. 아침문안을 드리려고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방문을 열었다. 한데 아버지의 기색이 전과 많이 다르시다. 집안 정리하는 나를 도와준다고 전날 힘을 쓰며 무리하신 탓인지 잠을 못 주무신 눈치이다. 향년 95세, 높은 연세임에도 자식의 숙면에 방해될까봐 앓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런 마음이 부성(父性)이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찡하다.

아침식사 후 병원으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마당에 나가 심호흡을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창했던 날씨가 비나 눈이 올 듯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다. 가족 잃은 까치가 밤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감나무 아래로 가보았다. 울부짖던 까치마저 땅바닥에 뺨뺨이 누워 있다. 아버지 연세와 수령이 비슷한 감나무도 내 느낌인지 가지들이 축 처져 보인다. 괜히 불안한 마음이 앞서 달린다. 아버지와 연관 지어지는 망상에 허공을 향한 눈길이 쓸쓸해진다. 나는 도리질을 하며 스스로를 향해 최면을 건다. ‘늦게 철든 자식이 아버지로 향한 마음이란 것이, 이제 새둥지에 모셔드리는 것이어서 한없이 부산스러운데 분명 별 일은 없을 거라’고.

다시 까치에게로 생각이 머문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까치가 단란했던 한 집안의 가장으로 비친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몹시도 괴로워했을 것이다. 그래서 가족이 죽어간 그 자리에서 더 이상의 희망을 찾지 못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한 제 가족을 도와주지 못한 나를 원망하면서 죽어갔으면 어쩌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심란하다.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진다. 하늘에서는 이내 주먹크기 만한 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한다. 그 솜털 같은 눈송이가 까치를 덮어주며 조용조용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다. 약자들이 겪는 혹독한 겨울이다. 빈 등지에도

어느새 눈이 소복이 쌓인다.

저 눈이 녹을 즈음이면 이런저런 사연으로 움츠러든 사람들의 가슴에도 별이 들겠지. 감나무가지에 새순이 돋을 무렵이면, 청아한 소리를 내며 또 다시 까치 부부가 찾아들겠지. 그 노래가 시작되면 아버지도 새 기운을 얻어 헛기침소리가 담을 넘기시겠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올 공무원 문예대전 응모기회를 놓쳐 아쉬운 마음을 떨 수 없었다. 다행히 추가응모 기회가 주어져 응모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입상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다. 부족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 많은 상을 받아 보았지만 이번처럼 기분 좋은 일은 없는 것 같다. 왜냐면 공무원 문예대전은 상당히 수준 높고 권위 있는 행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입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 열심히 노력해 더 큰상에 도전해 보겠다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 나에게 희망을 갖게 해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개 꿈

혹시 무슨 김씨세요?”

조금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은 생뚱맞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금녕김씨인데요.”



“앗!”

이어진 그녀의 외마디 탄성.

“저도 금녕김씨예요”



외교통상부

김 영 수

개 꿈

저는 혼기가 딱찬 여러 미혼 공무원 중 하나입니다. 요즘 공무원 신랑이 최고의 배우자감으로 꼽힌다는데 저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상황이 이런지라 다른 분들처럼 집안의 압력도 만만치 않고 대학 시절부터 십년 넘게 혼자 살아온 것이 이력이 나기도 하고 해서 소개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인연은 이 세상 25억명 중 하나인지라 쉽게 만나지지가 않았습니니다.

얼마 전 소개팅이 한 건 있었습니다. 소개팅 날짜를 정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10월 14일, 연인들이 만나 와인을 마신다는 이른바 ‘와인데이’ 였습니다.

더구나 제가 무심코 예약한 곳이 명동의 ‘○○○○’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식당이 프러포즈 장소로 꽤 유명하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게 잘 맞아 떨어져 가는 것이 왠지 느낌이 좋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나갈까 생각했으나 좀 더 어리게 보이고 싶었고, 무엇보다 제가 워낙 슈트발을 잘 받기에 혹시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까봐 전날 구입한 회색 체크무늬 혼방 남방을 받쳐입고, 구김없이 뽀뽀하게 다린 하얀색 면바지를 매치한 가벼운 캐주얼 차림으로 깔끔하게 차리고 나왔습니다.

상대와 만나기로 되어 있는 명동역에서 바라보는 울긋불긋한 남산의 가을 정취는 마치 옛날 영화에서 본 부모님 세대의 데이트 장면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복고적인 기분마저 들게 했습니다.

차가 밀려 조금 늦는다는 그 분의 문자에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정도 더 기다린 듯 싶습니다. 워낙 맞아 떨어져가는 징조가 좋았었기에 그 정도 시간은 기대 속에 즐겁게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허벅지에 전달되어 오는 바지 주머니 속 휴대전화의 짧게 반복되는 떨림.

그 분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든 나는 저만치 앞에서 빨간 슬림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는 말끔한 정장차림의 아가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 댁소사! 예쁘시다.’

약간 새침해 보였으나 기대감이 커서였는지 그 새침함도 도도함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잠깐 인사를 하고 촉박한 예약시간 때문에 종종걸음으로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몽롱하게 아른거리는 촛불, 벽난로가 있는 아늑한 인테리어. 처음에는 표정없이 낮을 가리던 그 분도 차츰 웃음기 띠어가며 도란도란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그 분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친한 친구가 전날 자신이 시집가는 꿈을 꾸었다고 말해 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야릇한 미소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것이, 제가 아는 동생이 해준 전날 꿈 이야기가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꿈 속에서

제가 정장을 멋있게 입고 있더라는. 이게 어인 조화인가, 시집가는 꿈과 정장입고 있는 모습.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니고 이걸 필시 하늘에서 점지한 인연. 고로 그 꿈들은 예지몽이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결론 내려졌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상황들이 기승전결이 완벽한 하나의 기막힌 논리처럼 꿰맞춰졌습니다.

‘아 드디어 나도, 드디어 나도 솔로클럽을 탈퇴하는구나.’

벽찬 기대가 저를 하늘 높이높이 띄워 올렸습니다. 평소에 와인을 즐겨 마시지 않는 저였지만 그 순간 만큼은 그 한잔이 부드럽게 목구멍을 넘어가며 마음까지 달콤함으로 적셔 주었습니다. 그렇게-적어도 그 때까지는-두 선남선녀의 수줍은 만남이 기분 좋은 예감속에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김씨세요?”

조금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은 생뚱맞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금녕김씨인데요.”

“앗!”

이어진 그녀의 외마디 탄성.

“저도 금녕김씨예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김씨 가문은 좀 다를지도 모르겠으나 우리 금녕의 후예들은 너 무나 드물어 몇 년에 한 번 주위에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같은 가문의 사람을 보면 생전 처음 보았다 할지라도 아주 반갑고 친근

하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어진 천생연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이산가족 상봉 분위기로 돌변하였고 로맨틱 무드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가족애가 무럭무럭 피어올랐습니다. 더구나 이어진 대화에서 파도 같고 서열까지 같으면서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저는 항렬상 친척 오빠였던 것이었습니다. 허무하고,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는 식사값도 아까운듯 하고.

사람의 관념이나 시각이라는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같은 대상인데 전제가 바뀌니 전혀 다르게 인식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대화하며 느꼈던 편함은 피가 땀겨 느낀 편안함이었나 봅니다. 그럼 시집가고, 정장 입고 있었다는 그 꿈들은?

오호라! 이 아이가 시집갈 때 내가 정장입고 참석해서 축의금을 준다는 것이었구나.

에잇, 축의금 나갈데만 한군데 더 늘었군. 신기하다면서 연신 ‘오빠 오빠’ 하고 천진난만하게 생글생글 웃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며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피식 김센 미소를 지어 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하여 동료들에게 허무한 소개팅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느냐며 웃습니다. 저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진짜 진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진달래꽃 사뿐히 즈려밟고 오시겠지요?



2년전 있었던 실화인데요. 민법상 동성동본결혼조항이 개정된 것을 소개팅 한참 후에야 알고 아쉬운 마음을 달랠던 기억이 납니다.

부내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동료직원들의 반응이 좋아 문예대전에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의 기쁨을 오늘도 외교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외교부 직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아깝게 순직하신 故 유홍근 참서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표류 漂流

아마도 그가 방향을 모르고 표류하던 곳은 검은 절벽이 끝나는 곳이었을 것이다.

그는 단지 그런 항해에 지쳐 이쯤에서 그를 지탱해 오던 끈들을 모두 놓아버리고 싶었을 뿐인지도 모른다.

충북 보은군청
최재호



표류 (漂流)

잠에서 깨어 눈을 떠보니 죽음이란 것이 내 코끝을 간질이고 있었다. 주위는 견고하고 무거워 보이는 어둠 속이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바깥 세상은 모두 증발되어 버렸다. 아파트 불빛, 자동차 경적소리, 사람들 목소리 따위들은 사라졌다. 멀리 보이는 산은 옅은 불빛을 가로막고 누워 잠든 검은 짐승들 같았다. 어제 본 사람들을 오늘도 봐야하고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이 몇 가지 남아 있는데 문득 세상이 멈추었다. 당연히 또는 막연하게 나를 만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나는 오작동 중이다. 별 탈 없이 잘 돌아가던 시계바늘에 누군가 성냥개비를 걸어놓아 바늘이 제자리서 딸각거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머리를 일으켜 세워 무슨 영문인지 고민해본다. 기계 부품처럼 누군가를 위해 나를 소비하고 그 대가로 통장에 찍혀 가는 숫자들로 다른 부품을 마모시키는 구조의 미로 속에서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생쥐쯤으로 생각했던 내가 지금 검은 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주위를 더듬어 봐도, 형광등을 모두 켜 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문 앞에는 누군가 지켜서 있는 것 같다. 눈을 감고 시간과 기억을 더듬어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를 꿈꾸며 달아나보려 해도 이젠 내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다. 사고가 나서 의식을 잃은 것도 아니고 그냥 퇴근 후 집에서 자고 일어난 것뿐인데 누군가 나를 무심히 함정 속으로 밀어 넣은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스스로 숨이 멈추었는지 모른다. 내 코끝을 간질이던 사람은 바

로 잠든 나에게서 벗어나온 나였는지도 모른다.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제 발에 걸려 넘어지고는 무언가 다른 것에 걸려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그런 생각 중에 갑자기 아파트 전체가 움찔거렸다. 멈추었던 지구가 회전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다. 성냥개비를 치워내고 이제 시계바늘이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바깥세상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 소리도 빛도 사람도 사라진 세상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다. 원래는 이 시간이면 동이 터 와야 한다. 어린이집 차량이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와야 하고 닭장같은 곳으로 모여 층층이 같이 잠들었던 사람들이 말없이 흩어져야 하는 시간인데 나는 아무래도 그런 풍경들 속에서 실종된 것 같다. 나의 일상은 저 멀리 산허리로 경계 지어진 열은 하늘 빛 너머에 있는데 나는 그 곳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져가는 배를 타고 흘러가는 중이다. 나를 위한 뜨거운 눈물도 감촉되지 않고 애통한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거리를 걷고 있다. 셔터를 누르듯 눈을 깜빡이나 보면 항상 다른 것 같은 모습들도 다른 게 없다. 물건이나 사람이나 가격을 달리하여 구분되어져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한 순간도 같은 적이 없는 활동사진들 속에서 이것이 착시현상은 아닌지 의문이다. 잠에서 깨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나 했더니 바로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리 한 복판에 서있는 내 안에 있었다. 그는 내 눈을 렌즈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다. 그는 내 안에서 나를 잃고 나를 찾아 떠나려고 허둥대다가 그 안에 갇혀버린 것이다. 거대한 어둠과 검은 벽은 아마도 내 위장 속이든 심장 속이었던 할 것이다. 산허리로 보였던 경계는 내 숨구

명 속으로 어슴푸레 스며들던 바깥세상의 빛이었을 것이다. 내안에 웅크리고 숨어 앉아 겉옷 밖의 잠망경으로 세상을 훑쳐본다.

눈을 뜨니 이제는 그 사람이 사라지고 사람들과 도시의 저녁 불빛과 자동차들의 경적소리가 들렸다. 오늘 나는 집에 가지 않고 거리를 헤매다가 아무 벤치에서나 멈춰 잠들어야겠다. 내가 너무 멀리 흘러가 버리지 못하도록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워 줄 수 있는 곳에서 잠들어야 한다. 오늘 하루 얻고 잃은 것도 생각함 없이 터벅터벅 걷다 보면, 곤히 잠든 나를 흔들어 깨우고 머리와 심장을 갉아먹고 살던 그 사람이 토해져 나올 것이다.

내 기억 속에 거머리처럼 붙어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람을 떼어내고 나는 더 이상 눈물짓지 않고 내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과 살고 싶다.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못하는 내 안의 나는 더 이상 방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한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슴을 저미는 듯한 상처를 입고 끝내 지쳐서 돌아갈 곳에는 그가 항상 서 있어야 한다. 나는 내가 싫어 나를 놓아버린 사람의 부드러운 손길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돈과 명예와 즐거움 따위를 찾아 다니던 습성을 버리지 못하며 중독 되고 길들여진 맛에 익숙한 나는 그렇게 더 얽매어서 부대끼며 살고 싶다.

문득 내가 이 공간에서 뛰어내리면 땅으로 떨어질 것인지 궁금했다. 우주를 유영하는 것처럼 지금 나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허공 속에 떠 있는 것 같은데 날아오르지 못하리란 상식도 믿어지지 않는다. 검은 바다 위에서 내가 찾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단지 한줄기 빛이다. 그 빛을 따라 날갯짓을 하면 지금까지 내게 얹혔던 끈들이 끊어지고 생각이 한 지점으로 낙하한다는 것을 안다. 뒤돌아보면 검은 물결과문이

잔잔히 일뿐 모든 것은 지워져 있다. 그 위에 그 무엇이든 새겨 넣을 수는 없다. 어둠이 나를 키우고 지금 나를 이끄는 것은 밝은 그 무엇이다. 그 끝이 무엇이든 지금 내게 보이는 유일한 출구이다. 아픔을 두려워하는 나도 그 순간만큼은 고통도 짜릿할 것이라는 최면에 빠진다. 아마도 그가 방향을 모르고 표류하던 곳은 검은 절벽이 끝나는 곳이었을 것이다. 그는 단지 그런 항해에 지쳐 이쯤에서 그를 지탱해 오던 끈들을 모두 놓아버리고 싶었을 뿐인지도 모른다. 그가 추락하는 순간에 본 것들이 어둠이든 밝음이든, 사람이든 사람 아닌 것에 대한 것이든 그는 한번이라도 날아오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웃던 시간들을 뒤로한 채 숨을 멈추고 내 안으로 가라앉아 그 끝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든 한 번 가보려는 것이다.

그는 챗바퀴 도는 다람쥐 같은 나를 일깨우는 사람일 것이다. 집, 사람, 컴퓨터, 여성, 자동차. 보이는 것들에 한 줄을 긋는다. 나는 한 계단 더 발을 내딛는다. 너무 높이 올라갔다는 두려움에 아찔하여 뒤돌아보기도 하지만 어차피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서 내 몸은 점점 가벼워진다. 나는 저 끝에서 발꿈치로 서 있다가 내 안의 나를 날려 보낼 것이다. 새처럼 밝은 곳으로 날아올라 다시는 질척이는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뒷모습을 볼 것이다. 다른 이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가로 저어도 먼저 그 곳에 가 그들을 기다리는 그에게 미소 지을 것이다. 그렇게 항해를 마치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리를 걷고 있을 내 머리위로 살포시 내려앉아 걷다가 지치면 잠시 쉬어 또 다른 눈으로 나의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 너와 나 사이의 거리와 벽을 찢고 흘러나오는 가벼운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밝은 거리를 걷다보면 무게감이 둔해진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현란한 네온사인 불빛과 건물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무게를 채면 얼마일까 생각해본다. 밤이 되어 사람들도 사라지고 불빛도 꺼지며 건물들의 몸뚱이도 땅과 구분되지 않는 시간에 같은 공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생각해본다. 얼핏 보면 오히려 검게 다 지워진 곳이 더 육중하게 느껴진다. 적막하고 짙고 무겁게 보이는 밤이 떠들썩하고 밝으며 가볍게 보이는 대낮의 거리 풍경보다 더 가라앉아 보이지만 그 어둠 아래에는 물고기 부레처럼 어둠을 땅위로 떠 올리는 밝음이 있을 것이다. 더 무거운 것이 가라앉아 다시 밝음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 어둠보다 밝음이 더 무거운 것일 지도 모른다.

만일 같은 무게이거나 빛과 어둠에 무게가 없다고 한다면 보여 지는 모든 것들은 단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보여 지는 것들이 나와 구별되는 사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 된다. 나물이나 고기를 먹고 채워진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것은 모두 하나인데 얼핏 보기가 다르다고 하여 서로 구별 짓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저 화질 좋은 모니터로 보이는 수많은 점들의 집합체 불과할 수도 있다. 그렇게 바깥세상은 그곳에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나를 흔들어 깨우던 사람은 여전히 내 코를 간질인다.

신호등에 또 걸렸다. 차들은 밀리고 달리다 멈추고 핸들이 덜덜거리는 차안에서 나는 짜증스런 눈으로 차창 밖을 바라본다. 간판과 행인들에 시선을 잠시 빼앗기다가 다시 파란 불이 들어오면 오른 발에 힘을 주고 내달는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사람들은 봉어의 아이큐를 비웃을 권리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모르고 생각 없이 달려들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고기와 달리 나는 착시 현상 속에 산다는 생각을 한다. 착시 현상에 집착하여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다가 지쳐 잠들면 어둠 내 안에서 밝은 세상을 떠받치며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 그제야 한 가죽 옷을 벗어던지고 뛰쳐나와 거칠 것도 없이 나무도 되었다가 바위도 되었다가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다가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쯤에 내 코를 간질이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것이 내 영혼이 나를 떠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되돌아 올 때 살짝 발끝이 내 코에 걸려 간질이는 것인데, 다행히 죽다 살아난 것으로 아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 둘 중에 무엇이 진짜 나인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닫힌 그의 문을 열고 찾아 나서기로 한다. 가는 길이 있지도 않고 목적지도 보이지 않으며 그저 한바퀴 돌아 제자리로 오는 것일지라도 더 이상 상실할 것도 없고 희비와 명암이 교차되지도 않는 곳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로 한다. 그곳에서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내 손을 떠나 날아올라 가버린 것들이나 내 안에서 내가 날아 올린 것들이 모두 반갑게 나를 맞아줄 것이다. 등 뒤로 문이 닫히고 이제야 나는 밝은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오롯이 하나가 된다. 나는 나를 알아보고 나를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 미소를 짓는다. 멀리보이는 햇빛이 너울거리기 시작한다.



무엇이든 방향을 잃으면 크게 흔들린다. 먼 길을 돌아 다시 그 자리에 오게되면 서로 다른 나와 마주치게 됨을 안다. 요즘 사람들은 힘들다. 부대끼는 삶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찾아 혼자 떠나야 할 수 밖에 없는 나와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를 그려내고 싶었다.

심사위원님과 행안부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단
편
소
설
부
문



최우수상

정지선 위의 서번트 신드롬 _ 김대성

우수상

연리지 _ 김소윤

그물 _ 남경희

장려상

거미, 다가오다 _ 이재곤

군자란 _ 김영희

지상의 틈마다 안개가 스며들다 _ 김명자

고막손 _ 윤찬모



停止線 위의 SAVANT SYNDROME



‘savant syndrome’

레인맨의 더스틴 호프만처럼 발달장애나 자폐증 등으로 뇌기능 장애를 가진 자들 중에 일부가 장애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쪽 뇌가 기형적으로 발달해서 천재적인 재능을 나타내는 현상이라 한다.

동안양세무서

김 대 성



정지선 위의 서번트 신드롬

형은 명절 때만 잠시 머물다 간다.

“짐은 다 챙겼어?”

“어”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큰아이 책상 위를 더듬거리다 가방을 챙겨든다.

“라디오 하고 핸드폰은?”

“여 여기 있어”

굳은 표정으로 두툼한 오리털파카 주머니 속을 가리킨다. 160센티를 간신히 넘기는 키에 볼품없이 배만 볼록 나온 몸통과는 달리 여리고 긴 손가락을 허공으로 뻗으며 서서히 큰아이의 방을 나선다.

“아주버님 죄송하네요. 오늘 친정아버님이 오셔서 ”

“아 아니 꽤 꽤 괜찮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는 형이 현관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레인맨’이라는 영화를 우연히 혼자 본 적 있었다. 요령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생 탐크루즈와 자폐증을 가진 어눌한 형 더스틴 호프만이 등장하는데 영화가 끝날 때 까지 더스틴호프만이 나오는 장면마다 오버랩 되는 형의 모습을 떨쳐 낼 수 없었다. 그 상태에서 시력마저 없는 상황이 바로 나의 형이다. 형은 낡은 아파트 1층 출입문 옆에 주차된 세피아 뒷좌석으로 더듬더듬

기어 들어가고 나는 네비게이션에 종로구 사직동 〇〇 번지를 입력한다.

27km 13:50

남은거리 27KM, 도착예정시간 13:50 일찍부터 서둘렀는데도 차례 상만 물리고 보내기가 미안해 이른 점심까지 챙겨주고 나오느라 생각보다 늦어져버렸다. 어찌면 이번이 형이 우리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명절일지도 모른다. 형이 빠져 나온 자리에는 이제 처가 식구들로 채워질 것이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부터 형을 건사하는 의무는 다시 내게로 넘어왔다. 아내는 형이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 처가식구들은 들이지 않았지만 장모와 처제는 부자유스러운 형의 존재를 알고는 있다. 평소엔 처가식구들의 왕래가 잦았지만 그래도 아내는 그것이 늘 불만이었다. 이번엔 설날 연휴가 5일이나 되었기에 형도 내심 기대를 했으리라. 언제나 바보 같은 미소가 떠나지 않던 형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이 생경스럽다. 꾸불꾸불 좁은 동네 골목을 빠져나오자 결심 한 듯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든다. 10여 차례의 신호음이 가고서야 묵직한 중년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여보세요? 저 전 데요.”

어눌하고 더듬거리기는 하지만 오늘따라 몹시 긴장된 말투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뭐라 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위압감이 운전석까지 전해져온다. 형의 목소리가 군기가 바짝 든 신병처럼 떨렸다.

“저 여기 동생 집에 손님들이 와서 지금 복지관으로 가는 길인데요.”

곧이어 흥분한 사내의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려 퍼졌다. 형은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듣는 학생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소곳하게 처분을 기다린다. 어머니가 내게 형의 대한 의무를 넘겨주던 날 함께 지내는 사람 중에 형을 종 부리 듯 괴롭히는 사람이 있노라고 화를 내던 기억이 언뜻

떠오른다.

“장애인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여. 중간에 사고로 병신이 된 놈들은 심보부터가 빼뿔어졌다니까”

“사고 나기 전엔 뭐하던 사람이었대요?”

“뭐 강패였다나 허우대를 보니 주먹질 꽤나 허구 다닌 폼새더구만”

전화를 끊은 형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형의 통화에 신경을 곤두세운 건 나도 마찬가지다. 혹시라도 사람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복지관에 갈 수 없게 된다면 처가 식구들이 돌아갈 때까지 집근처 여관이라도 잡아 끼니때마다 들여다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5km, 13:55

안양교도소 사거리를 지나 농수산물 시장 쪽으로 향한다. 서글픈 정적이 차안을 감돈다. 라디오 버튼을 눌렀다. FM 95.9 설날특집 정오에 희망곡 프로가 흘러나온다. 여자 MC가 활기찬 목소리로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사연을 보낸 사람은 둘째며느리요 명절이나 제사 때만 되면 자신을 파출부처럼 부리는 맏동서와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평평 안기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하는 양채 막내동서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다 장남인 시아주버니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새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노라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연이었다. 형은 등을 시트에 바짝 붙이고 고개를 뒤로 재껴 허공을 응시한다. 잔뜩 찌푸렸던 형의 하관이 잠시 밝아졌다가 이내 시무룩해진다. 형은 불만족스러울 때면 고개를 뒤로 재끼곤 했다. 계획했던 날보다 이틀먼저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저리 서운해 하는데 앞으로는 명절날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어찌 한단 말인가?

“형도 알아야 할 거 아냐? 가면서 얘기 해”

“다음에”

“다음에 언제? 그러다 추석 때 또 데려 오려고! 그럼 우리 아버지는 또 혼자 지내시게. 형 생각만 하고 우리 아버지 생각은 전혀 안하는 모양이지?”

“형은 몸이 불편하잖아”

“그럼 우리 아버지는? 가뜰이나 엄마도 없는데 혼자서 밥이라도 끓여 드시겠어? 그리고 명절 때 한번이라도 우리 집에 간 적 있어?”

“그렇게 먼데를 어떻게 가나? 거기 갔다 오면 차례는 누가 지내고 형은 어찌라고!”

“당신이 장남이야? 어쨌든 다음부터는 명절 때 형을 데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가할 때 오면 누가 뭐라나”

“그럼 형은 명절날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어머니는 뭐하신대? 그런 자식 낳아 났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동생들은 없어?”

“그만하자”

“또 또 등 돌리지. 매사에 그 탄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지. 어디 맘대로 해 보라지”

설거지 통속에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덜컥 덜컥 가슴을 내려놓는다.

“동철아 그거 mbc. 95.9 맞지?”

“응”

평소와 달리 차분하게 가라앉은 음성이다. 기대보다 짧게 끝난 달콤한 휴가에 대한 서운함이거나 좀 전 통화했던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한 근심이라.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은 반드시 확인시

키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다. 형의 호기심은 언제나 피곤할 정도로 집요했다.

21km, 13: 51

인덕원 사거리를 지나 과천으로 향하는 황량한 8차선 대로로 접어들었다.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량이 일으키는 바람을 타고 커피색으로 말라 비틀어진 플라타너스 이파리들이 굴러다닌다. 명절 오후의 도심 거리는 언제나 한산하다. 더군다나 5일이라는 연휴는 수도권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방으로 밀어내기에 충분했다. 쉼쉼 겨울바람이 미처 닫혀지지 못한 창틈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룸미러에 비친 형의 미간이 잔뜩 찌푸려져 있다.

“도도 동 동철아 여기 창문이 열렸는데”

아마 얼마간은 가늘고 여린 손가락이 뒷좌석 창틈 계를 더듬었으리라. 스르륵 운전석 자동버튼으로 창문을 올려주자 굳어졌던 표정이 비로소 풀려진다. 자신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진 것에 만족했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린다. 기다리던 반응이 나오거나 마음이 흡족할 때는 예외 없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상대에게 눈빛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름 답답하니까 생겨난 버릇이리라.

형은 말뿐 아니라 손도 더듬거렸다. 한 이불 안에서 형과 몸을 부대끼고 지냈던 어린 시절 동생의 생김새를 가늠하려고 머리와 얼굴을 더듬던 형의 손길에 빗바랜 흑백사진처럼 기억된다. 어느 봄별 따스하던 날 형의 손을 잡아끌고 동구 밖까지 나갔던 적이 있었다. 겨우내 움츠렸던 땅이 기지개를 펴고 따듯한 햇살은 모락모락 아지랑이를 피워 올렸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부터 바깥구경을 소원해오던 형은 연신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을 퍼부어댔다. 그 질문에 일일이 답 하느라 봄의

정취에 빠질 겨를이 없을 지경이었다. 벌판처럼 넓은 정구지 발 끝에는 아름드리 감나무가 서 있었다. 형제는 감나무 밑동에 앉아 따스한 햇살에 몸을 맡겼다. 잠시 후 또래 아이들이 우리 주위를 맴돌았다.

“눈 봉사래요. 눈 봉사래요.....”

결국 놀림의 주동자였던 동장 아들과 주먹다짐으로 이어졌고 놈의 꼬봉이들까지 가세하게 되었다. 형이 보지 못하는 바로 그 눈앞에서 동생은 얻어 맞아야 했다. 모진 주먹과 발길질 아래에서도 동생은 아파할 형의 마음이 더 건디기 힘들었다. 그날 이후 형은 바깥구경을 원하지 않았고 형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부끄러운 대상이 되어버렸다. 철저히 형을 숨기고 살았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귀어 온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도 우리 집에서 잠을 자기 전까지는 그에게 난 장남이었다. 어두운 방 구석진 곳에서 더듬더듬 혼자 밥을 떠먹는 형의 모습을 지켜본 친구는 내게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 몇 년 후 포장마차에서 뒤통리처럼 형의 얘기를 털어놓았을 때 친구는 말없이 빈 잔에 소주를 부어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넌 착한 놈이잖아”

형에 대해 친구가 건넨 유일한 한마디였다.

16km 13:49

늙은 세피아가 비명을 지르며 남태령을 넘어간다. 관악산을 내려온 등산객들이 간간이 눈에 띈다. 정상까지 올랐다가 내려오는 중이라면 아마 꼭두새벽부터 서둘렀으리라. 13시를 알리는 시보와 함께 뉴스가 시작된다. 남북의 갈등과 여야의 다툼이 어제와 다를 바가 없다. 경제 소식 또한 암울하기만 하다. 도무지 끝을 알 수없는 유가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휘발유가 리터당 2천원을 넘기는 건 시간문제라고 떠들어댄다.

“도도 동 동철아 이차 기름으로 가지?”

“어”

“무 무슨 기름? 참 참기름?”

입 꼬리가 양옆으로 살짝 올라간 채로 등을 시트에서 떼고 고개를 살짝 숙인채로 멈춰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잔뜩 기대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사내는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설마 저걸 유머라고 했는지 의심스럽다.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 모른 채 한다.

“동 동철아 그럼 휘발유로 가는 거 맞지?”

“그래”

“휘발유가 얼마데?”

우문에 현답으로 대꾸하려면 몹시 피곤한 법이다.

“비싸”

“비싸? 얼마나”

“많이”

한참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형이 침묵을 깨뜨린다.

“도 동철아! 안양 너네 집에서 우리 복지관까지 가려면 기름이 얼마나 들어?”

“글쎄,”

형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제대로 된 질문이다. 갑자기 던져준 귀찮은 숙제에 머리를 굴려본다. 거리가 27km이고 연비가 리터당 10km로 잡는다면 3리터 정도 소모되려나? 그건 정속을 했을 때 얘기고 시내를 관통하니까 조금 더 들겠지 1리터? 아니 한 2리터. 어림잡아 1리터에 2천원이면 만원이라는 계산이다.

“만원”

마지못해 시큰둥하게 대답해주었다.

“그렇게도 많이 들어!”

형의 표정이 자못 심각해졌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택시비용 보다는 훨씬 덜 드는 편이다. 형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고역이었다. 형은 충주 시내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다. 천주교 단체에서 장애아동을 위하여 설립한 시설이었고 달리 갈 곳이 없었던 형은 초 중등 과정을 두 번 씩이나 더 다녀야했다. 방학이 시작되면 어머니와 함께 형을 데려 왔다가 끝나면 다시 데려다 주는 일을 반복했다.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일은 고스란히 내게로 넘겨졌다. 동구 밖에서 한참을 기다려 버스를 탔다가 천호동사거리에 내려서는 다시 마장동 터미널행 버스로 갈아탔다. 충주터미널에서도 학교로 가는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여정은 아직 고등학생인 나에겐 고되고 버거웠다. 더군다나 두꺼운 점자판과 책들이 가득한 책가방과 몇 달치 옷보따리까지 들어야 했으니 한마디로 난민의 행색이 따로 없었다.

어느 해 겨울에는 얼어붙은 길을 걷다가 물건들과 함께 땅바닥에 나뒹굴었던 적이 있었다. 싸늘한 시선들 속에서 정신없이 책가방속 내용물들을 주섬주섬 집어넣었다. 다음날 편지를 쓰려는 형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서야 점필을 잃어버린 걸 알았다. 결국 형은 방학숙제 뿐만 아니라 유일한 낙이던 친구들에게 편지 쓰는 일까지도 못하게 되었다. 형의 탄식소리만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해 겨울은 무척이나 길었다. 사실 몸이 힘든 것 보다 장애를 천형으로 여기는 시선들이 더욱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 무렵 우리 동네에는 마주치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한 학년 위 여학생이 살았다. 겨울 방학이 시작되던 어느 날 책가방을 든 형의 다른 편에서 팔짱을 끼고 나머지 손으로는 옷 보따리를 들고 동네 어귀

로 들어서다 그녀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말았다. 순간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느낌에 다리가 얼어붙었다. 형도 자연스레 걸음을 멈추었고 잠시 당황한 시선으로 형제를 번갈아보던 그녀는 말없이 멀어져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 후 혹시라도 버스를 기다리는 그녀를 보게 되는 날이면 지각을 감수하고서라도 먼발치에서 숨어 기다리다 다음 버스를 타야했다.

11km 13:54

총신대역 사거리를 지나 동작대교 하단으로 접어들었다. 힐끔 내려다 본 고수부지에는 잔뜩 웅크린 유람선 주위로 몇 몇 사람들이 날린 가오리연들이 몸을 흔들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갑자기 높은 하늘로 비상하기 시작한다. 저쪽 하늘 아래가 천호동쫘 되리라. 한때는 나도 저런 처럼 날고 싶었다. 하지만 언제나 발목을 잡아끄는 형이라는 존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형 때문에 주눅 들고 움츠린 채 살아야했다. 그레 바로 저 형만 없다면 나도 멋지고 자유롭게 날개를 펼치고 날았을 것이다. 가난으로 학업을 중도에 접었을 때도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을 약속한 여자에게 어렵게 형의 존재를 알리던 날 흔들리는 그녀의 눈동자를 보고 느꼈던 수치스러움은 아직도 선명한 아픔으로 남아 있다. 가당치도 않은 혼사를 허락했으니 감지덕지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장모의 으름장에 아무도 모르게 눈물도 삼켜야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도도동 동철아 너는 회사에서 월급으로 얼마나 받는데?”

월급이라 매달 손에 쥐는 게 2백 5십만원 정도나 될까? 그것도 남다른 아내의 교육열로 수입의 절반 이상은 사교육비로 증발해버린다. 마이너스 통장과 싸움의 연속이다.

“이백 오십만원”

언제나 그렇듯 형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괜히 평달은 어떻고 보너스 타는 달은 어찌니 했다간 구구절절 설명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야! 그렇게나 많아”

“많은 건 아니야. 태균이 하고 태영이 학원비 주고 나면 얼마 남지 못해”

“학원비? 학원비가 얼마데?”

대답을 하고 나니 괜한 말을 했나 싶다. 형은 고개를 숙인채로 멈춰서 대답을 기다린다.

“응. 한 백만원”

“뭘? 백만원! 매달?”

“응”

형의 얼굴색이 이내 어두워졌다.

“동 동철아 지금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구 구 구 구백만원. 병갑이 형이 그러는데 삼천만원만 있으면 장가 갈 수 있대 삼 삼천만원 있으면”

그렇게 말해놓고 고개를 끄덕거린다. 생각보다 많은 액수다. 세상이 좋아져 몇 해 전 부터 형 앞으로 매월 장애수당이 지급된다고 한다. 함께 생활하는 다른 장애인들은 통장에 입금되기가 무섭게 찾아 써버린 다지만 형은 꼬박꼬박 모아두는 모양이다. 장가라고? 형도 결혼을 해야 하나? 하긴 그러고 싶을 것이다. 형도 남자니까. 그런데 형이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천 치같은 형에게도 존재할까? 어쨌든 형이 정말 결혼이란 걸 할 수만 있다면 나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비록 가당치 않은 꿈이라지만 그

런 꿈마저 꾸지 말라고 굳이 막을 필요까진 없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어떨까? 분명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 뒤치닥거리는 어쩔거냐고 거기서 낳는 아이는 또 누가 책임 질 거냐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룸미러속 형은 뭐가 그리 흡족한지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다. 세상에 아무 낙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았다. 그저 명절 때 와서 돼지고기를 빼낸 꼬지에 청주를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일 줄로만 알았다. 아내가 만든 식혜를 들이키는 형의 모습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마지막 남은 한 방울도 아쉬운지 마치 그릇을 씹어 먹을 듯한 기세로 훑아 먹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가슴이 아렸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형도 장가가야지”

공허한 독백이 공연히 앞좌석에서만 맴돌다 가라앉아버렸다.

7Km 13:55

동작대교를 건너 우측으로 돌아 서빙고역을 지나쳐 이태원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충을 든 흑인 초병 둘이서 잡담을 한다. 저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지구 반대편에 두고 온 고향의 초원일까, 아니면 거기에서 함께 뛰어놀던 어릴 적 친구들일까, 그도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변심일까? 지루한 담벼락이 끝나자 다양한 이국의 언어들이 쏟아져 흐르고 어깨를 움츠린 이방인들의 발걸음이 미끄러운 보도블록 위를 더듬는다. 남의 나라 명절의 들뜬 분위기로부터 소외된 탓인지 당당하던 여느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어쩌면 형의 삶도 주위에 활기찬 분위기로부터 주눅들어 왔던 건 아니었을까?

“도도동 동철아 설운도 노랜데 혹시 ‘그런 여자 없나요’ 라는 노래 들어봤어?”

“아니”

“한번 불러볼까?”

“맘대로 해”

고개를 몇 번 끄덕거리며 흡족한 미소를 짓더니 노래를 시작한다.

“친구도 좋아요 애인도 좋아요 누구라도 좋아요 혼자 있는 건 죽기보다 싫어요 외로워서 싫어요..... 영원히 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여자 힘들고 쓰러질 때 안아 줄 그런 여자 없나요.....”

참 가사 하고는 어쩌면 저렇게 자신의 처지와 딱 맞는 노래를 골랐을까. 호흡처리가 미숙해서 발성이 툭 툭 끊기는 영성한 노래였지만 애절하게 와 닿는다.

‘savant syndrome’

레인맨의 더스틴 호프만처럼 발달장애나 자폐증 등으로 뇌기능 장애를 가진 자들 중에 일부가 장애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쪽 뇌가 기형적으로 발달해서 천재적인 재능을 나타내는 현상이라 한다.

한때 나는 형이 천재인줄 알고 살았다. 사실 적어도 어떤 면에선 천재다. 굴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형에게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재주가 있다. 절대 음감은 아무에게나 내려주는 축복이 아니다. 한때 신기루처럼 음악을 꿈꿔오던 나로서는 가장 부러워하는 능력이었다. 수많은 피아노 건반 중 어떤 것들을 짚어도 음들의 위치를 귀신같이 잡아낸다. 뒷받침이 되었더라면 음악인으로 성공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뿐 아니다. 자신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한 기억력이 탁월하다. 하지만 세상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이 초등학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이 인지 가능한 만한 분야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기껏해야 본인이 살아온 인생 여정에 대한 기록을 기억하는 정도 밖에는 그 능력

을 활용한 적이 없다. 믿기 어렵겠지만 형이 본격적으로 기억을 시작했던 일만 구백 날의 모든 요일과 그날의 날씨와 발생했던 일들은 형의 뇌 세포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 어두컴컴한 골방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얻어진 전리품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왔으리라. 만약 컴퓨터가 발명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지금처럼 바보에다 장애까지 짙어진 세상에 전혀 쓸모없는 천치가 되어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도도동 동철아 이차 이름이 세피아지?”

“그래”

“이차 1997년 12월 16일에 산거 맞지?”

“알면서 왜 자꾸 물어 피곤하게”

“그때가 화요일이지?”

“난 몰라 그건 형이 더 잘 알잖아”

“그때 첫눈이 왔었는데”

분명 형이 있던 지역에서는 첫 눈이 왔으리라. 형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다. 10년 전 차를 바꾸고 처음 형을 데리고 오던 날에도 형은 질문을 퍼부었었다.

“도 동철아 그런데 여기 주머니 속에 이건 뭘데?”

신호대기 틈을 타 뒷좌석을 넘겨다보니 앞좌석 후면 시트에 달린 주머니를 더듬거리고 있다.

“휴지야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공짜로 주거든”

“도 동철아 이 주머니에는 뭐 넣는 건데?”

주머니 앞에 따로 달린 작은 포켓을 더듬거리다.

“그냥 휴지보다 중요한 거 넣겠지”

“중요한 거? 어떤 거?”

“몰라”

“그럼 돈?”

“그래”

귀찮아서 그렇다고 해버렸다.

“아이쿠 여기 돈이 하나도 없네? 어제 짐질방에서 다 써버려서 없지?”

“아니야 집에 가면 많아”

“얼마나 있는데?”

“몰라 그건”

어릴 적부터 형은 목욕탕을 좋아했다. 집안에 목욕시설이 없었던 시절 형의 목욕탕 동반자도 역시 나였다. 둘이서 동네 목욕탕을 들어가는 것 또한 사춘기 소년에게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형제의 일거수일투족이 주위 사람들의 관심꺼리가 되었던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역만리 낯선 나라의 명절에서 소외된 저 이방인들의 처진 어깨처럼 운신의 폭이 좁았고 조심스러워야 했다. 그런 내 심정은 아랑곳 않고 형은 마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흡족해 했다. 정작 자신은 결코 볼 수 없는 마치 달관한 부처의 미소처럼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런 표정. 어린 시절 그 미소를 보면 오히려 화가 치밀었다. 자신 때문에 힘겨워야 하는 존재 따위에는 전혀 관심 없는 듯 어찌면 날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등이 시뻘게지도록 까칠한 때 타올로 벽벽 문질러댔다. 형은 감각을 잃어버렸는지 아프다는 엄살 한번 부리지 않았고 그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는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다.

2.5km 13:58

남산터널을 통과한 세피아는 완만하게 꺾인 내리막 커브를 급하게 내달린다. 회현동 신세계 앞 사거리가 시야에 들어온다. 서울역에서 퇴계로를 잇는 고가 아래로 여러 개의 파란불이 가로로 도열해 있더니 이

내 노란색으로 바뀌어 점등한다. 이런 상황은 언제나 갈등을 안겨준다. 내리막이라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제대로 정지해 줄지도 의문이고 더구나 가속을 붙여놓는데 소모된 휘발유도 아깝다. 에이 그래 그대로 밀어 붙이기로 결론을 내린다. 세상사는 언제나 찰나에 결정되는 법이다. 여태 그래왔듯 깜박이는 황색등을 농락하고 적색등이 점등한 신호등 아래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였다. 그때였다 내속에 악마가 꿈틀거리기 시작한건. 만약에 말이다 좀 전 퇴계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우리차를 들이받았다면 바로 형이 앉아 있는 부분이었을 것이고 그럼 형은 어찌되었을까?

한국은행과 대한항공 빌딩 사이 소공동 길을 벗어나자 시청 앞 광장이 기다리고 있다. 형형색색의 만국기가 펄럭이고 여러 나라의 전통복장을 갖춘 사람들이 개미 떼처럼 흩어져 있다. 월드컵으로 돌아올랐던 작년 6월 이곳을 붉게 물들였던 광경을 티브이로 보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형은 축구를 좋아했다. 둘이서 축구를 할 때면 형은 언제나 골키퍼였다. 오래된 아파트단지에는 사각지대가 군데군데 웅크리고 있다. 눅슬고 낡아빠진 미끄럼틀과 그네뿐인 놀이터는 따분한 꼬마들마저 외면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물론 큰 아들놈이 다니는 집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공간이야 많겠지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찾아야 했다. 형이 두 팔을 뻗으면 닿을 만하게 골대를 만들어놓고 솟을 날린다. 정확이 말하자면 솟이 아니고 패스다. 형은 굴러 오는 소리만으로 공을 잡아내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는 고개를 끄덕거린다. 깜박이는 황색 신호등 아래에 선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무교동 뒷길로 접어들었다.

언제인가부터 내 속에서 악마가 자라기 시작했다. 친구는 나를 착한

놈이라 했지만 날 모르고 한 소리다. 어차피 내가 지고 갈 운명이라면 맘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숨겨진 악마를 보았다라면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리라. 형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오래 전부터 가져왔었다.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려 나로서도 도저히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다면 아무런 가책 없이 형의 존재가 그렇게 사라져만 준다면 참으로 고맙겠다고 바래왔었다. 그래도 생사도 모른채 어딘가로 끌려가는 것은 싫었고, 죽을 병으로 신음 하는 것도 싫었고, 되도록이면 짧고 작은 고통으로 떠나줬으면 했다. 어차피 잘못 태어난 인생 팔시받지 않으면서 제대로 다시 시작하는 편이 어찌면 형에게도 좋을 거라고 합리화시켜 나갔다. 악마가 자라기 전만해도 나의 유일하고도 준비된 소원은 형이 눈을 뜨는 것이었다. 정말 그리만 된다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를 위해 내 평생을 바치며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다. 새벽기도에 나가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기도를 올리고 돌아온 날도 적지 않았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세상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있음을 알게 되었고 부질없는 기대로 시간을 낭비하는 미련한 짓도 하지 않게 되었다.

760m 14: 05

KBC 2시 뉴스입니다. 김대박 대통령 당선자는 설날을 맞아 주변에 불우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자고 주문하며 서울역 부근 쪽방촌 독거노인들을 찾아 금일봉을 전달하였습니다.....

“도 동철아 김대박이 이제 대통령이지?”

“응”

대통령이 누가 되던 형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그래도 형은 자신이 인지가능한 모든 분야에서는 어김없이 호기심을 발동시킨다.

“지금 어디쯤 왔는데?”

“거의 다 왔어 광화문이야”

“도 동철아 광화문이 청와대 정문이지? 청와대도 보여?”

“응”

“어떻게 생겼는데?”

사실 꼬리를 물고 늘어선 차량의 꿈무니들만 보일 뿐이다. 하지만 편리한 답변을 위해 그동안 티브이뉴스에서 보아왔던 청와대 이미지를 떠올린다.

“파란 기와지붕으로 된 집이야”

“기와? 기와가 뭘데”

“흙을 돌처럼 구워서 만든 거야”

“머? 돌? 흙이 구워져”

또 실수를 했다. 지금부터 끊임없는 질문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도 동철아 그런데 돌을 지붕에다 올려놓는데도 집이 안 무너져?”

“돌을 얇게 만들어서 괜찮아”

“돌을 어떻게 얇게 만드는데?”

“.....”

광화문 삼거리 좌회전 대기시간은 지루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진 입을 하려는 순간 황색등이 점멸한다. 앞차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브레이크 등이 켜진다. 세상사는 언제나 찰나에 결정되는 법이다. 정지선을 지나 앞차를 피해 바깥쪽으로 크게 궤적을 돌며 가속 패달을 밟았다. 끼이익익 바로 옆에서 터져 나오는 섬뜩한 파찰음. 엑셀에만 힘이 들어간 오른발에 결코 브레이크가 걸릴 리가 없다. 그렇다면 분명 나아닌

누군가의 긴급한 제동이다. 그것도 나의 애마와 닿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걸 느낄 찰나 늙은 세피아 안에는 종말이 오고 말았다. 오른쪽 어깨와 머리통이 뒷좌석 형에게로 강하게 쏠렸다.

형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사방에서 크락손이 울어대고 누군가 운전석 문을 열어 재긴다. 어깨를 흔들며 괜찮냐고 물어온다. 애써 모른 체했다. 그리고 싶다. 지금 이 순간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다. 감히 형 쪽으로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뒷좌석 문은 양쪽 모두 열리지 않았다. 누군가 다급하게 무어라 소리를 지르지만 무슨 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멀어졌다. 정적이 흐른다.

“형”

차마 형 쪽을 돌아보지는 못하고 나즈막히 떨리는 음성으로 무거운 입술을 열었다. 역시나 아무런 기척이 없다. 웅 웅 모기소리만 하던 사이렌들이 점점 가까워진다. 그것들이 응당 이리로 오고 있으라는 확신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묘한 흥분으로 이어진다. 갑작스런 인기척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다 뒷목에 시큰거리는 통증이 일어난다. 시야로 들어오는 세상은 멀쩡했다. 받친 곳은 내 자리의 정반대쪽이고 형은 무방비로 앉아있었을 것이다. 모든 일은 악마의 구상대로 완벽하게 처리되었다. 형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설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그 미소일까? 궁금하지만 돌아보기가 두렵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우지끈 거리며 뒷좌석 문짝이 비명을 지른다. 킁킁 몇 번을 거듭하였지만 소용이 없는 모양이다. 웅 날카로운 전기톱소리가 가까워진다. 그래 차라리 잘됐어 혼자 있는 거 외로워서 싫다고 했지 죽기보다 싫다고 했지 그래 그런 세상 미

런 없이 떠나 버리는 거야. 잘됐어.

목에 기브스를 한 채로 형을 보냈다. 형이 떠나는 날 비로소 직장 동료들에게 형의 존재를 밝혔다. 타인의 눈에 자리한 내 모습 한 칸에 그늘이 치워졌으니 이제부터 어디 가서든 주눅들 필요가 없다. 형에 관한 질문에도 거짓대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 두 아들에게도 미안할 이유도 처가 식구들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다. 형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만큼이나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으로 떠났다.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형의 육신이 재가 되어가는 두 시간여 동안 이 엄청난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나라는 죄책감에 꼼짝을 할 수 없었다. 형을 마지막 보내는 길의 동행자도 역시 단출했다. 나와 친구 그리고 이제는 가루가 되어버린 형뿐이었다. 아버지가 묻혀있는 양평으로 무작정 향하다가 양수대교 근처 인적드문 강변 갈대숲으로 숨어들어가 쫓기듯 뺄 가루를 뿌렸다. 평생을 좁고 어두운 골방에서 웅크리고 살아온 형이 죽어서도 항아리 속에 갇혀 있는 것만큼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다. 납골당에 안치하자는 아내와 동생의 만류에도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회색 잿가루 된 형을 내 버리는 동안에도 형에게 감히 미안하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고 형은 끊임없이 질문을 퍼부어댔다.

“도도동 동철아 여기가 어딘데?”

“북한강”

“북한강? 그럼 북한이겠네. 그럼 북한 사람들도 보이겠네?”

‘.....’

“도 동철아 여기 축구하면 공이 물에 빠지지?”

“저기 넓은 데서 하면 괜찮겠지”

“도 동철아 추석에도 여기 와서 축구 할까?”

“아니 못 와”

“왜 여기가 부 북 북한이라서?”

아무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그러면 왜 미안한데? 물을 짓이고 거기에 준비된 대답이 없었다. 돌아오는 친구의 차안에서도 무거운 침묵은 이어졌다.

추석이 가까워지자 명절 준비로 부산하다. 이젠 형을 데려왔다가 처가식구들이 들이 닥칠 때에 맞춰 형을 데려다주는 귀찮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번거로운 일에서 해방되니 모든 일이 한결 수월하게 진행 된다. 새삼 새털 같은 자유로움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스며든다. 차례를 지내고 남은 청주는 조리용 양념으로 용도가 바뀌었고 돼지고기 뼈꼬지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다. 차례음식을 만드는 아내의 표정은 밝았고 아이들을 나무라는 목소리 또한 부드러워졌다. 차례 상을 물린 24평짜리 낡은 아파트는 이내 처가식구들로 채워졌다. 세 살배기 조카부터 칠순 장인까지 포화상태가 된 집안은 며칠 동안 몸살을 앓았다. 조카들은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목청껏 높여 부르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놈들은 집안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시켰다. 설거지 통 속에 그득한 마시다 남겨놓은 식혜 그릇들 속에서 형의 행복한 미소가 흔들거렸다.

“도도동 동철아 식혜는 뭘로 만드는데?”

“엿기름”

“엿기름? 엿에다 무슨 기름? 참기름?”

“아니 그냥 엿 만드는 기름이야. 제발 그만 좀 물어 나도 모르니까!”

형을 귀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순간들이 새삼 가슴을 저며 온다. 연휴 하루를 남기고서야 모두 돌아갔다. 나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적

막이 찾아들었다. 우리는 공기가 그렇듯 고요가 가져다주는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간다. 억지 화투놀이에 지치고 술에 찌들어 노곤해진 몸을 내려다본다. 제 구실을 하며 산다는 것이 새삼 버겁게 느껴진다. 문득 양평 강변에다 뿌리고 온 형이 떠오른다. 형은 지금 얼마나 자유로울까? 만약 형이 살아 있다면 차례를 마치고는 아이들의 세배를 받았을 것이고, 돼지고기를 뺀 꼬지에 청주를 마시고 오후엔 아무도 없는 놀이터 구석진 곳에서 형과 축구를 하고 저녁에는 찜질방에 갔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뽀루통한 아내의 표정을 뒤로한 채로 형이 떠난 자리엔 이내 처가 식구들로 채워질 것이다. 결혼 후 분가를 하면서부터 한동안 형의 존재를 잊고 살만큼 달콤한 자유를 얻었던 적이 있었다. 형에 대한 의무가 어머니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도 갈구하던 형으로부터 벗어난 후에도 내 인생은 그다지 달라진 게 없었다. 형에게 할애했던 알량한 시간의 빈자리를 나태로 채우면서도 그동안 날개를 펴지 못했던 책임을 형에게로만 떠넘겼었다.

* *

경북공역을 지나 사직동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어 이리저리 해매이다 간신히 주차를 했다. 형제는 한참을 걸어 길가에 방범창이 붙은 허름한 단독주택 앞에 섰다. 초인종 소리에도 아무런 기척이 없다. 칼바람이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든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집안은 깊은 어둠속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좁고 어두운 거실 벽 커다란 사진 안에는 네 명의 중년 남자들이 주문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이곳을 찾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용이다. 모두가 억지웃음을 지었지만 맨 앞 어깨를 움츠린 낮익은 사내의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

었다. 안방 문이 열리면서 오 십 줄에 들어선 긴장한 사내가 굳은 표정으로 걸어 나온다. 사진 속의 당당하던 사내는 무엇이 그리 못마땅한지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다. 비록 시선은 초점 없이 허공에 두었지만 팔팔한 목소리엔 날이 섰다.

“이렇게 빨리 올 거면서 뭐 하러 가?”

사내는 대뜸 소리부터 지른다. 형에게 하는 말이라지만 실은 나를 겨냥했으리라

“처갓집에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장인어른이 오시는 바람에”

사내 앞에서 형이 그랬듯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구차한 변명을 더듬거린다. 우선은 노여움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그래야 형의 신상에도 이로울 것이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데려가지를 말던가? 뭐 하는 거야 놀리는 것도 아니고 데려 갈 때는 언제고 연휴가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하나?”

사내는 점점 기고만장해졌다. 마음 같아선 먹살이라도 틀어쥐고 싶지만 뒤따르게 될 일이 두렵다. 만약 내가 사내의 몸에 손을 댄다면 공무원이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뉴스거리가 한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닐 것이다.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사내는 두려울 것도 없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죄송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리 화가 났고 내가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그렇듯 형과 연관된 일이라면 주눅부터 들어야 했고 기를 펴지 못했다. 이젠 이런 상황에 익숙할 법도 하건만 당할 때마다 느껴지는 억울함이 새삼스럽기만 하다. 잔뜩 고개를 이쪽으로 숙이고 안절부절 상황을 살피는 형의 모습이 안쓰럽다. 순간 사내에게 무조건

당해야 하는 우리 형제의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져 울컥 화가 치민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저한테 반말 하신 겁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 목소리에 자신도 놀랐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법이다. 더 이상의 수모는 견딜 수가 없다.

“뭐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럼 자기들만 편하려고 병신 형은 나 몰라라 해도 된다는 말이야?”

생각지도 않은 일격에 잠시 멈칫하던 사내가 이내 얼굴색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이쪽으로 샷대질을 하며 다가온다. 사내의 몸놀림이 민첩하진 않아도 한걸음 한 걸음 가까워질수록 중압감에 가슴이 짓눌려 온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 두면 꼴만 우습게 되어 버린다. 그래 될 대로 되라 정 안되면 형을 우리 집으로 데려다 놓는 한이 있더라도 물러날 수는 없다.

“당신이 뭘데 남의 집 일에 상관인데?”

사내의 덩치는 나보다 훨씬 컸다. 솔뚜껑처럼 큰 손이 내 눈앞에서 어른거린다.

“뭐야? 이런 육시렁할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당신 공무원이지? 그래 잘 하면 사람 꽤겠네. 당장 나가서 물어볼까? 네놈이 잘하는 짓인지?”

“뭐? 육시렁할 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순간 먹살을 잡힌 내 몸이 들러지고 애처로운 발이 맥없이 허공을 버둥거린다. 목이 죄여져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때였다 사내의 희멀건 눈알에 주먹이 떨어진 건.

군데 군데 검 딱지가 시꺼멓게 엉겨붙은 마루바닥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지낸지 하루가 넘었다. 밤새 철창을 붙잡고 난동을 부리던 주정꾼은 날이 밝고서야 잠시 잠이 들었다가 가족에게 넘겨졌다. 철창 밖 아

내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있었다. 그 눈빛에서 결혼 전 형의 존재를 처음 알리던 날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빛이 겹쳐졌다. 검찰의 조사와는 별개로 내가 소속된 부서의 윤리 계에서도 사람이 파견되어 특별면회를 신청해왔다.

“당신 때문에 우리 청 위상이 얼마나 추락한지 아시오? 판결이 어떻게 나든 중징계는 면할 수 없을 것이요. 재판결과에 따라 파면까지도 될 수 있으니 어떻게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부터 하시오”

두 사람의 협박을 듣는 내내 나의 시선은 줄곧 그들이 등지고 있던 청회색 페인트로 칠해진 미끈한 벽만 응시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더는 나빠질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사내는 예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연필심 만 한 구멍들이 수 십 여개 뚫려진 뿌연 아크릴 판 밖의 아내로부터 20년 된 낡은 아파트가 처분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다음날 아침 구치소 정문 앞에서 친구는 어정쩡한 미소로 두부 덩이를 내밀었다.

“괜찮아 그래도 넌 착한 놈이잖아”

돌아오는 친구의 차안에서도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 *

“아니 왜 말이 없어? 나가서 물어보자니까? 당신이 얼마나 잘했는지?”

거친 사내의 손이 내 멍살을 틀어잡을 찰나였다.

“도도동 동철아 이제 넌 가가가도 돼 가 봐 어서”

익숙한 형의 손길이 내 얼굴을 스치는가 싶더니 나를 안아 현관 쪽으로 밀쳐낸다. 형의 목소리가 심하게 더듬거렸다. 그렇게 떼어 놓고 사내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거린다. 극도의 불안에 빠진 몸짓이다. 예상

치 못한 형의 반응에 사내가 멈칫 하더니 멀뚱히 서있다. 잠시 어정쩡한 침묵이 흐른다. 어쩌면 저 사내는 자신을 버린 가족에 대한 서운함을 폭발시켰을지도 모른다. 처음이다. 형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 준 건. 형의 모습이 한없이 커 보인다. 어린 시절 감나무 아래에서 동생이 얻어맞는 광경을 무력하게 바라보던 형이 아니었다.

“형 이거는 부침개고 이건 식혜야”

음식물이 담긴 비닐 봉투를 형의 손에 쥐어 주고 현관문을 나섰다. 형이 문 밖까지 따라 나온다.

“그냥 들어가”

“아참! 도도동 동철아”

“왜”

“있지 뒷좌석에 도 돈 넣는데 있지? 내가 거기다 팔 팔 만원 넣어 봤으니가 가다가 휘 휘발유사서 넣어. 알았지? 혹시 도 돈 남으면 찜질방에도 가고”

“참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지금껏 악마에게 사로잡혀 몹쓸 생각을 해왔던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럼 잘 있어”

몇 걸음을 떼다가 용감한 형을 돌아보았다. 형은 여전히 이쪽을 바라보며 흡족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참 형 다음 추석 때는 일찍 데리러 올게 찜질방에도 가고 운동장에 가서 축구도 하자”

“뭐 운동장? 운동장은 어디 있는데?”

“태균이 학교 운동장이야 집근처에 있어”

“그래? 좋지~ 참 도도 동철아 가 갈 때 시 신호 잘 지키고 조 조심해

서 운전하고 가”

“그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골목을 벗어나는 내내 형은
이쪽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한때 세상의 밝고 아름다운 면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노래만 불렀다. 목이 쉬도록 노래를 해도 점점 늘어만 가는 세상의 신음소리는 무기력을 안겨 주었지만 어둡고 초라함 속에서도 솟아나는 기쁨을 노래하고 싶었다.

소설이란 아파야 한다. 아픔 속에서 희열을 느끼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고 싶었다. 가난을 이어받고 장애를 숙명처럼 짊어진 형제에게 달콤한 사랑이라는 건 사치스러운 놀이이고 가당치 않은 꿈이요 포기해야 할 삶의 일부였을 뿐이다. 그래도 형제의 끈끈한 정은 희열이요 희망이었다.

끝으로 낙점해 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내게 주어진 새로운 출발선에서 곧 울려 퍼질 총성을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기다려본다.

연리지



전주시청

김 소 윤

그러다, 그러다, 나는,
운명처럼, 그것을 보았다. 아아, 원장은 실로 나의 천사요, 은인이었다.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두 나뭇가지가 하나로 이어진, 두 그루의 나무였다.

“연리지라고 하는 거야. 예복아. 저게 말이다. 뿌리가 다른 두 나뭇가지가 마치 한 나무에서 자라는 것처럼 엮여져 자라나는 거라는데, 신기하지? 사랑하는 연인들의 하나됨을 비유하기도 해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연인들이 그 사이를 지나간댄다.”

망치로 얻어맞은 듯, 머릿속이 얼얼해졌다.
내가 서린,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와 하나가 되길 원한다는 것을.
순간, 깨달았던 것이다.

연리지

아무도 말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내가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한 유아기 어느 시점부터인가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인생이, 남들과는 절대적으로 다르리라는 것을.

1

원장은 조금 신경질적이긴 하지만 선천적으로 착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으로, 인간으로써 가지는 스스로의 욕망과 본능을 이기고, 우리에게 최대의 친절과 배려를 베풀어왔다. 벌써 그녀의 나이도 오십의 중반을 넘어섰고 이제 그녀의 수제자인 부원장이 원장의 역할을 대신하고는 있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곳에서 절대적이다.

나는 그녀가 이 자애원이란 시설을 만든 계기를 주었던 대상으로, 그것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날리던 아름다운 봄의 오후에 그녀의 집 앞에서 나를 발견함으로써부터 시작되었다. 그녀에게 있어 그것은 신의 계시와 다름 아니었다고 한다. 그때 그녀는 그녀에게 돌아올 부모의 엄청난 유산을 포기하고 선교를 위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소명이라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앞에 버려진 정체 불명의 괴물 같은 아기를 맡으려는 시설이나 양부모가 단 한곳도 없다는 세상의 당연한 이치에 절망하였고, 어찌면 이러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주어진 숙명이 아닐까 여겼다는 것이다.

덕분에 나는 두 다리가 없는데다 척추 이상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며, 그나마 움직이는 한 손도 간신히 쓰는 정도이고, 몇 번의 수술에도 숨길 수 없는 극심한 구순구개열을 가졌다는, 이 동물로써의 최악의 조건에 비해 굉장히 수월하게 살아온 편이었다. 내가 단 한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여러 종류의 버튼을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담당자나 자원봉사자가 달려온다. 내 발음이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다년간의 경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금방 알아챈다. 또한, 평시에도 나의 등이 짓무르진 않았는지 용변이 마렵진 않은지 배가 고픈지 심심한지, 관심을 가지고 늘 보살피고 있다. 원장이 내게 갖는 각별한 의미와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느 시설의 독방에 처박혀, 먹고 싸고 자는 개, 돼지와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마도, 이미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눈빛을 보내고, 그녀가 믿는 신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 신이 나를 이렇게 창조한 분이라 해도 말이다.

무엇보다 그녀에게 가장 감사하는 것은, 내가 지능만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주어 적절한 교육을 지원해주기에 애써왔다는 점이다. 덕분에, 내 또래의 평균정도의 지식과 사고의 수준은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드러내거나 알릴만한 기회나 자격이 내겐 주어지지 않는다.

어쩌면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 역시 나의 계획의 완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싶은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은 최소한의 생리적 욕구만 해결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한 사람의 인격과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이지 않을까? 나를 돌보는 이 시설의

사회복지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내가 서너 살 쯤의 아이라는 듯 대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불만이었다.

내가 비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몸을 일으키는 것도 힘들고, 밥도 먹여 주고 소변기도 대줘야하고, 혼자서는 파리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엄연한 스물일곱 청년이다. 나를 품었던 어머니가 어떤 유해한 물질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요행히 내 남성만은 그 칼날을 피했고 이것은 남성으로써 곳곳하게 자라주어 내가 중성의 식물이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것이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없으리란 건 알고 있다. 여태껏 어떠한 생리적 변화도 생기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저 이것이 내 영혼을 지배하는 남성 그 자체임을 다행스러워 하는 것이다. 처음 오는 여자 자원봉사자들이 나를 씻기거나 소변기를 대어줄때 부끄러워하는 듯 고개를 돌리는 것도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들도 곧, 나의 남성을 무시하고 서너 살 아이 달래 듯 사탕을 흔들어낼 것이었지만.

어쨌든 알아주길 바란다. 내가, 잘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으로 이 글을 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땀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여기까지 써내려오는데 나는 벌써 사일이란 시간을 소요하였다. 내겐 별로 시간이 없다. 이 글이 완성되는 그 순간 나는 나의 위대한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2

이 계획은 어느 날 내게 나타난 독지가의 선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독지가는 어느 티브이 프로그램에서 나를 보았다고 한다. 내 이야기가 길게 나간 것은 아니고 우리 시설을 소개하면서 짧게 지나간 중이었는데 하필 그때 나는 멍한 눈으로 세상의 모든 양을 세어가는 듯 무지

무지하게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었나보다. 사실은 저 편 벽에 걸어놓은 책을 읽고 있었을 뿐이었는데(이것은 어느 한 자원봉사자가 내가 어설프게 그려놓은 시안을 알아보고 제작한 것이다).

어쨌든, 그의 오해로 나는 최신행의 노트북을 가지게 되었다.

원장은 매우 양심적인 사람이므로, 이 선물이 나에게 희사되었음을 강조하여 내 침대에 특수 테이블을 제작, 노트북을 고정시켜주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내가 이것을 사용할만한 능력이 없음을 들어 설치를 반대하던 부원장외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 자신이 나의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겠다고 설득하였던 것이 가장 감동적이었다.

나는 그에 보답하고자 부지런히 공부하였다. 그녀가 준 책은 물론이고, 그녀가 처음의 열정과 달리 성의 없이 일 이십분 가르쳐주는 시간에도 나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야말로 온몸으로 배우고자 하였다. 잘 움직이지도 않는 손을 가지고 마우스를 밀고 클릭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내 노력은 실력으로 입증되었다. 혼자서 인터넷도 하고, 자판도 이렇게 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예복이, 넌 정말 빠르구나. 그래, 너도 젊은이라면 젊은이니까.”

원장이 자신이 지어준 예수님의 축복이란, 내 이름을 나직이 부르며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 후 노트북은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

그리고, 당신이 우려하는 것처럼 나는 곧 인터넷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인터넷 속에는 무엇이든 있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지 데려다주었다. 책을 읽으며 느꼈던 해방감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있으나마나 목숨 부지하는 용도정도의 몸뚱아리를 벗어나,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는 기분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표 내지는 않았다. 나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은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초콜릿같은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그저 심심

풀이 정도로 이용하는 척, 나는 여전히 무료하고 당신들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선천성 기형아 권예복이란 표정으로 누워 있는 것이었다. 너무 용의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길 바란다. 나 같은 조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끊임없이 동정을 유발해야하고 혹은 감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모른다고 쉽게 내쳐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박애라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러던 중, 나는 한 여자를 만났다. 당신의 생각이 맞다. 실제로 만난 것은 아니고, 인터넷 속에서 만난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은서린. 이름도 아름다운 그녀는 이제 스물 셋. 대학 졸업반이다.

내가 그녀를 알게 된 것은 어느 포털사이트에서 소개된 그녀의 메이크업코너에서부터였다. 그녀의 블로그에는 메이크업에 굉장한 취미가 있는 듯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과 새로운 기법의 화장을 소개하는 코너를 가지고 있었다. 눈 화장을 소개하느라 가까이 찍어 올린 그녀의 눈은, 때론 에메랄드 빛으로 때론 먹구름 같은 잿빛으로 감쪽같이 변하곤 했고, 그 크고 깊은 눈은 내가 아는 이 세상 어떤 여자보다도 아름다웠다.

나는 순식간에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과 심경, 사소한 쇼핑내용까지 구구절절 블로그에 올려놓았고, 나는 그녀가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 2년간의 기록을 모조리 읽었다. 모조리 읽은 정도가 아니라 읽고 또 읽어 외울 지경이었다.

나는 그녀가 1년 전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그날의 패션 스타일에 따라 해리메이슨 시계와 미키마우스 시계를 번갈아 차기 좋아하며, 매주 금요일이면 피부관리실에 가서 이마에 난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 노력중이고, 얼마 전 왼쪽 발톱이 깨져서 멍이 들었고, 현재는 학교 다니는 틈틈이 학원을 다니며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나름대로 그녀에게 힘이 되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다.

나는 ‘봉이’ 라는 아이디로 그녀에게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고, 그녀가 놀러올 수 있도록 내 블로그를 만드느라 밤을 새웠다. 사진을 퍼오고, 영화 비평도 넣고, 일기도 썼다. 내 상황을 숨기고 쓰다보니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블로그 속에서 고독하고 그러나 섬세한, 멋진 남자가 되어있었다. 나에게 작가 기질이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나의 수 많은 댓글에 감동하였고, 드디어 내 블로그에 방문하였다. 내가 다운받아 올려 놓은 꽃 사진들 밑에,

[우와, 사진을 정말 잘 찍으시네요. 봉이님은 정말 자상한 분 같아요]라고, 첫 댓글을 달아주었던 것이다.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아, 그냥 취미로 찍는 정도예요.]

라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방명록을 남기며, 하루의 일상들을 거짓으로 만들어내었고, 어느 날은 부산으로의 여행을 가장하고 어느 날은 소개팅 나갔다가 퇴짜 맞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써나갔다. 그러다보니, 밤이 되면 자괴감이 밀려와 나도 모르게 일기가 어두워졌고, 그녀는 도리어 나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고통에 매료되어 나를 위로해주고자 노력하는 이상한 순환이 계속되었다. 공교롭게도 그녀는 천성이 상대방의 상처를 발견하고 안아주려 노력하는, 나에겐 몹시 적절한 유형의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나의 섬세한 문장과 배려에 몹시 감동하였고, 자신의 넋두리를 하며 나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고 확신하였다).

[봉이님, 키가 얼마나 되세요?]

어느새 메신저 친구가 되어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누던 그녀가 뜬금없이 물었다.

나의 키... 80센치도 되지 않을 상반신이었다.

[180센치 정도 돼요. 그냥 보통 키죠.]

나의 타자수는 매우 느렸지만, 나는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라고 이미 말해놓았기에, 일하는 틈틈이 메신저에 답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별 다른 의심을 사지 않았다.

[와아, 크네요.]

키 큰 남성이 그녀의 이상형이다. 후훗.

[요즘 배우는 건 어때요?]

[음.. 고민중이에요. 잘 할 수 있을지.. 그냥 취직이나 할까봐.]

[그러지 마요. 서린씨는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쪽 분야 최고 전문가 소개해줄게요. 저희 어머니가 그쪽 계통에 있거든요.]

거짓말이란 건, 하면 할수록 구체적이 된다.

[우와. 정말요? 봉이님은 가만 보면, 굉장히 부르주아인 듯. 말하는 거나 생활하는 거나.]

[부르주아는 아니에요. 그냥 남들 사는 정도.. 재산이 있어도 아버지 거니까. 내건 아니죠.]

[오오. 아버지는 부자시구나. 흥. 우리 아부진 왜 이러서.. 어제 화장품 하나 샀는데, 비싼 거 샀다고 어찌나 잔소리를 하시는지.]

[이런, 제가 사줄까요. 서린님이 잔소리 듣는 거 싫으네.]

[호호.. 말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녀와 얘기하다보면, 나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있다.

[근데, 봉이님은 이름이 뭐예요?]

[이름요?.... 강상민이라고 해요.]

나는 급한 대로 단골 자원봉사자 이름을 땄다.

[음.. 근데 상민님은 왜 사진을 안 올려요? 얼굴 궁금한데..]

[아.. 사진 찍는 걸 안좋아해서.. 사진 하나 보내줄게요. 혼자만 보세요.]

[꼭 보내주세요. 엄청 잘생겨서 반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ㅎㅎ.]

ㅎㅎ. 그녀를 따라 웃느라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예복씨 안자? 요즘 맨날 밤새도록 뭘 하는거야. 컴퓨터 중독된다. 전기세가 요즘 그래서 많이 나오나?”

전기점점 다니던 은선씨가 내 웃음소리를 듣고 들어와 편잔을 주었다. 내가 작게 웅얼거리며 고개를 흔드는 시늉을 하자, 미안하다는 말로 알아듣곤, 미소를 짓고 간다.

사실 난, “니가 뭔데 그래?”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내 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게 그럴 땐 꽤 매력적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구름 위를 나는 듯하던 어느 날, 내 블로그에 새로운 방문자가 나타났다. 평소 서린의 블로그에 자주 놀러오는 아이스크림이란 놈이었다. 보나마마 서린에게 흑심을 품고 나한테까지 기웃대는 것이다.

[봉이님이 부러워요. 블로그에 쓰시는 거보면, 시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직장엔 술에 사람에... 정말 쉬고 싶네요.]

시간이 많으신 것 같다고? 정곡을 찔린 것 같아 기분이 영 나쁘다.

이 놈을 어떻게 굴려줘야하나 좀 더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 그의 블로그를 살살이 뒤졌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 사원이었다. 기타를 즐겨 치고, 노래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아는 것도 많은 모양이었다. 따르는 사람들도 많은지 방명록에 선후배들의 글도 많다. 적을 알아야 이기는 법. 나는 방명록을 전부 훑어 내려갔다.

젠장, 서린의 글도 제법 있다. 내용은 시답잖은 안부 같은 것들이었지만, 크림님 크림님하면서 애교 있게 대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았다.

나는 놈의 기를 죽여 놓기로 했다.

[글쎄요, 전 워낙 여유롭게 살아와서 그런지.. 바쁘게 사는 걸 못해요. 스포츠카 굴리면서도 한번도 140이상 밟은 적이 없으니 나도 참.]

놈도 내게 지지는 않는다.

[우와, 스포츠카라.. 맨날 노시는 것 같은데. 하긴, 부모님 능력도 내 능력이니까. 어쨌든 부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서린님?]

서린일 좋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강상민이란 멋진 남자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맞아요. 저도 맨날 부러워하는 중. 우리는 자수성가해야 되니 합심해요.]

[아, 좋아요. 그러려면, 부르주아는 멀리해야하나. 하하]

둘이서 쿵짝이 맞는 걸보니 배앓이 틀렸다.

[자수성가를 빌어 드릴게요. 그럼 난 내일 유럽에 가야해서 이만..]

나는 마지막 댓글을 달아놓고 노트북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며칠간, 유럽에 체류 중인 사람답게 내 이름으로는 사이트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다녀간 블로거가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갑을 두고 나간 자원봉사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아이디를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이트를 지켜보았다.

내가 없는 사이에도 그들은 서로 주거나 받거나 일상을 계속하고 있었다. 서린도 크림인지 뭔지 하는 놈에게 마음이 가는지, 그곳에 출입이 잦았고, 내 사이트엔 발걸음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그녀와의 사이에 쌓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뜨거운 분노 같은 것을 느꼈다.

입맛까지 짝 사라진 나는, 며칠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 원래도 누워있기만 했었지만, 다른 때와 달리 일으켜달라거

나 하지도 않았다. 먹은 게 없으니 별로 썬는 것도 없어 도리어 편하기
까지 했다. 자원봉사자가 달래다, 사회복지사가 달래다, 부원장이 왔다
가 급기야 원장이 와서 나를 달랬다.

“예복아. 너 왜 그래? 그렇게 좋아하던 컴퓨터도 안하고.. 한 술만 먹
자. 응?”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애가 정말.. 뭐에 빠졌나. 내가 뭐 잘못했니? 요즘 안 와봐서 그래?
나도 이제 늙었다, 몸이 예전 같질 않아요.”

원장이 하소연까지 하며 손가락을 들었지만,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
대한으로 입을 다물고 열지 않았다. 따라온 부원장이 억지로라도 죽을
넣으려 했지만, 내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원장이 말렸다.

“에휴, 뭐가 불만이야. 먹여줘, 입혀줘, 배고프면 먹겠지.. 쫓쫓.”

원장이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리며 방을 나갔다. 그녀는 강예복이란 놈
에 대해 머리카락 하나 손가락 하나까지도 샅샅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
겠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나는 지금 그깟 밥 한술을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 처음으로 내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신이 나를 만들
었고 원장이 그의 계시로 나를 살렸다지만 내 삶을 내가 선택한 적은 없
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는 생각하고 또 생
각했다. 답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단식을 한지 보름이 지날 무렵,
링겔로 영양 공급을 받으며 바짝 바짝 말라가는 나를 보다 못해 원장이
야유회를 가기로 결정했다.

“애가 간헐만 있으니 그러지 않겠어?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애 데
리고 산도 보여주고 나무도 보여주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

내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고 판단한 원장이 자연치유법을 생각해
낸 것이었다.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존재의 고민에 빠져 어디로 가는지

관심도 없었다.

휠체어에 태워져 내린 곳은 어느 수목원이었다. 다른 장애인들도 모두 내렸지만 몸을 지탱할 힘도 없어 몸과 휠체어에 줄을 꼬꽂 묶어 놓은 내 꼴이 가장 이상스러운지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쳐다보았다. 심지어 내 얼굴을 보고 슬금슬금 도망가는 아이도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슬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그들이 미는 대로 짐처럼 실려 갈 뿐이었다.

그러다 그러다 나는, 운명처럼, 그것을 보았다. 아아 원장은 실로 나의 천사요, 은인이었다.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두 나뭇가지가 하나로 이어진 두 그루의 나무였다.

“연리지라고 하는 거야. 예복아. 저게 말이다. 뿌리가 다른 두 나뭇가지가 마치 한 나무에서 자라는 것처럼 엮여져 자라나는 거라는데, 신기하지? 사랑하는 연인들의 하나됨을 비유하기도 해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연인들이 그 사이를 지나간댄다.”

망치로 얻어맞은 듯 머릿속이 얼얼해졌다.

내가 서린,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와 하나가 되길 원한다는 것을 순간, 깨달았던 것이다.

3

그 뒤로 나는 완전히 정신을 차렸다. 원장과 사람들이 기겁할 만큼 밥을 먹어대면서, 기운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자판을 친다는 것이 여간 한 힘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의 체력을 회복했을 때 나는 선불리 나대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나는 서린의 블로그에 들어갔다.

그녀는, 아아 여전히 투명한 햇살처럼 눈이 부시다.

화장법을 보여주기 위해 올린 사진들이었지만, 어느 사진을 보아도 나를 향해 웃고 있는 듯 가슴이 떨렸다.

[오랫만이예요. 서린님은 여전히 예쁘시네요.]

나는 한달만의 소박한 댓글을 달며 내 은밀한 마음을 숨겼다.

[봉이님 봉이님, 어디 가셨었대요. 이제까지 유럽에 계셨어요? 엄청 보고싶었어요.]

서린이 내 글에 달콤한 댓글을 달아주며 용기를 북돋아준다.

나는 참으로 열심히 그녀의 블로그와 메신저에 드나들었다. 크림 눈이 여전히 집적대고 있었기에 나는 물샐 틈 없는 방어전을 펼쳐야했다. 인터넷을 살살이 뒤져, 내가 생각하는 상민에 가장 가까운 얼굴을 찾아 그녀에게 보낸 것이 효과가 컸다. 그녀는 확실히, 추상적인 내 존재보다는 구체적이고 선량한 그 얼굴에 호감을 느낀 듯 태도가 더욱 친밀해졌다. 더구나 자신에게 지대한 관심을 주고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는, 그리고 확실치는 않지만 상당히 재력가인 듯한 나를, 싫어할만한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봉이님 덕분에 우울증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진달까.]

서린은 점점 더 내게 의지해왔다.

나는 내친김에 그녀에게 하루에 한통씩 편지를 쓰기로 했다. 그녀는 지금도 옛 남자친구를 잊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촉발된 까닭없는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럴 때만큼 내게 좋은 기회도 없을 것이었다. 서린님, 비가 오네요. 우산은 가지고 가셨나요. 저는 오늘도 하루 종일 컴퓨터에 매달려있어요. 작업이 길어지네요. 서린님, 서린님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란 거 아시죠? 오늘도 힘을 내세요. 학교는 잘 다녀오셨어요? 이젠 편지 쓰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제 일이, 계속 하다보면 지루해져서..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휴식이 되거든요. 서린님은 지금쯤 메이크업 연구를 하고 계시려나.. 서린님은 잘할 수 있을거예요. 오늘 밤 메신저에서 봐요.

그런 식의, 일상적이지만, 그녀의 약점을(자신에 대해 관대하지 못한) 역이용한 편지들이었다. 서린은 답장을 일일이 하지는 않았지만, 내 편지에 굉장한 힘을 얻는 듯 일기에도 감사의 글을 올렸고, 내게 친절하 서린씨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내겐 천국 같은 나날들이었다.

“예복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따라 매일 실실거리는 것 같아. 어째.”

목욕봉사하시는 아주머니가 내 몸을 닦아주며 웃었다. 나도 모르게 웃고 있었던 것이다.

“맞아요. 요즘 예복씨 바람났어요. 한동안 밥도 굶고 난리더니.. 컴퓨터 속에 애인을 숨겨놨는지 매일 컴퓨터만 붙들고.. 뭘 그렇게 쓰는지.”

직원으로 일하는 건강관리사가 아주머니를 도우면서 거들었다.

“아이고, 그래. 그렇게라도 애인 만나면 좋지 머. 컴퓨터하고 연애라도 해라 예복씨. 응?”

호호호호.... 그리고 그들이 웃었다.

나는 웃음을 거두었다. 그것이 나의 현실이란 것이 와 닿았다. 그럴수록 내가 나의 계획에 무서운 집착을 하게 되었던 것을, 그때 나는 몰랐다.

몇 달이 지나는 사이, 온라인상으로 서린과 나는 연인과 다름없었다. 모든 일상을 공유하고 꿈을 나누고 미래를 계획한다면, 그것이 곧 연인 일테니까. 물론, 우리가 사랑을 속삭이거나 고백을 했다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그녀와 모든 것을 나누고 의지되어주는 내 자신이 나는 만족스럽기 그지없었다. 일단은,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우리 사이를 배회하며 틈을 찾던 크림이 우리에게 만남을 제의한 것이었다.

[우리 서로 알아온 지도 벌써 몇 달인가요. 이제쯤 한번 만나야하지 않을까요?]

[좋아요! 이번 주에 당장 만나는 게 어때요?]

서린은 기다려왔던 듯이 단번에 찬성을 했다. 언젠가 만나자고 할 것을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제의에 나는 당황하였다.

[아이 참.. 이번 주는 출장이 있어서요.]

나는 일단 판결을 유보시켰다.

하지만 크림은 한주를 기다렸다가 다시 또 만남을 제의해왔다.

[봉이님 이번주는 괜찮으시죠? 이번주엔 꼭 만나요.]

[맞아요. 이번 주에는 괜찮죠? 안된다면 빠질 것 같아요. 전 정말 만나고 싶은데...]

크림은 무시할 수 있지만 서린의 말에 나는 도저히 거절할 재간이 없었다.

[그래요. 그럼 토요일날 만납시다. 제가 서울로 갈게요.]

그 둘은 서울에, 나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물론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애원이란 이 지방의 도시 속에.

서린은 너무 좋아했다. 드디어 만난다면서 어디 가서 밥을 먹고 무엇을 하자는 등 계획을 세웠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압박인지 그녀는 몰랐으리라.

가슴에 돌을 얹어놓은 듯한 일주일의 지나고, 드디어 약속 날이 하루 남았다. 나는 너무 다급해져 무엇이든 꾸며내지 않으면 안됐다.

[오늘 정말 불운한 날이에요. 어찌면 좋아요.]

[무슨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서린은 역시 나의 천사다. 고운 말투로 나를 걱정하였다. 원장도 내겐 천사와 다름없지만, 늙은 천사와 젊은 천사를 비교할 수는 없으리라. 엄마와 아내를 비교할 수 없듯이.

[실은, 오늘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에 김스를했어요.]

[아.... 어찌면 좋아요.]

나는 장황하게 사고 경위를 설명했고, 서린은 울 듯한 말투로 연신 나를 위로하였다.

[그럼, 이번주는 안되겠네요. 다 나오시면 봐요.]

그렇게 나는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였지만, 터지려는 독을 가까스로 막아놓은 격이란 걸 알고 있었다. 아아, 사실 나는 너무 불안해서 잠도 오지 않았다.

사건은 뜻밖의 곳에서 터졌다. 크림이 출신학교를 묻기에 건성으로 모 대학 모 과를 얘기 하었는데, 하필이면 그의 회사에 같은 과 출신이 있었던 것이다. 은근히 의심을 품고 있던 그는 내 학번을 들이대며 그에게 물었고, 그는 당연히 나 같은 놈은 모른다 했던 것이다.

[봉이님, 거기 나온 거 아니었어요?]

서린이 무척 실망한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실은 거기 다니다 다른 곳으로 편입했어요. 그 사람 나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원체 학교를 안나가서..]

[그렇구나...]

하지만, 그녀의 대답이 흔들리는 듯 불안하게 보였다.

[크림님과 저,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 주에는 나오실 수 있어요?]

[미안해요. 이번 주에 하필 어머니 생신이라 여행을 가요.]

[아....]

서린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녀와 크림은 나의 실체를 알고자 하였고, 나는 만남을 피하기만 하였으니,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되어버린 것이다. 어차피 나로서는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지만 말이다.

얼마동안 그녀로부터의 리액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의 편지만 줄기차게 날아갔다. 편지를 보내면서도, 뒤에서 크림이 그녀의 의심을 부채질하지는 않을까, 나는 نوم에 대한 질투와 분노, 불안함으로 미칠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그녀가 내게 보낸 편지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봉이님, 봉이님 덕분에 오랜 시간 따뜻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사실 요즘은 좀 그래요. 전 아닐 거라고 믿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자꾸 마음을 이상하게 하네요. 온라인상의 만남이라 그런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편지.. 그만 보내셨으면 해요. 미안해요.

내게 편지를 보낸 후, 그녀가 올린 그 둘의 사진이며 후기를 읽으며 내 불같은 마음은 극에 치달았다. 둘이 만나며 나에 대한 의심을 확고히 했을 것이다. 나는 노트북을 내던져 버리고 싶었으나 내 팔엔 그만 큼의 힘이 없었다.

나는 밤새도록 소리도 나지 않는 울음을 울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이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 나는 실체이고 싶었으나, 나는 거짓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침내, 며칠간의 숙고 끝에 나는 이 계획을 완성하였다. 내가 실체가 아니면 아닐수록 그녀는 나와 하나여야만 한다는 생각만이 점점 더 확고하여갔던 것이다.

몇 달 동안 나는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그 사이, 나의 예상대로 크림놈과 서린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듯 하더니 곧 연인이 되었다. 내가 없어졌으니, 혹은 나라는 정체불명의 대상을 놓고 더욱 돈독해졌을 것이다. 나는 질투를 억누르며 내 할일을 계속해나갔다. 그녀의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새로운 캐릭터를 세우고 대사를 연습했다. 앞뒤가 맞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수없이 수정하고 짜 맞추어 나갔다.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란 생각마저 들어 나는 아침을 맞을 때마다 자못 엄숙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원장만이 나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 챌 듯 가끔 찾아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늘 한결같은 멍한 얼굴로 그녀에게 나의 계획을 철저히 숨겼다. 그녀에게는 다소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언제까지 그녀의 봉사욕구를 충족시키는 착한 불우이웃이 되어 있을 수만은 없는 법이다.

나는 다시 사이버 상으로 그녀에게 접근을 시도하였다.

내가 만들어낸 효민은, 26세의 약사로, 현재 선배의 약국에서 일하고 있었다. 성격은 소심하면서도 발랄. 뮤지컬을 좋아하고, 갈색의 파마머리를 한 예쁘장한 아가씨다. 사진은 딱 맞는 얼굴로 여러 장 구해서 이미 블로그를 장식해놓았다. 아이디어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구한 타인의 인적정보였다. 이렇게 손쉽게 나를 숨길 수 있는 이 세계가 감사할 지경이었다.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는 서린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고 취향도 성격도 비슷한 이 언니에게 쉽사리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양념으로(그녀의 취약점답게)효민에게 이별의 아픔을 더해놓았다. 역

시나 서린은 효민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상처를 나누고자 하였고 둘은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었다. 크림과 서린은 연인답게 모든 일이 상이 중복되어 양쪽의 블로그에 올라왔고, 나의 효민은 내 계획대로, 그 둘을 부러워하고 또 응원하며 그들의 마음에 깊숙이 파고들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크림에게 매력적인 아가씨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어필할만한 글과 사진들을 쓰고 이고 나르는 것이 중요하였다.

사람의 마음이란 종잇장 같은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자, 마음 조각들을 끈덕지게 파고드는 나의 집요함에 그 둘은 완전히 경계심을 풀어버렸다. 서린에게 효민은 둘도 없는 언니가 되었고, 크림에게는 서린과의 사랑을 흔드는 묘령의 아가씨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엔 일사천리였다. 나의 순진한척 하지만 치밀한 제스처 속에서 서린은, 효민에게 크림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크림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신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기 위해 집요하게도 효민을 만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결국 서린도 효민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효민을 만나기도 전에 서린에게 배척당할 것이고, 효민은 그 행방을 감추어 버릴 것이므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배가 불렀다. 잘 움직이지도 않는 팔을 들어 머리를 정리하기도 하고, 못생긴 얼굴이지만 거울을 갖다달라고 해서 웃어 보기도 했다.

조만간 서린은 다시 내게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의 짧은 고통이 지난 후.. 나와 연리지 나무처럼 영원히 하나가 되겠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 이런 기분은 정말 처음이었다.

아아, 원장이 누군가와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요즘 내가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자꾸만 들여다봐서 귀찮다, 정말.

원장은 엉뚱하게도 정신과 의사를 데리고 왔었다.

“요즘 예복이가 좀 이상해요. 혼자 자꾸 이상한 소리하는 것 같고.. 감정의 기복도 심한 것 같고.”

우리 시설을 전담하는 의사선생이라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나 같은 사람들의 뇌 속은 뻔할 뻔자라는 듯 웃어보였다.

“뭘, 걱정할만한 건 아니겠죠. 예복씨,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그렇지 않는 않죠?”

나는 아이오. 아이오. 고개를 흔들었다.

“음. 내가 예민한 건가. 그러니 예복아? 에그.. 여태껏 밝게 잘 자라왔는데 요즘은 좀 이상해... 노트북 속에 뭐가 들었는지, 원. 휴.. 빼앗아 버리든가 해야지.”

원장이 노트북을 살피는 듯 고개를 내밀다가 혀를 찼다. 나는 제발 이들이 나가주기만을 바라고 예복이 답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가. 그것도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원장이 의사와 함께 사라진 후, 나는 계획을 서두르기로 마음먹었다.

서린이 거기 있는 한 내가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다.

나는 윤여사님이라고 불리우는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미리 준비해 둔 메모지를 건넸다.

[꼭 가지고 싶은 게 있어서 인터넷으로 택배를 주문했어요. 이것 좀 입금해주시고, 택배 오면 저에게 주세요.]

평소 나를 불쌍히 여기던 그녀는, 내가 건넨 꼬깃꼬깃한 5만원을 받아두고 그러마하고 약속해주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청산가리 20그램을 주문해놓았었다. 가장 어려우리라 생각한 과제가 의외로 쉽게 끝나니 끝이 보인다는 기쁨에 가슴이 떨렸다.

그 후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계획이 원대했던 것에 비해 너

무 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서린은 예상대로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고, 개인 일기장은 물론이요 메이크업 코너를 폐쇄하다시피 할 만큼 배신에 몸서리 치고 있었다.

나는 봉이가 되어 다시 그녀에게 나타났다. 하지만 예전의 봉이가 아니었다. 나는 무서운 악플러가 되어있었던 것이다.

[사람 의심하고 우스운 꼴 만들어놓고, 남자한테 배신당하고, 꼴 좋다] 자학이 많은 그녀가 자신에 대한 공격에 약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나는 그 방법을 골랐다. 물론 엔터를 치기가 고통스러웠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가 냉정해져야 했다.

처음에 그녀는 내 글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항하였다.

[봉이님, 화나셨어요? 이런 글 올리면 저 상처받아요.]

상처 받을 그녀의 어린 마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악플러라는 가상 인물에 나는 몰입해 갔다.

[또 착한 척 하는구나. 니가 언제부터 그렇게 착했냐?]

[상처 좋아하시네. 너보다 내가 더 받았다.]

내 악플이 끊이지 않자 보다못한 다른 방문 블로거들이 강력히 저항해왔다.

[왜 남의 블로그에 와서 태클이예요. 아저씨 들어오지 마세요]

[서린님 이 글 지워버려여. 별꼴이야.]

[너 누구야. 왜 우리 서린이한테 그러는거야. 싸이코 같은 놈]

그렇수록 나는 오히려 당당하고 여유로웠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였다.

[당신들이 뭘 알아. 이 여자는 이중인격이야. 착한 척 다하고 뒤로는 호박씨 까고. 괜히 남친한테 버림받았잖어?]

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일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작업을 해나갔

고, 한동안 잘 참아내던 서린이 내 글이 올라오는 족족 지우기 시작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상한 것이다. 만장일치, 라는 말은 얼마나 몽상적인 것인지, 나를 비난하던 블로거들 속에서 오히려 나를 옹호하는 사람이 생겨났던 것이다.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였다. 결국, 내가 악플러가 된지 몇 주 만에 지칠 대로 지친 서린은 블로그를 폐쇄하였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날려야 했다. 나는 서린의 학교 게시판에 [여대생의 호박씨] 라는 제목으로 그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내용은 순전히 내가 지어낸 엉터리 인신공격 글이었지만, 남의 치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 글을 열심히 클릭 했고, 나흘 만에 조회수가 천이백건을 넘어서버렸다. 그리고 내 글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 다른 학교 게시판에 계속해서 올려졌고 말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 계획이 시작된 지 한달 만에, 그녀는 포털사이트 하단에 익명의 여대생으로 기사화되기에 이르렀다. 계획을 세운 나조차 기함할만한 인터넷의 힘이였다.

이제,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그녀의 우울증이 대신 처리해줄 것이었다. 우울증이란 이러한 사건에 대항할 면역성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나는 청산가리 봉투를 손에 쥐고, 그녀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그녀에게 무서운 흥기가 된 인터넷이 곧 나에게 승보를 가져다 줄 것이고 그 승보가 곧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가져다줄 것이다.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내가, 이 글의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결심을 한다. 나는 어쨌든, 그 애를 만들고 살린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 애가 그

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다는 것에 혹 기특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스러울 만큼 나는 실은 이 모든 것의 완성을 보고 싶었다. 비록, 그것이 그 애와 나의 둘만의 비밀이 될지라도.

그 애는 반년 전, 노트북을 펼친 채로 청산가리 20그램을 삼켰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청산가리라고 속고 구입한 황산구리 20그램을 삼켰다.

식사를 가져다주던 자원봉사자가 복통을 일으킨 그 애를 처음 발견했고, 그 애는 빠르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황산구리가 치명적은 맹독은 아니라 하고, 복통으로 금방 토해낸 덕분에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 애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에 나는 그 애의 노트북에서 이 글을 발견했다. 처음엔 모든 것이 그 애의 상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스크랩해놓은, 인터넷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투신자살을 했다는 한 여대생의 기사를 보게 되었고, 나는 그 모든 것이 예복의 계획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악성댓글이 자살과 연루되자, 사이버수사대가 아이피 추적을 통해 우리 시설까지 찾아왔다. 아직 제정신을 못 차렸던(그런 것으로 보이는), 그 애를 정신분열증 환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시설 전임 의사는 의사의 양심을 떠나 내 고용인이므로.

결국 사건은, 정신병자의 악플이 참혹한 결과를 불러왔다는 신화로 끝이 났다. 한 여대생의 억울한 죽음에 비해 너무 간단한 처리여서 그것이 슬플 정도였다. 죽음으로 하나가 되려했던, 예복의 계획은 실패다. 하지만, 내게로 다시 돌아왔으니, 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닌 셈이다. 당신은, 의문을 품을 것이다(물론, 이 글은 곧 폐기할 것이지만) 내가 어째서 그 애에게 집착하는지..

한마디로, 나는 그 애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

그 애는 나의 유일한 피붙이이며, 나의 원죄 그 자체이므로.

내가 임신 중 항생제등을 유독약품을 무작위로 삼켰던 것이 그의 저주받은 육체를 만들어낸 이유란 것을 알았던 나는, 이 아이를 버리지 않을 것을 신에게 약속했었다.

그 애가 서린 모르게 원대한 계획을 품었던 것처럼, 나 역시 이 아이를 중심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웠고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이 애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으리.

예복은 서린과의 완전한 사랑을 꿈꾸었다.

하지만, 내 속에서 나온 그 애가 내 곁에 있고, 또 영원히 있을 거라는 점에서, 예복과 나의 연리지는 성공한 게 아닐까, 나는 흐뭇하게 생각한다. 어쨌든, 그 애의 심오한 정신세계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점에서 반성이 없지는 않다. 앞으로는 그 애를 편안하게 해줄 생각이다. 진작 이랬다면 한명의 귀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을.

이제, 나는 이 글을 클릭 해 휴지통에 던져 넣을 것이다. 우리만의 영원한 비밀로...

에필로그

아, 정말 힘이 없다. 하지만, 나는 써야만 한다.

내가 에필로그, 라고 써넣은 것은, 원장이 멋대로 나의 글을 끝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간신히,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여름휴가에 들떠 약 먹이는 것을 잊은 간병사 덕분이었다.

정신을 차린 후, 나는 노트북이 그대로 있다는 것에 가장 감사했다. 인터넷선 같은 것은 없었고, 몹시 낡고 먼지가 가라앉아 반신반의 하며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놀랍게도 컴퓨터가 멀쩡하다. 내 글이 없어진 것

을 알고, 나는 노트북 전체를 뒤졌다. 그리고, 차라리 없어졌더라면 좋았을 이 글이, 휴지통에 유기되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해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업적을 되찾은 반가움과, 나를 둘러싼 비밀이 풀린 충격에 휩싸여 한참동안 노트북만 노려봐야했다.

내가 그녀를 닦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역시, 서린의 인생에 비밀스러운 권력을 휘둘렀으므로. 그것을 후회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울 뿐이다. 다시 한번, 서린에게 가기위한 시도를 하고 싶지만(황산구리를 팔아먹은 놈에게 복수도 해야한다), 언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나는, 원장에게 사육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 사육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다. 그녀는 나를 자기 곁에 붙들어두기 위해, 그리고 내 영혼까지 지배하기 위해, 내게 강력한 정신과 약을 먹이고 있다. 그 약을 먹으면,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로, 먹고 싸고 자는, 식물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 기억이란 것도 전혀 남지 않아서, 얼마 간의 시간동안 내가 그렇게 누워있었는지도 알지 못하겠다. 나를 이렇게 낳은, 나를 이렇게 만든, 나를 놓아주지 않는, 그녀를, 나는 진실로 증오했다.

하지만, 동시에 지지한다. 나의 연리지 완성만큼이나 그녀의 연리지가 완성되기를 나도 모르게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인데...

나는 어쩌면, 정말 좀 미친 것일까. 이제 나는 어떤 것이 진실이고 실체인지 모른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착란은 아닐까 의심스러운 정도이다. 서린이 정말 죽었는지, 원장이 쓴 글도 어쩌면 내가 써넣은 글은 아닌지.. 아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암흑의 세계에서, 내가 영영 살아 가게 될 것이란 것이다.

원장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아... 투약의 시간이다..



글을 쓰고 싶다... 생각한 것이 벌써 10년입니다. 10년이란 세월동안 한없이 소설을 사랑하고 열망했지만, 그것에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본 적은 없었다는 자각을 합니다. 그런 자각에서 다시 시작된 글쓰기였습니다. 한낱 쓰레기로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글을 써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나약한 저에게, 마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처럼 수상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 수 있다고, 1%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나아가야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한없이 기쁩니다. 졸작에게 우수상의 영광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소설 속에 담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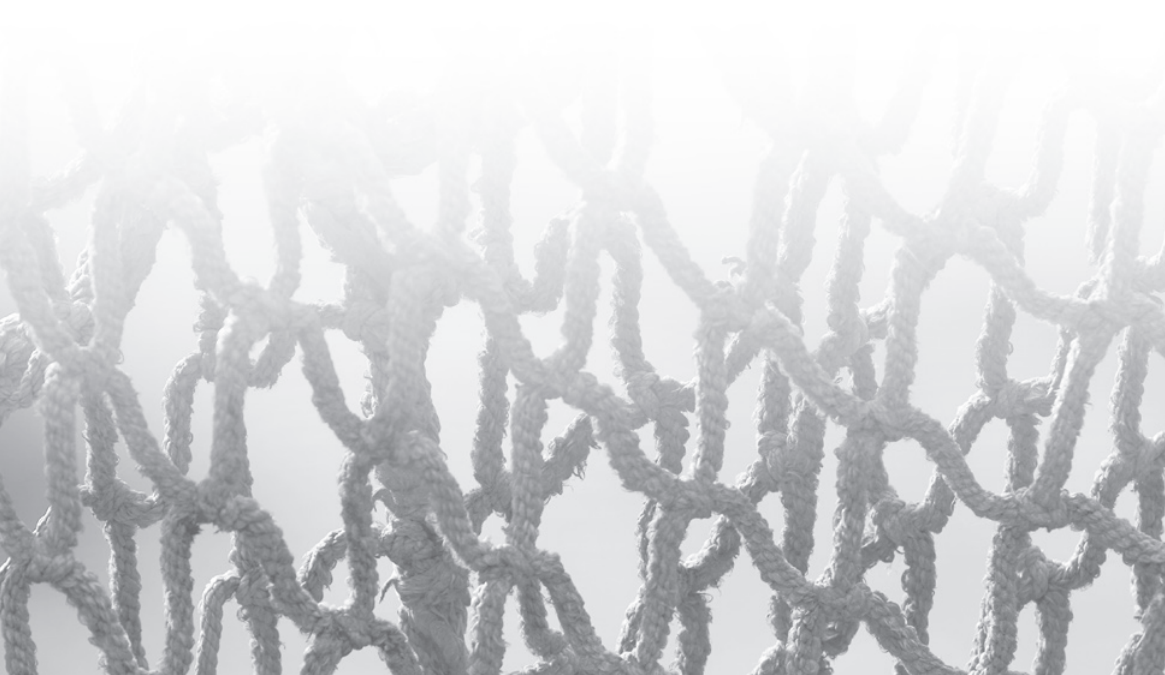
(전)용인 현암초교

남 경 희

그물

경석의 푸념은 좀 더 오래 이어졌다.

횡설수설하고 있는 그에게 민망한 마음이 느껴진 것은 명성이라는
이름의 그물에 갇혀 퍼덕거리고 있는 한 마리 금빛물고기의
진한 외로움이 전해지면서였다.



그물

편집 중인 시험문제 위로 메신저 창이 불쑥 떴다. ‘네 시부터 임시회의가 있겠습니다. 늦지 않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자는 교감이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20분전 네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던 일을 정리하고 회의실로 가기에 맞추한 여유였다. 우용은 작업하던 문서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닫기 위해 마우스를 클릭해 나갔다.

4시가 되자 교감이 일어났다. 회의실 안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아직 빈 책상이 남아있는 3학년 자리에서 멈추었다.

“감 부장님, 배정미 선생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 예, 조금 전까지 학부모와 상담 중이었는데 아마 배웅을 나간 모양입니다.”

난감해 하는 감인태와 달리 여기저기서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배정미는 지난번에도 오늘처럼 갑자기 직원회의가 소집된 날 늦은 적이 있었다. 선생들이 더러 의미 있는 눈길을 주고받거나 입을 삐죽거렸다. 연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던 감인태가 폴더를 열었다. 안도하는 표정으로 보아 조금 전의 장본인과 연락이 닿은 모양이었다. 잠시 후 빈자리 임자가 들어왔다. 거친 숨을 참으며 태연한 척했지만 상기된 표정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교장이 자리에 앉자 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는 교사다면평가 내용을 전달하고 평가위원을 뽑기 위해 열린

것이였다. 내용을 읽고 설명하는데 반시간이나 걸렸다. 설명을 마친 교감이 옆자리의 교장을 돌아보며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계속 진행하라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평가위원은 공문 예시를 참고하여 우리 학교 형편에 맞게 열 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교원평가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있긴 했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처음이라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고, 듣는 것만으로는 이해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으므로 무슨 의견을 내려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다른 말씀이 없으면 보직과 성별, 학년을 고려하여 여섯 사람을 뽑고, 경력을 세 단계로 나누어 각각 한 사람씩, 모두 아홉 명으로 하겠습니다.”

평가위원선정은 그들이 맡아야 할 일의 성격에 상관없이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경력에서 한 사람을 뽑을 차례였다.

“정우용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누군가 큰소리로 말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손뼉소리가 쏟아졌다. 아무 말이 없으면 추천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될 것이다. 잠시 후, 우용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거 고마워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마울 뿐이고, 그렇다고 당선사례는 아니고, 여러분 심사 많이 해보셨지요?”

유난히 힘을 주며 길게 끄는 ‘고’자 발음 때문에 입가에 웃음을 머금던 사람들이 ‘갑자기 웬 심사?’ 하는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는 합산할 때 뺀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우용이 자리에 앉자 사람들이 와아 하고 웃었다. 그의 말투에 익숙하지 않은 몇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그가 마다한 자리는 35년 경력의 여교사에게 돌아갔다. 아홉 명의 평가위원이 모두 정해졌다. 준비가 되는대로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을 거라는 예고를 마지막으로 회의가 끝났다. 교실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한숨과 체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이렇게 시작되고 마는 모양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다음날 오후, 안미영 선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은 우용이 아이들의 그림을 교실 게시판에 붙이고 있을 때였다. 하 선생과 함께 방문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떠냐고 물었다. 우용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가웃했다. 두 사람의 공통분모가 얼른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학년부장 체제로 움직이는 큰 학교에서는 같은 학년이 아니면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다. 하 선생은 전입한지 얼마 안 되었고 이십대인 안 선생과는 나이 차도 많은데다 두 사람은 지금 한 학년도 아니었다. 무슨 일일까. 그러다가 무슨 교원단체 간부가 전입교사 중에 있다고 했던 학년 초의 소문이 하 선생한테 줄긋기가 되면서 우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찻잔하게 흐지부지되어버린 작년의 사건 하나가 풀지 못하고 남겨 둔 숙제처럼 되살아났다.

그 날은 전교생이 모두 오전수업으로 일과를 마치는 수요일이었다고 했다.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없는 빈 교실, 모처럼 찾아온 평화로운 교요 속으로 전화벨 소리가 끼어들었다. 안 선생은 업무처리 중이던 일손을 멈추고 수화기를 끌어당겼다.

“여보세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흥분한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선생이 돼가지고 애를 그 따위로 가르쳐?”

“실례지만 누구세요?”

“나 유정아 엄마야. 어떻게 아픈 애한테 밥을 억지로 먹일 수가 있어? 애가 집에 와서 토하고 난리도 아니야.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야?”

처음부터 반말이더니 계속 막무가내였다. 이 전화에 응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화가 치밀었지만 안 선생은 냉정을 잃지 않았다.

“정아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밥을 억지로 먹이다니요?”

“그럼 정아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잘못을 애한테 떠넘겨? 지금 당장 학교로 갈 테니까 기다려!”

정아는 평소에 밥을 빨리 먹는 편이 아니었다. 그날은 싫어하는 새우 볶음이 나와서 좀 더 시간이 걸리나보다 했다. 그래도 그릇을 다 비웠기에 칭찬도 했다. 그런데 밥을 억지로 먹이다니.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정아 어머니는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퇴근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장실에서 찾는다는 연락이 왔다. 정아 어머니가 나타나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고 했다.

“안 선생, 정아 어머니한테 사과하십시오. 이야기 들으니 잘못했더만 뭐.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는 모든 것을 믿고 맡긴다는 뜻 아닙니까? 반 아이가 아픈 줄도 몰랐다는 건 담임으로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문제가 커지면 안 선생 때문에 나까지 고초를 겪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상관없겠어요?”

어째야 할지 모르겠다며 교실로 찾아온 안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우용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경력이 얼마 안 되는 힘없는 여선생한테 연대책임까지 들먹이며 겁을 준 교장의 태도야말로 정아 어머니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정아 어머니가 지나쳤다는 건 나도 인정해요. 하지만 사람이 흥분하면 무슨 소린들 못하겠어요. 자식 앞에서 눈이 멀어 그랬겠지,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지요. 하지만 담임의 경우는 달라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고객이 만족하도록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교육자란 말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아 어머니의 태도를 모른 척 넘긴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찌자는 말이요?”

교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배어있었다. 우용은 모른 척 밀고 나갔다. 작정하고 교장실을 찾은 이상 쉽게 물러설 수가 없었다.

“안 선생님의 식사지도방침을 설명한 뒤 정아 어머니한테 사과를 받아내야지요. 이걸 안 선생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전체의 권위가 달린 문젠데요. 제 부모에게 무시당하는 담임을 아이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 자식을 가르치는 담임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차릴 줄 모르는 부모에게서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참에 학부모 교육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정아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했어야지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께서는 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급식지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를 만들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소?”

“교장 선생님께서도 급식실에서 얼마나 많은 음식이 쓰레기로 버려지는지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제 입에 안 맞아서라는 겁니다. 물론 조리하는 사람한테도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아이들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렇다면 참고 먹을 줄도 알아야지요. 안 선생님처럼 지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하고 격려해 주셔야 할 교장선생님께서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다니요. 그러면 교사들은 누구를 믿고 소신껏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시끄러운 건 안 돼요. 교장이 얼마나 복잡하고 골치 아픈 자린지 정 선생님이 몰라서 그런 말을 쉽게 하나본데, 사과를 하라느니 어찌라느니 해 봐요, 일만 커져요. 여기저기 떠돌고 다니면서 할 소리 안 할 소리 할 테고 그러면……, 아이구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파요. 어쨌든 초기에 조용히 잠재우는 게 상책이에요.”

교장은 손사래짓도 모자라 오만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흔들었다. 두툽한 손으로 턱을 쓸며 입맛을 켜켜 다시더니 고개를 외로 꼬았다.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다. 차라리 학부모 단체의 간부인 정아 어머니의 영향력이 신경 쓰인다고 솔직히 말씀하시죠,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겨우 참으며 우용은 교장실을 나왔다. 자기 몸을 사리느라 학부모 비위를 굽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배알 없는 소리나 하고 있는 교장의 면상을 더는 마주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교사의 울타리가 되지 못하는 교장이라면 더 이상 기대할 역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한 안 선생은 진보성향의 교원단체에 가입했으며, 비슷한 또래 여럿이 그 뒤를 따랐다는 소식을 얼마 뒤 우용에게 알려왔다. 최명도 교장은 자신이 가장 꺼리는 그 교원단체에 여러 명의 회원을 보태는 데 기여한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아마 아직 모르고 있을 것이다.

안 미영과 하 선생이 심부름 온 여학생들처럼 허리를 굽히며 교실로 들어섰다. 우용은 일부러 과장된 말투로 너스레를 떨며 그들을 맞았다.

“예쁜 여선생님이 둘씩이나 이 누추한 곳을 방문해 주시니 영광입니

다. 그래, 어인 일이신가요? 자리에 앉아서 대화의 광장을 한 번 열어 볼까요? 레이디께서 먼저 앉으시지요.”

두 사람이 웃으며 우용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친분으로 본다면 우용과 전입동기예다 동학년을 두 번씩이나 한 안 선생이 훨씬 수월할 텐데도 정작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사람은 하 선생이었다.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았다. 우용은 자기도 모르게 팔짱을 끼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선생님, 이번에 새로 실시하려는 교사다면평가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평가항목부터 객관성이 떨어져서 정확한 평가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자로서의 품성이나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같은 항목입니다. 또 주로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평가해야 하는데 아무리 동료라지만 다른 반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친밀정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구요. 이런 여러 문제점을 모두 무시하더라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결함이 또 있습니다. 설사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매긴 점수를 관리자가 미리 아는 한 지금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쥐고 있는 칠십 퍼센트나 되는 높은 반영비율 때문이죠. 교사위원들이 평가해놓은 점수를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율입니다. 이것은 관리자 중심의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교사다면평가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현재 방식으로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합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 선생은 우용이 듣기에 생소한 내용까지 조목조목 지적해 나갔다. 논리정연한 말솜씨와 자신감 있는 태도로 보아 현장에서 실시될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를 대비해온 것 같았다. 우용은 쉽게 말을 꺼내

지 않고 뜰을 들였다. 생각은 이미 정리해 두고 있었지만 가볍게 속내를 보일 수가 없었다. 마침 며칠 전 학부모가 놓고 간 음료수가 생각이 났다. 그것을 나누어 마시며 시간을 좀 더 끌기로 했다.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뜻의 낮간지러운 전략이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변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요. 그 중 하나가 비겁해지는 거랍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난 그래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부딪쳐서 해결하기보다 피해가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지요. 이제 이곳을 떠날 날이 머지않은 나 같은 사람의 의견 따위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음료수 병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던 하 선생이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께 부담을 드린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내가 더 많이 미안하지요, 힘도 보태지 못하고 실망만 하게 해서. 하지만 비겁해진 사람으로서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선생님들의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충동적이거나 선동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부탁하고 싶어요.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모은 다음 결론을 내리고 행동하세요. 또, 다수 그 자체가 힘이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이 말은 안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들보다 앞장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도 해주고 싶군요.”

그들이 돌아가고 혼자가 되자 우용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헛헛했다. 갑자기 자신이 비루해 보여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에게도 분명 정의의 길로 서슴지 않고 나아가던 한때가 있지 않았던가. 하 선생의 방문은 오래된 사진첩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사진처럼 우용으로 하여금 한동안 잊고 있었던 젊은 시절의 그날 아침을 떠올리게 했다.

수업시간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린 지 한참이 지났지만 박봉식

교장의 훈시는 끝날 줄을 몰랐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와글거리는 소리가 교무실까지 들려왔다. 학생이 있는 곳에 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임장지도 원칙도 무시한 채 지도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담임들만 몰아세웠다. 교무실에서 가까운 교실을 쓰는 선생들은 안절부절못했다. 그는 체통과 위엄이 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마이크만 잡으면 농을 줄을 몰랐다. 루소의 자연주의나 피아제의 발달이론을 들어가며 교육이론에 밝은 티를 내고 싶어 했지만, 선생이면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이야기인데다 그나마 앞뒤도 깊이도 없어서 단박에 바닥이 났다. 유식한 척하느라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문구절이나 사자성어 인용하기를 좋아했지만 ‘홀홀단신’이니 ‘야밤도주’ 식으로 틀리는 바람에 무식이 탄로 나기 일쑤여서 변변찮은 실력으로 어찌어찌 접장이 되었다가 해방이 되면서 거저줍듯 교장 자리에 올랐다는 소문을 뒷받침하는데 일조했다. 조회 때마다 주니를 참아가며 그의 ‘연설’을 들어야 하는 건 정말이지 고역이었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우용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은 ‘이래가지고서야 학교가 풍지박산이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음절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였다.

“교장선생님, 풍지박산이 아니고 풍비박산입니다. 직역하면 ‘바람이 날고 우박이 흩어지다’ 가 되니 ‘지’가 아니고 ‘비’가 맞습니다. ‘날 비’ 말입니다.”

수십 개의 풍선이 한꺼번에 터지듯 폭소가 터져 나왔다.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는 교장 옆에서 억지로 웃음을 참느라 일그러진 표정으로 엉덩이를 들쭉거리고 있는 교감의 태도도 여간 회극적이지 않았다. 웃음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사람들이 책상을 마구 두드려댔다.

이날부터 우용은 분연히 일어나 불의와 맞섰다. 학교운영비가 교장의 사욕을 채운 것으로 드러나거나 교육 목적과 거리가 먼 전시용 사업

에 전용되었을 때, 체육진흥회니 어머니회니 하는 학부모단체 회원들에게 외상값 받듯이 협찬금을 뜯어내라며 교사들을 내몰 때, 교사는 인격도 없는 양 짓밟고 무시할 때, 우용의 의협심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었다. 두 주먹을 불끈 쥔 때마다 사람들은 우용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었고 동료들의 그런 격려가 곧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증거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옳은 쪽에 서기를 원하며 그들에 의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던 나이였다. 불굴의 정의도 굴절된 권력 앞에서는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은 때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용이 높이 들었던 그 기치에 원대한 포부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잘못을 그냥 보아 넘길 수 없었을 뿐이었다. 그 대가로 불평분자에 문제교사라는 불명예가 덮여진 것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 너무 가혹하다는 동정여론이 없지 않았지만 그것이 한 번 찍힌 낙인을 걷어내지는 못했다. 우용이 고향을 떠난 이유가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일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는 말 못할 것이다. 친구들이 ‘그 때문이냐?’ 라고 물었을 때 고개를 힘차게 저으며, ‘나도 서울 가서 자식 좀 제대로 키워보려고 그런다, 왜!’ 라며 강하게 부인하긴 했지만.

그들이 다녀간 며칠 뒤 평가위원들이 포기서를 내기 시작했다는 말이 들려왔다. 우용을 찾아왔던 두 사람이 주동이 되어 교사들에게 다면평가의 잘못된 점을 설명하고 평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서명에 반대하는 사람은 몇 안 되고 대부분 그들과 뜻을 같이 한다고 했다. 그들은 우용을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학교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에는 의사결정권이 없다. 학교의 모든 일이 교장의 전횡에 의해 결정되던 때에 비하면 위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이 개선되었

다고는 하나 아직도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장 앞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로 보이는 위원회마저 이미 결정해 놓은 교장의 뜻에 거수기 역할이나 하는 어용 집단에 지나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 교사들이 갑론을박하며 아무리 좋은 결론을 이끌어놓아도 교장이 수용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의사결정권이 없는 위원회의 한계였다. 최근의 일로는 교구선정위원회의 예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었다.

도서실의 전자철관 문제로 교구선정회의가 다시 열린 것은 처음 회의가 있던 날로부터 사흘 뒤 교장실에서 였다고 했다. 가끔 그곳에서 회의가 열리기도 했으므로 장소로는 이상할 일이 아니었다. 예상과 달리 방 임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회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멀찍이 떨어진 집무용 책상에 앉아 있긴 했지만 교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위원들이 모두 모이자 업무를 담당하던 서 부장이 입을 열었다.

“며칠 전에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다시 의논해야 할 일이 있어서 선생님들을 오시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앞에 놓여 있는 팸플릿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들이 팸플릿을 살펴느라 조용해진 틈을 이용해 교장이 서 부장을 불렀다. 교장의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하여 더욱 은밀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제자리로 돌아온 서 부장이 선생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잘 살펴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제품으로 선택하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강 선생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부장님, 도서실에 꼭 필요하지도 않는 전자철관 대신 책을 더 사기로 지난번 회의에서 이미 결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교장이 흠흠, 헛기침으로 자신의 존재를 환기시켰다. 서 부장의 표정이 난처해졌다. 다른 사람들은 오직 팸플릿 살펴보는 일에만 몰두해 있는 척 아무도 강 선생 말을 거들지 않았다. 답답하고 껄름칙한 침묵이 무겁게 흘렀다.

“우리가 뭘 압니까? 부장님이 교장선생님과 의논해서 하시죠.”

높은 사람 앞에서 만두 빚기를 잘한다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자주 듣는 이 선생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어차피 교장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고 말 바에야 오래 앉아 있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강 선생이 우용의 교실에 들러 입바른 소리를 제법 잘한다는 저도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투덜거리며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자칠판 사용법 연수가 있으니 도서관으로 모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우용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명을 반대한 소수는 바로 이 선생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른바 교장의 경영방식에 저항하지 않도록 잘 훈련되어 있는 부류였다. 저항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다. 늘 그렇듯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몸을 사리는 기회주의가 문제였다.

우용이 임경석 교감의 전화를 받은 것은 일곱 시 뉴스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직장에서도 업무 외의 말은 좀처럼 하지 않는 사람이 집으로 전화를 하다니, 그가 부임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임 교감이 전근을 온 것은 지난 3월이었다.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이제 좀 친숙해지려만 두 사람의 관계는 데면데면한 정도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선후배의 연줄과 닿지 않았고, 동향도 아니

있으며, 그 혼한 연수에서조차 얼굴 한 번 부딪혀본 적 없는 생면부지라서가 아니었다.

술자리 한 번에도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만들 수 있는 이들이 남자고 보면 함께 근무한 기간이 짧다는 게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먼젓번 교감이 승진하여 나가게 되고 후임으로 오는 이가 자신보다 열 살이나 아래라는 소문이 사람보다 먼저 날아왔을 때 우용도 사람인지라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어서 전류가 흐르듯 찌르르 관통하는 무엇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공연한 사람에게 싫은 감정을 품을 정도는 아니었다. 일부러 가까워지려고도 않고 소원해지려고도 않으면서 저절로 불가근 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경석은 우용이 따라주는 소주 한 병을 마지막 잔까지 혼자서 다 마셨다. 먼저 보자고 한 사람이 누군지 헛갈리게 했다. 우용이 무슨 말이든 꺼내 주기를 기다리는지 아니면 할 말을 망설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자 불쾌해지기 시작했다. 일어나야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있는데 경석이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인생에서도 경력에서도 대 선배 아닙니까.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부로 형님께 완전히 백기를 들었습니다.”

술이 세다는 소문과 달리 경석은 벌써 혀가 꼬부라져 있었다. 조금 전 우용의 마음에 일기 시작한 불쾌감과 경계심이 조금씩 풀어졌다. 그렇다고 진정성에 대한 의심마저 가신 것은 아니었다.

“교감 선생님처럼 유능한 분이 저 같은 말단한테 도움을 청하다니요, 좀 뜻밖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선전포고라도 했던가요? 백기 운운 하니 말입니다.”

“절 안 믿으시는군요. 하긴 형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건 다 제 잘못입니다. 암요, 제 잘못이고 말고요. 자알 알고 있습니다. 술 한 병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형님 앞에서 완전히 망가지고 어리광도 좀 부리고 싶습니다.”

경석의 부임과 함께 물어온 소문 속 이력은 꽤나 화려했다. 각종 연구대회에서 최고상을 휩쓸었고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무게있는 프로젝트의 핵심요원이 되어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부에도 이름이 알려졌다고 했다. 모범공무원 표창에다 그 어렵다는 전문직 시험에도 합격했으며 아직 초등교육계에서는 흔치않은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유능’이라는 수식어가 조금도 어색하거나 과장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자리가 그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지도 모른다. 우용이 그의 빈 잔에 다시 술을 채웠다.

“형님, 좀 나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형님 말씀 한 마디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한 방에 날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틀렸습니까?”

“이거야 원,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르겠군요. 나는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완전히 백기를 들었다니까요. 행복한 사람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굴 거야 없잖습니까. 저는 지금 사면초가라구요. 제가 왜 이런 지경에 처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평가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 기한이 가까워지면서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교감이었을 것이다. 공문을 제때에 보고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상부의 지시에 반기를 드는 단체행동을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 우용이 생각해도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엘리트의식에 대단히 큰 상처면서 오점으로 남을 일이었다. 경석의 푸념은 좀 더 오래 이어졌다. 횡설수설하고 있는 그에게 민망한 마음이 느껴진 것은 명성이라는 이름의 그물에 갇혀 퍼덕거리고 있는 한 마리 금빛물고기의 진한 외로움이 전해지면서였다. 우용은 서명파의 일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사흘 전 방과 후 행정실에 갔다가 우연히 안 선생을 만났다. 불일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면서 복도를 함께 걷게 되었다. 지난번 하 선생과 함께 교실에서 만난 후 개인적으로 마주치기는 처음이었으므로 인사성으로 물었다.

“잘 돼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을 것 같으냐고 도로 여쭙면 버릇없는 게 되겠죠, 선생님?”

“왜, 잘 안 돼?”

“글쎄요,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뭉치면 힘이 된 다며 한껏 고무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구요.”

“왜?”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겪는 진통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 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좀 그러네요. 뭐,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안 선생은 가볍게 넘기려는 듯 말끝을 명랑한 어조로 바꾸며 웃었다. 그러나 그 속에 묻어있는 자조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갈수록 바빠서 참석 못하는 사람도 늘고 또 어떤 사람은 서명을 철회하고 싶다는 뜻을 은근히 내비치기도 하구요. 그래서 힘이 많이 빠지

는 게 사실이에요.”

건다보니 어느새 3층에 이르러 있었다.

“벌써 다 와버렸네. 안 선생님은 한 층 더 올라가야 되지? 우리 교실에 잠깐 들렀다 갈래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 때문에 그냥 올라가야 한다는 안 선생에게 힘 내라는 말로 격려했지만 별로 힘이 될 것 같지는 않았다. 우용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분열 정도는 방금 들은 것보다 좀 더 심각했다. 일의 파장이 죄 없는 관리자의 잘못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염려성 발언이 여러 입을 건너며 웃전에 불려가 설득당한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와전되어 서로 의심을 주고받기도 하고, 교원평가는 전체 교육계의 문제인데 우리만 이란다고 무슨 소득이 있겠냐며 서명의 실효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도 했다.

다른 학교 하는 거 보가면서 수위를 조절하거나 때를 좀 더 지켜보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자 뜻을 굽혀서는 안 된다는 쪽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들의 기를 꺾었지만 그렇다고 신중론이 완전히 잠재워진 것은 아니어서 강온으로 파가 나뉘어 대립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들의 앞날을 다음과 같은 말로 비정하게 예단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이제 남은 순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설익은 사랑의 한 판 불꽃처럼 조용히 사그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지만 우용은 서명과의 이런 분위기를 경석에게 전하지 않았다. 그가 선생님들 가까이 다가가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읽은 어떤 지회자의 말이 생각나는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때 자기 몸이 다치는 한이 있어도 악기를 감싸 안고 넘어져요. 악기는 분신이니깐요. 오

케스트라 단원들은 저의 악기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감싸 안아야 하죠. 그 악기가 뭘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죠. 감싸 안는다는 건 소통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감 선생님도 지휘자가 아닌가요? 그것도 단원이 오십 명에 가까운 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습니다.”

두 사람의 술자리는 자정을 넘겼다. 경석은 정신이 말짱해진 반면 우용은 몹시 취했다. 경석이 잡아준 택시에 오르며 우용이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어이, 임경석! 레이건 전기를 쓴 패기 누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더군. ‘성격과 인간적인 매력이 지도자의 제일 조건이다’ 하고 말야. 자네는 이 말이 대통령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나? 그럴 바에야 뭐하러 힘들게 책을 썼겠는가. 대통령이 몇이나 된다고. 안 그래? 이만 가네. 바이바이.”

다음날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선생님들 편에 서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이 없었고, 동료로서 해아림이 부족했다는 교감의 솔직한 고백은 교사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서명파는 단체행동을 거두어들이는 명분을 찾았고 교감은 부하직원의 마음을 얻었다. 열흘 넘게 계속되던 소요가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었다. 우용이 교감에게 다가갔다.

“교감 선생님, 일거양득 축하하는 해장술 어때요? 나야 남는 게 시간 뿐인 사람이지만, 교감선생님은 내일부터 많이 바빠지지 않겠어요?”

‘일거양득 축하할 때 먹는 술이 해장술이야?’ 젊은 여선생들이 회의실을 나서며 하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보고 웃었다.

해장술에 대한 답례를 하겠다고 말한 지 열흘이나 지났지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경석은 좀처럼 시간을 내지 못했다. 그런 그에

게서 교실로 인터폰이 왔다. 웬만큼 급한 일이 아니면 연락을 자제하는 수업 중이었다. 쉬는 시간에 잠깐 만나고 싶다고 했다.

“감 부장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이 안 보입니다.”

난감하고 걱정스런 얼굴로 경석이 말했다. 교사의 근무평정결과는 두 관리자만 아는 인비사항이다.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지만 승진대상자나 전보내신한 사람 정도의 극히 제한적인 경우이므로 대부분 모르고 넘어갈뿐더러 알 필요도 없다. 그런데 그것을 우용에게 털어놓은 것이다. 듣고 보니 문제 치고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다. 감인태의 앞날이 교장 손에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 년 전 전입한 감인태 선생이 연구학교 과제를 추진하는 주무 부장으로 발탁된 것은 그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마침 승진대상자가 없었으므로 동료와 갈등하지 않고 근무평점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쉽지 않은 행운이 그의 몫이 될 것이었다. 여기에 보답하듯 감인태는 연구학교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냈다. 성격이 좋으면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능력이 뛰어나면 성격이 나쁘다는 말은 감인태한테는 해당되지 않았다. 일이 어렵고 힘들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 틀림 없어 보였다. “부장님은 교감을 이미 받은 이루었네요. 선생님 이름 앞에 ‘교’자 하나만 더 붙이면 되잖아요. 감 선생님이니깐요.” 승진에 필요한 부가점수를 다 확보해놓은 것을 알고 이런 우스개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실제로 그의 앞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 보였다. 전혀 뜻밖의 일로 탄탄대로에 제동이 걸리게 되기까지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 교장실로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 일이야말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논하지 말라’는 ‘부재기위불모기

정(不在其位不謫其政)’이 아닌가. 방법을 연구해 보자며 교실로 돌아갔지만 교장이 쥐고 있는 칼자루를 빼앗지 않는 한 이것은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생각다 못해 겨우 짜낸 방법이 본인더러 직접 매달려 보라는 것 정도였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지난날의 일이 되살아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 쓰린 기억이 감인태의 일로 복원되려 하고 있었다. 세상은 어찌 이다지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

고향을 떠나 경기도로 옮긴 그 해 우용이 발령받은 학교는 식구들의 거처를 마련한 서울에서 통근이 불가능했다. 자취 보파리를 꾸려서 집을 떠났다. 날이 저물면 캄캄한 천지에 별빛만 눈이 아프도록 초롱초롱하여 혼자 지새는 밤을 길고 외롭게 했다. 고향을 떠나며 붙들고 있던 한 가닥 호기는 아침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불혹의 나이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다가 다시 일어난 것은 용수철이 튀어 오르듯 오기가 되살아나면서였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화를 복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마당에 이르러서까지 무엇이 두려우랴.’ 이때부터 목표가 분명해졌고 계획하는 일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식구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불편도 목표를 이루려는 마음에 자극이 될지언정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

5년을 끝으로 승진에 필요한 부가점수가 다 확보되자 우용은 집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학교를 옮겼다. 이제 근무평정 점수를 잘 받는 일만 남았다. 4년째 되는 해에 교무부장이던 사람이 승진대상자로 차출되면서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이태만 더 고생하면 우용에게도 기회가 오게 되어 있었다. 출퇴근시간이 따로 없었고 방학도 잊고 살았다. 최고점수는 마땅히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우용의 바람과 달리 그 해 점수는 3월에 전근 온 일 년밖에 안 된

최 선생이란 자의 차지가 되고 말았다. 그 사람과 교장 사이에 무엇이 작용했는지 우용은 알지 못했다. 학연과 지연이 있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했다지만 안면몰수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니 무슨 짓인들 안 했으랴 미루어 생각해볼 수는 있었다. 이 한 번의 어긋남은 결국 우용이 품었던 꿈에 치명타가 되고 말았다.

생각해보니 감인태의 일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서명 사건이 조용히 해결되고 난 어느 날 교장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이것을 짐작하게 했다. 최명도 교장은 나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말상대가 필요하면 우용을 찾았다. 그는 이것을 우용에게만 베푸는 특별한 대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있었을 뿐 우용은 이 ‘특별한 대접’을 은정(恩情)으로 여기며 고마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간적인 면모를 자랑하며 생색낼 때 이용하더라는 소리를 전해들을 때는 같잖고 아니꼽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굳이 자리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가끔 교사들의 뜻을 완곡하게나마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어서였다. 그날은 학년말시험 결과처리로 다른 날보다 더 정신없이 바빴다. 교장의 인터폰을 받으며 사정을 알릴까 하다가 우선 교장실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우용이 엉덩이를 자리에 내려놓기도 전에 그가 작심한 듯 선생들에 대한 비난으로 말문을 열었다.

“나는 생각할수록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몇 명 서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나 참 기가 막혀서.”

“저는 교장 선생님처럼 높은 자리에 안 앉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높이에서 말씀드리자면 선생님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고자하는 메시지가 분명 있을 테니까요. 어찌됐던 조용히 해결되었으니 다행 아닙니까. 그동안 교감선생님 노고가 큰 것 같더군요. 역시 유능한 분이랴 다르다 싶었습니다.”

“유능은 무슨. 정말 그렇다면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했어야지. 내가 보기에는 교감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상당한 거품이 있어요. 유능한 교감이라고 추켜세우는 것과 달리 일 처리하는 꼴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안다니까.”

특하면 교감을 못마땅해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일부러 칭찬을 유도해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내 이번에 옥석을 가렸으니 대접할 사람은 대접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본때를 보일 거요. 상명하복이 기본태도인 공직 사회에서 하극상이라니, 이거 말이나 됩니까? 재발방지를 위해 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해요. 일벌백계할 테니 두고 보시오.”

교장은 유난히 ‘일벌백계’에 힘을 주었다. 응징해야 할 사람이 눈앞에 있더라도 한 것처럼 험악한 표정으로 서슬이 퍼래져서 눈을 홑뜨기까지 했다. ‘일벌백계라니? 도대체 누구를?’ 그때 우용은 퇴근 전까지 처리해야 할 일도 급했지만 최명도 교장의 얼굴에 드러난 과도한 흥분에 질려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가 않았으므로 이런 의문을 무지르며 교장실을 나와 버리고 말았다. 감인태한테 닥친 위기를 알고 나자 이것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아둔함이 후회스럽기 짝이 없었다. 말하기 좋아하는 그를 살살 구슬려 날을 세운 칼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냈어야 했다. 설사 확신에 찬 그의 뜻을 어찌해 볼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타깝지는 않을 것이었다.

우용은 더 이상 감인태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나쁜 쪽으로 결론나지 않기를 바랐고, 교장이 터무니없는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선생님, 소식 들으셨어요?”

어느 날 하 선생이 교실로 찾아와서 물었다.

“무슨 소식 말입니까?”

“아직 모르고 계시는군요. 배정미가 가져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배정미가 가져가다니, 뭘 말입니까?”

“근평 말이에요.”

“영감탱이가 노망이 났나, 완전히 돌았구먼!”

우용의 거친 반응에 하 선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하필이면 왜 배정미인가! 무단 이석과 지각, 게으르고 무성의한 학급관리였다 춘지까지 밝힌다는 더러운 소문이 꼬리를 물고 끊이지 않는 사람이 배정미였다. 여북하면 이런 사람 때문에라도 하루빨리 교원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모이기만 하면 성토를 할까. 그는 서명을 거절한 반대파의 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교장이 내세운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배정미는 감인태와 달리 지금 당장 점수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더욱 비난을 면하기가 어려웠다.

사람들은 한동안 모여 앉기만 하면 교장과 배정미를 싸잡아 욕했다.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배정미의 ‘수단과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을 거라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심증이 가고도 남는 분명한 일이라고, 누군가 확신에 찬 어조로 결론을 내렸다. 아무도 이 말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우용이 감인태와 소주잔을 앞에 놓고 마주 앉았다. 먼저 연락한 사람은 우용이었지만 그러잖아도 자리를 갖고 싶었다며 더 반가워한 쪽은 감인태였다. 그들은 정작 털어놓고 싶은 속내를 숨긴 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안주삼아 술만 축냈다. 그러다가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우용이었다.

“그때 자네도 나처럼 조금만 비겁해지지 그랬나?”

“하극상으로 오해를 받으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랬겠지요.”

“자네까지 나서지 않아도 할 사람 많은데 왜 저러나 싶었어.”

“형님처럼 나 비겁한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말할 용기도 없고, 남들한테 비겁한 사람이라는 말도 듣기 싫어서였죠, 뭐.”

다시 또 술잔만 기울이는 시간이 흘렀다. 빈병이 늘어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취기는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누가 뭐래도 그때 우리의 행동에는 불온한 점이 없었어요. 무조건 반대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으니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알리려고 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은 후회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서 저야말로 기회주의자구나 싶어서 부끄러워지기도 하구요.”

감인태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교장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고 간청했다더니 그 일을 떠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본인한테 귀찮은 일 때문에 입이 싸다는 비난까지 들었다는 교감의 노력도 결국은 아무 소용없게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시스템이 문제였다. 그렇지만 귀 가진 이들이 듣고 전하는 말에 의하면 최명도와는 품격이 다른 훌륭한 교장도 얼마나 많이 있던가. 인생의 행로 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훌륭한 상관을 만나지 못한 감인태의 불운에 울컥 연민이 치받쳤다.

“내가 왜 이려고 사는지 자네 아는가?”

“형님이야 원래 초연하신 분 아니십니까?”

“초연이라……. 화약연기 말인가? 그렇지, 연기는 원래 사라지지. 한때의 꿈처럼 말이지. 오늘은 내가 자네한테 위로주나 한 잔 사려고 했

는데 이렇게 마주앉고 보니 우리가 동병상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군.”

감인태의 눈이 위로 치떠졌다. 그의 눈빛이 형님도요? 하고 묻고 있었다.

최 선생이 승진대상자가 되어 나가고, 다음해 최고점수는 우용의 몫이 되었지만 결국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한 학교에 5년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인사규정 때문에 학교를 옮기지 않을 수가 없었고, 연이어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우용의 형편에 맞는 학교는 찾아지지 않았다. 어차피 세상은 피투성이 되게 싸우는 곳, 살아남으려면 별수 없지 않느냐고, 그를 아끼는 주위 사람들이 쉬운 길을 권하며 마음을 흔들었지만 우용은 자신이 당한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짓은 차마 할 수가 없었다. 다시 차례를 기다리며 몇 년이 흘렀고, 해가 갈수록 불리한 쪽으로 규정이 바뀌면서 더 이상 점수를 보태기 어렵게 되었다. 많아지는 나이도 한 몫을 했다. 포기가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인연이 닿지 않아 그러려니 생각하며 세월에 마음을 맡겼다. 세월이 약이 되는 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 고전적인 처방이었다.

기억은 머리에 남고 추억은 가슴에 새겨지는 거라고 했다. 감인태를 통해 다시금 되살아난 지난날의 일들은 기억인가 추억인가. 우용이 처연해지려는 마음을 수습하며 감인태를 바라보았다.

“자네, 그렇다고 희망을 너무 빨리 포기해 버리지는 말게.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우용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어쩌면 그도 희망을 접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일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고, 그러기에는 지금 서 있는 그 곳이 가장 좋은 자리라고, 무엇보다 세상일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거라고.

한 해의 마지막 밤이 새해 아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태 전, 서른다섯 해 동안 몸담고 있던 교직을 떠나던 날 동료들은 내게 인생 이모작도 훌륭히 해내리라 믿는다는 말로 정년을 지키지 못한 미완의 마무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기는 두렵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기에는 아쉬움이 남는 씬다섯 되는 해였다.

나에게 글쓰기는 목마름이면서 동시에 이것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물줄기 같은 것이다. 내가 두드리고 있는 성문의 빗장을 열기 위해서는 더 혹독한 목마름을 견뎌내야 할 테지만, 그래도 나는 이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글쓰기의 행복한 고통 속에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이 수상이 수필가이신 아버지께 작은 기쁨이나마 드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빗장을 열 수 있을 때까지, 비록 더딜지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리고 싶다.



영천 중앙초교 화남분교

이 재 곤

거미, 다가오다

한 줄 한 줄 거미줄이 되어 갔다. 손과 발이 가늘어지더니 서서히 영킨
실타래 모양의 거미줄로 변했다. 머리를 제외한 몸 전체가 거미줄이 되어
버렸다. 무언가가 툭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민이가 거미줄
위로 아장아장 올라왔다.

순간 수민이가 거대한 거미로 변했다.

거미줄 위에 떨어진 작은 점 하나가
거대하게 변했던 것이다.



거미, 다가오다

아지랑이 피는 논둑길을 따라 잎새들이 푸르게 흔들리는 날이었다. 바람 속의 애기똥풀처럼 고모의 입술은 파르라니 떨리고 있었다. 사륜 거리는 옷자락을 타고 분 냄새가 날아오는 듯 했다.

고모가 옛된 스물을 넘겼을 무렵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알아봐 둔 자리에 시집을 보내려 했다. 그놈의 가난이 문제였다. 그것도 옆 마을의 나이 많은 농사꾼에게, 볼 것이라고는 착한 것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하지만 고모의 고집은 팽팽한 줄다리기의 양상을 띤 채 몇 년이 흘렀다. 끝내 이기지 못한 줄다리기. 그렇게 팽팽하던 줄을 놓아 버린 고모는 스물하고도 넷의 나이에 마흔이나 된 그 자리로 시집을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고모는 그런 곳에서 암전한 색시로 지낼 만큼 모질지 못했고 무엇보다 젊었다.

그래서일까 아기가 집을 짓고 있기엔 고모의 가슴 속에 있는 슬픔이 너무 견고했으리라. 그 날 고모가 나에게 속삭였던 그 말은 끝내 잊을 수 없었다.

“해처럼 맑은 아이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고모는 하얀 꽃무늬 지갑에서 동전 하나를 쥐어주곤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지랑이 이는 고샅길로 사라져가던 고모의 눈은 무엇을 향했던 것일까. 목련이 희망 같은 부풀림을 제 몸 속 깊이 간직하던 따스한 봄날, 고모는 사라졌다.

어깨 쪽에서 느껴지는 아내의 숨결이 낮설어서일까. 이른 아침부터 몸을 뒤척이며 일어났다. 희미한 빛이라고 해야 할 지 어둠이라고 해야 할 지 둘러싸인 네 벽이 갑갑하게 느껴졌다. 가만히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내의 얼굴은 눈과 코와 입이 뭉그러지며 서서히 어둠 속에서 멀어져갔다. 몇 번 눈을 깜박인 후에야 아내의 이목구비가 제자리를 찾아갔다.

베란다로 나와 창문을 열고 앞 동의 몇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저렇게 이른 아침을 맞이하며 출근 준비를 한 게 오랜 꿈처럼 느껴졌다. 한 대의 담배가 다 타들어 가고 아파트 앞 공터로 사람들이 제법 지나다닐 때까지 들어오는 찬 공기를 맞으며 서 있었다. 찬바람에 눈이 얼얼해졌다.

작은방 문을 열고 수민이 쪽으로 다가가 머리맡에 조용히 앉았다. 수민이의 작은 손이며 새치름한 입술이며 형클어진 머리를 찬찬히 내려다보았다. 솜털이 이마 앞을 가려 여성스러운 느낌이 드는 건 아내를 닮았기 때문이다. 그런 수민이가 가끔씩 데면데면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애써 수민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책을 읽어주곤 했다. 수민이 머리맡에는 저녁에 읽어주다 만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책을 집어 책상 위에 올리려다 그만 야쿠르트 병을 쓰러뜨렸다. 어제 저녁 수민이에게 반쯤 먹이다 책상 위에 올려둔 것을 깜박한 모양이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끈적거리는 액체가 책상 밑으로 튀었다.

걸레를 가져오기 위해 방문을 여는 순간 쌀을 씻고 있는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걸레를 거머쥔 때 나를 한 번 힐끗 내려다보는 아내와 다시 눈이 마주쳤다. 짧은 한숨과 함께 쌀을 씻는 아내의 손에 힘이 들어갔

다. 아내의 눈빛과 한숨 소리에 바닥을 닦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끈적 거리는 느낌이 들지 않게 손에 힘을 주어 닦았다. 책상 아래에 머리를 쑤셔 박은 채 깊숙한 곳까지 튼 야쿠르트를 깨끗이 닦아나갔다. 머리로 몰린 피가 혈관을 팽팽하게 부풀려서인지 두 눈이 빨갛게 충혈 되는 것이 느껴졌다. 순간 책상 다리 부분에 흰 얼룩 같은 게 터질 듯한 눈 속으로 들어왔다. 무엇인가 싶어 구석으로 머리를 쑤셔 넣었다.

거미줄.

거미줄은 책상과 벽 사이에 난 틈을 채우며 책상다리까지 교묘하게 이어져 있었다. 보푸라기 같은 거미줄이 서로 얹혀 실타래처럼 뭉쳐져 있었다.

육 년 전 목 좋은 날을 잡아 이곳으로 이사를 왔을 때 더 이상 모기나 개미 같은 성가신 해충들이 올라오지 못할 거라며 마냥 좋아하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 역시 꼭대기 층의 불만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며 기뻐했다. 정말 그 해 여름엔 모기와 개미를 비롯한 잡충들이 집안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높이에 거미줄이라니…….

“전화 받아요.”

몸을 한껏 웅크리고 팔을 책상 안 모서리 부분에 걸려 있는 거미줄을 막 걷어내려는 순간 아내의 심드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른 아침부터 누구지. 치고자 마음먹었던 거미줄에 걸레를 갖다 대려는 순간 아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알았어. 간다고 가.”

아내는 수화기를 불쑥 건네고 들끓한 찌개 냄새가 이는 부엌으로 가 버렸다.

“네. 전화 바꿨습니다.”

“이정도씨 되시죠?”

“네.”

“나 선진 세라믹의 정대만이요.”

정대만? 수화기를 든 채 머뭇거리고 있자 몇 년 전 여름에 잠시 적을 둔 공장의 사장이라는 말이 짧게 건너왔다. 크게 급한 전화는 아닌 것 같아 인사도 뒤로 미룬 채 가만히 한숨을 뱉었다.

“일자린 구했어요?”

정사장은 아픈 곳을 대뜸 찔러왔다.

“아직…… 그냥 그대롭니다.”

사람들의 안부 인사조차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았던 게 꽤 오래전이었다. 당시에는 평범한 인사에도 가슴 아래쪽이 저릿해지며 그 사람의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 없던 시절이었다. 당시 많은 사람이 그러했듯 나 역시 무능력한 탓에 구조조정의 그물을 피하지 못했고 나와서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 나올 때와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조바심이 났고 어딘가에 쫓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도 아마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내색하진 않았지만 관심마저 위선으로 느껴지는 날의 연속이었다. 그런 아물지 않은 생채기가 다시 화끈거리기 시작했다.

“현씨 아시죠? 아 왜 그 때 같이 일했던 어리벙벙한 인부 하나 있잖아요. 앞뒤가 꼭 막혀서 별명이 소시지인……. 그 현씨가 색시 얻는다고 중국으로 갔어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면 오는데 그 때까지 여기 와서 일 좀 봐주세요. 경험도 있으니깐 돈은 조금 더 없어 드릴 테니.”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회사에서 나온 지 꽤 오랫동안 일자리가 잡히지 않자 이웃집 아주머니의 소개로 그곳에 떠밀리다시피 해 들어가게 되었던 곳이었다. 순간 온종일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런 거라면…… 생각 좀 해볼게요.”

“빨리 올수록 좋은데 현씨 할 일이 좀 밀려 있는데……. 용역 회사에서 부르는 것보다 이형이 경험자라서 전화 드린 건데. 그냥 아들 녀석 간식거리 사주는 셈 치고 하세요. 그런 줄 알고 있을 테니까 식사하고 바로 오는 겁니다.”

“저…….”

정사장은 이미 나의 사정을 간파하고 있었다. 나의 약점과 우유부단한 성격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것을 안다는 듯 이내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긴 아들 녀석의 간식거리라도 사주려면 앞뒤 가릴 처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부아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정작 수민이에게 변변한 선물 하나 제대로 해 본 기억이 까마득하여 한숨이 미어져 나왔다.

아내는 어디 일자리라도 구했냐는 듯이 거실로 나온 나를 바라보았다. 췌근췌근 잠들어 있는 수민이 방으로 들어가 비닐 백에다 조용히 체육복을 구겨 넣었다. 이마끼를 덮은 보송한 솜털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 까짓 것 못할 것도 없지.

허름한 공장 창고 안으로 겨울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것 말고는 그 당시 여름과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명멸하는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거대한 흙덩이들하며, 그 옆으로 부서놓은 흙 조각들이 사금파리처럼 날려 있었다. 그 흙들을 보는 순간 다시 한 번 긴 한숨이 새어 나왔다.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자판이나 두들기다 난생 처음으로 삼질이며 곡괭이질을 했던 곳이었다. 정사장은 분쇄기를 거쳐 나온 모래를 일정량은 컨베이어 위로 올려 말리고, 다른 일정량은 망으로 쳐 백색 분말가루와 말린 모래를 거기에 섞여라 했다.

“뭐 잘 알겠지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면 됩니다. 오랜만에 하

려면 힘드니깐 쉬엄쉬엄해요. 난 수작업 할 게 있어서 그 곳으로 갈 테 니깐. 무슨 일 있으면 가마 공장으로 와서 연락해요.”

정사장은 내가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설명해주고 가스 가마가 놓인 공장 안으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이것저것 가릴 처지는 아니었지만 혼자 텅 빈 창고에서 이 많은 흙을 쳐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바닥에 깔린 흙덩이를 양동이에 가득 담아 분쇄기에 넣자 흙이 댕강 댕강 부서지더니 망을 거쳐 모래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다. 흙덩이가 가득 찬 양동이를 들어 분쇄기에 넣을 때마다 손끝이 저려왔다. 부서지는 흙을 보는 것만으로도 간담이 서늘했다. 컨베이어를 작동시켜 일차 적으로 한 번 걸러진 모래를 플라스틱으로 된 커다란 삽을 이용해 아홉 동이 분량의 모래를 채워 올렸다. 그러자 맞은편의 가느다란 원통에서 바삭 마른 모래가 흘러 나와 비닐 포대로 흘러 들어갔다. 마른 모래에서 나온 흙먼지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굵은 모래를 A형 사다리에 걸린 철망으로 거르는 일이 남았다. 위태로워 보이는 철망을 잡고 흔들자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입자의 모래들이 빠져나왔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곧 몸은 덥혀졌고 상충된 기운의 충돌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이만하면 되었을까 싶은 마음에 담배를 베어 물고 멍하니 모래를 바라보았다. 철망 밑에 떨어진 모래는 때 없는 무덤 처럼 반이 잘려진 타원의 구 모양을 하고 있었다.

작년 추석, 별초를 잤을 때 아버지의 무덤도 저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장지에 잤을 때만 해도 상을 맡은 늙은이가 이번 잔디는 참 곱게 자리를 잡을 거라며 칭찬을 마지않았던 자리였다. 하지만 이듬해 잔디는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군데군데 흙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있었

다. 자리 잡지 못한 곳에는 흙마저 비에 씻긴 채 움푹한 구덩이가 들어서 있었다. 무언가에 섭섭해 하던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져 답답한 마음만 더해졌다. 그 날 움푹한 구덩이 사이를 뛰어다니던 거미 한 마리를 장갑 낀 손으로 눌러버렸다.

연락이 끊겼던 고모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공교롭게도 아버지였다. 여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감정은 원망과 증오, 그리고 회한과 미안함이었다. 고모가 사라지던 날 집안의 그 누구보다 격한 감정을 보인 사람이 아버지였다. 할머니는 아버지 옆에서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며 다 자신의 탓이라고 가슴을 쳤고, 그 소식을 가지고 온 고모부는 편지를 구겨 쥐며 그건 장모님 탓이 아니라 못난 자신의 탓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아버지만큼은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았다. 이 일은 고모의 잘못이며, 때려죽일 년 역시 고모라는 말을 되새기며 그런 못난 년은 하루빨리 잊는 게 자네 살길이라며 고모부를 위로했다. 착하고 일밖에 몰랐던 고모부는 그렇게 쓸쓸히 우리 집과의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나이는 많지만 언제나 나를 향해 순박하게 웃어주던 고모부와의 헤어짐이 나 역시 아쉽기만 했다.

하지만 아버지도 동생에 대한 연민은 어쩔 수 없었다. 나를 말벗 삼아 가끔씩 약주를 한 잔 하고는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당신의 괴로운 심정을 안주삼아 꺼내놓았다. 당신의 무능이 동생을 그렇게 만들었다며 세월도 약이 될 수 없다 했다. 불그스름한 아버지의 눈이 빨갛게 충혈 되면 그제야 난 술상을 치웠다. 언제나 여동생의 일로 조마조마한 삶을 사셨던 아버지. 내색하지 않았지만 늦은 밤 잘못 걸려온 전화에도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큰 수술을 앞두고 나에게 고모의 얘기를 다시 한 번 꺼내셨다. 지병인 협심증으로 고생하던 아버지는 당신의 심장이 오그라드는

고통도 참아가며 고모를 찾았다. 아버지의 몸이 쇠약해질수록 동생에 대한 끈을 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고모의 소재를 파악한 후에야 자신의 병이 심상치 않았던지 큰 병원으로 몸을 옮겼다. 대구의 한 대학 병원으로 간 아버지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심혈관조영술로 스텐스를 삽입하는 시술이었다. 병원의 의사는 수술실로 들어간 지 채 삼십분도 안 되어 밖으로 나왔고 깜짝 놀란 아내는 면접을 보러 간 나에게 전화를 했다. 의사의 말로는 혈관이 너무 막혀 스텐스 시술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 후 서울의 큰 병원으로 아버지를 옮겼고, 그 곳에서 아버지는 가슴을 열고 수술을 받았다. 수술실에 나온 아버지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나는 부랴부랴 그곳으로 달려갔다. 온몸에 바늘을 꽂고 계신 아버지는 서서히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네 고모가 왔다잖어.”

아버지는 그 날 한 얘기를 기억하지 못했다. 무슨 영문인지 재차 물어보았지만 아버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의사는 전신마취에서 깨어날 때 그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아버지가 촌집에서 어느 정도 혼자서 거동을 할 무렵 고모를 찾아갔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고모는 영양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계셨다. 고모는 자신의 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을 사신 것 같았다. 오십대 후반의 나이에도 머리는 희끗희끗 변해 있었고, 어렸을 적에 보아 온 그 고운 자태는 흔적을 감춰버렸다. 웅이 진 손마디와 얼굴에 깊게 자리한 주름이 고모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조용히 식당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지만 고모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물수건과 물이 찬 컵을 가져다주며 주문하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고모…….”

실로 오랜만에 불러보는 말이었다. 그제야 고모는 나의 얼굴을 바라 보았고, 쟁반을 옆구리에 끼고 있던 고모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내 평정을 되찾은 듯 고모는 이쪽저쪽에서 부르는 손님들의 주문을 받았고, 내가 시킨 돌솥비빔밥의 바닥이 보일 때까지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밀물처럼 밀려온 손님들이 한 차례 빠져나가자 고모는 내가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숟느를 놓았다. 맞은편에 앉은 고모와 나는 숟느가 다 식을 때까지 조용히 유리로 된 문의 바깥을 바라 볼 뿐이었다.

“그만 내려가요.”

“네 아버지는 괜찮으냐?”

고모는 이미 고향 집에 대한 일들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 영양에 고추를 사러 오시는 손님 중에 아버지와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분이 계시다고 했다. 그리고는 고모부에 대한 안부도 잊지 않고 물었다.

“네 고모부는?”

“방은 치워 뒀어요.”

애써 말을 돌렸다. 고모부의 삶 역시 고모가 사라지는 날 잊혀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전할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일밖에 모르시던 고모부는 더욱 더 농사일에 매달렸고, 사람과의 소통도 서서히 끊어나갔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고모는 한숨을 쉬며, 웅이 진 손으로 내 앞의 숟느를 들고는 별걱별걱 마셨다.

“곧 단풍절이라 가게에 손이 많이 필요해. 단풍절만 지나면 들어가 마.”

그 해 겨울, 고모는 단출한 여행용 가방 하나를 나의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고 일어나니 온 몸에 알이 배긴 듯 했다. 오랜만의 거친 일에 근육

들은 일하기 싫다며 뭐 이런 주인이 있냐며 생트집을 잡고 있었다. 주방의 식탁 위에 놓인 물병에 입을 대고 물을 들이켰다. 어제 마신 먼지로 목이 까끌까끌했고 가슴을 은근히 짓누르는 압박감에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반쯤 열린 방문 틈 사이로 자고 있는 수민이의 얼굴이 보였다. 가스레인지 위에 아내가 올려놓은 찌개에서 김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아내는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식탁 옆 의자에 앉는대도 허벅지로 통증이 몰려왔다. 냄비 위에서는 김이 더욱 세차게 오르며 휘파람소리를 내더니 기어코 넘치기 시작했다. 살쥔살쥔 넘쳐 오르던 찌개가 용광로처럼 부글거리더니 가스레인지를 뒤엎을 기세로 넘쳤다. 깜짝 놀라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발밑부터 허벅지까지 쥐가 올라왔다. 어기적거리며 가스레인지를 끄고 그 자리에 털석 주저앉자 찌증이 왈각 밀려왔다. 그 때 화장실에서 아내의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불일 본 것을 가지고 화를 내기엔 뭇 한 것 같아 조용히 식탁위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배를 뉘엿뉘엿 문지르며 나오는 아내를 외면하며 머리를 숙이고 먹는 것에 열중했다.

“찌개 올려 뒀는데 찌개랑 먹어.”

대답 없이 밥만 먹고 있자 아내는 찌개가 넘쳐흘러 얼룩진 냄비를 식탁위에 올려놓았다. 흘끗 아내를 올려보자 아내도 흘끗 나를 내려다보고는 방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제 들고 온 비닐 백 좀 갖다 줘.”

큰방에선 아무 대답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릇에 밥을 반이나 남긴 채 비닐 백을 찾았다. 현관문 옆의 신발장 위부터 작은방의 책상 위까지 있을만한 곳을 다 뒤져보았지만 비닐 백은 보이지 않았다. 아내가 거실로 나오면 물어볼 요량으로 식탁 앞에 어기적거리며 앉았다. 하지만 아내의 방에서는 티브이 소리만이 흘러나왔다. 다시 한 번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내를 불렀다. 아내는 알았다고만 할 뿐 좀처럼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뒤질만한 곳을 뒤졌지만 비닐 백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 출근해야 하는데 뭐해? 좀 찾아달라니깐!”

짜증 섞인 나의 투정을 듣고서야 아내는 문을 열고 나왔다.

“어디에 있는 지 못 봤어?”

“난 당신 거 안 만졌어.”

“출근해야 하는데 빨리 좀 찾아!”

“그것도 출근이라고…….”

나 몰라라 하는 아내의 행동과 자존심을 긁는 아내의 대답에 화가 치밀어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다. 아내는 놀랐는지 몸을 흠칫거리며 뒤 돌아섰다. 그대로 큰방으로 들어갈 줄 알았던 아내가 고개만 돌려 눈을 흘겼다. 다시 들어가려는 아내를 되세우기 위해 팔을 아내의 어깨 쪽으로 뻗을 때였다. 순간 비닐 백 있는 곳이 머릿속을 스쳤다. 공장에서 옷을 갈아입고 집안이 모래로 더러워질 까봐 탈의실에 두고 온 것이었다. 불현 듯 생각난 나의 손을 황급히 호주머니 속으로 되돌리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고 말았다. 오히려 돌아서려는 아내의 어깨를 손으로 툭치는 꼴이 되었다. 다시 아내는 나를 향해 눈을 흘겼다. 언제부터인가 작은 일에도 뼈적거리는 일상이 지겨워 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고모가 돌아오신 후 그 이듬해 겨울에 돌아가셨다. 워낙 약주를 좋아하시던 분이었고, 무엇보다 수술을 하신 후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의사의 말을 맹신한 까닭이었다. 수술한 자리가 아물어가자 자신의 몸에 대한 과신이 화를 불렀다. 그 날도 고모와 함께 늦은 아침을 같이 했고 아침과 함께 반주로 소주 한 잔을 드셨다. 유리보다 투명한 소주를 입에 탁 틀어놓고는 옆에 있는 숟가락으로 입을 우물우물 행구곤 느

려진 몸을 이끌고 방문을 나섰다. 털이 폭신하게 달린 노인들이 신는 고무신을 신고는 작년에 사준 거위 털 파카를 돌돌 말아 입고는 산책을 떠났다. 고모에게 전화를 받은 것은 아버지가 산책을 떠난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숨을 쉰쉰 몰아쉬며 돌아온 아버지는 신발을 벗으려다 말고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일그러진 표정과 걱정하는 고모에게 안심하라는 표정을 보이는 간극 사이의 애매한 표정이었다. 가슴을 몇 번이나 쥐어뜯으며 나를 찾았다고 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119 대원들의 주황색 옷이 집안에 들어선 뒤였다. 그 날 본 아버지의 모습은 흰 천 아래 자고 있는 듯한 아버지였다. 나는 가만히 흰 천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잠이 든 것처럼 해맑은 표정으로 누워 있었다. 고모는 많이 놀랐는지 나를 보며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이후 고모는 고향집에 혼자 지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먹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무수히 식당을 찾아다녔지만 피폐해진 몸으로 일자리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 때 아내는 고모를 모셔오자고 했다. 고향집에 몸도 성치 않은 분을 혼자 두는 것은 사람 된 도리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직장을 잃은 남편이 두 집으로 나누어지는 돈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게 아내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아내는 고모를 모셔오고 고향집을 팔아 내가 직장을 구할 때 까지 만이라도 생활비로 쓰자고 했다. 고모는 한사코 조카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할 정도는 되니 다시는 말을 꺼내지 말라 하셨다. 나 역시 고모의 판단도 옳다 싶어 고향집에 그대로 모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내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대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에 면접을 보러 간 사이 아내는 고모의 고집을 꺾어 고모를 집으로 모셔왔다. 면접에서 돌아온 나를 바라보며 아내는 세상

누구보다 맑은 웃음을 보였다. 아내는 자신의 생각대로 툭툭 진행되어 가는 세상이 약간 만만해 보였을 것이다. 그 때부터 아내는 고향집을 팔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녔다. 동네 복덕방에도 내 놓았으나 생각처럼 쉽게 팔리지 않았다. 오십 평 남짓의 촌집이 삼각형 모양으로 툭하니 자리 잡고 있어 새집을 짓기에도 만만치 않아 오는 사람마다 터를 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나는 아내대로, 집을 팔지 못한 아내는 아내대로 예민해져 갔다. 작은 일상이 뼈적거리기 시작한 것도 아마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우유부단한 성격은 일을 하면서도 아내에 대한 서운함과 미안함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퇴근시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아내가 떠올랐다. 아내는 끈질기게 나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미안한 마음에 아파트 상가에 있는 치킨 집에 들러 프라이드치킨 한 마리를 시켰다. 해바라기가 수놓인 앞치마를 두른 주인아주머니는 맞은편의 새로 생긴 치킨 집을 의식해서인지 행사기간이라며 자그마한 자동차 모형의 장난감을 주었다. 장난감 모형 옆에는 ‘수정통닭’이라는 로고와 전화번호가 노란 글씨로 박혀 있었다. 애들에게 갖다 주라는 주인아주머니는 다음에 또 오라며 동그란 동전 모양의 쿠폰까지 쥐어주었다. 다른 곳과 달리 아홉 장만 모으면 한번은 공짜로 시켜 먹을 수 있다는 주인아주머니의 인사를 뒤로 하고 집으로 향했다.

비닐을 쥔 손은 추운 겨울에 흙먼지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터실하게 더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내는 뽀로통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어 주곤 큰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다. 아빠, 하며 달려오는 수민이는 손에 들린 통닭부터 집어 들었다. 비닐봉지를 헤집더니 그 안에서 발견한 장난감을 들고 혼자 부릉부릉하며 신나 있었다.

“같이 먹어.”

아내는 좀처럼 화를 풀지 않을 듯한 기세였다. 하긴 화를 풀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항상 무표정한 얼굴이었고 나 역시 은근한 불만을 가슴 속에 지니고 있었으니. 아내와 나의 감정싸움은 끝내 자존심 싸움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양상은 고모와의 일로 회복할 수 없는 강을 건너갔다. 누구보다 자존심 강한 고모는 나이를 먹고 세상풍파에 시달리며 나약해져 갔다. 나에게 가르쳐준 자존심은 이미 온데간데없었다.

촌집의 고샅길 입구에는 고모의 단짝 친구가 있었다. 나는 고모의 친구를 주위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여수고모라 불렀다. 지금 와 생각해 보면 여시를 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수에서 와 여수고모라 불린 것도 같았다. 지금은 기억도 가물가물한 어느 여름 여수고모 집엔 내 또래의 조카가 한 명 와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그 아이의 손에는 내가 본 적 없는 로봇들이 들려 있었고 그 장난감이 부러워 매일 여수고모 집에서 살다시피 했다. 고모는 그 집에서 살다시피 하는 내가 못마땅했지만 어린 마음에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두었다.

서울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아이가 못내 아쉬워 여수고모집 문 앞에서 맴돌던 날이었다. 여수고모는 그런 나를 불러 그 아이와 함께 버스를 타고 읍내로 데리고 갔다. 읍내에 있는 가장 큰 장난감 가게에 들어선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있을 법한 장난감은 다 그곳에 있는 듯 했다. 당시 내 키의 몇 배나 쌓여있는 장난감을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여수고모는 장난감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다. 우물쭈물하자 여수고모는 내일 떠나는 친구의 이별선물이라 했다. 난 그 아이의 이별선물을 들고 해맑은 웃음을 던지며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서 알면 난리 날 물건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에 그 장난감을 집 뒤켠의 벚단에 숨기고 놀았다. 하지만 집 뒤켠에서 한참을 놀다 나오는 꼬리를 고모에게 밟혀

장난감에 대해 모두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고모는 어린 나의 기대를 사뿐히 밟으며 동네의 장난감 가게에서 가장 비싼 장난감을 하나 사왔다. 그 장난감을 들고 다시 돌아온 고모는 나를 큰방으로 불렀다.

“고작 그런 장난감에 자존심을 버린 거야?”

“.....”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고모는 끈질기게 묻고 있었다.

“그건..... 그 애의 이별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때 고모는 나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렷했다. 아픈 것보다는 뺨을 맞았다는 수치심에 눈 전체에 눈물이 덩그러니 맺혔다. 그리고 그런 나를 향해 고모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하나를 던졌다.

“하나 골라.”

담담한 고모의 목소리가 무서웠다. 동네에서 제일 비싼 장난감도 그 애의 이별 선물을 쫓아오진 못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새로 사온 장난감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난 또 다시 자존심을 구긴 셈이었다.

훗날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였지만 고모가 그렇게 화를 낸 이유는 그 아이의 장난감에 비해 친구의 조카에게 사 준 장난감은 그저 그런 장난감이었기 때문이라 했다. 고모는 그것이 너무 속상해서 그런 거라고 했다. 어미도 없는 조카가 훗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 일로 고모는 여수고모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 그런 인간미 넘치는 자존심을 가진 고모도 세월 앞에는 별 수 없었다.

아내와의 지리멸렬한 자존심 싸움을 이제는 그만 두고 싶었다. 치킨이 식기 전에 아내와 수민이가 한 자리에 앉아 닭을 같이 빼어 물고 싶었다.

“같이 먹자니깐.”

높아진 텔레비전 볼륨소리만이 아내의 대답을 대신했다. 아내를 향한 울분이 다시 목구멍까지 차오르다 이내 스룩 꿈무늬를 뾰다. 항상 아내에게 저오다시피 한 내가 아니던가. 베란다로 들어선 나는 담배를 한 대 물었다. 담배의 반이 재가 되어 떨어져 나갔을 때, 화난 아내의 목소리와 찢어질 듯한 수민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자 거실로 나온 아내가 수민이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후려치며 뉘달을 해대는 것이 아닌가. 수민이가 잘못을 저질러 봤자 얼마나 크게 저질렀다고. 더군다나 우물쭈물하는 성격은 나를 빼다 박은 녀석이었다.

“왜 애한테 화풀이 하고 있어? 말할 것 있으면 나한테 해.”

아내는 그런 나의 말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듯 했다. 다 타들어간 담배를 재떨이에 구겨 꺾다. 수민이에게 화풀이를 하는 아내의 모습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당신 항상 이런 식이었어. 나한테도 그렇고, 고모한테도 그렇고…….”

고모 얘기가 나오자 아내는 손을 허공에 멈춘 상태로 나를 매섭게 노려봤다. 아차 싶은 마음에 무슨 말인가를 주워 담아야 했지만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고모가 집으로 들어온 후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고모와 나에 대한 불만을 아내는 수민이에게 풀 때가 가끔씩 있었다. 아내의 서슬에 놀라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옆집 아주머니가 소개해 준 선진세라믹으로 떠밀리다시피 해서 들어간 것도 그 해 여름이었다. 이미 나와 아내의 자존심 싸움에 고모는 서서히 지쳐갔고, 우리들의 눈치를 보던 시기이기도 했다.

“고모님, 애들한테 그런 장난감 사줄 버릇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수민이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막 퇴근을 해 수민이가 열어주는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자 날이 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고모의 가슴을 조이고 있었다. 이제는 잃을 것도 없다는 듯한 아내의 눈빛. 보아하니 아내의 손에 들려진 장난감 총이 문제였다. 철없는 수민이가 타들어가는 제 어미의 가슴을 겨누었음에 틀림없었다. 목둘레가 파인 라운드 티셔츠 사이로 맨살이 발갛게 부풀어 있었다.

“그래 내가 미쳐 그걸 몰랐구나. 저 어린 녀석이 제 친구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기에……. 그렇게 위험한 것 인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어렸을 적 나에게 가르쳐 준 자존심은 다 내팽겨 친 고모가 안타까웠다. 큰방으로 몸을 돌리는 아내의 변한 눈빛 역시 안쓰러웠다. 나의 무능함이 여린 고모와 착한 아내를 변하게 한 것이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모는 더욱 아내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고모를 힘겹게 한 것은 아내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거절못이 되지 못한 나의 탓이 더 컸을 것이다.

그 해 여름이 끝날 무렵 고모는 자신이 들고 온 여행용 가방에 자신의 간단한 옷가지를 챙긴 후 다시 사라지고 말았다. 영양의 일월산 앞의 아는 언니 가게로 찾아가보았지만 그곳으로도 오지 않았다 했다. 그 이후 고모를 백방으로 찾아 다녔지만 그 어디에도 고모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여전히 나를 흘겨보던 아내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모에 관한 말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금기어 중에 하나였다. 금기를 깬 이야기의 결말은 불을 보듯 뻔했다.

“난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니? 내가 죽일 년이야? 고모님이 사라진 후 내 마음인들 편안 한 줄 알아? 난 단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

간. 나 역시 변해가는 스스로가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당신 어쩔…….”

아내는 독을 품은 뱀처럼 한바탕 쏘아붙이려다 자기감정에 빠져 훌쩍였다. 우는 아내는 처음이라 어찌 할 바를 몰랐다. 당황한 채 그렇게 한참을 서 있자 아내는 큰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다. 거실에 앉아 있던 수민이도 그런 둘을 보다 끝내 눈물을 떨구며 자지러지기 시작했다. 자동차를 꼭 쥐고 우는 수민이에게 다가갔다. 수민이를 안고 좁은 거실을 조심스레 돌았다. 몇 바퀴나 돌았을까. 수민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작은방으로 옮겨 눕힌 후 가만히 수민이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마음 한 편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가끔씩 작은 방에서 혼자 낮잠을 자고 있으면 고모가 들어와 이렇게 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잠든 줄만 알았던 고모는 미안하다는 말을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 때 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에 몸을 돌려 누워버렸다.

수민이의 이마는 소담스러웠다. 방은 고요했고 책상 옆에는 수민이의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다. 검정색 일색의 기하학적인 모양을 한 그림이었다. 옆에 놓여진 ‘거미의 일생’이라는 책 속의 거미를 거린 듯했다. 치지 못한 거미줄이 끈덕지게 떠올랐다. 실타래처럼 엉킨 거미줄을 치고 나면 나의 마음이 좀 후련해질까. 후련해질 것 같은 마음에 거미줄을 치기로 마음먹었다. 어찌면 오늘 일로 인한 화풀이에 가까운 결심인지도 모른다. 작은 거미줄을 쳤다 해서 달라질게 뭐가 있을까. 오늘 일 뿐만 아니라 매사에 나다운 감정 표현의 방식은 대부분 이러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방을 닦고, 책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걸레를 들고 온 나는 책상으로 다가간 후 최대한 몸을 바닥에 댄 채

거미줄을 순식간에 치워버렸다. 그제야 속이 조금 후련해지는 것 같았다. 순간 책상 그림자 사이로 작은 점 하나가 떨어졌다. 아주 작은 그림자 하나가 내 눈 앞으로 서서히 다가왔다. 아주 작은 거미 한 마리였다. 빈 거미줄이 아니었던 말인가. 순간 눈앞으로 다가오는 거미에 소름이 돋았다. 책상아래에서 몸을 빼내어 거미에게는 거대한 검지를 갖다 댄 채 눌러버렸다.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으깨지는 게 느껴졌다. 방바닥 위에 그 거미의 두 배는 되어 보일 물기가 어려 있었다. 거미가 죽는 순간 흘린 눈물인지도 몰랐다. 그 거미의 눈물도 걸레로 닦아 버렸다.

거미줄을 치고 수민이 옆에 누웠다. 후련할 것 같았는데 천장의 벽지 무늬가 오히려 나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옆에 놓여진 ‘거미의 일생’을 펼쳐들고 마저 읽어주지 못한 부분을 자고 있을 수민이에게 나직이 읽어주었다. 거미줄에 걸린 곤충의 모양을 코믹하게 그린 그림과 그림을 설명 해 놓은 글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미라 하면 징그럽고, 집을 지저분하게 하는 곤충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거미가 만든 집에 걸리는 곤충들이야 말로 해충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다음 장엔 그 해충을 생포하기 위한 거미줄의 여러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놓았다.

‘적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보금자리이기도 하지요.

암거미와 함께 살기 위한 장소로도 이용하기도 해요

그 이외에도 이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며,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더 놀라운 것은 초기 거미줄은 먹이를 위한 한 가닥의 거미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존 경쟁을 통한 진화를 거쳐 오늘날의 거미줄의 형태를 띤

다니. 마지막 책장을 덮고 나자 좀 전의 엉킨 거미줄이 다시 떠올랐다. 애정대신 자리해 버린 의무감이 전부였던 것일까. 아내를 울릴 만큼 큰 문제였던가. 어디에서부터가 잘 못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속을 저릿하게 훑어 내린다. 물론 거기엔 우유부단한 나의 성격이 한 몫 했을 것이고, 여우같은 아내의 치고 빠지는 작전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아내와 내가 지켜온 가정이 고작 그런 주춧돌을 기반으로 유지된 것일까. 사실 고모가 사라진 후 아내가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우유부단한 증오는 곧 그 순간만을 지나오면 기억에서 멀어지기 마련이다. 아내의 얼굴과 고모의 얼굴이 잠결에 스르르 스쳐지나갔다.

한 줄 한 줄 거미줄이 되어 갔다. 손과 발이 가늘어지더니 서서히 엉킨 실타래 모양의 거미줄로 변했다. 머리를 제외한 몸 전체가 거미줄이 되어 버렸다. 무언가가 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민이가 거미줄 위로 아장아장 올라왔다. 순간 수민이가 거대한 거미로 변했다. 거미줄 위에 떨어진 작은 점 하나가 거대하게 변했던 것이다. 아내 역시 거미로 변했다. 그 뒤 아버지가 거미줄 위로 올라오고, 어머니가, 할머니가, 고모가, 고모부가, 정사장이 나의 위로 올라섰다. 모두들 거미로 변해갔다. 그렇게 점점이 나에게 다가왔다. 앞발을 더듬이처럼 더듬으며 나의 몸 전체를 두드렸다. 그 소리는 거미줄을 타고 나의 머리로 오더니 몸 전체를 울렸다. 출렁이는 파도처럼 몸이 들썩이며 허우적거렸다.

몸을 뒤척이다 잠에서 깨어났다. 수민이는 여전히 옆에서 췌근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씻지도 않고 잠든 탓인지 온 몸이 한기로 가득 찬 듯했다. 사방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다. 깜빡 잠이 든 사이 이상한 꿈을 꾸 탓에 손이 땀으로 흥건했다. 거미로 변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찌뿌듯한 몸을 씻기 위해 욕실로 향했다. 큰방을 스

쳐 가는데 여전히 텔레비전 소리만이 크게 들려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잡이를 돌리자 좀 전에 잠긴 손잡이가 스르르 돌아갔다. 아내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었지만 일상처럼 다시 그 앞을 스쳐 지나갔다. 세면대에 물을 받고 그 속에 손을 담갔다. 터실터실하게 튼 손등 위로 깨알 같은 공기방울이 맺혔다. 좀 전에 짓눌린 거미의 눈물 같은 것이 물속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 된 것인지 몰라도 그 모든 것 하나가 한 가닥의 거미줄에서 시작된 것 같았다. 죽인 거미의 눈물이 치지 못한 거미줄처럼 끈덕지게 떠올랐다. 죽이기는 한 것일까.

*

고모를 모시는 날 까치가 힘차게 소나무를 통기며 파란 하늘 속에 공허한 울음소리를 남겼다. 하관을 하는 순간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어떻게 알았는지 오래 전 이혼한 고모부가 그 곳에 나타났다. 세월이 흐른 그의 머리는 허연 서리가 내린 듯 백발이었고, 못 본 사이 왼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 하관을 한 후 관속의 공백을 흙으로 채울 때였다. 다가온 고모부가 불편한 왼쪽 무릎을 세운 채 조용히 앉았다. 몸을 굽힌 후 천금(天衾)으로 둘러싸인 얼굴에 손을 뻗어 조용히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런 고모부의 주름진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눈물이 그 위로 떨어져 꽃잎 모양으로 번졌다.

면발치에서 바라보는 아내는 입고 있던 상복의 웃고름을 흠쳐와 훌쩍이고 있었다. 관이 닫히고 그 위로 흙이 흩뿌려지자 아내는 그 동안 미안했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런 아내의 눈물이 솔직히 부담스러웠다.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산 아래에 있는 버

스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며 등을 떠밀다시피 했다.

동네 청년회에서 나온 건장한 청년들은 관 위로 흙을 채우고 가장자리에 때를 두른 후 흙을 밟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있어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 고모부가 다리를 절며 그들에게 다가가 청년회장인 듯한 사람에게 봉투를 쥐어주었다. 그들은 희색만면한 얼굴로 청년회장의 선창에 가락을 받았다. 청년회장은 나에게 고모님 가시는 길을 같이 배운 해 드려야 한다면 밟고 있는 흙무더기 위로 불렀다. 몇 번이나 나를 불렀을까. 청년회장의 손짓에 그제야 그들이 밟는 흙무더기위로 올라 대나무에 걸린 새끼줄에 봉투 하나를 끼웠다. 흙을 지그시 밟아 나가자 장례를 주관하던 늙은이의 지시에 따라 다시 한 무더기의 흙이 얹혀졌다. 왜 하필 그때 눈물이 흐르는지. 무덤위에 세운 대나무를 원점으로 그렇게 생(生)을 돌아 나갔다.



작년까지 수청이라는 못에 낚시를 갔다. 내심 월척을 꿈꾸며 월척은 아니더라도 꽤나 큰 손맛은 보겠지 하는 기대감이 항상 앞섰다. 낚싯대를 드리우고 기다렸지만 월척은 커녕 손맛조차 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올 해 들어 낚싯대를 손에서 완전히 놓아버렸다.

6월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물고기 한 마리가 버려둔 낚싯대에 걸려들었다. 기쁜 마음에 잠자고 있던 낚싯대를 꺼내 다시 손질하기 시작했다. 월척 한 마리 올리지 못하고 그만둔다는 것은 낚시꾼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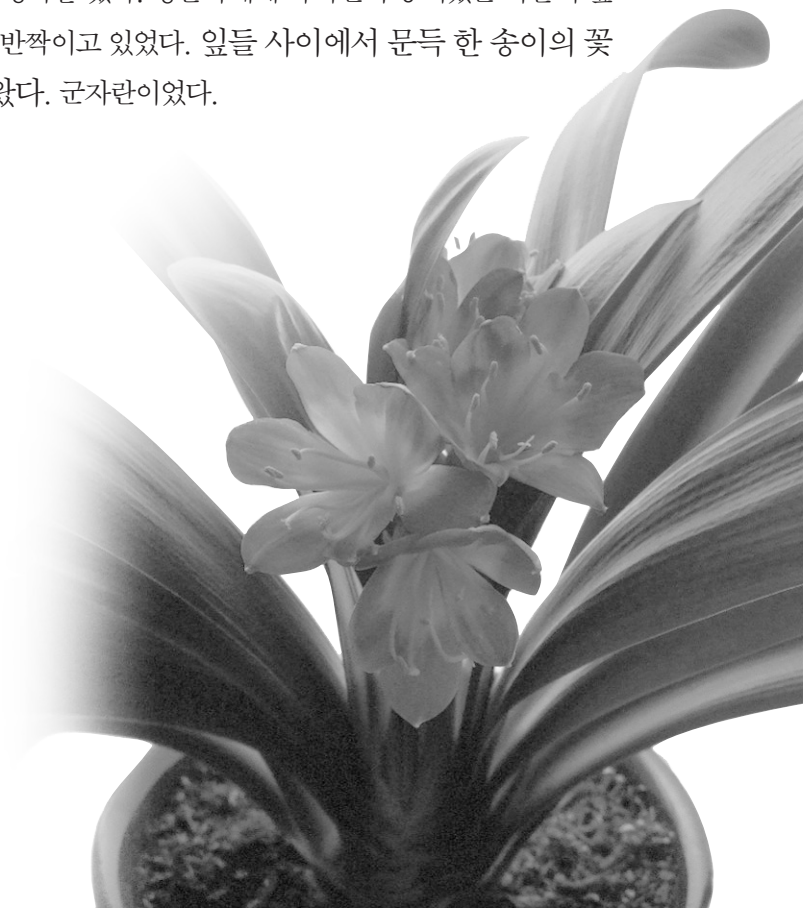
(전)성북구청

김 영 희

군자란

초겨울 저녁햇살이 유리창을 넘어오고 있었다.

같은 하늘에 하나의 해인데도 석양의 빛은 왜 이토록 쓸쓸하게 느껴지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다. 창문아래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화분의 잎들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잎들 사이에서 문득 한 송이의 꽃이 눈에 들어왔다. 군자란이었다.



군자란

창문을 활짝 열고 집안 청소를 했다. 문을 닫으려다 말고 창 의 바깥 풍경을 바라본다. 사각 유리문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아파트 콘크리트 벽에 달라 붙어있다. 동일한 건물에 똑 같이 생긴 문들은 태양이 빛 나면 빛날수록 검은 입을 더욱 깊게 들여놓는다. 가을햇살이 긴 벽을 타고 내려가 나뭇잎 위에서 쉬고 있다. 옅은 하늘에 작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상가건물과 엇비슷하게 있는 내 아파트는 배란다 쪽에 서면 상가 옥상이 내려다보인다. 그곳에는 겨울철만 제외하곤 무엇이든 자라고 있다. 얼마 전까지 상추, 고추, 토마토 등,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채소, 과일 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씨 한 톨 뿌리지 않은 남의 옥상을 바라보며 하늘까지라도 닿을 듯 뻗어 오르는 초록넙쿨에 즐거워했다. 조롱조롱 매달린 오이를 발견했을 땐 마음까지 양양해졌다. 지금은 빨간 고추가 펼쳐져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환풍기 배출구 틈을 이용해 그물망이 내려져있고 그 안에서 닭들이 모이를 쪼고 있다. 잠깐동안 내가 다른 곳에 온 것인가 하는 착각을 했다. 서울의 아파트 옥상에서 길들여지고 있는 닭이라니…… 창을 닫는다.

배란다에 놓여있는 화분의 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다. 촘촘한 잎 사이로 군자란의 꽃대 하나가 삐죽 나와 있다. 봄에 피는 꽃인데……. 해가 잘 드는 방향으로 화분을 옮겨놓는다.

“엄마 천사 꼬추 좀 보세요. 귀엽죠?”

아이의 말에 티브이 화면에 눈을 돌린다. 세계명작만화 시간이다.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플랜더스의 개」가 끄는 마차를 타고 네로는 하늘로 오르고 있다. 아이의 말대로 발가벗은 천사는 귀엽다. 천사가 옷을 입고부터 진실이 사라졌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몇 번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하다가 천천히 번호를 누른다. 일년에 한번 많이 해야 두 번 하는 전화, 신호음이 울리자 전자응답기가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를 한다. 얼떨결에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번호를 입속으로 확인시키며 다시 숫자를 누른다. 동일한 응답기의 대답이다. 갑자기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다. 자주 걸던 미란이의 번호마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핸드폰에서 번호를 확인하면서 갑자기 조급한 마음이 든다. 통화가 되자마자 미란이가 큰 잘못이라도 한 양 엄마 전화번호가 어떻게 된 것이냐며 따지고 들었다.

“현경아 오빠 올 여름에 갔어.”

“어딜 가?”

“아침에 산에 운동 갔다가…….”

중학교 때부터 나와 같은 학교에 다녔던 미란이는 성격이 깔끔하고 뭐든 속 시원히 해치웠다. 그래서인지 친구들끼리 의견이 엇갈릴 일이 생기면 최종 결정은 미란이가 했다. 하다못해 방과 후에 뭘 먹을까를 왈가왈부할 때도 미란이가 개입하면 오케이다. 미란이는 먼저 우리가 가진 돈의 액수를 따진 다음 떡볶이나 튀김 등의 가격을 정확하게 계산한다. 미처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가진 돈으로 맞아 떨어지는 계산에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할 생각도 못한 채 미란이가 제안한 분식집으로 가곤했다. 그런 미란이와 비교하면 난 땀판이었다. 특히 수학적인 계산

은 쟁병인데다 전반적인 학교성적도 미란이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런 내게 미란이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교내 백일장에서 내 글이 최우수상으로 뽑히고부터였다. ‘현경아 넌 어쩜 그렇게 글을 잘 쓰니? 난 공부 는 얼마든지 하겠는데 정말 글짓기는 못 하겠더라.’ 하면서 내게 말을 시켰다. 미란이가 못하는 걸 내가 잘 한다니 어쩐지 좀 어색한 것 같았지만 뭐든 잘하는 미란이가 칭찬을 해주니 뿌듯했다. 그 일은 미란이와 같은 반이 된 것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미란이와 나는 급격히 가까워지기 시작하여 차츰 속을 트는 사이가 되었다. 미란인 학교를 마치면 서둘러 집에 가는 날이 많았다. 우리가 친해지기 전에는 미란이가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갈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미란이가 일찍 집에 가는 것은 편찮으신 아버지 때문이란 걸 알게 되었다. 내가 방과 후 미란이와 더 있지 못하는 걸 아쉬워하자 미란인 자기 집에 함께 가자고 했다.

미란아버지를 뵈게 된 날 나는 몹시 당황했다. 중풍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을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다. 우리는 학교 수업이 끝나기가 바쁘게 거의 매일 미란이집으로 달려갔다. 미란이는 시간에 맞춰 아버지께 약을 드리고 물이나 주스를 드렸다. 아버지께 주스를 드릴 때 숟가락에 떠서 입에 넣어드렸는데 숟가락을 땔 때 마다 가제수건으로 입을 닦아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난 아이 같은 미란이 아버지 모습을 본 것이 미안했지만 미란인 ‘오늘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신가봐 엄마가 갈아놓은 토마토주스를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드시네.’ 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나도 차츰 미란이 아버지를 미안해하지 않고 볼 수 있었다. 나는 가끔 미란이 대신 아버지께 물을 드리기도 하였다.

미란이가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금방 다녀온다며 밖에 나가던 날, 난 혹시 미란이 아버지께서 찾으실까하고 아버지의 방 앞에 가서 귀를 기

울여 보았다. 방에는 별 기척이 없었다. 다시 미란이 방으로 돌아가다
가 해석오빠의 방을 훑쳐보게 되었다.

미란인 오빠 얘기를 할 때마다 신이 난 듯 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믿는 미란이가 걸핏하면 오빠에게 무시당한 사정을 흥분하면서 얘기
하면 우리는 미란이 오빠가 굉장히 박식하게 느껴졌다. 그런 만큼 뼈곳
열려있는 오빠 방은 호기심을 일으켰다. 방안으로 들어갔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넓은 두 면을 차지하고 있는 책장이었다. 세 줄이나
되는 「세계문학전집」이 있었고 「대망」과 「대벌」 등, 장편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책장은 더욱 무게가 있어보였다. 난 남의 방에 들어와 있다
는 것도 잊고 이 책 저책을 마구 뒤지고 있었다.

“너 책 보려고?”

미란이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아, 아니……, 그냥 심심해서”

무안해져서 얼버무리려니 책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서 보라고 했다.
미란아빠가 보시던 것과 오빠가 좋아해서 많은 책이 있지만 미란이는
독서에는 흥미가 없다면, 그 때문에 걸핏하면 오빠한테 무시당하는 것
이라는 말을 하면서 오빠의 자랑을 은근히 상기시켰다.

햇볕이 잘 드는 쪽으로 돌려놓은 군자란화분은 며칠이 지나도 꽃대
가 자랄 기미가 없다. 손으로 뽁뽁하게 모여 있는 줄기를 밀어 꽃대의
자리를 확보해보려 했으나 워낙 튼실한 잎은 조금도 밀려나지 않는다.

봄과 가을은 비슷한 기온이지만 느낌은 전혀 다르다. 봄날의 햇살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내 푹푹한 희망 같은 것이 생겨날 것 같다. 앙상한
가지를 뚫고 나오는 연두 빛 잎은 이룰 수 없었던 꿈을 기억나게 한다.
길을 걷다가 맘껏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하는 사람을 만나도 봄에는 이름

답다. 하지만 가을 햇살은 가슴속에 남겨 둔 것조차 모두 흩어버릴 것 같다. 따뜻한 별을 받으면서 옷깃이라도 한 번 더 여미는 계절이 가을이다. 안타까운 가을햇살에서 꽃을 피우려 애쓰는 봄의 꽃대를 바라본다.

내가 미란이 집에 들어간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난 고모 집에서 살았다. 고모부는 H정유회사에 다니셨는데 내가 중학교 3학년 가을에 고모부가 인천현장으로 발령이 나셨다. 중학교과정이 얼마 남지 않은 나에게 전학은 적당하지 못한 시기였다. 그 사정을 미란이에게 말하게 되었다. 미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이라며 내일 알려주겠다고 했다. 다음 날 미란인 어른 같은 표정으로 자기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다. 미란이 가족들과 모두 얘기가 되었다며 당장 내 짐을 챙겨오라고 했다. 난 그저 ‘어떻게…….’라고 망설이다가 미란이의 여전히 당찬 결정에 ‘그래도 될까?’로 말이 바뀌었고 미란이가 시키는 대로 주말에 미란이집으로 내 짐을 옮기기로 약속했다. 이런 나의 일에 고모는 잠시 생각을 하는 듯하더니 ‘그 애……, 전교 일등 하는’ 하더니 ‘겨울방학만 지나면 졸업이니 잘 됐네.’ 하면서 간단히 허락을 하였다. 난 고모가 좀 더 알아보려거나 반대도 없이 금방 허락한 것에 섭섭했지만 내심 잘 되었다 싶었다. 약속한 날에 나는 책이랑 교복, 운동화, 몇 가지의 옷을 챙겨 미란이 집으로 들어갔다. 미란인 벌써 자기가 사용하던 옷장 한 칸을 비워두었고 내가 늘 앉아서 공부하던 곳에 상까지 준비해두어 책을 놓으니 책상이 되었다. 나는 미안하고 쑥스러웠지만 미란이와 함께 지낸다는 것이 좋았고 놀러가서 자주 사용하던 방이라 곧 익숙해졌다.

미란이 집에 들어가고도 해석오빠를 보기는 어려웠다. 평일은 우리가 일어나면 이미 오빠는 학교에 가고 없었고 휴일은 엄마 가게 일을 도우며 독서실에서 지냈다. 어쩌다 잠결에 오빠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기

도 했지만 꿈같은 기분일 뿐이었다.

미란이와 난 스물네 시간 붙어 있었지만 늘 시간이 부족했다. 우리는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이야기도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헤어져서 혹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첫눈 오는 날 비원 앞에서 만나자는 미래의 약속까지 했다. 우리가 해먹는 라면이나 김치볶음밥은 할 때마다 맛이 달랐지만 언제나 우리는 요리를 너무 잘 한다고 감탄하며 먹어 치웠다. 우리는 음식을 씹으면서도 이야기를 했고, 별것도 아닌 것에 배를 잡고 웃었고, 너무나 되고 싶은 것이 많아 말할 때마다 꿈이 바뀌었다.

고모 집에서 생활할 때는 시간이 느릿하게 갔기 때문에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어정거리며 봄이 오기 시작하면 내가 걸어 다니던 길가의 나무, 어느 가지에서 가장 먼저 새 순이 나왔는지도 알았다. 초록 잎들이 꼭 채워져 더 이상 식별이 어려워지면 나무와 전신주를 오가는 까치에게 눈을 돌렸다. 나뭇잎을 먹어치우는 퍼런 벌레를 까치가 잡아서 전신주 위에 있는 까치집으로 물고 갔다. 새끼까치 입에 넣어준 그 벌레는 죽어 있을까 살아 있을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름을 보냈다. 미란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나의 가을은 떨어진 잎의 개수를 세거나, 나무에 남아있는 떨어질 잎의 순서를 점치면서 보냈을 것이다. 미란이와 함께 살면서부터는 얼마나 날씨가 후다닥 지나가는지 계절이 바뀌었는지도 모른 채 학기말 시험을 보았다. 시험이 끝나자 학교에서는 수업보다 자습을 자주 시켰다. 게다가 단축 수업까지 하여 시간이 험령하였다. 나는 본격적으로 해석오빠의 방을 드나들며 책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병주의 「바람과 구름과 비」라는 소설을 읽게 되었다. 절에서 자라나 속세에 뛰어든 남자주인공은 어수선한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관상쟁이 행세를 하는 기골이 장대한 최천중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권문세족의 유부녀들을 이용하여

원하는 바를 얻었다. 책에는 한자로 쓴 운문이 많았는데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전반적인 내용도 중학생이 읽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 최천중이 아낙들을 농락하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것이 많았다. 그 때의 난 사춘기가 갓 지나고 가슴이 몽실 몽실 자라고 있었다. 가끔씩 애매하게 여겨지던 성이 그 책을 보고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 기분에 빠지곤 하였다. 읽던 책을 덮고 누웠으나 다음 내용이 궁금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참지 못하고 일어났지만 미란이가 자고 있어서 해석오빠 방에 가서 궁금한 부분만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보던 장면은 어느 세도가 대단한 집안의 며느리가 병이 나서 갖은 약으로 치료를 해 보았지만 효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사정을 알게 된 최천중이 그 집으로 접근하여 며느리의 병을 고치겠다는 흥정을 한다. 양반집 대감은 떠돌이인 최천중을 믿지 못하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는 만큼, 고치지 못할 때는 무사히 보내지 않는다는 약조를 한 후 최천중에게 치료를 맡기게 된다. 일당이 의사인 척 가장하여 대갓집 별채에 있는 며느리를 진맥한다. 최천중의 판단으로는 대갓집 며느리는 병이 아니었다. 의기양양한 최천중은 며느리를 치료한다는 핑계로 마당에 시끄러운 굵판을 벌리고 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다른 사람을 모두 밖으로 내 보낸다. 혼자 누운 며느리를 교묘하게 흥분시켜 정사를 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불안하고 긴장이 되어 숨도 참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해석오빠가 내가 앉아있는 의자 뒤에 서 있었다. 그 때의 내 표정은 기억할 수도 없지만 도대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보고 있던 책을 두고 가야할지, 가져가야할지, 책도 책이지만 내 몸뚱이를 어디다 감추어야 될 것 같았다. 할 수만 있다면 쓰레기 통에 나를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리고 싶었다. 난 보던 책을 무자비하게 덮으며 흥당무가 되어 미란이 방으로 도망을 갔지만 도저히 잠을 이

를 수가 없었다. 생각할수록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언제 시간은 그렇게 지났단 말인가……. 시간이 지났다 치더라도 그 허구 많은 책 중에도 대체 내가 보아서는 안 되는 책을……. 더더구나 그 야한 장면을 보고 있었으니……. 시간도 보지 않고 내가 미쳤지. 아무리 생각해도 바보 같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마음뿐이었다.

그 날 밤 이후 난 해석오빠의 방 옆에는 낮에도 얼씬하지 않았다. 미란이가 정신을 빼고 책을 읽더니 왜 보지 않느냐고 물어보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며 가슴이 콩닥거리 화장실로 도망을 갔다. 가능하면 미란이 방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방학만 손꼽아 기다렸다.

고모부의 사택은 지하철을 타고 인천의 종착역인 하인천에 내려 버스를 타고 다시 십오 분정도 더 가서 바닷가에 있었다. 정유공장을 등지고 세 줄로 지어진 집은 좋게 표현하면 아담했지만 내 느낌은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간 것처럼 단조롭고 낯설었다. 고모부 회사 주변과 사택에 인접해 있는 바다는 정유공장을 끼고 있어서인지 물에 검은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겨울 방학은 검은 바다를 보면서 우울하게 보냈고 개학을 하면서 다시 미란이 집으로 돌아갔다.

고모는 고모부의 갑작스런 발령으로 회사의 사택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집의 주민등록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다. 그 때문에 난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배치 받았고 다시 미란이와 나의 공학은 찰떡처럼 같은 고등학교가 되었다. 우리는 잘 되었다며 좋아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내겐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고모한테 물어보았더니 고모부의 파견 근무 기간이 길어야 2년이라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고 했다. 난 미란이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였고 미란이는 전처럼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쭈뼛거리며 오빠 대학은 어떻게 되었나

고 물어보았다. 해석오빠는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고 기숙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미란이는 신이 나서 말했다. 그것 또한 내가 계속 미란이 집에 있어야 하는 이유인 듯.

미란이와 함께하는 생활은 변함없이 재미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어둠이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알 수 없는 슬픔 같은 것이 느껴지곤 했다. 시간은 성큼성큼 지나갔고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났다. 시험이 끝나면 방학얘기만 하던 1학년 때와는 학교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대학진학이 좌우된다는 선생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친구들은 방학동안 다닐 학원이나 과외 정보를 주고받으며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의 계획으로 소란스러웠다. 난 공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란이 집에서 책이나 뒤적이고 있었다. 고모가 서울 집에 와 있었지만 내게 고모 집에 언제 올 것인가도 묻지 않았다.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이번엔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핑계가 고모 집에 돌아가는 것을 미루고 있었다.

초겨울 저녁햇살이 유리창을 넘어오고 있었다. 같은 하늘에 하나의 해인데도 석양의 빛은 왜 이토록 쓸쓸하게 느껴지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다. 창문아래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화분의 잎들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잎들 사이에서 문득 한 송이의 꽃이 눈에 들어왔다. 군자란이었다. 편안하게 꽃대를 올리지 못하고 잎 사이에 묻힌 채 꽃잎을 여는 중이었다. 꽃이 아름답다는 생각보다 간신히 피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안타깝게 느껴졌다. 가까이에서 살펴보니 좁은 잎맥을 타고 투명한 꽃물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 처음 보는 꽃물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작은 물방울은 제철이 아닌 때 꽃을 피우다 흘린 난의 눈물 같았다.

“현경아 최천중같은 사람 좋아하면 안 돼.”

해석오빠의 목소리가 났다. 당황하여 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

이 나지 않았다. 오빠가 내 어깨를 가만히 돌렸다. 순식간에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오빠의 손이 내 턱을 올렸다. 나는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오빠의 얼굴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은 느꼈다. 오빠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나 긴 시간 같기도 했다. 오빠의 체온은 상기된 내 체온보다 뜨겁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해석오빠와 정식으로 대면한 것은 오빠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다고 한 턱 쏘는 날이었다. 오빠가 산다는 걸 알았다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나가지 않았을 텐데 미란이가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그 곳에 오빠가 있었다. 밥을 먹는 동안 오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미란이와 다름없는 친동생같이 대했다. 오빠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유머시리즈를 들려 주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뭘 먹고 있는지,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어떤 핑계든 생겨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간신히 오빠와의 자리에서 벗어나 집으로 가는 길은 꾸역꾸역 먹기만 한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아 숨쉬는 것조차 거북했다. 미란인 뭐가 좋은지 나를 보면서 킁킁거리고 있었다. 마땅찮아 하는 내게 미란이가 말했다.

“오빠가 너 잘 지키란다.”

뜬금없는 말에 미란이를 쳐다보았다.

“너 오빠꺼래”

미란이가 내 얼굴을 뻘히 쳐다보면서 더 크게 킁킁거렸다.

정강이를 스치는 바람이 그렇게 상쾌하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다. 날개가 있다면 마음껏 하늘을 휘저으며 날아오고 싶은 여름밤이었다.

가끔씩 해석오빠는 과외비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연극이나

영화를 보여주거나 외식을 시켜주었다. 오빠는 학교동아리에서 연극 활동을 했다. 오빠가 참여한 연극관람을 하면서 나는 희곡이란 장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오빠가 좋아하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작품을 찾아 읽었다. 오빠가 구약시대의 흔적을 찾아 그리스로 여행 할 것이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뉴올리언스로 가서 ‘욕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차를 타 보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나도 오빠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어 보았다는 티를 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석오빠는 내게 하나뿐인 오빠가 되어갔고 내가 읽은 책들은 해석오빠가 본 것이거나 대다수가 오빠가 거론한 것들이었다.

‘니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너 좋다는 남자한테 시집가야한다.’ 고모는 가당치도 않은 대화에도 노래의 후렴구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가진 것도 없는데 나이라도 어릴 때 시집 가야한다.’는 말과 더불어 ‘여자는 가방 끈이 길어봤자 남자가 부담스럽기만 하고 그렇다고 고등학교만 나오면 좀 그러니 전문학교가 딱 이다.’라는 고모의 조언대로 난 전문학교를 다녔고 2학년이 되자마자 금방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로 물고 가는 고모는 남자가 아닌 남편 얘기만 했다. 고모가 결혼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난 해석오빠를 떠올렸다.

“현경이 이제 숙녀가 다 됐네. 너한테 맞는 사람을 잘 가려서 결혼해야지.”

정색을 하시고 미란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난 짐작 할 수 있었다. 그런 내 생각 때문인지 미란이 집을 전과 같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이 눈치가 보였다.

해석오빠는 대학교 4학년이 되자 고시1차 합격을 했다. 오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한 듯 받아들였고 시험은 이미 끝난 것처럼 안심하

고 있었다. 그런데 2차에서 거듭 실패하여 1차에서 얻은 기간의 효력마저도 상실해버렸다. 해석오빠는 아니다 싶었는지 고시원에 들어가 본격적인 공부를 했다. 난 미란이를 만난다는 핑계로 가끔 미란이 집에 갔지만 해석오빠를 볼 기회는 거의 없었다. 어쩌다 운 좋게 해석오빠를 마주치면 ‘현경이는 아직도 키가 크니?’ 라든가 ‘미팅할 때는 하이힐 신고 가지마라.’ 는 등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하는 농담 같은 말만 한마디씩 던졌다.

해석오빠는 날이 갈수록 보기가 어려웠다. 미란이를 통해 듣는 오빠의 소식은 믿을 수 없는 말 뿐이었다. 오빠는 몇 차례 더 시험을 보았지만 번번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니 어느 날 제약회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난 미란이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미란이 집에서 의도적으로 늦게까지 시간을 끌었다. 술에 취해서 들어온 해석오빠는 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오빠를 부축하는 미란이를 쫓아 방으로 따라갔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 해석오빠가 연극 대사를 외듯 말했다.

“세상의 진실은 천사가 옷을 입고 나타나면서부터 사라져 버렸어.”

창을 넘은 햇살이 다사롭다. 나무마다 단풍이 들었다. 잎이 지기 전에 어디든 가고 싶다. 하다못해 산에라도 가서 붉게 물든 길을 걷기라도 하자고 운동화를 준비했다. 그런데 눈이 왔다. 바람은 나무의 잎 하나도 남기지 않을 기세다. 모든 것들이 얼어버릴 것 같다. 바닥을 곤두박질하는 단풍과 채 물이 들기도 전의 잎들을 바람이 다시 툭툭 치고 간다. 바람에게 순하게 온몸을 맡기는 나무는 무슨 생각을 할까. 나도 두 팔을 벌리고 바람 속에 서면 얼마만큼 견딜 수 있을까. 나무처럼 당당해 질 수는 없을까.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작은 새 한 마리 먼 하늘 바라

보고 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

바람처럼 치고 가는 이 상실감은 처음 느끼는 것은 아니다. 먹을 걸 다 먹고도 무언가를 덜 먹은 듯 채워지지 않던 허기처럼 수시로 달고 다니던 것이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여 새삼 어떤 것인가 확인한다는 것이 어색하다. 서투른 지금의 기분은 그저 오래된 내 굴렁쇠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돌다가 별것 아닌 장애물에 걸려서 잠시 멈췄을 뿐이다. 자고나면 오늘과 같은 내일이 있듯 내 녹슨 굴렁쇠도 다시 굴러갈 것이다.

내가 결혼을 한 후에도 해석오빠는 여자를 사귀는 적이 없다고 미란이가 말했다. 미란이 이모가 어렵게 선보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오빠는 두 번 다시 여자를 만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또 다시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이모도 엄마도 안 볼 거라며 매정한 말을 했다고 한다. 눈치를 보면서 몇 차례 여자문제나 결혼에 대하여 운을 띄워보았지만 다른 일엔 유머가 넘치던 오빠가 그 문제만큼은 매몰차고 단호하게 자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고 했다.

결혼 초에는 여느 친구와 다른 미란이가 보고 싶기도 했거니와 차례를 지나고 나면 세배 명목으로 미란이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러자니 자연스럽게 해석오빠를 보게 되었다. 미란이 집에 들어서면 해석오빠는 어색한 표정으로 내 시선을 피했다. 그렇게라도 해석오빠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결혼 초 몇 번 뿐이었다. 내가 미란이 집에 가겠다는 전화를 하고 도착해보면 늘 오빠는 집에 없었다. 해가 갈수록 나도 해석오빠가 피하는 집에 간다는 것이 석연치 않았다. 해석오빠 생각을 하면 마음 으스스한 곳에 웅크리고 있던 어떤 것이 자꾸만 내 양심을 몰아세웠다. 그것은 조금씩 나를 미란이 가족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었다. 그런 참에 아이가 태어나고 난 살아가는 일에 바빠졌다. 차츰 아이를 거두는 일이 내가 사는 전부인 듯 아주 평범한 엄마와 현실적인 아낙으로 되어갔다.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책을 보는 경우는 없었다. 어쩌다 생활에서 멈춰 서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 머리가 텅 빈 듯하고 도무지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마냥 느껴졌다. 맘을 먹고 책이라도 읽어 볼까하고 책장을 펼치면 한쪽을 넘기기도 전에 졸고 있었다. 그저 티브이에서 연속되는 주부를 겨냥한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짜거나 뜻도 파악 못한 개그를 보다가 실실 웃으며 내 생은 잘도 굴러갔다. 아줌마 되기에 익숙해진 난 미란이 집에 가는 것이 일상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겨우 한 해에 한두 번 미란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해가 바뀐 것에 대한 인사치레를 하거나 안부를 여쭙는 것으로 도리를 다 한 양 편안해졌다. 어쩌다 해석오빠 생각이 나면 만성적인 체증이 재발하듯 잠시 명치가 갑갑해졌다. 결혼하고 살아보니 사는 것도 별 것 아닌데 오빠라고 특별할까. 아무 여자하고 어우러져 자식 낳고 살 일이지 그렇게 멀쩡히 있는 이유가 뭐란 말인가. 슬며시 부아까지 났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취직을 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난 아주 영리해졌다. 해석오빠가 더 이상 나의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현실이란 계산기로 셈을 했다. 고시에 여러 차례 떨어진 해석오빠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난 마음속으로 두려웠다. 혹시 오빠가 오빠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말이라도 할까봐 경계하고 있었다. 오빠에게 그런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든 미란이와 함께 오빠를 만났고 가능하면 핑계를 만들어 해석오빠를 멀리했다. 미란이가 오빠 얘기를 할 때마다 난 조금씩 성가셨다. 미란이가 오빠의 나빠진 사정이야기를 하던 날, 난 준비된 말을 했다. 오래전에 미란이 어머니께서 내게 오빠에 대한 감정에 췌기를 박았다고, 나는 그 일로 심한 상처를 받은 듯한 시늉을 했다. 그리고 진지하게 소곤거렸다. 미란이 식구는 내 가족과 다름없다고.

난은 줄기가 없다. 그래서 잎이 줄기의 역할까지 해야 한다. 군자란의 경우는 잎이 유난히 두껍고 넓다. 이런 모양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다른 난에 비하여 강하게 느껴진다. 잎에 어울리게 꽃대도 실하게 올라와 하나의 대에 꽃송이가 많으면 서른 개 이상씩 피고 작아도 열개 정도는 오밀조밀 올라와 꽃이 피면 자연스럽게 화사한 꽃다발을 이룬다. 내가 결혼할 때 미란이 어머니께서 다른 난보다 키우기 쉽다며 분재하여 주셨다. 그것을 아파트 베란다에 가져다 놓고 물만 줬는데도 잎이 빼곡해지고 뿌리가 화분 위까지 뻗어 나오기 시작했다. 하나씩 나뉘 심기를 하였던니 네 개의 화분이 되었다. 짙은 녹색 잎을 가진 난들은 겨울을 건디다가 빠르면 2월말 보통 3월이면 꽃 순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때 꽃과 함께 대를 올린다. 꽃대가 난의 잎 높이만큼 자라면 본격적인 개화가 시작된다.

금년 봄에도 네 개의 군자란 화분에서 모두 꽃이 피었다. 그런데 꽃을 피었던 난 포기 중의 하나에서 다시 꽃대를 내민 것이다. 건강한 잎이라야 겨울나기를 할 수 있다. 계절을 벗어난 꽃을 품느라고 싱싱하던 잎 여러 장이 누렇게 말라가고 있다. 피울 수 없는 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가위를 준비했다. 마른 잎 사이로 비껴가는 햇살이 사락사락 흔들린다. 뽁뽁한 잎의 아래줄기에 손을 밀어 넣어 꽃대를 움켜잡았다. 가위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서걱 소리와 함께 꽃대가 맥없이 꺾어진다.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코끝으로 넘어온다. 눈앞이 흐려진다. 잘려진 군자란의 꽃대에서 끈끈한 연두 빛 진액이 손등으로 주르르 흘러내린다.

지상의 틈마다 안개가 스며들다

“꽃, 그거 금방 시들고 돈 아깝잖아.”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난 더욱 꽃에 집착
하였다. 이상했다. 언제부터 그렇게 꽃이라야 했는지.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김 명 자

지상의 틈마다 안개가 스며들다

차를 타고 십 분이 지나도록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내가 출근하는 길의 방향에 아이의 학교가 있어서, 별다른 일이 없는 한 나는 아이를 매일 태워준다. 룸미러로 아이의 표정을 살핀다. 아이는 무심하게 차창을 내다보고 있다. 나는 아이에게 무슨 말이든지 붙여볼까 하다가 그만둔다. 얼마 전까지는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시디를 들겠다고 실랑이를 하곤 했다. 그때마다 아이의 동작이 나보다 빨랐고, 아이는 노래를 들으면서 영어단어를 외웠다.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 앞에 차를 세운다. 아이는 한참동안 밖을 내다 보다가 내린다. 백미러에 비치는 아이의 뒷모습이 차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아이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나니 나는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에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아이의 성격을 알기 때문이다. 잠시 나갔다가 오는 게 나올 것 같아서 일어나는데, 그 순간 사무실 직원들의 형체가 허물어지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 아무래도 수술 후유증인 것 같다.

얼마 전에 나는 자궁적출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빈혈이 심해서 철분제를 두 번이나 먹어야 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삼 개월 정도는 철분제를 먹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의사는 친정에서 산

후조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누이를 배웅하는 오라비같은 웃음을 지으면서 내게 정기검진과 철분제 먹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철분제를 챙겨 먹는 일은 성가셔서 늘 빠뜨리게 된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니, 신은주가 나를 보고 있다가 손가락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킨다. 모니터에는 신은주가 보낸 쪽지가 떠 있다.

“언니, 괜찮으면 휴게실로 와요.”

나는 선 채로 신은주에게 고개를 끄덕인다.

1층 휴게실에는 아무도 없다.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서류를 내어 놓자마자 모두 습관적으로 휴게실로 내려온다. 그래서인지 아무리 사소한 소문이라도 휴게실을 거쳐나가기 마련이다. 윤미정에 관한 소문을 나도 거기서 들었다. 직원들은 무슨 이야기로 시작을 했든지 간에 어느 순간 윤미정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래도 가끔은 자신들의 그런 행태가 창피했든지 그 이야기는 그만 하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말을 반복할 것이다. 따분한 일상에서 그만큼 재미있고 활기 넘치는 이야깃거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은주가 뒤따라 올 것 같아서 나는 자판기에 천 원 권 지폐를 넣고 조금 떨어진 창 쪽으로 갔다. 봄꽃들이 시간을 다투어 피어나는 듯 화단의 풍경은 날마다 달라진다. 자극적인 라일락 향기가 콧속으로 스며든다. 라일락의 향기는 세상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던 나까지도 터무니없는 호의를 품게 할 만큼 달콤하다. 때로는 약간의 멀미를 느끼게 하는 농밀한 향기, 그 라일락 향기가 기억속의 또 다른 향기를 불러온다.

“헤이즐넛 향 좋아해요?”

연애할 때 남편은 보라색의 꽃이 보이는 연구실 창을 뒤로 하고 서

서 내게 그렇게 물었다. 그 때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이었다. 그는 헤이즐넛향이 나는 커피를 내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그 종이컵을 받아들며 다소 몽롱한 감상에 젖어 대답했다.

“좋아해요, 그렇지만 헤이즐넛 향은 멀미가 날 것 같아요.”

그 때 나는 아마, 사랑에 빠져 있어서 그런 미미한 향기에도 멀미를 느꼈던 모양이다. 하지만 연인에서 남편이 되고난 뒤에 그는 달라졌다. 자상하게 내 기분을 살피고 배려하던 그는 알고 보니 무뚝뚝한 남자였다. 더군다나 말은 나를 위한다면서 실천은 정작 자기 방식대로만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실망스러웠다. 실망은 불만을 낳고, 쌓이고 쌓인 불만 때문에 나는 요즘 남편을 마주 대하는 것조차도 불편하다.

사실 나는 수술 후에 받을 선물로 붉은 장미꽃을 기대했다. 그런데 남편은 꽃향기가 병실에 좋지 않다느니 어찌느니 하면서 과일바구니를 들고 왔다. 나는 그 과일 바구니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난 그가 깎아 준 멜론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내 불만을 대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에게 장미꽃다발을 받고 싶었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음식을 먹고 체하면, 다른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내가 꼭 그랬다. 나는 남편의 사소한 말에도 짜증을 부렸고 신경이 몹시 날카로워지기도 했다.

우울하게 가라앉은 이 기분이 꼭 남편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수술 후유증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화장실에 가고 싶다. 수술을 하고 나서는 외출하기 전에 조금만 요의를 느껴도 화장실부터 가야 했다. 어디를 가더라도 화장실이 없으면 어찌나 하는 조바심 때문이었다. 그래서 집을 나설 때는, 심지어 가고 싶지 않아도 화장실부터 갔다가 외출하는 습관이 생겼다.

거울을 본다. 화장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온 햇빛에 아이의 얼굴

이 겹쳐진다. 빛살은 아이의 어두운 얼굴빛과 함께 예리한 얼음송곳이 되어 나의 심장을 관통하는 듯하다. 가슴이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 든다. 거울에 부딪쳐 차갑게 쏟아져 내리는 빛살 때문인지 내 마음은 자꾸만 아이에게 달려간다.

며칠 전, 저녁을 먹으며 아이와 나누었던 대화가 떠오른다. 그날 우리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고, 중학교에 가니 아이들 성향이 서로 많이 다르지 않냐고 내가 물었다. 아이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순식간에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그러면서 아이는 최근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

“며칠 전에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한 곳에 애들이 여러 명 몰려있는 거야. 친구 말로는 한 애가 어떤 애 샤프펜슬을 주웠는데 장난으로 안 돌려주고 있었대. 그런데 그 샤프펜슬이 아주 비쌌던 모양이야. 그 애는 장난을 친 것뿐이었는데 샤프펜슬의 원래 주인인 애가 울었나봐. 그런데 원래 주인인 애가 우니까 걔 친구들이 샤프펜슬을 주운 애한테 뭐라고 따지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당사자도 아니면서 한 사람을 여러 명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고 말했어. 그리고 또 우스운 건 평소에 그 애 하고는 전혀 상관없던 애들도 다른 애들이 그 애에게 따지고 드니까 자기도 덩달아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게 군중심리라고 하는 거지, 그 애 편은 한 명도 없었어?”

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이에게 물었다.

“아마 그 애 편을 들면 소외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왕따 당할까봐?”

내가 왕따라는 말을 하자 아이는 나를 가만히 쳐다봤다. 아이는 ‘왕따’라는 말을, 그 말을 듣는 당사자가 무슨 결점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기분 나쁜 말이라고 싫어했다. 나는 아이가 자신의 일도 아닌데 끼어들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 또래의 아이들도 나름대로의 고민과 알력이 있는 것 같았다. 중간시험 치기 전까지는 서로 성향이 맞는 아이들끼리 그룹이 지어지고, 상대를 탐색하며, 결정적인 약점이나, 비집고 들어 갈 틈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인간이든 짐승이든 무리를 이루면 우두머리가 생기고, 우두머리는 그 영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사소한 이유로도 갈등을 만드는 모양이었다.

“그 애들 중 세 명이 나보고 화장실로 오라는 거야. 난 그냥 한번 쳐다보고 책을 봤어.”

나는 아이에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 다독이긴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 것도 사실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불안하다.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해도 환하게 쏟아지는 햇살은 내 불안의 무게만큼 버겁게 느껴진다. 거울에 부딪혀 가늘고 날카롭게 부서지는 빛의 파편을 멍하니 쳐다본다. 거울 속에 신은주의 얼굴이 불쑥 솟아난다.

“커피 식어요.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내 안색을 유심히 살피는 신은주를 따라 나도 휴게실로 간다. 우리는 커피를 든 채 마주 앉는다. 그녀는 내 눈치만 살피고, 나는 내 입술 옆에 붙은 좁쌀만 한 크기의 점만 만지작거린다.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은주 씨가 봐도 그렇지? 수술한 뒤론 의욕도 떨어지고…….”

말끝을 흐리며 나는 내 얼굴을 다시 만져본다. 수술을 하고 나서는 얼굴이 표시가 날 정도로 푸석하다. 화장을 한다고 해도 예전의 생기로움을 찾을 수 없다.

“무슨 이야기들 하세요?”

윤미정이 끼어들다. 그녀는 자판기에 동전이 남아 있는 것을 보더니 밀크커피를 뽑아서 내 곁에 앉는다. 그와 동시에 신은주가 일어난다.

“보고할 게 있어서 저 먼저 일어날게요.”

윤미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진다.

“이중인격 닥대加里…….”

윤미정은 다 마신 종이컵을 움켜쥐며 낮게 내뿜는다. 화를 내니 그녀의 눈 밑 기미가 더욱 도드라져 나무의 각질처럼 보인다. 그녀의 피곤한 일상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 같은 거무스레한 기미가 안쓰럽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듯이 묻는다.

“아이들 키우는 것이 힘들지?”

“다 그렇지요 뭐.”

윤미정은 심드렁하게 대답한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달리 할 말이 없어서 다 마신 종이컵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휴게실의 인터폰이 울린다. 부장이 나를 찾는다고 한다. 요즘 들어 부장은 자주 나를 부른다.

퇴원하고 며칠 지나지 않은 그 날도 부장이 나를 불렀다. 그는 냉정하고 세련된 인상을 풍겼고 게다가 잘 생기기까지 해서 나름대로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오십 살이 넘었는데도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주말이면 산에 다니는 덕분인지 얼굴 혈색도 매우 건강해 보였다.

“몸은 좀 괜찮아? 음식도 잘 챙겨 먹고 무엇보다 건강해야지.”

그러면서 부장은 병원에 있을 때 가보지도 못했으니 저녁 한 번 사줬다고 했다. 나는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나오지 않아서 입모양만 어색하게 일그러뜨렸다. 부장은 결재를 하면서도 쉬엄쉬엄 말을 이어갔다. 그러더니 그는 문득 결재하던 손을 멈추고 자신의 팔뚝을 한 번 만져보라

고 하였다. 나는 부장의 느닷없는 행동 때문에 반사적으로 한발 물러섰다. 그리고 부장이 혹시 불쾌하게 느끼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여서 그의 얼굴빛을 살폈다. 부장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더니 내게 물었다.

“이 넥타이 어때? 저번에 나보고 잘 어울린다기에 오늘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그는 결재하던 것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넥타이를 가리키면서 다정하고 부드러운 눈웃음을 지었다. 예전에 내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언뜻 생각났다. 그 날 부장이 결재하던 중 부장의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 한 마디가 없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었다. 갑자기 부장이 측은해져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그 후로 부장은 사소한 일에도 걸핏하면 나를 불러대었다.

부장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등산 모자를 고르고 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어느 것이 좋겠냐고 묻는다. 나는 눈에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를 가리킨다.

“아이보리색의 저 무난한 디자인이 괜찮은데요.”

“역시 감각이 있군.”

그러면서도 부장은 마우스로 여기저기 클릭을 한다. 그러다가 슬쩍 말을 흘린다.

“어제 일찍 퇴근한 모양이야, 휴대폰 하나까 안 받던데?”

퇴근길에 윤미정을 지하철역에서 내려주고 집으로 가는데 전화가 왔다. 부장의 전화번호였다. 부장은 지금, 어제 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은근히 힐책하는 듯했다. 나는 정시에 퇴근했고, 퇴근해서까지 그의 전화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었다.

“진동으로 해서 못 받았어요.”

나는 그렇게 말해 놓고도 한편으로 부장이 업무적으로 전화를 했을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매우 애매하고 조심스럽다. 여자와 남자 사이에는 언제나 감정의 위태로움이 숨어 있다. 자존심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신뢰가 최상의 방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잠자기 전 충전기에 꽃을 때 보았어요. 중요한…….”

“아니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말끝을 흐린다. 나는 전화를 못 받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됐고, 저녁은 늘 바쁜 것 같던데, 점심은 어때?”

부장은 나를 뻔히 쳐다보며 대답을 기다린다. 나는 말썽만이라도 고맙다고 얼버무린다.

“아니,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는 자신의 호의에 대해 내가 적당한 예의를 갖추기를 원한다. 나는 분명하게 딱 잘라서 거절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우유부단함에 화가 나려고 한다. 불쾌함과 불안한 감정이 지난밤의 남편의 얼굴과 함께 마음의 틈 사이로 들어 왔다. 지난밤에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보채었다. 자꾸만 보채는 남편에게 ‘당신은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해’ 그 말에 남편은 몸을 획 돌려 눕는다. 그리고 화를 참기라도 하는 지 숨소리가 거칠었다. ‘미안하지도 않아’라고 말하는 남편 말에 나는 막막해졌다. 그는 다시 나를 안으려고 했다. 난 그가 그렇게 하도록 그냥 두었다. 좀처럼 열리지 않는 나를 남편은 오기처럼 집요하게 열려고 하였다. 얼굴 옆으로 눈물이 흐르자 몸이 천천히 긴장을 풀었다. 나는 아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생물학적 치유와 심리적인 치유의 차이에 대해서 남편은 알고고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내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난, 선물로 그냥 꽃이 받고 싶어.”

“꽃, 그거 금방 시들고 돈 아깝잖아.”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난 더욱 꽃에 집착하였다. 이상했다. 언제부터 그렇게 꽃이라야 했는지. 난 수술하고 나서 당연히 남편이 꽃바구니 아니면 꽃다발을 사들고 올 줄 알았다. 나는 자궁을 드러낸 그 자리에 깊은 구멍이 생겨서 아무리 몸을 오그려도 자꾸만 시린 바람이 들어와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남편을 생각하면서 가졌던 적의가 부장의 말에 순간 견잡을 수 없이 몸을 경직되게 하였다. 나는 부장의 말에 적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말을 한다.

“오늘 여직원들 점심 먹는 날이라…….”

고개를 끄덕이면서 부장은 어두워지는 얼굴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호의적이고 부드러웠던 부장의 말소리는 사무적으로 변한다.

“윤미정하고 자주 차도 마시는 것 같고, 퇴근할 때도 태워주던데.”

얼굴에 희미한 웃음을 짓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있다. 지상의 먹이를 발견한 독수리가, 자신의 목표물이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면 순식간에 내려와서 낚아챌 것 같은 그런 눈빛이다. 섬뜩하다. 윤미정도 부장에게 나처럼 이런 기분을 느꼈을까.

얼마 전, 퇴근할 무렵에 윤미정이 다가와 물었다.

“언니 오늘 바로 집에 가요?”

나는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윤미정을 경계하고 있는 내가 마음에 거슬렸다. 다른 동료들은 윤미정이 태워달라고 했을 때 핑계를 대고 태워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녀가 타는 지하철역을 지나가는 나로선 거절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그녀를 몇 번 태워줬는데 부장은 지금 그걸 문제 삼고 있다. 나는 윤미정과 퇴근 방향이 같다고 말하러다가 부장이 하는 말을 듣기만 한다. 부장은 혹시 윤미정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으나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부장이 그 동안 내게 보여주었던 친절과 예의바른 친절감마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다.

사실 나는 윤미정과 부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없다. 아마도 부장이 윤미정에게 많은 액수의 돈을 주었을 거라는 소문만 들었다. 소문은 사실인 것처럼 떠돌았다. 근거를 따지면서 소문이 도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지내고 보니 그런 말이 괜히 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신은주의 말처럼 사람들은 모두들 설마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그 소문을 믿는 것 같았다.

“고생한다고 손 한번 쓰다듬은 걸 가지고 그 난리를 피울 줄 알았더라면…….”

내게서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자 부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나는 그 말이 변명으로 들린다. 그런 변명은 내가 그에게 가졌던 그나마 호감마저 깡그리 없애버린다. 나는 부장 앞에서 대놓고 싫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동조하기는 더더욱 싫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윤미정이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다.

“회식을 한다면 미리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윤미정은 화가 났는지 숨을 쉴 때마다 앞가슴이 눈에 띄게 들쭉인다.

“미리 말했는데요.”

신은주는 감정의 동요없이 냉정한 표정으로 말한다. 맞은편의 남자 직원이 신은주에게 상대하지 말라는 식으로 신호를 보낸다.

“나한테는 오늘 처음 이야기하고, 마치 전에 이야기한 것을 상기시키듯 말하네.”

윤미정은 아까보다 얼굴이 더 벌겋게 달아오른다. 그러나 사무실직

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다. 윤미정은 신경질적인 말투로 신은주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지만 신은주는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듯이 열심히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결국 윤미정은 문을 소리가 나도록 닫으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린다. 직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문 쪽을 한번 쳐다보더니 서로 눈웃음을 짓는다. 그렇듯 윤미정은 사소한 것에도 자주 화를 내어 주위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긋나게 한다.

수술을 하고 삼 일 쯤 지났을까, 그때야 나는 윤미정이 우리 부서로 왔다는 소리를 들었다. 부장과 소문으로 얹혀 있던 그녀가 복직을 하려고 해도 다른 부서에서는 받지 않으려고 하니, 아마 총무과로 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신은주는 심란한 듯 말했다. 신은주의 전화를 받았던 그때는 자꾸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서 나도 매우 힘들 때였다. 철분제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간호사가 혈관을 못 찾아서 당직 의사를 데리러 간 뒤였다. 그랬기 때문에 윤미정이 총무과로 복직하든 아니든 그 따위는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간호사가 여러 번 찾아도 못 찾은 혈관을 담당 의사는 보란 듯이 찾아 바늘을 꽂았다. 나는 의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어떻게 하면 혈관이 잘 보일까요?”

혈관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마치 내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의사에게 미안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덧붙였다.

“혈관도 채혈을 자주하면 숨는 모양이에요.”

내 말에 간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힐끗 쳐다보았다.

그 간호사를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나쁘면 오줌도 더 자주 마렵다. 윤미정은 내가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매만지는 사이에 볼 일을 보고 나왔는지 손을 씻고 있다. 내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신호음이 울린다. 딸아이다.

“엄마 뭐하세요. 바쁜데 미안해요.”

아이는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인데, 저 또한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을 아는 모양이다. 나는 창밖을 본다. 이렇게 햇빛이 찬란하 다가도 어느 사이에 번개가 치고, 해일이 일어나 거대한 파도와 바람이 한낮의 햇빛을 앗아갈지도 모른다. 아이의 ‘미안해요’ 라는 말이 내 늑 골 사이로 시린 바람이 되어 지나간다. 휘청거리며 사무실로 돌아온 내 게 윤미정이 다가와 묻는다.

“언니, 괜찮으세요?”

윤미정의 다정한 말에 직원들이 힐끔 쳐다본다. 윤미정은 자신이 다 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알기나 할까. 직원들은 하나같이, 그 녀에게 저런 다정함이 있었나 하는 얼굴들이다.

퇴근길에 윤미정을 태워주고 휴게실에서 가끔 그녀와 있는 것을 본 직원들은 내게 충고를 했다. 자꾸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피곤하니 적 당히 거리를 두라는 거였다. 윤미정은 상대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는 커 념 자기애적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다. 하긴 그 녀는 단기기억손실증의 환자처럼 어제 한 이야기를 점심 때 하고, 퇴근 할 때 한 이야기를 그 다음 날에도 하였다. 그녀는 타인에게 자신의 이 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자신의 기억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우리 가 노트나 컴퓨터에 일기를 쓰듯이 말이다.

점심시간이다. 아이의 문자 메시지가 계속 신경이 쓰인다. 입맛이 없 다. 함께 점심을 먹는 동료들한테는 다른 약속이 있다고 했다. 그들이 나가고 난 뒤에 좀 쉴까 싶어서 휴게실로 갔다. 막 도시락 뚜껑을 열려 고 하던 윤미정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놀란다.

“식사하러 안 가세요?”

“밥 생각도 없고 속도 안 좋아서…….”

나는 그녀 앞에 앉으면서 말했다.

“그럼 같이 먹을래요?”

“아니야, 조금 있다가 나갔다 오던지…….”

“그래요, 그럼.”

그녀는 밥을 먹기 시작한다. 그녀의 도시락이 지나치게 빈약하다. 나는 뜬금없이 묻기부터 한다.

“큰애가 여섯 살, 작은애는 몇 살이지?”

“다섯 살이에요.”

그녀는 입안의 밥을 삼키고 희미하게 웃는다. 나는 그녀가 혼자서 점심을 먹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다. 그녀가 우리 부서로 오게 되면서, 그전까지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달라졌다. 점심 시간이 되면 직원들은 슬그머니 한 사람씩 사라졌다. 그녀와 같이 나가 어쩔 수 없이 밥을 같이 먹게 될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랬는데 그녀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휴게실에서 혼자 먹기 시작했고, 그제야 다른 직원들은 삼삼오오 어울려서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나는 그런 지난 생각들을 하며 그녀가 밥을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내 눈길을 의식했는지 그녀가 문득 나를 본다.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밥을 먹다가 윤미정은 한숨을 쉬어 나에게 느닷없는 질문을 한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신중해지기 위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며 그녀의 눈을 오래 쳐다본다. 그녀가 말을 할 때, 나는 가끔 그녀의 눈에서 가을 하늘 같은 눈물이 고였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지금도 그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본다.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그 눈물은 이내 내 마음에 툭 떨어질 것만 같다. 나는 그런 마음을 애써 감추며

담담하게 대답한다.

“난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 사실이 어떤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와 부장의 소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진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할 때나,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한테 해줄 때는 오히려 관심이 생기지 않았다.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 윤미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그녀의 처신까지 탐하고 싶은 심정이 된다. 윤미정의 깔금하지 못한 처신이 출퇴근할 때의 차편 때문이라는 것으로 짐작되어서 나는 다짜고짜 묻는다.

“운전할 줄 몰라?”

“운전면허는 있지만 결혼하고는 운전 할 일도 없고, 겁이 났어요.”

그녀는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 한 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운전을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말은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때로는 엉뚱한 오해를 만들기도 한다.

“부장님이 많이 태워주셨나 봐?”

“제가 지나가면 직원들도 태워줬지만, 부장님이 제일 먼저 퇴근하시니까 주로 부장님 차를 많이 탔어요.”

“그랬구나.”

“부장님이 그 날 저녁을 사주신다고 했을 때, 참, 언니도 소문은 알고 있죠? 그날은 정말이지 왜 그랬나 몰라요. 부장님이 집에 가서 혼자 식사를 하시는 것이 얼마나 쓸쓸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도 마셨어?”

소문에는 그녀가 술을 많이 마셔서 부장이 부축할 정도였다고 했다. 그런 소문들은 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지, 나는 미정에게 그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다.

“부장님이 맥주 한 병을 시키더니,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제 잔에 따라줬어요.”

그녀는 조금만 술을 먹어도 얼굴이 붉어져서 안 된다고 했지만 부장이 자꾸 권해서 반 잔 정도 마셨다고 했다. 평소에 자기관리가 철저한 부장이 사람들이 봄비는 저녁시간에 젊은 여자 직원과 단 둘이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미정은 밥을 먹다 말다 하면서 말을 이어간다.

“저도 그런 곳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별채처럼 지어진 조그마한 방에는 화장실까지 별도로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벨을 눌러서 종업원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게 해놓았어요. 저녁을 다 먹고 일어났는데, 그는 날 벽에 붙이고는…….”

나는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 일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의 그녀를 생각했다. 그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으로 얼마나 많이 되돌아가고 싶었을까. 나는 잔한 마음으로 그녀가 하는 말을 듣기만 했다.

“나는 그 사실을 같은 과 유석순 대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이 복잡해지면 직장 생활하기 더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준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가도 내가 가면 슬그머니 가버렸어요.”

“왜?”

“모르겠어요. 또 팀장은 결재를 받으러 가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번번이 결재를 반려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얼굴이 청동빛으로 변해간다. 분노 때문에 굳어지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나까지도 마음이 옥죄는 것 같다.

“할 수 없이 육아휴직을 냈는데 그 동안에 그 닭대가리 유석순 대리가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윤미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최고의 욕이 ‘닭대가리’인 것처럼, 그 말을 자주 한다. 그 팀장과 유석순 대리의 이야기만 나오면 뜨거운 분노가 순식간에 머리끝까지 솟구친다며 그녀는 울먹인다.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녀의 분노는 그 사건 자체 보다 자신을 부당하게 취급하며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로 향해 있다. 그녀의 신경증적 분노는 오전에 신은주와의 갈등처럼 무의식속에 억압받고 있다가 외부의 사소한 일에도 자극받아 터져 나오는 경우 같다. 윤미정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한 요소들로 가득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윤미정은 좀 걷고 온다며 밖으로 나가고 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하나 둘 들어온다. 내 휴대폰이 반짝거린다. 얼른 집어 보니 또 아이의 문자 메시지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나, 실장 됐어요.”

아이의 메시지가 물기라곤 없는 내 몸에 싱싱한 물방울이 되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든다. 내 몸은 갑자기 생기를 띠며 활달해진다. 중학교에 가면 공부만 하지 임원은 안하겠더니, 나는 아이의 심경변화가 사뭇 궁금하다. 어쨌거나 나는, 축하한다고 아이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몸을 돌려 창밖을 본다. 빛의 포화로 공기의 막이 팽팽하게 부풀어터질 것 같은 오후 두 시다. 봄은, 허공에 흩어지는 라일락 향기만큼이나 빠르게 가버릴 것이다. 나는 창문을 열고 라일락 향기를 욕심껏 들이마셔서 저장하고 싶다. 봄이 가도 아주 오랫동안 나의 기억 속에 꽃향기가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부장이 인터폰으로 부른다. 피곤하다. 하루에 두 번씩이나 불러대는 이유가 뭘까. 그러나 그의 호출을 거절할 수 없는 나로선 두 번 아니라 열 번이라도 부르면 찾아가야 한다. 부장은 전자 문서를 열어놓고 침부 물을 보고 있다. 그는 나를 옆으로 불러 휴대폰 메시지를 보여준다. 동창회에서 온 산행공지문이다. 그와 나는 동문이니까 산행을 같이 가자는 뜻인 것 같다.

“등산 모자 있어? 봄 햇볕에 더 많이 타잖아. 아까 본 그 연한 보라색, 주문할 때 그걸로 할까?”

나는 분명하게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망설인다.

“왜, 마음에 들지 않아?”

부장은 내가 자신과 같이 산에 갈 건지를 그런 식으로 묻고 있다. 그는 별 뜻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가 분명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암묵적 동의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나는 초조해져서 머릿속이 부산해진다.

“토요일에는 하는 일이 있어서 곤란할 것 같아요.”

나는 잔뜩 아쉽다는 표정을 짓는다.

“아, 토요일에 아이가 뭘 배운다고 했지.”

가끔 월요일 아침에 결재 받으러 들어가면 휴일에 뭐하고 보냈냐고 그가 물을 때가 있다. 그때마다 나는, 토요일에는 아이가 과외를 하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은 못한다고 대답했다.

부장은 고개를 몇 번 끄덕이더니 가볍게 웃는다. 그러면서 오늘 회식 하면 밥만 먹고 일찍 들어가라는 것으로 화제를 돌린다. 그런 자리에 오래 있어 봤자 좋을 것 없다고 말하는 부장의 의도야 어찌되었든, 나는 단순히 일찍 들어가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남편도 부장과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여직원들은 밥만 먹고 일어나 주는 게 남자들에게 편할 수도 있어, 괜히 술자리에 있으면 보기에 좀 그렇잖아. 남자들 술 먹으면 아무 생각 없는 동물이거든. 남편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나는 그 말에 최면이라도 걸린 듯 술잔이 서너 번 돌기 시작하면 아이 핑계를 대고 일어났다. 하지만 그 핑계가 썩 내키지 않거나 개운찮을 때도 있었다. 오늘처럼 부장까지 그런 식의 최면을 내게 거는 것은 정말이지 불쾌하다. 밥을 먹든 술을 먹든 그것은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부장의 문제도 아닌, 오로지 내 문제 아니겠는가.

회식 장소는 사무실 근처의 횡집이다. 밥을 먹고 술을 한 잔씩 돌리고 나자 분위기가 시끄럽다. 회식을 하면 항상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뉜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야기만 하고, 듣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시는 사람끼리만 어울린다.

나는 팀장에게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귀뜸을 한다. 팀장은 아쉬워하는 눈치를 보이더니 윤미정도 같이 간다는 말에 선뜻 허락한다. 아니, 노골적으로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나는 가방을 차 안에 두고 와서 몸만 슬쩍 빠져 나가면 된다. 뒤이어 윤미정이 따라 나온다.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술을 반 잔 정도 밖에 마시지 않았지만 몸에서 열이 난다. 그래서인지 바람이 얼굴에 스치니 상쾌하다. 옆에 탄 윤미정도 얼굴이 빨그레하다.

“몇 잔 마셨어? 제법 얼굴이 빨그레한 게 예쁘네.”

“얼굴이 빨갛죠. 반잔만 마셔도 이래요.”

“그래 난 미정 씨가 술을 좀 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우리 둘 다 술은 핑이구나. 술도 적당하게 먹을 줄 알아야 사회생활 하기에 좋잖아?”

윤미정은 약간 들뜬 듯 하다. 내 말투가 재미있는지 소리 내어 웃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빵점짜리네요 그죠?”

두 빵점짜리는 이내 말이 없어진다. 특히 윤미정은 차창 밖의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다. 거리는 눈부시도록 현란한데 윤미정과 나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만 빠져 있다. 나는 그게 다행스럽기도 하고 이상하게 아쉽기도 하다.

지하철역에 차를 세우자 윤미정은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멀어지는 그녀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나는 백미러를 통해 보고 있다. 천천히 가고 있는 내 차를 지나치는 차, 눈에 익은 부장의 차다. 그 옆에 언뜻 신은주가 보인다. 아닐 수도 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연락이 왔다면 신은주는 오늘 회식에 빠졌다. 나는 순간 비상등을 켜고 후진기어를 넣는다. 뒤에서 수많은 빛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다가 내 차를 비껴 앞으로 간다. 윤미정이 화들짝 놀라서 달려온다. 나는 차창을 내리고 큰소리로 그녀를 부른다.

“윤미정, 우리 둘이 지금부터 한 잔 하면서 진짜 이야기 좀 해보자. 어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다시 내 차를 탄다. 나는 그녀가 내 옆에 앉아 안전띠를 매는 동안 휴대폰 배터리를 빼버린다. 배터리와 본체가 분리되는 소리가 내 귀에는 아주 경쾌하게 들린다.



오랜 시간동안 어머니는 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다. 나는 단지 그 고통을 지켜보는 일 밖에는 할 수 없었다. 나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마음을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이다. 언제나 상처 입은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무심하지 않으면서 어떤 삶이 진실 되고 올바른 삶인가 고민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양평군청

윤 찬 모

고막손

그러나 고 영감에게는 일을 그만하라는 말이 세상을 그만 살라는 것과 같이 들렸다.

일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했다. 머슴살이를 하면서 굳어온 일 중독 증이었다. 소싯적에는 남의 밥을 먹으면서 밥값을 안 하고 밥상을 받으면 하루 종일 불안하던 때가 있었다.



고막손

고막손 영감은 올해 나이 예순아홉으로 소싯적부터 농사에 뼈가 굵은 일꾼이다. 작달막하고 다부지게 생긴 체격에 비하여 손은 뼈마디가 굵고 투박하여 농사꾼의 골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었다. 막손이라는 이름은 언제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태어나서 한참 후에 지은 것만은 틀림없어 보이는 것이 이름과 막되게 생긴 손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었다. 나이가 지긋이 들어 있는 마을에 노인들도 스무 살 전후해서 여우골 마을로 들어온 고막손 영감의 이후만 알았지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고막손 영감의 삶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자기 농사 남에게 흉잡히지 않을 정도로 탐스럽게 지어냈고 품앗이에도 피를 피우지 않고 남에게 절대로 폐를 끼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고막손 영감에 대해서 사람 좋은 호인으로만 알고 지냈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토박이들에게 밋보이면 따돌림을 당하고 서러운 일을 겪기 때문에 함께 도와야 하는 농사일의 특성상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잃지 않고 지내야 한다는 사리쫓은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

고막손 영감이 마을에 들어오게 된 내력을 살짝 들추어 보면 어려서부터 살림이 궁해서 부잣집 머슴살이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십 초반으로 나이가 차면서 주인집에서 짝을 맞추어 논 열 마지기분의 새경을 받아서 마을로 들어왔던 것이다. 생활이 전부 일뿐이었던 고막손 영감은 논 열 마지기를 밋천으로 차츰 차츰 옆에 붙은 논을 사들여서 스물다섯

마지기로 붙어나니 마을에서도 함부로 못하는 측에 끼게 되었다.

삼월이 되어 고막손 영감네 오천 평이나 되는 논두렁을 모두 손질하려면 품앗이로 모은 일꾼 여섯이 두 패로 나누어 가래질을 해야만 하루에 마칠 수 있었는데, 가래질꾼들이 논두렁 밑에 흙밥을 걷어 논두렁에 올리면 고막손 영감은 여우굴 골짜기에서부터 물길을 잡아 가래가 지나간 논두렁 아래 물도랑으로 물줄기를 돌렸다. 가래꾼들이 돋워놓은 논두렁은 발로 다지고 물을 적서 삼 등으로 반질반질하게 맥질을 하던 한 해 동안 뭉그러졌던 논두렁은 매끈하게 되살아나서 들쥐와 땅강아지, 두더지 같은 놈들이 일 년 내내 뚫고 다녔던 물구멍을 때웠다.

그런데 여려해 전부터 마을에 트랙터에 이앙기가 들어오고 콤팩트인이 들어오면서부터 가래질하는 집이 줄어들어 품앗이하기는 더욱 어려워졌고, 고막손 영감은 가래질 대신에 삼 한 자루 들고 여러 날을 논두렁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군데군데 두더지나 땅강아지가 뚫어 놓은 물구멍들을 때우는 걸로 가래질을 대신했다. 그러다 보니 논두렁에 가래밥을 제대로 덥지 못했기 때문에 풀은 해마다 더 무성해져서 논두렁 풀 깎기도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었다.

소를 두서너 마리씩 먹이던 소싯적에는 소먹이로 논두렁 풀이 남아 날 날이 없었지만 외양간이 텅 비어있는 요즘에는 일삼아서 논두렁 풀을 깎는 것도 군일이 되어 버렸다. 새벽어둠이 걷히면서 일어나 낮 두 자루를 들고 논에 나가서 이슬 치기에 한참동안 깎고 조반을 마치자마자 아침나절을 논두렁과 씨름을 하면 뜨거운 낮별에는 한 동안을 쉬어야만 했다. 저녁나절에는 땅거미가 저서 낮 끝이 보이지 않을 즈음에야 집으로 들어왔다. 그러기를 대엿새면 논두렁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고막손 영감은 이발을 마친 것 같은 개운한 기분에 논두렁 물고기를 보러 다니는 일로 복중 더위를 견뎌내곤 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그게 힘에 부쳤다. 쪼그려 앉아서 논두렁에 풀을 깎다가 일어나면 무릎이 꿇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한동안을 절룩거리며 풀어야 했다. 서울에서 한 달에 한번 꼴로 집에 내려오는 아들이 데려다 침을 맞히고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그래서 고막손 영감의 논두렁 깎기는 해가 가면서 점차 뜸해졌다.

휴일이면 내려오는 아들이 고막손 영감의 아픔을 보다 못해 농사일을 거들겠다고 나섰다. 고막손 영감은 아들 하는 일이 도무지 설어서 마뜩치 않았지만 아비를 돕는다고 내려와 거드는 게 대견했다. 한편으로는 뺨꿀 빠지는 농사일 안 시키려고 공부시킨 아들에게 농사일을 시킨다는 것이 도무지 안쓰러워서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일을 못하면 못했지 아들에게는 농사일을 안 시키겠다는 생각이 고막손 영감의 외고집이었다. 고막손 영감은 혹여나 농사일을 배울까 겁을 내면서 낫을 들고 논으로 나가려는 아들을 한사코 말렸다.

그런 아비를 보다 못한 아들이 어느 날 풀 죽이는 약이 새로 나왔다고 하면서 직접 사다가 분무기 통에 타서 논두렁에 뿌리자 논두렁에 무성하게 자라나던 풀이 빨갛게 죽었다. 풀 죽이는 약은 빠르게 여우굴 마을 안에 다른 들판도 모두 덮었다. 논두렁뿐 아니라 밭고랑으로도 뿌렸고, 뽕아줄 틈이 없어 풀이 무성한 앞마당에도 뿌렸다. 이들은 꼬박 호미 들고 쪼그려 앉아 매야 할 고추밭 고랑에 풀들도 잠깐 동안 뿌린 약 기운에 맥없이 자빠졌다. 논이고 밭이고 울안이고 풀이 무성한 곳에는 풀 죽이는 약을 한 번 쓰으 뿌려주면 원수같이 지독하게 살아나는 풀들은 괴멸하는 병사처럼 말라비틀어졌다.

논두렁에 구멍을 뚫는 벌레도 없어지고 들쥐와 두더지도 줄어들었다. 고막손 영감은 풀 죽이는 약 덕분에 논두렁에 풀 깎을 걱정 안하고 그럭저럭 농사를 지었다. 그 덕분인지 논두렁을 뚫어 놓는 땅강아지와

들쥐, 두더지의 극성도 줄어들었다. 이태 전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지난해 정월에 특별 영농교육을 한다고 농촌지도소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앞으로는 논이고 밭이고 풀 죽이는 약을 쓰지 말 것을 알렸다. 이제부터는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약 안 쓰고 어떻게 농사를 저?”

어떤 노인은 샷대질까지 하면서 덤벼들었다.

“선상님이 우리 논밭에 풀 다 뽑아 줄 거여?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옛날에는 선상님들이 농사일에 꼬치꼬치 참견했지만 이제는 못할 께. 지금이 어느 시텐데 농사짓는 법도 제 맘대로 못하게 해!”

정초부터 영농교육장은 난장판이 되었었다.

그러나 한강직 이장과 젊은 패들은 달랐다.

“풀 죽이는 약이 월남전에서 베트남들 찾아내려고 미군이 정글에다 뿌리던 고엽제래요. 지가 월남 갔다가 그거 맞아서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얼굴에 칼자국이 있어 험상궂게 보이는 한강직 이장은 윗도리를 들어 올리며 등짝을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열을 올렸다.

“누가 사람한테 준대. 풀 없애자는 거지.”

“글쎄 풀 없애자고 준 약을 벼가 먹고 그 벼를 사람이 먹게 된다잖아요!”

젊은이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마을에 분위기는 전체가 풀 죽이는 약을 안 쓰자는 쪽으로 돌아갔다. 바로 어제 이장은 마을회관에 사람들을 모아 놓고 풀 죽이는 약을 뿌리지 말 것과 약을 뿌렸을 때의 불이익과 안 뿌렸을 때의 혜택을 알렸다.

고막손 영감은 마을사람들에 눈에 띄지 않게 밝기 전에 농약판매상에 나가 「그라목손」 두통을 사서 검은 시장 가방에 감춰들고 들어왔

다. 조반을 마치고가 무섭게 이른 아침에 사온 「그라목손」을 등짐 분무 통에 풀어 넣고 이제 막 논으로 나서는 중이었다.

한강직 이장이 앞을 막아섰다.

“어르신, 분무 통에 제초제 들었지요?”

이장이 족집게처럼 찍어낸다. 고막손 영감은 도둑질 하다가 들킨 사 람처럼 움찔했다.

“이젠 나도 더는 못 건디겠네! 저렇게 풀 자라는 것 못 보겠나? 약을 안 뿌리면 이장, 자네가 우리 논두렁 풀을 죄다 깎아줄 건가? 저렇게 풀 이 벼보다 더 큰데도? 내 무릎이 아파서 이젠 풀도 못 깎겠어.”

애원하듯 했으나 이장이 맞섰다.

“우리 동넨 풀 죽이는 약 안치기루 했잖아요. 올 농사에 제초제 안치 면 면에서 우리 마을로 트랙터 한 대가 거저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지 가 엿저녁에 회관에서 다 얘기 했잖아요. 작년에도 어르신 때문에 트랙 터 한 대가 옆 동네로 그냥 날아갔잖아요. 어서 들여다 두세요. 지가 시 간이 나면 하루 날을 내서 풀을 모두 깎아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도 못해 요. 특하면 면에서 오라, 농협에서 오라, 행사에 참석하라하고, 손님들 찾아오고 정말 바빠요. 그리고요 어르신께서도 열이렛날 유기농 하는 마을에 함께 보러 가세요. 우리 동네도 유기농 하는 법을 한참 더 배워 야 해유.”

한강직 이장은 아침나절에 마을 구관장에 들렀다가 고막손 영감이 면소재지 마을 농약판매장에서 농약을 사들고 가더라는 얘기를 듣고 부리나케 쫓아 올라왔기 때문에 분무기 안에는 풀 죽이는 약이 들어 있 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지난해에도 고막손 영감은 논두렁에 풀 죽이는 약을 들어붓다시피 했다. 한강직 이장은 트랙터를 타려고 벌겍게 풀이 타죽은 논두렁을 감

추느라 면사무소 직원과 함께 부탄가스를 들고 다니면서 태우던 지난 해에 일을 떠올리고 있었다. 아들이 고막손 영감에게 풀 죽이는 약을 사다주던 지난해부터 그는 마을에서 요주의 인물이 되었다.

농토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여우골에서 스무 마지기가 넘는 농사라면 적지 않은 땅인데 칠십이 다된 노인이 고집스럽게 혼자서 짓는다. 하긴 요즘 농사라는 게 옛날처럼 이웃에 품앗이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모든 농사를 기계만 갖다 대면 해결되기 때문에, 고막손 영감은 칠십 노령의 건강을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농사를 지어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곱지 않은 눈 흘김을 받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유기농업을 하지 않아 미운털이 박힌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고막손 영감은 이웃에 손 벌리지 않고 아쉬운 소리 안하면 그만이지 남에 농사에 참견은 웬 참견이나, 내 농사만 잘 지으면 그만이라는 주의자로 변해 있었다. 마을 이장과 면사무소 직원이 나서서 하는 농사 참견에는 아니꼽기도 하고 마을 어른을 대하는 꼬락서니가 도무지 되먹지 못했다는 게 요즈음에 고막손 영감 생각이다. 자신도 이제 여우골 마을에서 뼈가 굳었고 살만큼 살았는데 아직도 뜨내기 취급 받는다는 생각이 가끔 들던 중에 마을사람들의 무언의 공격이 자신에게 쏠리자 은근히 부아가 났다.

옛날에는 연말에 마을 총회에 나가서 쌀 한가마니만 떨궈 내놓으면 동네 이장도 최고의 어른으로 대우해 주었는데 요즈음은 이장이 바뀌고 나니 그게 아니었다. 유기농법이네 참살이네 뭐네 하면서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만 하는 것들이 소출은 고막손 영감만큼도 못 내고, 남의 농사에까지 참견이 지나치니 그 꼴이 도무지 볼 상이 사나워서 한껏 심기가 불편해 있던 터였다.

고막손 영감은 자신도 이제 어엿한 마을의 어른으로 대우 받을 만도

한데도 마을사람들이 도무지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섭섭했던 터에, 새로 된 이장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것 같아 더욱 더 그랬다.

(제 놈들이 내 농사에 보태 준 거 있어. 내 땅에 내 농사도 내 맘대로 짓지 못하면 이게 무슨 민주국가야. 독재국가지.)

어제 저녁만 해도 그랬다. 한강직 이장이 마을사람들을 모아 놓고 올 해는 한집도 논밭두렁에 제초제를 치지 말자고 신신당부하면서 자신을 지적한 것이 무척 고까웠다.

“고 영감님도 올해는 제초제 안치실 거죠?”

“자네들은 펄펄 나는 기운이나 있지. 이 늙은이가 오천 평 논두렁을 어떻게 손으로 다 깎아! 늙었다고 무시하는거여!”

“아, 이 사람아 돈에다 쌀에다 쌓아두기만 하면 저승까지 가져갈 건가? 일 손 구해서 논두렁 깎으면 되지.”

같은 또래에 강 영감이 한 침을 놓았다. 농기계를 모두 갖추고 농사 짓는 젊은 농사꾼 강경민의 부친이었다.

고막손 영감의 심사는 더 틀어졌다. 이장이 고막손 영감을 달래보려고 면에서 무상으로 나오는 예초기 한 대를 주겠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결국 예초기는 여우골 마을에서 두 번째로 농토가 많은 영농후계자 강경민에게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무상으로 지원 받는 예초기에 욕심이 있었지만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에다 트럭까지 모두 가지고 농사를 짓는 젊은 강경민에게 돌아간 데 대해서는 함부로 가타부타 하지 못했다. 한해 농사를 지으려면 강경민의 농기계를 쓰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건 고막손 영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마을로 나온 예초기 한 대는 만장일치로 강경민에게 돌아갔던 것이다.

고막손 영감은 내심 마을에서 자기의 농토가 그래도 꽤 많은 축에 드니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예초기가 싫은 것이 아니라 기계라는 것은 경운기조차도 만져보지 않은 터라 어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예초기를 쓰다가 다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레 겁을 먹고 있던 터라 사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일단 한번 사양했다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고 미루면 못이기는 체하고 받을 요량이었지만 한강직 이장은 고막손 영감이 사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보기 좋게 강경민에게 넘겼다. 밤새도록 그 것이 고까웠던 고막손 영감은 조반을 마치자마자 면사무소가 있는 마을로 줄달음쳐 내려가서 풀 죽이는 약인 「그라목손」 두통을 사서 마을 사람들 못 보도록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온 것이다. 눈치 빠른 구관장 덕이 이른 아침에 가게 앞에 공터에 뿌릴 열무 씨를 사러 농자재 파는 곳에 들렀다가 고막손 영감과 딱 마주쳤고 고막손 영감이 풀 죽이는 약인 「그라목손」을 샀다는 귀중한 정보를 아침에 구관장에 들렸던 이장에게 고해바친 것이다.

한강직 이장은 올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트랙터 한 대를 상으로 받아야 한다는 스스로의 목표가 굳어 있는 사람이었다. 이장 임기 중에 마을에 해놓아야 할 업적이었다. 올해는 고막손 영감이 논두렁에 제초제 뿌리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한다는 각오가 단단하던 터에 제대로 걸렸던 것이다.

고 영감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와 헛간에 분무기통을 내려두고 낮 두 자루를 꺼내다 솥둘에 쓱쓱 갈았다. 오기가 서렸다. 오랜 세월동안 갈리어 우뚝하게 패인 솥둘위에서 녹이 끼었던 낫날 면이 하얗게 살아난다. 엄지손가락으로 날을 거스르고 스치면서 날의 틈을 가늠했다. 엄지의 지문 돌기가 낫날에 섬뜩 한 감촉으로 스쳐왔다. 그 예리감에 뒤틀렸던 심사가 조금은 가라앉았다.

추수까지는 논두렁을 두어 번은 깎아야 했지만 여린 풀이 날 때에 「그라목손」을 한번 뿌려주면 논두렁 풀은 맥을 못 추고 없어졌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유기농업입네 뭐네 하면서 화학비료도 주지 말고 농약도 일절 치지 말라니 답답한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논두렁을 그냥 두자니 보기 흉하기도 하고 게으른 농사꾼으로 보이는 것은 더욱 싫어서 그대로 둘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다.

지난해에는 논바닥에 거름기를 먹고 무성하게 자란 논두렁 바랭이 풀이 벼보다 더 크게 논두렁을 덮어서 깎다 못해 제초제를 뿌렸다가 마을 전체가 난리가 났었다.

고막손 영감은 예전처럼 논두렁에 쭈그리고 앉아 풀을 깎아 나갔다. 무성했던 바랭이 숲이 더벅머리 깎아내듯 고막손 영감의 낫질로 사각 사각 깎여 나갔다. 영감이 지나간 자리는 매끈하게 정돈되었고 논두렁 바닥이 드러났다. 배동이 서기 시작하는 벼 포기 밑동이 숨을 쉬듯 살아났다. 평지에 있는 논보다는 논두렁이 더 넓었기 때문에 논두렁 깎기는 평지 농사보다 배 이상 힘들었다. 마을에서 올려다보면 논바닥은 안보이고 논두렁만 보여서 풀을 깨끗하게 깎은 논두렁 밑으로 벼 포기들의 정돈된 모습을 보면 고막손 영감은 아들을 하나 더 키우는 것처럼 뿌듯했다.

오랜만에 보는 가지런한 기분이었지만 쭈시고 아파오는 무릎 때문에 더 오래 할 수가 없었다. 억지로 한배미를 돌면서 깎았다. 아픈 다리를 어정거리며 돌아왔다. 온 몸이 쭈시고 아파왔다. 밤새도록 무릎을 앓았다.

손으로 논두렁을 모두 깎으려면 대엿새는 족히 걸리는데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한해두해 몸은 달라져 가는데 마음이 일을 붙잡으니 몸이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품을 사서 해보려고도 생각해 보았지만 밥술만 축내고 듬성듬성 성의 없이 해대는 날일꾼들이 도무지 마음

에 들지 않아 그 것도 포기했다.

다음날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아버지 이제 농사는 그만 하세요. 아주 땅을 팔아버려야겠어요.”

아들은 고막손 영감의 일중독을 항상 걱정했다. 고막손 영감은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뿌듯하고 대견스러워 오히려 신이 났다. 그러나 땅을 팔지는 말에는 가시를 박았다.

“땅을 팔라고?”

한 달에 한번 정도 들르러 오는 아들은 ‘차라리 농토를 처분하자’고 했다가 고영감이 들고 있던 싸리비에 등짝을 후려 맞은 적도 있었다. 다 큰 아들의 등짝을 후려치도록 땅을 처분하라는 말을 고영감의 먹을 잡는 소리였다. “어떻게 장만한 땅인데 팔아!”

얼떨결에 혼쫓이 난 아들은 그 이후로 땅을 처분하라는 말을 못했지만 사업이 시원찮다면서 전보다 자주 내려와 농사일을 돕는 게 펍 안스러웠다. 어차피 제 놈 차지인데 아비 살아생전에 소원대로 한자리 뚝 잘라서 대주면 원망이나 안들을 것이라는 아내의 말도 역정을 내면서 막았다. 돈이 더 필요하면 농사를 지어서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고 어린 애 달래듯 달랬다. 그러면 농토는 남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농토도 아들 같은 아낌인데 말린 고추 한 포대 내다 팔듯이 가볍게 팔아버리자는 말을 들을 때는 애똥한 아들이라도 부아가 났다.

아비의 힘든 일을 걱정하는 아들의 심정만은 대견해서 이제부터 눈 두렁 깎는 일만은 그만 두겠노라고 했다. 그리고 풀 죽이는 약을 뿌렸었는데 날마다 감시하듯 하는 이장 성화에는 또 못 견뎠다. 마을에서는 농사철만 되면 제초제를 뿌리지 말라는 글이 큼직하게 쓰인 가로 걸개를 스스로 내 걸었다.

마누라의 성화도 성화지만 주말이면 내려오는 아들내외가 논두렁에서 땀 흘리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질색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걸림이었다.

그러나 고 영감에게는 일을 그만하라는 말이 세상을 그만 살라는 것과 같이 들렸다. 일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했다. 머슴살이를 하면서 굳어온 일 중독증이었다. 소싯적에는 남의 밥을 먹으면서 밥값을 안 하고 밥상을 받으면 하루 종일 불안하던 때가 있었다. 지금도 하루 종일 일을 안 하고 경로당에서 기웃거리다 저녁을 먹으면 죄짓는 것처럼 꺼림칙했다. 그나마 남의 기계와 손을 빌어서라도 농사를 짓는 것이 고막손 영감의 허리를 꼴꼴하게 세우는 힘이었다.

강경민이 몇 번이고 논을 자기에게 달라고 해도 손사래를 쳤던 것이 그 힘이었다.

“어르신네 논 올해는 제게 주시지요. 가을에 칠대 삼으로 후하게 드릴게요.”

“이 사람아 내가 농사를 놓으면 죽은 목숨이어. 농사철에 자네 기계나 좀 잘 대주게. 기계 샀은 내 후하게 쳐 줄 테니.”

강경민은 고막손 영감에게 매년 농사홍정을 걸었으나 고영감이 항상 그렇게 이기는 것으로 끝이 났다.

고막손 영감의 농토는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 가두는 조그만 저수지 밑으로 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물만큼은 남과 다름 없이 지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강경민은 경지정리도 안 되어 있는 고막손 영감의 농토가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관심만 놓으면 어느새 논두렁에 풀 죽이는 약을 쳐서 시뻘겋게 만드는 것을 막아보려는 생각에서였다.

일찍부터 유기농법을 배운 강경민은 마을 사람들을 가르쳤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쌀 속에도 수은이 들어 있대요. 소가 먹는 볏짚에도 농약이 들었대요. 그러니 우린 지금껏 소고기와 쌀밥을 먹고 산 게 아니라 농약덩어리를 먹고 산거예요. 옛날에는 없던 병들이 지금 와서 왜 생기겠어요? 모두 농약 때문이라고요. 사람도 농약중독이 되어 있고 땅도 농약 중독이 되었고 소도 농약중독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린 빨리 중독된 농약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유기농업을 해야 돼요. 농약 안 쓰고 화학비료 안 쓰고 농사짓는 법을 배워야 해요. 군청에서 쇠똥거름도 거저로 주고 유기농 벼는 몽땅 수매를 받아준대요.”

마을 전체가 유기농업을 하기로 결의하자고 모인 날이었다.

“여보게 경민이, 그렇다면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는 애긴데 소출은 어떤가? 농사도 장산데 먼저 소출이 많이 나아하지 않는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소출 많이 나는 통일벼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거 아냐? 그런데 비료 안치고 농약 안치면 그 농사 망칠 것이 뻔한 게 지 뭐야.”

“자기가 자기농사 짓는 것은 자유니까 각자 알아서들 하도록 해. 지금 시대가 남의 농사 어떻게 지으라고 강요할 시대가 아니잖아.”

또 한 노인이 고막손 영감을 거들었다.

그러나 강경민이 심지를 박았다.

“그게 아녀요. 옆 논에서 농약을 치면 유기농업을 하는 논에도 피해를 입어요. 곡식에서 농약잔류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불합격 되어서 제 값을 못 받는다니까요. 일반 쌀이 십육만 원이고 환경농법 쌀이 이십사만 원이니 반 곱절은 더 받는다고요. 그리고 농약치거나 제초제 뿌리는 논은 앞으로 저도 일을 못해드리겠어요.”

엄포였다. 일부 비아냥거림도 없지 않았지만 강경민의 농기계 힘에

는 어쩔 수 없었다. 마을사람들은 강경민의 강권에 모두 손을 들고 말았다.

마을 총회에서 지난해 말 영농교육을 다녀온 강경민은 반 설득과 반 엄포로 마을 사람들에게 유기농업을 하자고 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강경민에게 유기농업을 가르쳐주고 농약 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영농지도자의 일을 맡겼다. 그런데 고막손 영감이 문제였다. 아들이 휴일이면 내려와서 효도한다고 농사일을 돕는다는 것이 풀 죽이는 약을 퍼뜨려 놓은 것이다. 알아들을 만한 젊은 나이에도 유기농업을 하라는 데에는 막무가내였다. 유기농업은 좋은 데 그 것이 모두 면사무소의 앞잡이 노릇 아니냐는 거였다. 또 속마음으로 이해는 하는 데 제 아버지 고생 시켜드리는 것은 안 되겠다는 거였다.

“자네가 아버님을 설득해 보게. 우리 마을에 명예가 달린 문제네. 더욱이 자네네 논이 우리 마을에서 간판지기 아닌가. 이제는 서울 백화점에서도 유기농 쌀이 아니면 안 사먹는다면서, 새로 들어온 전원주택 마을 사람들도 자네네 쌀은 안사서 먹겠다고 하네. 농사짓기가 그렇게 힘들면 아주 논을 팔아 버리든가.”

“글쎄요, 강 선배님 말은 이해하지만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차라리 몇 자리 처분하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선배님이 어찌 좀해보시지요.”

아들도 아버지가 차라리 농토를 처분하고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랐다.

그런 가운데에서 고막손 영감은 정말로 힘들어 했다. 풀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고 낮으로 일일이 깎자니 엄두가 안 나고, 풀 죽는 약을 뿌리자니 마을 사람들 눈총이 따가웠기 때문이었다.

땀 흘려 애별 깎은 논두렁에는 어느새 어린 풀이 돌아 자라있었다. 논두렁 풀은 밤잠도 안자고 자랐다.

한강직 이장에게 제초제 뿌리기를 저지당한 후에 이장은 한동안 뜨막했다.

며칠 지난 날밤 유기농업을 하는 마을에 견학안내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들렸다. 한강직 이장의 목소리였다. 그 틈을 타서 고막손 영감은 서울에 있는 아들을 걱정하고 불러 내렸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으로 한강직 이장 댁에 들렸다.

“이장! 내가 함께 못가서 미안하네. 이것 음료수 값이라도 하게.”

고막손 영감은 한강직 이장에게 넉넉하게 푸른 지폐 여러 장 넣은 봉투를 전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 관광버스 두 대에 마을 사람들을 꽉꽉 채워 관광가듯 떠나더니 동네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유기농 마을로 견학을 떠난 여울골 안은 조용했다.

버스가 마을 어귀를 빠져나가고 나서 얼마 안 있어 고막손 영감의 아들내외가 도착하고 뒤로 경운기 한 대가 따라 왔다. 아들의 이웃마을 친구였다. 아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위에 수건을 얹고 단단히 무장을 했다.

고막손 영감은 앞장서서 동력분무기 호스를 들고 논으로 들어섰다. 독한 농약 냄새에도 오랜만에 얼굴이 환하게 피었다. 여러 날 앓던 환부를 도려내는 시원한 표정이었다. 그는 벌써 알곡이 노랗게 영그는 풍년을 예감했다. 벼가 허리까지 자란 논두렁을 따라 제초제를 뿌렸다.

고막손 영감도 이번에는 원수 같은 풀들의 씨를 말리리라고 생각했다.

해가 지는 무렵 기다란 고무호스를 걸으면서 고막손 영감은 현기증을 느꼈다. 서쪽 산 위로 구름에 걸린 해는 붉은 일몰의 장관을 연출했다. 어둠이 올 것이다. 고막손 영감은 불현듯 저 해가 지고나면 어둠이 올 것이라고 새삼스럽게 생각했다.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코 밑에선 농

약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밤이 이슬해서야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다. 사람들은 마을을 뒤덮는 농약냄새가 고막손 영감네 논에서 난다는 것을 직감했다. 마을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고막손 영감네뿐이었기 때문이다.

“이장, 저 영감태기 혼쫓이 나야 돼. 아주 농약을 갖다 들어부은 모양인데, 당장 어떻게 좀 해보게. 저 영감을 그냥!”

성미 급한 강경민 부친의 주문이었다. 어둠속에서도 분해죽겠다는 말투였다. 그러나 이튿날 한강직 이장은 찾아오지 않았다.

무성하던 풀이 숨을 죽여 폭삭 내려앉자 고막손 영감은 검정콩 씨앗을 갖고 논두렁으로 나갔다. 「그라목손」 세례를 받은 풀잎은 오래전에 말라비틀어지고 있었다. 논두렁 전체가 별경게 변해 있었다. 그 사이로 고영감은 검정콩을 심었다. 논두렁 비탈이 널찍널찍하여 콩은 세 줄로 심어도 넉넉했다. 지난해에도 저수지 뚝에서는 널찍한 밭 한 뼤기 폭의 콩을 거두었다. 이러한 알뜰함이 그동안 고막손 영감의 땅을 오천여 평으로 불러온 것이다.

이제 논두렁 깎을 일이 없어진 고막손 영감은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오랜만에 더위도 식힐 겸 오랜만에 마을 노인정으로 내려갔다.

“이보게 막손이, 자넨 손이 왜 그렇게 막돼먹었나?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우리네 늙은 것들이 도와줘야지. 기어코 풀 죽이는 약을 논두렁에 뿌려가지고 동네를 뒤집어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강경민의 부친이 한마디 되게 해 붙였다.

고영감이 지지 않았다. 기왕 저질러 놓은 일인데 이젠 물러설 필요도 없었다.

“농사라는 게 소출이 늘어야지, 소출이 안 느는 농사지어서 무엇에 쓰나? 오리가 논에서 휘젓고 다니면 풀은 줄겠지만 벼 포기를 그냥 두겠나. 유기농업 한답시고 농약 안치고 비료 안주어서 소출이 줄어들면 무얼 먹고 살겠어. 소출이 줄어들어서 외국에서 쌀 수입하면 그 건 더 농약덩어리라던데. 내가 걱정하고 농약 좀 쳤네. 정부에서 남에 농사 도와줄 생각 말고 참견이나 하지 말라고 그러게나. 오십년 넘게 농사로 잔뼈를 키운 사람들한테 뭘 안다고 참견이야 제까짓 것들이.”

고영감도 화를 냈다. 고영감은 강경민의 부친을 대놓고 말하기엔 부담스러웠던지 말 화살을 정부로 돌렸다.

“자넨 텔레비전도 안보나? 모두들 무공해 음식만 찾는다고 하지 않나. 자네네 논이 그게 뭐가, 논두렁에 불 낸 것처럼 벌겋게 태워가지고. 동네 부끄럽고 흉측해서 원. 그게 얼마나 독한 줄 알기나 해. 땅을 죽인단 말일세. 벼가 무얼 먹겠나. 땅 속에 스며든 농약을 다 먹는단 말이어. 그걸 알면 자네 쌀을 누가 사먹겠나? 논두렁만 해도 그래. 논두렁에 풀이 살아야 흙이 엉겨서 안 무너지지, 풀뿌리가 없으니 지탱할 힘이 없어서 해마다 자넨 논두렁 때우는 일에 아주 종사를 하고 있지 않나. 아마도 큰 장마라도 지는 날에는 하늘이 벌을 내릴지도 모르네. 이게 모두 자넨 위해서 하는 소리니 잘 들어둬. 제발 젊은 것들 말 좀 들으라고 이제!”

“그게 모두 배부른 사람들의 얘기지. 배에 기름기가 끼어서 병 걸린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에. 우리가 밥 굶지 않게 된 게 얼마나 됐다고. 우리네 같은 농사꾼에겐 가당치도 않은 얘기에. 그리고 하늘이 벌을 내리다니. 남의 농사 잘되니 배가 아파서 그러나? 악담 그만 하게.”

그래서 고막손 영감은 노인정에 들르는 것이 별로 흥미가 없었다. 무엇을 하든지 논에서 하루 종일 소일하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

(제 놈들이 얼마나 먹을 것을 해 났다고 일은 안하고 맨 날 노인정에 들어 앉아 남의 농사 참견질야!)

그날 저녁 한강직 이장에게 면에서 연락이 왔다. 서울에 소비자 단체에서 유기농법으로 농사지는 쌀을 구매계약 하려고 논을 직접 보러 온다고 했다. 오전에 군청에서 사전 답사를 한다는 연락도 왔다. 한강직 이장은 고막손 영감네 오천 평 논두렁이 떠올랐다. 오리 논, 우렁이 논, 지렁이 사육사까지 다 보여줘도 소용없다. 마을 앞에는 제초제 안 쓰는 마을이라고 걸어 놓고 고영감네 논을 보면 모두들 돌아가고 말 것이다. 더구나 고영감네 논은 마을에서 잘 보이는 산기슭에 있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나? 고영감 논을 감출 재간이 없으니 어찌지?”

한강직이 강경민을 불러 놓고 방법을 구했다. 「그라목손」을 맞아 뿔 썰게 타죽은 논두렁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한강직은 강경민을 앞세워 고영감 댁으로 올라갔다. 이제 한강직 이장이 고영감을 어찌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농기계 힘을 갖고 있는 강경민의 말은 고영감이 들을 것이라는 한강직의 계산이었다. 고영감 앞에 강경민이 나섰다.

“우리 논두렁에다 풀을 덮겠다고? 콩을 벌써 닛 되나 심겼는데?”

강경민에게 웅대는 그렇게 했어도 항상 그들에게 위축감을 갖던 고영감은 두 사람이 저자세로 간곡하게 나오는 모양새가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다급했다.

“면에 얘기해서 서울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간을 내일 오후로 늦추도록 일러 놓았으니 새벽녘에 후딱 해치우면 되요. 콩 씨앗 값은 잘 쳐서 드릴게요. 어르신은 그저 가만히만 계세요. 모두 마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고영감은 마땅치 않았다. 해마다 콩을 여러 가마 거두는 논두렁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한번하자고 논두렁에다 풀을 덮는다는 게 우스운 일이었다. 그러나 마냥 거부만 할 수는 없는 처지였다. 추수 때면 당장 강경민의 콤파인을 써야 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초제 뿌린 자격지심으로 노인정 눈치도 싸늘했기 때문에 더 그랬다. 거기다가 마을을 위하는 일이라는 데에는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다. 전처럼 고집을 내세우기에는 두 사람이 고영감에게 승낙을 구하는 몸이 너무도 낮고 절박해 보였다. 고개를 가우뚱 하면서도 고영감의 강한 거부가 없다는 것은 승낙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어물어물 고영감의 승낙을 받아냈다.

한강직과 강경민은 이튿날 새벽에 마을 젊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풀을 베었다. 아침나절 내내 풀을 베고 나르고 덮었다. 풀 죽이는 약을 맞아서 별장계 풀이 타죽은 고영감네 논두렁에 맨땅이 감춰졌다. 마을 어귀 멀리서 보면 그리 흉하지 않게 보였다. 그러나 뼈죽뼈죽 올라오던 콩 싹들은 고영감의 욕심이 부러지듯 군데군데 부러졌다.

해가 설핏한 저녁나절이 되어서 관광버스로 서울에서 내려온 소비자단체 회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유기농으로 재배한다는 채소단지를 돌아보고 지렁이 사육장과 오리 논, 우렁이 논을 둘러보았다.

“우리 마을은 농가 전체가 유기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농업이 살아갈 길은 앞으로 유기농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마을의 농산물을 구매계약 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는 걱정이 없을 거예요. 이번에 계약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밥상에다 보험을 드시는 셈이지요. 우리는 풀을 죽이는 약도 쓰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모두 푸른 들판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김매기 힘들다고 제초제 뿌리고 논두렁 깎기 힘들다고 제초제 뿌리는 곳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마을은 없습니다. 풀이 죽는 곳에는 농작물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땅을 살리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농사꾼입니다.”

고영감네 논두렁을 덮은 것만 빼놓고 강경민의 일장 연설은 진실이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강경민이 방문객의 안내를 맡고 한강직 이장이 거들었다. 참석한 사람들은 강경민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저어, 산 밑에 논두렁에는 왜 풀을 넣어놨죠? 건초인가요?”

예상 질문이었다.

“아, 예. 그건 건초도 하고 퇴비도 합니다. 축사에 넣어주면 소들이 먹기도 하고 바닥에 깔아주기도 하죠. 가축분뇨와 섞여서 퇴비도 만들 고요. 옛날에는 그 곳에서 나오는 두엄을 쌓아 두었다가 논에 넣었잖아 요. 저건 축사에 넣었다가 충분히 썩혀서 논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 화 학비료는 안 써도 되거든요.”

“요새도 저렇게 퇴비를 만드는 곳이 있군요.”

질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농약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죠?”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농약성분이 나오면 군청에서 쌀 포대에 도장을 안 찍어 줘요.”

소비자 단체의 방문결과는 만족했다. 방문화원 대부분이 일 년치 쌀의 구매계약을 맺었다. 어제부터 아슬아슬했던 시간을 무사히 넘겼다.

“우리도 이제 쌀값을 훨씬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한강직 이장은 버스가 떠나자 둘러섰던 마을 사람들에게 들떠서 설 명했다.

하루 종일 간신히 참던 날씨가 구름을 물고 와 하늘을 덮었다.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손님맞이 하느라 정신이 팔려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모여 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고막손 영감네 논두렁으로 몰려가 덮은 풀을 바빠 걷어냈다. 비를 맞으면 더 큰 일거리였다. 소비자 단체

의 방문이 끝나면 건어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고자 함이었다. 풀을 덮을 때는 새벽 내내 젊은이들 몇 사람이 땀을 흘렸지만 풀 걷는 데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의 모여들었다. 계약을 성사시켜 쌀값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힘이 솟아 모여든 것이다. 비가 당장이라도 몰려올 것 같은 어둠이 덮이자 마을 사람들의 손놀림은 더 빨랐다. 풀 걷기는 그렇게 쉽게 끝났다.

풀 걷기를 기다린 듯 마을에 어둠이 덮이고 천둥이 내리쳤다. 점점 굵어지는 빗방울은 물 덩어리로 바뀌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내리는 무더위 끝에 단비였다. 밭에는 때늦으나마 단비였다. 한강직과 강경민의 마음은 흡족했다. 마을 사람들도 모처럼 맞아보는 손님맞이 행사에 만족했고 오랜만에 내리는 비를 반겼다.

고막손 영감도 깔끔하게 치워진 풀을 보고 한강직 이장이 약속을 지킨 데 대한 믿음을 더했고 어렵게나마 강경민의 요구를 들어준 것도 다행스러워 했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 하듯 풀을 깎아다 논두렁을 감춘 강경민과 한강직 이장의 짓이 우습고 측은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날이 어둡기 시작하자 단비는 굵은 빗줄기로 바뀌고 밤이 깊어지자 더욱 사납게 퍼부었다. 물고가 걱정이 되는 고막손 영감은 우비에 랜턴과 삽을 챙겨들고 저수지로 올라갔다. 흠뻑인 논두렁은 벌써 물을 머금어 질척거리고 미끄러워 몇 번을 넘어질 뻔했다. 계곡에서 저수지로 들어오는 물고를 단단히 막았다. 그리고 계곡으로 되돌아 나가는 배수로 물고를 확 텄다. 저수지의 물을 모두 빼기 위함이다. 저수지에 물은 밤새도록 빠질 것이다. 랜턴 불빛은 화살을 쏘듯이 앞을 비췄지만 또 다른 화살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앞을 막았다. 엉금엉금 기듯이 논두렁을 둘러보았다. 아직 터진 곳은 없었지만 물을 잔뜩 먹은 논두렁은 불

빛 끝에 벌써 무너져 내려앉는 곳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논두렁 흙을 걷어 올렸다. 한동안을 그렇게 했다. 힘이 부쳤다.

논두렁을 더듬거리며 층층이 논다랑이마다 막았던 물고를 터놓았다. 논두렁까지 찰라찰라 가득 찼던 물이 폭포를 이루며 어둠 속에서 소리만 요한하게 떨어졌다. 우비 속에 옷은 흠뻑 젖어 몸을 휘감는다. 몸은 빗물에 텅텅 불었고 논두렁도 물을 가득 머금어 몽그러지고 있었다. 예감이 불길했다. 얼마를 더 올지 모르는 빗줄기가 이렇게 굵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내려다보이는 마을엔 집집마다 불안한 밤을 지새우듯 불을 밝히고 있었다.

자정이 넘어도 비는 그치지 않고 빗소리는 어둠 속 허공을 채웠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모두 모아 갈때기 꼭지를 여우꼬에 맞춘 것처럼 비는 물 덩어리를 들어붓듯이 가혹하게 퍼부었다. 벌써 꽤 여러 번을 드나들며 방 안에서 앉지도 못하고 서성거렸지만 비가 어둠 덮고 있기 때문에 고영감은 이대로 영영 날이 밝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고영감의 생애에 제일 길었던 밤이 밝았지만 비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쏟아졌다. 텔레비전에서 아침 여섯시 뉴스가 시작되자 100년 만에 처음 있는 폭우라고 야단이다. 텔레비전은 하룻밤에 삼백 밀리가 넘는 비가 내렸다고 떠들어댔다.

고막손 영감은 아직 덜 걷힌 어둠 사이로 불빛을 비추었다.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푸른 벼가 있어야 할 자리가 흙물로 가득했다. 밤사이에 눈에 물길이가 생겼다. 있어야할 벼 포기가 보이지 않았다. 고막손 영감은 다리를 후들거리며 맨 위에 논다랑이로 엉금엉금 기듯 올라갔다. 계속 밀려드는 물은 고막손 영감네 눈을 쓸어 덮었다. 고막손 영감은 손에 잡았던 삼을 떨어뜨렸다. 하룻밤 사이에 오천 평 논이 널따란 여울로 변해 있었다. 물은 무너진 논두렁으로 폭포수를 이루며 떨어졌다.

“이럴 수가!”

밤새 내리 쏟은 물은 고영감이 그동안 공들여온 농토를 밤새도록 남김없이 깎아냈다. 고영감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흐르는 물줄기를 내려다보았다. 산기슭을 할퀴고 내려온 흙탕물이 개울로 세차게 내리쫓는다.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 무성하던 벼 포기도, 콩 싹도, 풀도 없이 흙만 남았던 논두렁도 쓸려 내리고 없었다.

망연자실. 멍하니 정신을 잃은 고막손 영감은 뉘이 나가 있었다. 무심한 물줄기는 줄어들지도 않고 그나마 남은 흙덩이마저 쉬지 않고 깎아내렸다.

“어째서 이럴 수가!”

사십 넘어서 내 농사를 시작하여 이십년을 넘게 농사지어 오면서 어느 해 장마에도 끄떡없던 논이었다. 지난해 장마에 논두렁이 몇 군데 무너졌을 때는 두더지와 땅강아지가 물구멍을 뚫어 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했다. 이웃 농토가 농약을 안치고 농사를 지으니 두더지, 땅강아지, 들쥐 같은 놈들이 안 없어진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보니 몇 해 전부터는 장마만 지면 군데군데 논두렁이 떨어져나갔다. 고영감은 그 원인이 들짐승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농약으로 놈들의 씨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했다. 논에서 벼 포기 빼놓고는 모두 몹쓸 것들이라고 생각했었다. 논두렁 풀도 그랬었다.

한강직 이장이 이른 새벽에 올라왔다.

“이게 무슨 변이래요. 영감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물 빠지면 복구해야지요.”

“어젯밤에 다 쓸어 갔네. 하나도 남은 게 없어. 이를 어쩌나, 이장.”

고막손 영감은 사업이 실통치 않다는 아들 생각이 났다. 농토를 처분

할 게 아니라 농사를 지어 가져가면 될 게 아니냐고 했었다. 그런데 아들이 가져갈 게 어젯밤에 없어졌다.

비를 맞고 밤을 지새운 고막손 영감은 그날로 자리를 보전하고 누었다. 먹을 것을 입에 대지 않았다. 일어날 줄 몰랐다. 말도 잊었다. 문 밖에 멀리 자갈밭으로 변해버린 논바닥만 하루 종일 바라봤다. 그리고 밤을 맞았다.

밤이 이슬해서 아들이 내려왔다.

“아버지 잊어버리세요. 사람목숨이 중요하지 그깟 땅이 더 중해요. 이제 모두 잊고 편안하게 사세요. 더 고생하시지 마시고 이참에 아예 처분하시자구요.”

“그깟 땅이라고, 처분하자고?”

고막손 영감은 누어서 힘없이 아들을 때렸다. 움푹 파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 콧바퀴에 멈췄다.

아버지와 함께 밤을 지새운 아들은 수해 피해지원이 어찌되나 알아보려고 마을회관으로 내려갔다. 한강직 이장과 강경민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마을에서 고막손 영감 댁의 농토 외에도 논두렁이 조금씩 무너지는 피해를 입은 집이 몇 집 더 있었지만 고영감 만큼 크게 입은 곳은 없었다.

“땅을 죽여 놔서 그러. 땅이 죽으니 물을 버틸 힘이 있었잖나. 풀뿌리가 엉겨야 저수지 독이고 논두렁이고 힘을 쓰지. 지금껏 큰 장마 피해서 어렵히 견뎌왔지 뭐야.”

마을 노인이 고영감 아들 들으란 듯 지껄었다. 아들은 그들이 염장을 지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꾸를 포기했다.

고영감의 아들 앞에서 피해조사서에 빈칸을 적어 넣은 이장은 할 얘기가 있다며 고영감의 아들을 밖으로 불러냈다.

“내 오래전부터 자네한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오해할까봐 못했네. 실은 오래전부터 주택지를 만든다고 자네네 땅을 사려던 사람이 있었어.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이참에 아주 땅을 내놓지 않겠나. 부친께서도 고생 덜하실 거고, 자네도 마음고생이 여간이 아니지 않는가. 마침 땅을 사려는 사람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자네 아버님 고생하시는 걸 보니 농사일은 이제 그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올 벼농사까지 땅값으로 다 쳐서 준다고 했네. 그러면 농사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로 잘된 셈 아닌가?”

뜻밖이었다. 올해 농사를 쳐주겠다는 말에 구미가 당겼다. 고영감의 아들도 서울에서 작심하고 내려왔던 터였다. 고영감의 아들이 선뜻 응하자 한강직 이장은 방안에 함께 있던 사람 하나를 불러냈다. 주택 개발업자였다.

“피해를 당해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이런 경황 중에 말씀을 꺼내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농토를 처분하시는 것도 아버님을 편케 해드리는 게 아닐까요. 해서 말인데요.”

고영감의 아들은 명함을 받아 넣었다.

“개울 바닥이 된 땅을 무엇에 쓰게요?”

고영감의 아들은 개울이 되어버린 농토의 혈값을 걱정했다.

“요즈음 사람들, 물 있는 곳을 더 좋아하죠. 이번에 아주 개울을 내버리죠. 오히려 더 좋아한답니다. 전원주택지로는 좋은 곳이죠.”

고영감의 아들은 명함을 손에 꼭 쥐고 올라왔다. 아버지에게 운을 떼어 보리라고 생각했다.

대문을 들어서는데 신음이 들렸다. 아들은 방안으로 뛰어 들었다. 「그라목손」 병이 방바닥에 팽개쳐져 있었다. 농약냄새가 방안에 진동했다. 수화기가 방바닥에 내동댕이쳐져 있었다. 고막손 영감이 꺾꺾거

리며 방안에서 뒹굴었다. 아들이 방안에 들어서자 손을 꼭 잡았다.

“따양을 팔-겠-다-고-오… 으윽?”

아들을 잡았던 고막손 영감의 손에 힘이 빠졌다.



쓰다는 것은 말이 부족한 사람에게 머릿속에 잔뜩 쌓여 있는 생각을 쏟아내는 유일한 배설 수단이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 「저장」 키는 날아가 버리려는 말들을 잡아넣듯 소중한다.

지나온 세월을 버 알갱이 훑듯 한줌씩 짹짹 훑어 모아온 생각의 뭉치들이 꽤 되지만, 항상 밤에만 쓰는 글이기 때문에 밝은 대낮에 남에게 보이도록 내놓는다는 것이 눈이 부셔 가끔 어리둥절해진다. 그 눈부심이 몇 번에 깜박거림으로 바깥세상에 익숙해지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먹서먹해지는 느낌이 조금은 줄어든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한다.

또다시 쓸 수 있는 힘을 실어주시듯 부족한 작품을 건져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뜻을 전하고, 이제 성장의 마디하나를 보태면서도 더 다듬지 못한 성급함을 스스로 꾸짖어 본다.

동
시
부
문



최우수상

가로수 아저씨 _ 박영식

우수상

강나루 _ 곽해익

첫 눈 오는 날 창문보기 _ 문현식

장려상

내 짝꿍은 자폐아 _ 남석우

산은 심심하지 않겠다 _ 김현호

호박풍선 _ 한광일

혼자서 _ 임동학

뿌리 _ 김종훈





남울산우체국

박 영 식

가로수 아저씨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로수 아저씨는
누구를 기다리는지
맨날
그 자리에만 서있다

밤늦게
시장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엄마 기다리는
나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슴 속에
둥그런 달을 품은
가로수 아저씨는
곧 잘 환한 등을 내다건다

언제나
환한 웃음으로
우리 엄마 반기는
나처럼...





장마철이라 연일 비가 옵니다. 새벽녘에 듣는 빗소리가 싫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사물들은 지금 온통 잠에 빠졌습니다. 층층이 불밝혔던 저 많은 아파트들도 깜깜한 어둠 속에 퐁당 뛰어 들고, 창밖으로 비를 맞고 선 가로수 아저씨만이 보일 뿐입니다.

세상은 왜 자꾸 힘들어 질까요?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들이 단순해지고, 가진자는 더 많이 가져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굳혀 갑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연인데도 말입니다. 허리를 조금 굽혀 아래로 눈길을 주면 낮은 곳에서의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미물인 개미들은 욕심없이 협동하며 정직을 잃지 않습니다. 질경이는 또 어떠한가요? 자기가 태어난 흙 한 줌 꼭 웅켜쥔 채 누구도 탓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 갑니다. 아이들은 자연이자 희망입니다. 천사나 다름없는 아이들에게 맑고 고운 동심의 세계를 오래오래 선물하고 싶습니다.

강나루

감청색 푸른 물결위로
열은 새벽안개 피어오른다.
푸른 나룻배 하얀 옷 걸치고
꼬까신 신고 강나루에 걸터 있다.

나룻배 안개를 훌훌 털자
햇살이 뱃줄에 반짝인다.
이슬에 젖은 고추잠자리
뱃줄위에서 날개를 말린다.

나룻배 탄 신난 아이들
강물은 물이랑 되어 너울거린다.
나룻배에 가득 실은 아지랑이
아이들 얼굴에 매달린다.

강 어깨 높고 낮은 산들이
물속에서 손을 흔든다.
물수제비 ~ ~ ~
노을 물고 잠긴다.



곡성군청
곽 해 의





새벽녘 강나루,
감청색 강물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른다.
고추잡자리가 나룻배 위에 앉아 고스란히 안개를 머금고 있다.
어린 시절 나룻배를 타면 내 마음은 강물이 되었다.
지금도 강나루 근처를 어슬렁거리기도
물수제비를 뜨며 어린 시절을 그리곤 한다.
문득 짜장면이 먹고 싶다.
요즈음 어린이들에게도 유효한
짜장면!
자장면 같은 동시를 쓰고 싶다.

후하!
섬진강이, 나룻배가, 물수제비가, 짜장면이 고맙다.
늘 아이들처럼 꿈을 꾸겠습니다.
끝임없이 정진하여 동심의 꽃을 피우렵니다.
꽃이 떨어야 열매를 맺듯
미약하나마 동심을 잘 이을게 하는데 힘을 보태립니다.



고양 가좌초교
문 현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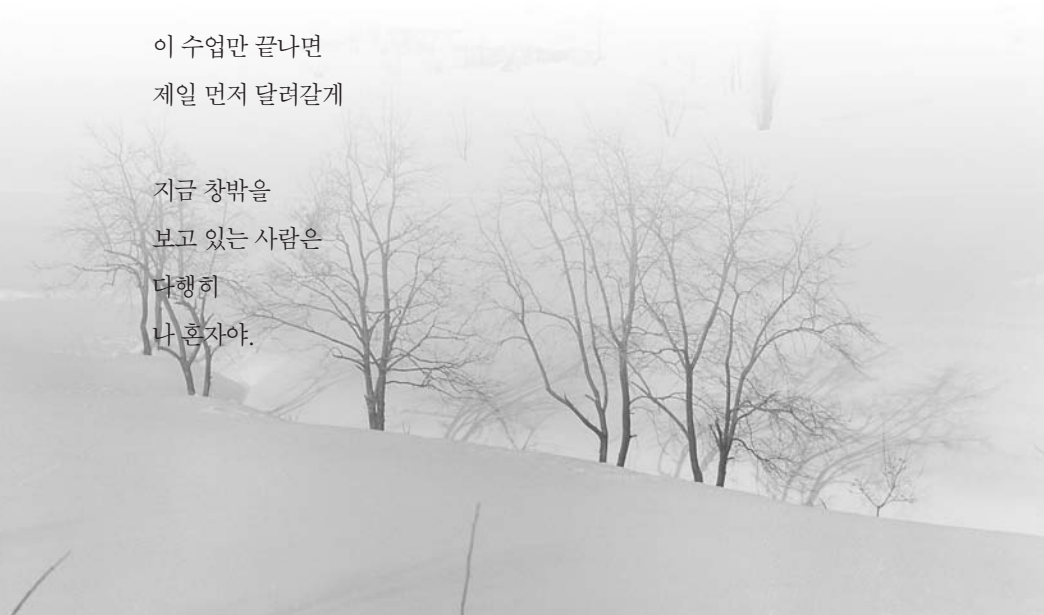
첫눈 오는 날 창문보기

오래 전부터 널 기다렸어
수업시간에 올지
쉬는 시간에 올지
아니면 점심 때 올지 몰라서
틈만 나면 창문을 보며 기다렸어

밤에 올까봐 걱정 많이 했어
잘 때 찾아오면
아침에 본 네 모습엔
발자국이 많아서
지금처럼 설레진 않았을 거야

이 수업만 끝나면
제일 먼저 달려갈게

지금 창밖을
보고 있는 사람은
다행히
나 혼자야.





학기말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시험시간에 아이들은 문제풀기 바쁩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시험지는 안 보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눈이 내립니다. 그것도 첫눈입니다. 아이는 시험이 빨리 끝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시험시간이라고 아이들이 시험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을 떠올리며 시를 쓰는 일은 즐겁습니다.



대구 남부교육청
남 석 우

내 짝궁 자폐아

내 짝궁 경수는 자폐아래요
줄넘기는 우리 반 1등이지만
자기 이름도 못쓰고, 더하기 빼기도 못하대요

우방 타워에 간 날
선생님은 경수 손놓지 말랬어요
그런데, 놓치고 말았어요

이리 저리 찾다가 하늘 쳐다보니
하늘 자전거 탄 선생님과 경수
선생님은 경수 힘들까 봐
열심히 페달을 밟구요
경수는 떨어질까봐
선생님 허리를 꼭 껴안고 있어요





얼굴을 가까이 대했던, 한 발짝 물러 서 있었던 간에 어언 30년을 넘어섰네요.
누가 나에게 그 긴 시간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눈을 아래로 깔고 입을 꼭 다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사랑을 나눠 주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나눠 주지 못한 사랑의 허기를 면하기 위해 했던 짓거리가 상을 받게 되었다니,
앞으로 더 우리 아이들을 가까이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졸작을 뽑아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람이 좋은 창문으로 우리 아이들의 조잘거림이 실려 옵니다.



장수군청

김 현 호

산은 심심하지 않겠다

나무마다 새집 짓고 노래하고

산쥐들 양지바른 곳에
보금자리 꾸며 소곤대는데

다람쥐는 바위며 나무에
미끄럼질 하듯 뒹박질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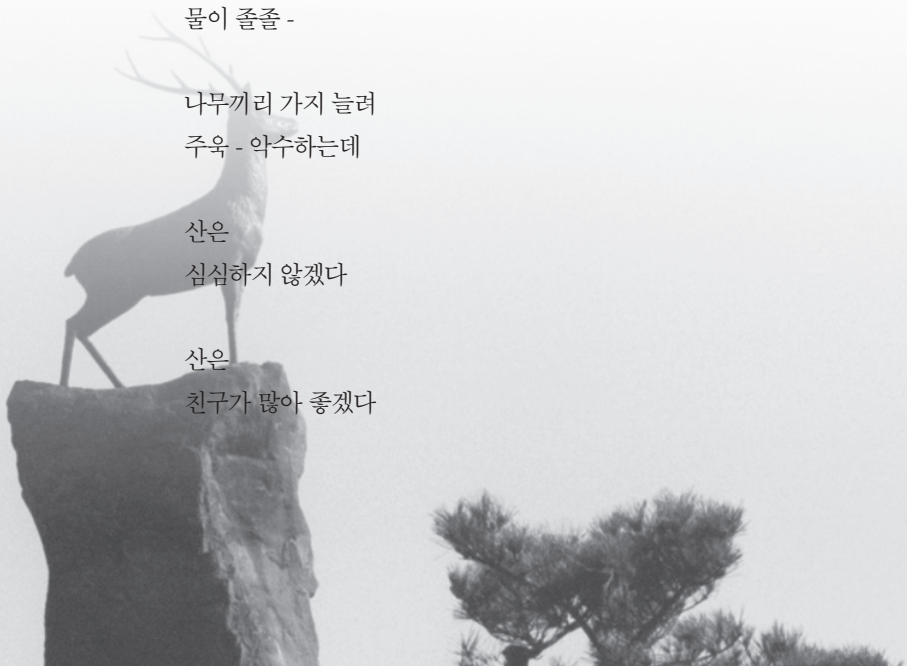
담비는 이 나무 저 나무
널 뚫듯 훔쩍 - 건너뛰고

산 사이 계곡에는
물이 졸졸 -

나무끼리 가지 늘려
주욱 - 악수하는데

산은
심심하지 않겠다

산은
친구가 많아 좋겠다





아이들에게 고맙다
말과 행동, 놀이가 시라는 걸
가까스로 알았다.

그들이
시냇물이며 종알대는 새인 것을

별에게
가없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해맑게 웃는 모습이
뜻뜻하게 서있는
사계절 푸른 나무라는 걸

낮은 자세로
가까이 다가가야지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야지

한없이 고맙다
기연- 경재-



파주 삼성초교
한 광 일

호박 풍선

해 맑은 날
별들이 호박꽃 귀마다
속삭이고 갔다

“자, 이제 힘껏 불어 봐.”

삼일 지나 호박꽃
턱 밑이 불룩

또 삼일 지나
호박이 불룩

또 또 삼일 지난 날
둥글둥글 호박 풍선

자꾸 자꾸 커져 가는
호박 풍선들





어릴 때부터 보아 온 호박꽃입니다. 벌들이 호박꽃을 드나들며 무슨 말을 하는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내게 아들과 딸이 생기고 나서 나도 종종 내 아이들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우리 학교 울타리에도 내 어릴 적 울타리에 매달렸던 그 호박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벌들이 다녀가더니 불룩불룩 호박 풍선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 유강초교

임 동 학

혼자서

내 친구 영수가
전학 간 후에

가오리연은
가울가울
혼자서 날고

굴렁쇠는
울렁굴렁
혼자서 구르고

팽이도
팽팽
혼자서 돈다





시골에 가면 혼자 놀고 있는 아이를 가끔 볼 수가 있다. 몇 안 되는 또래들이 하나 둘 이사를 가고 혼자 남은 아이다.

떠나는 아이보다도 남아있는 아이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대개는 그랬다. 하기가 요즘은 도시도 마찬가지다. 학원이나 과외로 내몰리는 아이들. 그리고 TV와 컴퓨터에 붙잡힌 아이들.

혼자서 노는 일에 무슨 신명이 있으랴.

어느 마을에서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뿌리

뿌리가

살갓이 벗겨진 채

밭길에 자꾸 차이면서도

고개를 땅 위로 내밀고 있어요.

뿌리가

온몸으로 물을 밀어올리고

그 물이 햇살을 만나 만든

아름드리 줄기와 푸른 잎사귀

그들 사이로 배고픈 강아지처럼

울망줄망 파고드는 열매들

뿌리가

땅위로 고개를 내미는 것은

귀티가 쪽쪽 흐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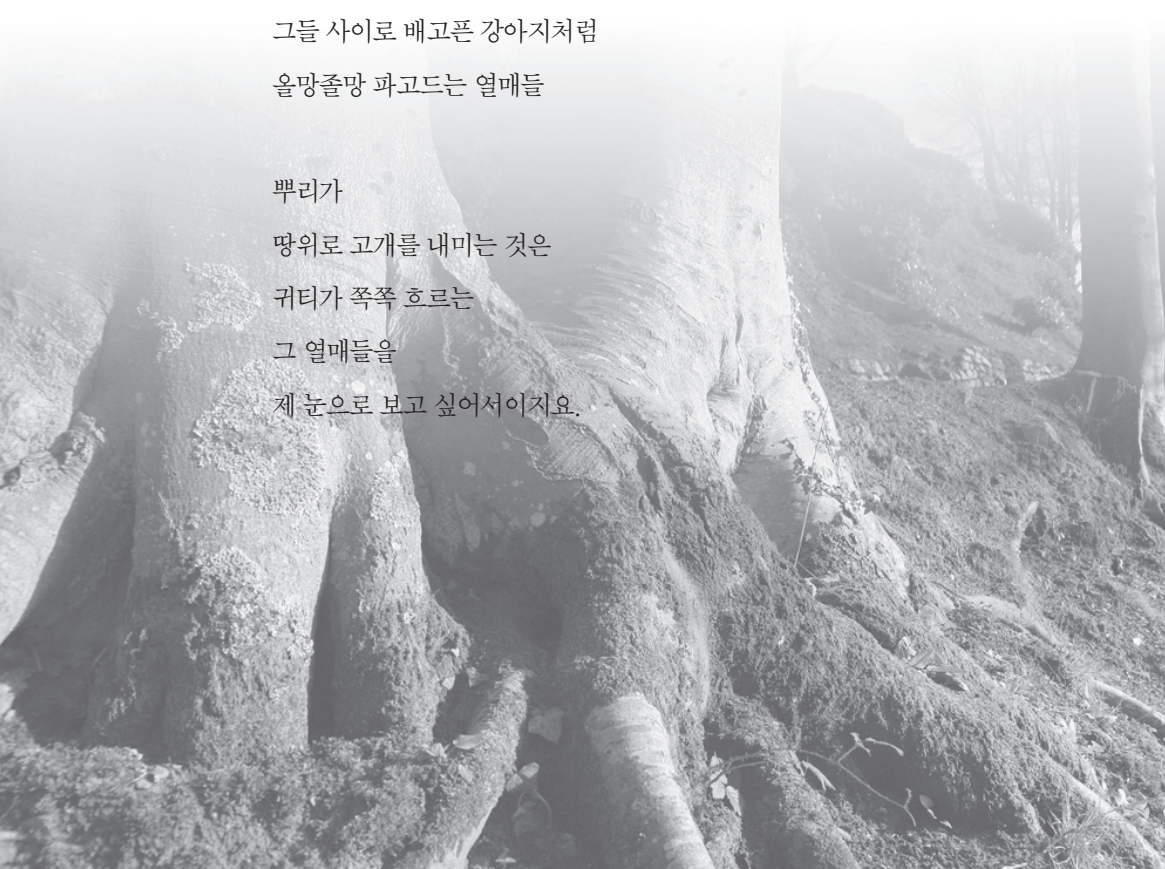
그 열매들을

제 눈으로 보고 싶어서이지요.



울산 신복초교

김 중 훈





내 일터가 학교이고 사시사철 애들과 함께하는 생활이라 아동문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상을 받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동시에 대해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그래서 인지 기쁨은 더하다. 더 갖고 닦아서 좋은 동시를 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주고 싶다.

동
화
부
문



대 상

내 이름을 불러줘 _ 우소영

우수상

선생님 바보 _ 박재광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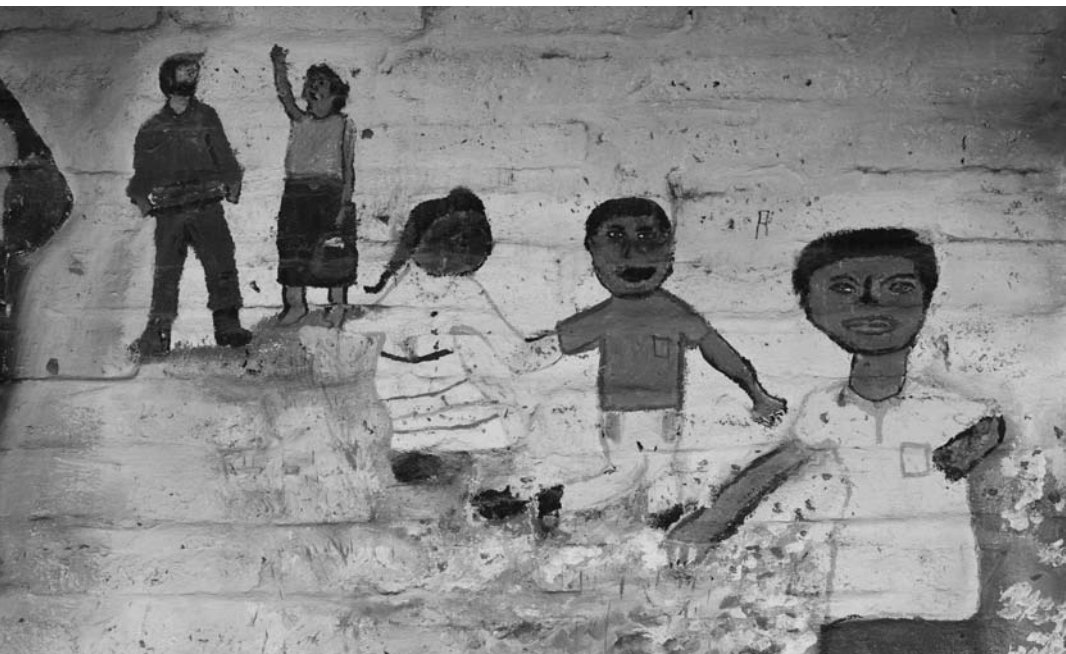
아저씨의 자식들 _ 안상문

감사합니다 _ 김솔립

엄마새와 아기새 _ 전병호

할머니의 풍어제 _ 신하나





내 이름을 불러줘!

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은 뭘까? 생각하다가 문득 단이가 어떨까 하고 친구들에게 말했지. 친구들은 '단이? 단이!' 하더니 다들 그 이름이 너무 좋다고 했어. 나도 이제 친구들과 같은 한국 이름을 갖게 된 거야. 난 너무 기뻐서. 내 이름은 단이야.

부천 부평정보산업고

우 소 영



내 이름을 불러줘!

우리 집은 지하 단칸방이야. 그래서 하루 종일 햇볕이 들지 않는 동굴 속 같아. 불을 켜지 않으면 눈을 뜨고 있어도 캄캄해. 난 학교에 가야 하지만 학교에 갈 수가 없어.

벌써 이틀이나 지났는데 일하러 가셨던 엄마와 아빠가 돌아오지 않고 계셔. 지난번에도 일이 많을 땐 공장에서 일을 하시느라 며칠동안 들어오지 않으셨어. 밤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신대. 얼마나 힘드실까. 난 따뜻한 방에서 놀고 있는데. 내가 조용히 있는 게 엄마 아빠를 돕는 거라고 하셨어.

아, 내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네. 난 눈이 커다랗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 아이고 내년이면 10살이 되지. 엄마, 아빠 인도에서, 난 한국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내 고향은 한국이야. 하지만 내 이름은 부모님을 따라 인도식이지. 살라메르 메디나.

나는 매일 숨바꼭질을 하듯 방안에 꼭꼭 숨어있지. 하지만 이 숨바꼭질에선 아무도 날 찾아내면 안돼. 그래야 엄마, 아빠가 안심하고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거든. 남들이 그러는데 우리 가족은 불법 체류자들이래.

몇 달 전에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그곳에서 지하철을 타려던 엄마를 무서운 아저씨들이 붙잡으려 했었데. 그래서 엄마는 날 생각하면서 붙잡히지 않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서 집으로 오셨지. 그때 엄마 얼굴이 너무 하얗게 되어서 난 엄마가 쓰러져 죽는 줄 알았어. 엄마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밖에 못나가셨지. 밖에만 나가면 가슴이 뛰어서 걸을 수가 없다고 그러셨거든.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일하시던 공장을 그만두셨어. 그리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으로 이사 오신거야. 이곳은 도시랑 좀 떨어져 있어서 무서운 아저씨들이 잘 안 나타나대.

하지만 난 이사 오기 싫었어. 그곳엔 내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었거든. 시냐랑 이바라고 하지. 시냐는 인도아이이고 이바는 러시아이야. 시냐는 얼굴도 예쁘지만 머리카락이 정말 길어서 꼭 공주님 같아. 나도 시냐처럼 긴 머리를 갖고 싶었지. 이바는 파랗고 큰 눈을 가지고 있어. 이바의 눈을 보고 있으면 그 안에 커더란 구름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아. 난 그 애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 슬펐어. 우린 정말 마음이 딱 맞는 친구였거든.

이곳에 오고 얼마 후에 아빠는 슬픈 얼굴로 집에 오셨어. 아빠는 엄마와 조용히 속삭이듯 말씀하셨지만 난 자는 척하며 다 들었어. 시냐의 엄마랑 아빠랑 공장에서 무서운 아저씨들에게 잡혀 인도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집에 있던 시냐는 혼자 보호소에 있다고 하셨지. 시냐가 얼마나 무서울까. 시냐는 나보다 키도 작고 겁도 많은데, 엄마도 아빠도 없는 곳에서 매일 울고 있을 거야. 아빠는 시냐도 조만간 인도로 보내진다고 하셨어. 시냐도 나처럼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인도로

가야하는 걸까? 이름이 인도식이라서 그럴까? 엄마는 시냐가 걱정되지만 보려 갈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하셨어. 그리고 엄마는 붙잡혔던 그 날이 생각나셨는지 우셨어. 엄마는 아빠를 꼭 안겨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며 우셨어. 난 숨죽이며 있었지만 너무 걱정이 돼. 무서운 아저씨들이 우리 가족을 찾아내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족도 시냐 가족처럼 인도로 쫓겨 가겠지.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항상 내게 말씀하셔.

“살라메르 메디나, 문밖을 나가면 절대 안돼!”

메디나는 아무리 심심해도 밖엘 나가면 안돼.

문 밖에선 가끔 아이들 소리가 들려. 아이들이 서로서로 이름을 부르며 놀고 있는 소리가. 나도 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지만 난 메디나이기 때문에 금방 들켜버릴거야. 그 무서운 아저씨들이 돌아다니다가 내 이름을 들어버리면 날 잡아갈 테니깐. 나에게도 예쁜 한국 이름이 있으면 아무리 내이름을 크게 불러도 모를텐데...

아무도 모르는 깜깜한 동굴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원시인처럼 이곳 나만의 동굴에서 난 그림을 그려. 원시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벽에 그림으로 그려 놓고 춤을 추면서 주문을 외쳤대. 그러면 원시인들이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했대. 나도 이곳을 동굴이라고 생각하지. 커다란 신문지를 바닥에 펼쳐놓고 몽땅몽땅한 크레파스들을 꺼내.

오늘은 진이를 그릴거야. 진이는 위층 집 여자 아이 이름이야. 내가 진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 가끔 천장에서 진이의 목소리가 들리곤 하지만 난 한번도 진이를 본적이 없어. 쿵쿵쿵 걷는 진이는 몸집이 큰 코끼리 같아 보일거야. 그러나 동그랗고 작은 눈으로 눈웃음을 지을 땐

정말 예쁘겠지. 진이는 말이 별로 없고 조용해. 웃을 땐 작고 통통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지. 이렇게 주황색과 연두색으로 진이에게 꽃무늬 옷을 입혀 주고, 깊이 파인 보조개에 살짝 분홍색을 칠해 주었어. 진이는 정말 착한 꼬끼리를 닮았어.

어!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어. 글쎄, 내가 그런 진이가 신문지위에서 슬며시 일어나 내게 눈을 찡긐하며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해.

“안녕? 잘 지냈니. 내게 진이란 이름을 붙여주어서 고마워.”

난 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금방 알 수 있었어. 우리가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을 더 부르면 어떨까?”

“좋아. 누구를 부를까?”

진이와 난 나란히 턱에 손을 괴고 곰곰이 생각했어.

난 갈색 크레파스로 얼굴이 심술궂고 팔이 원숭이처럼 긴 말쑥장이 남자아이를 그렸어.

“이 아이 이름은 형구야. 텔레비전에서 봤어.”

내가 말하자 진이가 좋아라 손뼉을 치며 말했어.

“형구는 꼭 원숭이처럼 생겼네.”

형구는 장난치기를 아주 좋아할거야. 형구는 고무로 만든 뱀을 친구들 옷 속에 집어넣기도 하지. 그럼 다들 ‘우악’하고 놀라서 소리 지르고 도망가. 하지만 형구는 여자 아이들에겐 절대 장난치지 않는 신사야.

어! 또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어. 형구가 그림 속에서 튀어나와 긴 팔을 이용해 원숭이처럼 벽과 천장을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야. 진

짜 서커스 단원 같아. 앞으로 구르기, 뒤로 구르기 그리고 한 손으로 물 구나무 서기. 그리고 나와 진이를 향해 신사처럼 멋있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해. 우리도 감사의 표시로 공주들이 인사하듯 치마를 옆으로 펼치고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어.

“안녕? 내게 이름을 붙여줘서 고마워. 난 장난쟁이 형구야. 우리 다른 친구를 더 부를까?”

이번엔 눈이 찢어지고 머리카락이 사자의 갈기처럼 부드럽게 솟아 오른 남자 아이를 그렸어. 나는 그 아이를 철규라고 이름 붙여줬어. 철규는 사자처럼 멋지게 ‘어-흥’ 소리치며 우리에게 인사했어. 철규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만지자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 손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느껴져. 철규는 또 커다랗게 입을 벌려 ‘어-흥’ 하고 소리쳤어. 우리도 다 같이 크게 소리쳤지. 누가누가 더 크게 소리 지르나.

“어-흥.”

“뿌-우.”

“깅-깅.”

“와-아.”

우린 더 크게, 더 크게, 더 이상 소리 지를 수 없을 때 까지 신나게 소리 질렀어. 방안의 벽들이 짹짹 갈라질 때까지.

나는 또 더 많은 상상속의 친구들을 그렸어. 토끼 닮은 민정이를. 느린 거북이 닮은 수진이를. 먹보 돼지 정환이를 그렸지. 그리고 친구들과 둥그렇게 모여 앉아 뭘 할까 생각했어. 그러다 형구가 말했지.

“우리는 모두 이름 부르기가 쉬운데 살라메르 메디나는 부르기가 너

무 어려워.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준 살라메르 메디나를 위해 우리도 이름을 지어주자.”

“좋아, 좋아. 뭐가 좋을까?”

친구들이 너도나도 이름들을 외치기 시작했어.

진이는 진주를, 형구는 형인이를, 철규는 철순이를……

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은 뭘까? 생각하다가 문득 단이가 어떻까 하고 친구들에게 말했지. 친구들은 ‘단이? 단이!’ 하더니 다들 그 이름이 너무 좋다고 했어. 나도 이제 친구들과 같은 한국 이름을 갖게 된 거야. 난 너무 기뻐서. 내 이름은 단이야.

우린 신이 나서 훌라훌라 춤을 댔어. 진이는 커다란 궁둥이를 훌라훌라 흔들고, 형구는 긴 팔을 흐느적거리고, 철규는 머리를 흔들며 훌라훌라 춤을 추었어. 민정이도, 수진이도, 정환이도 각자 자기만의 훌라훌라 춤을 보여 줬지. 나도 엄마에게 배운 훌라훌라 춤을 댔어. 어깨와 엉덩이를 마구 흔드는 훌라훌라 춤이었지. 우리는 박수를 치며 서로의 훌라훌라 춤을 칭찬했어. 다들 그렇게 한참 춤을 추다보니 숨도 차고 좀 지워졌어.

그래서 다른 놀이를 하기로 했지. 무슨 놀이를 할까 하다가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어. 이걸 내가 가장 잘 하는 놀이야. 나는 완벽하게 숨을 수 있어. 술래를 정하기 위해 우린 가위바위보를 했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와 단이가 술래다”

내가 술래가 되고 말았지 뭐야. 난 두 눈을 깜깜하게 손바닥으로 막고

숫자를 외쳤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눈을 떴을 땐 친구들은 사라지고 없었어. 다들 어디에 숨은 걸까? 좁은 방 안에서 친구들을 찾는 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 진이의 커다란 몸과, 형구의 긴 팔, 철규의 머리카락, 민정이의 긴 귀, 수진이의 굵은 등. 돼지 정환이의 통통한 볼은 숨길수가 없거든.

“어디어디 숨었니, 어디어디 숨었니?”

느릿느릿 외치며 방안 구석구석을 찾기 시작했지.

“어디어디 숨었니, 어디어디 숨었니?”

커다란 장롱 속과 책상과 침대 밑을 꼼꼼히 찾았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단 한명도 찾을 수 없었어. 이럴 수는 없어. 숨는 건 내가 가장 잘 하는 일인데. 친구들은 이렇게 꼭꼭 숨어버리면 안돼. 난 조금씩 겁이 났어. 내 친구들을 다시는 못 볼까봐. 그럼 누가 나를 단이라 불러주지?

난 소리쳤어.

“못찾겠다, 피꼬리.”

“못찾겠다, 피꼬리”

“못찾겠다, 피꼬리”

그래도 친구들은 아무도 나오질 않아. 엄마, 아빠가 말한 무서운 아저씨들이 친구들을 잡아 간 건 아닐까. 난 덜컥 겁이났어.

이럴때 어디선가 엄마가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엄마는 날 꼭 안아주실텐데. 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할거야.

“엄마. 진이랑, 형구랑, 철규랑, 민정이, 수진이, 또 정환이랑 같이 놀았어요. 그런데 다들 사라졌어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잡아갔나 봐요.”

“친구들이라고? 누굴 말하는 거니?”

그러면서 엄만 방안을 둘러보겠지. 그리곤 바닥에 펼쳐놓은 신문지 위에 그려진 내 친구들을 볼거야. 신문지위에서 웃고 있는 친구들을. 그리고 그 친구들 옆에 눈이 큰 작은 여자 아이도 보시겠지. 난 엄마에게 내 친구들을 소개시켜 줄거야. 그리고 친구들 옆에 있는 여자 아이를 가리키며 ‘이 아이이름은 단이야.’ 라고 말하겠어. 그럼 엄마는 단이가 누굴까 궁금해 하시겠지. 그럼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할거야. 친구들이 붙여준 내 이름이라고.

엄마는 틀림없이 내 이름 단이를 아주 예쁜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내 귀에 ‘단이야, 엄마는 단이를 사랑해. 무서운 아저씨들은 이곳에 없단다.’ 라며 속삭여 줄거야.

난 무서울 때는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항상 내게 말하시는 것을 생각해. 그러면 무서움이 싹 달아나거든. 아마 엄마가 오시면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실거야. 그렇겠지. 엄마는 언제 오시는 걸까?

그때 갑자기 방문이 부서질 듯 덜컥거렸어. 엄마가 오신거야.

“엄마야?”

그런데...

방문이 부서지고 커다란 아저씨들이 신발을 신고 방안으로 들어왔어. 엄마가 아끼는 예쁜 그릇이 커다란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 짹그랑.

엄마의 옷들이 흐트러지고 아빠의 소중한 책들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쓰러져 바닥에 뒹굴었어. 우르르.

그리고 내 친구들이 무서운 아저씨들의 발에 밟혀 구겨져 버렸어. 내 소중한 친구들을 엄마에게 보여 주어야 하는데...

아저씨들은 누구냐고, 왜 이렇게 들어왔냐고 소리쳐야하는데 난 아무

소리도 나오질 않아. 우리 엄마랑 아빠는 어디 계시죠?

난 너무 깜짝 놀라 움직일 수가 없어. 손이랑 어깨가 나도 모르게 떨렸어. 아저씨들은 서로 뭐라고 말을 해. 아저씨들이 내 어깨를 붙들고 나보고 누구냐고 물었어. 내 입에선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아. 목에 커다란 돌이 들어가 있어서 꼭 막아 버린 것 같아. 나보고 메디나냐고 물어. 난 입술이 덜덜 떨렸어. 난 힘들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겨우 말을 했어.

“난 단-이, 단이에요.”

“난 단이에요.”

“난 단이야!”



좁은 골목을 걸었다. 낮은 기와가 골목 양 옆으로 늘어서 있었다.
골목과 골목 사이에 꼭꼭 닫아 놓은 작은 창들은 말없이 있었다.
어느 파란 기와 밑 작은 창 사이로 흰 레이스 커튼이 팔랑 거렸다.
햇살이 골목 안에 부서지고, 바람이 스쳤다.
그리고, 그 사이로 귀여운 아이의 보조개 같은 웃음이 골목길에 떠돌고 있다.
휴일에 한적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여름이 오기 시작했고, 얼마 걸지 않아도 땀이 맺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골목길 대문 앞에 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멘트가 발라진 바닥에 빨간 분필로 그림을 그리면서 혼자 노랫말을 흥얼거리는 아이는 어릴 적 제 모습이었습니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은 커다란 둥근 얼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니다.
그림처럼 아이의 손을 잡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수줍게 한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과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원 오목초교

박재광

선생님 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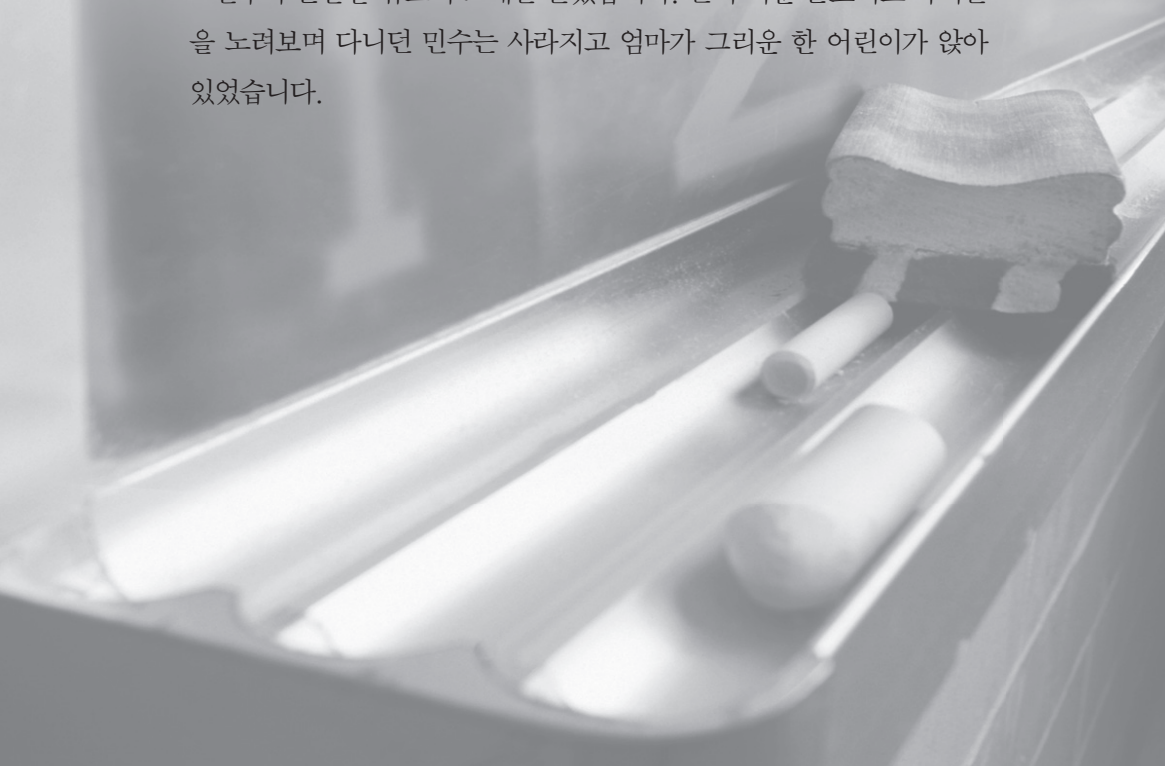
“나 엄마, 아빠 없어.”

한 번 말문이 열린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여섯 살 때 죽었고 엄마는 일곱 살 때 사라졌어.”

“그래. 선생님이 엄마가 되어줄 순 없는 대신 친구가 되어줄게.”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늘 무서운 눈초리로 아이들을 노려보며 다니던 민수는 사라지고 엄마가 그리운 한 어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바보

“강민수.”

“민수 안 왔는데요.”

명단을 보던 선생님이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문득 민수의 작년 담임선생님이 해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반에 민수라고 있죠?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엄청 골칫덩어리예요. 싸움대장에다 3학년 올라가는 애가 아직 한글 철자도 몰라요. 머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학습장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문이 벌럭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 늦었구나.”

민수는 선생님 말은 원래 신경도 안 쓴다는 듯 대꾸도 없이 빈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민수 왔으니 이제 자리를 정하자.”

선생님은 아이들을 한 명씩 짝을 정해 앉힌 뒤 교실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때 한 아이가 자리에 앉지 않고 가방을 멘 채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인혜, 왜 자리에 안 앉니?”

“저 민수랑 짝하기 싫어요.”

갑자기 민수도 벌떡 일어나 뒤에 있는 빈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왜?”

“민수 재요 그냥 이유 없이 때리고 꼬집고 그래요.”

선생님은 인혜와 민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민수야, 다시 네 자리로 와서 앉아.”

민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자리가 남으니까 민수는 우선 거기 앉아. 인혜는 원래 자리에 앉고.”

아이들이 나눠준 자기소개서를 쓰는 동안 선생님은 민수에게 다가가 옆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민수는 연습장에 그림만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민수의 짝이 되어주면 어떨까?”

여전히 민수의 눈은 연습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연필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고 멈춰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난 민수가 무척 마음에 드는데.”

그렇게 자리가 정해진 후 쉬는 시간 인석이가 선생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수요, 완전 바보에다가 깡패예요.”

선생님의 표정이 마른 찰흙처럼 딱딱해졌습니다.

“친구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민수 재는…….”

“예전에 어쨌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네.”

하지만 인석이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불쑥불쑥 일어나 돌아다니고, 점심시간엔 자신이 먼저 먹는다가나 좋아하는

반찬은 더 달라고 떼쓰기 일쑤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못마땅한 아이가 있으면 때려서 울리는 일이 하루에도 두세 번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민수를 슬슬 피했습니다. 다만 덩치 큰 인석이만은 민수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먼저 시비를 걸 때도 많았습니다.

“어이 바보.”

지나가던 민수가 인석이의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어이구 앞이 저렇게 안 보이니 글씨도 못 쓰지.”

민수가 벌떡 일어나 인석이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 에게처럼 덤비지 못하고 씹씹거리다 돌아갔습니다. 민수의 뒤에서 인석이 계속 이죽거렸습니다.

“야, 선생님이 네가 예뻐서 그러는 줄 알아,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임마.”

인석이는 자신의 뒤에 선생님이 서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인석아, 선생님 좀 보자.”

교무실에 선생님과 인석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인석아, 왜 그렇게 민수를 미워하니?”

“저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미워해요.”

“그래도 다른 아이들은 잘 참잖아.”

“왜 참아야 해요? 걔들은 민수가 무서워서 그런 거고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인석이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먼저 약 올리고 괴롭힐 필요는 없잖아.”

“왜 선생님은 민수가 애들 괴롭히는 건 혼내지 않고 저한테만 그러세요?”

“인석이 가 특히 민수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래. 무슨 이유라도 있니?”

“그냥 싫어요. 매일 나쁜 짓만 하는데 선생님에게 혼나기는커녕 예뻐 받는 것도 이해할 수 없구요.”

“선생님은 우리 반 모두를 예뻐해. 민수만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인석이의 손을 끌어와 잡았습니다.

“인석이 마음도 이해하는데,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될까?”

인석이는 대답대신 선생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빼서 모았습니다.

“그래 우리 천천히 얘기하자꾸나. 올라가 있으렴.”

교실로 돌아온 선생님은 수업이 끝난 뒤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남아서 선생님하고 이야기 좀 할까?”

청소하는 아이들도 모두 돌아가고 선생님과 민수 둘이 남았습니다.

“민수야, 학교 생활하면서 힘든 거 없니?”

“.....”

“친구들과의 문제나 공부, 뭐 아무 거나 말해봐.”

“.....”

민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을 알아야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는데.”

“.....”

“할머니는 뭘 하시니? 엄마는 보고 싶지 않아?”

그때 민수의 어깨가 움찔하며 움직였습니다. 순간 선생님은 민수의 몸이 조금씩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눈물이 민수의 바지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선생님은 민수를 소리 없이 안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선생님이 괜한 걸 물어봤구나.”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로 차가워만 보이던 민수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은 선생님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은 처음으로 민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더욱 힘을 주어 민수의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그래, 실컷 울어.”

“엄마!”

민수는 더 큰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눈물들이 민수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민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엄마, 아빠 없어.”

한 번 말문이 열린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여섯 살 때 죽었고 엄마는 일곱 살 때 사라졌어.”

“그래. 선생님이 엄마가 되어줄 순 없는 대신 친구가 되어줄게.”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늘 무서운 눈초리로 아이들을 노려보며 다니던 민수는 사라지고 엄마가 그리운 한 어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민수는 선생님 말고도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지? 늘 화가 나 있었던 것도 친구들이 민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지?”

민수는 보일 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민수도 좀 변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노력해 볼까?”

민수는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글자부터 배우자. 민수는 글자가 좀 어렵지?”

“응.”

“선생님한테는 네라고 해야지.”

“선생님이 아까 친구라고 했잖아.”

“그래 맞다, 하지만 우리끼리만 비밀이야.”

선생님은 서랍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민수도 글자 쓰고 읽을 수 있어.”

“예전 선생님들은 맨날 혼내기만 했는데. 선생님은 다르다.”

“그래 선생님은 혼내지 않을 테니 앞으로 매일 남아서 열심히 공부하
기다 약속!”

선생님이 내민 새끼손가락에 민수도 슬며시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
었습니다.

이튿날 민수와 선생님과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가나다라 쓸 줄 알아?”

“응, 바보도 쓸 줄 알아.”

민수는 공책에 바보라고 크게 적었습니다.

“난 바보야.”

민수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민수 바보 아니야.”

“애들이 다 나보고 바보래.”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민수가 얼마나 똑똑한데.”

하지만 민수는 공책에 계속 바보라고 적었습니다. 공책에 바보라는
낱말을 가득 채우면서 민수는 스스로에게 자신이 바보가 아님을 외치
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됐어. 다른 말 써 보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생님이 불러주는 받침이 없는 낱말들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민수, 잘 하네.”

살포시 민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반침이 있는 날 말들은 무척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수업시간과는 다르게 열심히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수업이 계속되던 어느 날 선생님과 단 둘이 남자마자 민수가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르쳐 줘.”

“그래, 오늘은 무슨 글자를 써 볼까?”

“선생님 가르쳐 달라고.”

“선생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선생님은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선생님이란 글자는 아직 어려운데.”

“가르쳐 줘. 나중에 선생님한테 편지 쓸 거야.”

민수의 고집을 잘 아는 선생님은 하는 수없이 ‘선생님’이란 글자를 적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선생님’이란 글자는 민수에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며칠을 배우고 ‘선’자를 썼고 나머지 ‘생’과 ‘님’도 며칠을 걸려 배웠습니다. 그렇게 다 배웠나 싶었는데 어느새 ‘선’자를 잃어버리는 민수였습니다.

더디게 들어가는 민수의 실력과는 달리 학교생활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아이들과의 다툼도 잦아들었고, 점심시간에 투정을 부리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변하는 민수의 태도에 기쁨을 얻었지만 늘지 않는 민수의 실력은 후회라는 몫쓸 마음을 조금씩 자라나게 만들었습니다.

“야 바보, 연필 주워.”

민수가 인석이의 책상을 건드리고 가는 바람에 연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연필 대신 인석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나 바보 아냐!”

“이게!”

인석이가 벌떡 일어나 주먹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두 손으로 힘껏 인석이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인석이는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며 넘어졌습니다. 허리를 붙잡고 일어나려던 인석이 마침 교실로 들어오는 선생님을 보더니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인석이 왜 그러니?”

“민수가 밀었어요.”

인석이 무뚝뚝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이번엔 민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민수가 밀었니?”

“제가 먼저 바보라고 놀렸어. 요.”

선생님이 다시 인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인석이 먼저 놀렸니?”

“.....”

“알았다.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인석이는 보건실에 다녀오렴.”

선생님은 보건선생님으로부터 별문제 없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인석이는 아파서 공부할 수 없다며 조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 오후 인석이 엄마가 교실로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그만 하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올게. 요.”

“아니, 내일 다시 하자.”

인석이 엄마는 나가던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편애한다던 그 앤가요?”

“네?”

선생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인석이에게 들었어요. 특별하게 한 아이를 편애한다고.”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라서…….”

“그게 편애 아닌가요?”

선생님은 대답 없이 얼굴만 붉어졌습니다.

“인석이 병원 다녀왔어요. 근데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교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죄송합니다. 인석이는 좀 어떤가요?”

“아무튼 이 번 일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오늘 교장선생님이 안 계셔서 잠깐 올라온 건데 내일 교장선생님 찾아뵙고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더 이상 말하기 귀찮다는 듯 인석이 엄마는 서둘러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선생님은 의자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인석이 엄마에게 사과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인석이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야 했는데.’

많은 생각들이 스쳐지나갔습니다.

“선생님!”

그 때 민수가 웃음을 가득 머금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요…….”

“민수야 오늘은 그냥 들어가라고 했잖아.”

“아니 선생님…….”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내일 하자고!”

“아니 선생님 이거 하나만…….”

“선생님, 선생님 좀 그만해. 열흘을 넘게 배우고도 선생님 하나 못 쓰니 애들이 바보라고 놀리지.”

순간, 선생님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수의 귀로 들어간 말을 다시 빼내 올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그게 아니라.”

손을 잡으려는 선생님을 뿌리치며 민수는 달려 나갔습니다. 선생님은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은 흰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하얗게 바래졌습니다. 그 때 창문 밖으로 어떤 아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창밖을 보니 같은 반의 경현이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던 선생님이겐 경현이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중에 ‘민수’라는 말은 볼륨을 높인 것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선생님은 일어나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나는 듯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경현이가 가리키는 손가락 끝엔 민수가 크레파스를 들고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눈길은 민수에게서 학교 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곳엔 파란색 글씨로 ‘선생님 바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다가가 민수의 어깨를 살포시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정말 바보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을까?’

가던 길 멈추고 흠뻑 뒤를 돌아봅니다. 주저앉아 이마에 맺힌 땀 흠치다 엉덩이 툭툭 털고 일어서며 앞으로 남은 길을 내다봅니다.

결코 녹록한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야할 길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임을 다시 깨달으며 새로운 발걸음을 떼어봅니다.

멈추지 말고 부지런히 갈 길 가라고 손내밀어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양 성신초교

안 상 문

아저씨의 자식들

그리고 아저씨는 장승을 만드는 것이 자식을 낳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식보다 더한 자신의 생명을 빚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장승은 손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루어 내는 작업이며, 도를 닦듯 자신의 모든 혼을 불어 넣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자식들

“아저씨는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 취미란다. 아니 여행이 아니라 내 자식을 보러 가는 것이지!”

“자식이요? 아저씨는 장가도 못 갔잖아요?”

아직은 불기운이 조금 남은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머리가 긴 아저씨와 까까중 머리를 한 꼬마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추위가 가시지 않은 듯 고봉산 밑둥이에는 아직도 녹다만 눈이 숨어 있습니다.

“장가? 나는 그런 건 몰라.....”

장작개비 하나를 불에 넣으며 한숨 쉬듯 아저씨가 내뱉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식이 있어요?”

궁금해 못견디겠다는 듯 꼬마가 되묻습니다.

“허허.....장가를 못 갔어도 자식은 낳을 수가 있지. 그런데 나는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낳은 것이란다.”

“생명이요?”

“그렇단다. 자식은 내 생명이지.”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는 한참동안 아저씨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마 꼬마의 물음이 너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그런데 말이다. 걱정이 하나 있단다. 생명을 낳으려는 젊은이들이 없어. 이다음에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이 일을 이어서 해야 하

는데 말이야, 걱정이야 걱정.....”

두 손을 비비며 또 한숨 쉬듯 아저씨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꼬마는 ‘내가 하면 되잖아요’ 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웬지 그 말은 쉽게 하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그러드는 모닥불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 올랐습니다.

아저씨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도사를 꼭 닮았습니다. 긴머리를 뒤로 묶고는 늘 후줄근한 옷을 입고 잘 웃지도, 남에게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오직 친구가 있다면 언제나 아저씨 주위를 맴도는 백구 한 마리 뿐입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를 더 들라면 일곱 살 먹은 꼬마, 맹구입니다. 원래 꼬마 이름은 민구인데 아저씨는 꼭 맹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 민구가 아니라 맹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저씨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나무를 깎아 장승을 만드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만든 장승을 보러 아주 가끔 여행을 떠나는 일입니다. 아저씨는 거의 매일 장승을 만드는 일에 매달리는 편인데 지겹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맨날 톱과 끌, 망치를 들고 나무를 깎고 다듬습니다. 신통하게도 아저씨의 손만 가면 통나무는 지하여장군이 되기도 했고, 천하대장군으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험상궂은 귀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예쁜 미소를 띠는 여자 귀신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맹구는 눈이 두 개씩 달린 흑부리 영감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언제 만들어 졌는지 모르는 이 할아버지는 늘 험상궂은 얼굴로 맹구를 노려보고 있었으나, 얼굴 옆에 붙어있는 흑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맹구는 아저씨 옆에서 아저씨가 만들다 버린 통나무 조각을 깎

으며, 그 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장승을 만드는 것이 자식을 낳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식보다 더한 자신의 생명을 빚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장승은 손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루어 내는 작업이며, 도를 닦듯 자신의 모든 혼을 불어 넣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만든 장승을 보기 위해 가는 것은 자식들이 잘살고 있는지 살피는 아빠의 심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멀리 저녁 해가 빠알간 노을을 빚어내면서 사알짝 몸을 숨겼습니다.

아저씨가 근처 초등학교에 초청을 받아 장승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러 간다고 했습니다.

“와! 아저씨도 이제 스타가 됐네요.”

맹구가 커다란 두 눈을 더욱 크게 뜨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자아식! 스타긴.....가서 뭐라고 해야할 지 몰라.....”

아저씨는 늘 그렇듯 머리를 긁적이며 우물거렸습니다.

“에이, 아저씨도. 아저씨가 매일 하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렇까? 그래도 떨리는데.....애들 앞에 서기는 처음인데.....”

아저씨는 정말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힘내세요.”

이런 말을 할 때는 맹구가 오히려 어른스러웠습니다.

아저씨는 그렇게 장승보다 더 큰 걱정거리를 가득 안고 길을 나섰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운동장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아저씨를 보고

“와! 도사다.”

하며 아이들은 소리를 치며 좋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신기한 듯이 아저씨를 훑어 보셨습니다. 아마 아저씨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들처럼 반딧불 같은 눈으로 아저씨를 쳐다볼 것입니다.

드디어 아저씨가 선생님이 되어 통나무 깎는 방법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깎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무는 자연의 일부이며, 쓰러져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자연물입니다.....그런 나무에게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저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해 주려고 준비했던 말이 자꾸만 깜빡깜빡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 끈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일이 나무를 깎는 일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맹구가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저씨가 매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저쪽에 맹구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자.”

아저씨는 맹구 얼굴을 그리며 힘을 내어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깎는 일은 나무 속에 들어있는 작품을 끄집어 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나무를 깎기 전에 그 나무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를 찾아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 경우에 그 작품을 보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입이 한 번 열리자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말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고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 마음 속으로 그려 보세요. 아마 물건이나 사람, 동물 등이 보일 겁니다. 이제 그것을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작품을 만드는 일은 나무를 깎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껍질을 벗겨내고 생명을 불러 넣는 일입니다.”

아이들의 눈이 다시 반짝거렸습니다. 이제 도구 사용하는 법을 알려줄 차례였습니다. 끌과 정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칼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렇게 아이들과 만날 날을 기다리며 가슴 설레던 그날, 아저씨는 커다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아저씨는 통나무 자르는 시범을 보여주며, 여러 아이들에게 끌고루 재료를 나누어주려고 나무를 전기톱으로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옆 짝꿍과 장난을 치다가 아저씨가 작업하는 곳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순간 기절할 듯이 놀란 아저씨가 전기톱을 치우려다가 톱날이 아저씨의 오른쪽 발뒤꿈치 부분을 스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손쓸 사이도 없었지만 순식간에 피가 땅을 붉게 물들었습니다. 다행히 곁에 계시던 선생님 한 분이 아저씨를 태우고 근처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저씨의 부상은 생각보다 매우 심했습니다. 워낙 전기톱날이 빠르게 돌고 있었기 때문에 힘줄은 물론 뼈까지 다쳤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그곳 병원에서 두 달 넘게 입원해 계셨습니다. 맹구는 톱날 때마다 아빠를 줄라 아저씨가 누워 계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을 때마다 아저씨는 오른발을 붕대로 감싸고 계셨습니다.

“와, 아저씨발 왕발이네. 이거 언제 왼쪽처럼 작아지는데요?”

맹구가 붕대로 칭칭 동여맨 오른발을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곧 붕대만 풀면 작아질 거야”

며칠 후 붕대를 풀어 발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으나 아저씨는 목발을 짚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목발을 짚으면서도 아저씨는 장승 만드는 일을 계속했지만, 장승 만드는 속도는 옛날의 절반도 안되었습니다. 아저씨는 갑자기 노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마음까지 늙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열 밤만 자면 아저씨는 자식들을 보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아저씨가 제일 자주 찾는 곳은 서울 하늘 공원 곁에 있는 월드컵 공원이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념해서 월드컵 공원이 만들어지고, 그 공원 앞에 줄을 지어 아저씨 장승이 세워졌습니다. 이 작업으로 아저씨는 하루 아침에 스타가 되어 버렸습니다. 신문에도 아저씨 얼굴이 자주 실렸습니다.

‘민족의 혼을 잇다.....’, ‘우리 얼의 계승.....’, ‘사라진 민족의 얼을 깨우는 고독한 작업.....’ 그렇게 아저씨는 스타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아저씨의 자식들은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유명 식당 앞에 높이 서있는 장승도 함께 보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맹구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그 여행에 맹구를 데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저씨, 이번에 나도 가면 안돼요?”

맹구는 아주 어렵게 얘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안돼.”

고개를 강하게 저으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왜요?”

애원하는 눈으로 맹구는 아저씨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자식을 보러 가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하루도 되고 일

주일이 될 수도 있어! 아니 10일이 넘을 수도 있어. 장소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엄마, 아빠도 괜찮다고 했어요!”

“.....”

아저씨는 말이 없으면 거의 허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땡구는 늦게 자리에 누웠어도 잠이 영 오질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자식이 몇 명이나 될까? 아니 어느 곳부터 들을까? 어떤 장승이 가장 멋질까?’

새벽녘이 다 되어서 땡구는 잠이 설핏 들었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어요. 빨리 나와 보세요!”

“어디야 어디?”

땡구는 잠결에도 밖이 소란스러워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밖은 아직 어둑어둑한데 집 위쪽에서 환한 불빛이 창가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니, 거긴 아저씨네 집이잖아?’

가시에 찢린듯 땡구는 밖으로 뛰쳐 나갔습니다. 생각대로 불은 아저씨네 비닐 하우스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이 늦가을 밭에 불 놓은 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땡구는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밭을 절뚝거리며 불을 피하려고 밭벼둥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땡구는 신발 벗겨지는 것도 잊은 채 아저씨네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바깥쪽 비닐과 벽은 벌써 시꺼먼 재로 변해 있었고, 철로 된 안쪽 기둥만이 앙상히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다 말고 일어나 양동이로 물을 길어와 불길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어디 있어요?”

맹구는 불길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 속으로 뛰어들려 하였습니다. 놀라서 맹구를 휘잡는 아빠의 억센 손이 아니었더라면 맹구는 실제로 불길로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이 손 놓으세요. 아저씨가 저기 불 속에 있어요! 목발을 짚고 헤맨단 말이에요.”

맹구는 울부짖으며 아빠의 손을 뿌리치려 하였습니다.

“맹구야! 안돼! 너무 늦었어!”

아빠도 눈물을 흘리며 맹구를 끌어 안았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는 맹구와 자식들만 남긴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아저씨가 추위에 몸을 녹이려고 모닥불을 피웠다가 그 불씨가 바람에 날려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불길을 피하려고 아저씨는 목발을 찾았으나 구석에 세워진 목발을 못찾고 결국 일을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아저씨가 일하던 작업장은 까만 재로 뒤덮혀 버렸습니다. 시커멓게 타다만 장승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습니다. 어느 장승은 눈 한쪽이 그을렸고, 또 얼굴만 남은 채 팔과 다리가 솟으로 변한 장승도 있었습니다. 모두 맹구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놈의 목발은 아무리 찾아도 눈에 띄지를 않았습니다.

맹구는 작업장 밖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문득 아저씨가 일하다 힘

들면 쪼그리고 앉아서 땡구와 함께 쳐다보았던 하늘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서쪽 하늘이 타오르는 불처럼 시뻘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놀 사이로 아저씨가 고통스러운 얼굴로 땡구를 내려다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와 같이 본 노을은 언제나 고왔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눈이 시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콧물도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에는 달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땡구는 산길을 무작정 달렸습니다. 억새풀이 얼굴을 핥키어도 모른 척 했습니다. 나무 뿌리가 발에 걸려도 상관 없었습니다. 다만 이를 악물며 몇 번이고 외쳤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 대신 장승을 만들게요. 누군가 그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셨죠? 제가 할게요. 아니 제가 해야만 해요. 아저씨의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녜요. 나무를 사랑해야 하고, 나무 속에 들어 앉아 있는 작품을 찾아내야 하잖아요.”

어느덧 어둠이 내린 하늘에서 아저씨가 이제야 빙그레 웃으며 땡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따가운 햇볕 아래 학교 정원의 나무들이 더욱 푸르게 보입니다. 여름 날 햇빛이 뜨거울 줄만 알았더니 수풀을 울창하게 만드는 재주도 있었나 봅니다.

비뻔 일상 속에 파묻혀 지내다가도 마음 한켠으로는 글을 써야겠다는 욕망이 늘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은 동심의 세계를 그려보아야겠다는 꿈에 부풀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 졸작은 평소 소망했던 작은 꿈의 표출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줄 알면서도 투고를 한 것은 꿈틀대는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졸작을 선택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분에 넘치게도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 주셔서 송구스러운 따름입니다. 모자람과 채울 것이 너무 많음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입상을 채찍으로 삼아 더욱 겸손하게 노력하고 말없이 정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저 괜찮아졌어요. 걱정말고 다녀오세요. 집 잘 볼게요.”

“그내? 비이 소원 들어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제일 잘 하는 말 ‘감사합니다.’

엄마의 말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알아듣는 말 ‘감사합니다.’를 끝으로
엄마는 오늘도 춤을 추러 나갔습니다.

(전)인천 병방초교

김 솔 립



감사합니다.

울 엄마는 댄서랍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춤추는 여자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춤을 추러 갑니다. 엄마는 러시아에서 발레리나였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같은 송주 누나 마저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춤을 추러 나갈 때면 자스민같은 향기가 납니다.

비록 옷은 청바지에 베이지색 자켓이지만 밀납처럼 하얀 이마에 은백양 나뭇잎같이 나부끼는 머리카락은 백조의 호수에 나오는 오데트가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곤 합니다.

어쩌면 엄마는 진짜 오데트 공주였는지도 모릅니다. 마술사의 마법에 걸려 우리나라에 와 있지만 언젠가 왕궁으로 돌아갈 날을 대비해서 밤마다 춤을 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근히 걱정이 앞섭니다. 엄마가 춤을 추고 있는 밤무대에 지그프리트 왕자가 나타날까봐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작년에 아빠가 집을 나갔는데 엄마 마저 떠나면 나는 정말 혼자 남게 되거든요.

아니 어쩌면 엄마는 절대 나를 버릴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우크라이나로 데리고 갈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따라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엄마의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니요.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엄마처럼 나도 답답하게 살기는 정말 싫습니다. 아빠랑은 말이 통해서 좋았는데 엄마와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 불편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집을 나간 아빠가 야속할 때도 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엄마가 답답해서 떠났다고 생각하면 아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와 나는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빠가 떠나고 나서 얼마 후의 일입니다. 슬기로운생활 숙제 중에서 옛날 물건의 사진을 한 가지씩 가지고 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중에서 ‘지게’ 사진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맡았는데 엄마는 자신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철썩같이 믿고 친구들에게 숙제 했다고 자랑까지 했는데 수업시간에 꺼내보니 ‘지우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봉투만 보고 엄마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만,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엄마가 정말 미웠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엄마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고향 말은 절대 배우지 않겠다고 다짐을 단단히 해왔습니다.

춤만 추느라 말과 글을 배울 시간이 없다고 하시지만 엄마의 혀 짧은 소리를 알아듣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정통신문도 못 보시니 학교에도 가지 못합니다. 아빠가 계실 때는 불편하지도 않았고 엄마가 떠날까 염려되지도 않았는데 엄마 생일이라선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엄마마저 저를 떠나버릴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마법이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니까 어찌면 엄마는 마법에 걸려 우리나라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엄마의 생일은 특별한 날이니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빠만 해도 결혼기념일에 집을 나가 일 년이 다가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특별한 날 그러니까 생일날, 결혼기념일, 석탄일, 성탄절같은 날은 마술의 힘이 더 세어지거나 번덕을 부리기에 좋은 날이 분명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호두까기 인형만 해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왕자로 변했잖아요.

오늘은 정말 엄마가 춤을 추러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막 서산으로 기울던 해님이 내 방 유리창으로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가지 못하게 무슨 핑계를 대 보아야겠습니다.

‘무슨 핑계를 댈까? 그래 아프다고 해야겠다.’

나는 배를 움켜잡고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배가 아파요.”

엄마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아파? 아파?”하고 자꾸 반복합니다.

엄마가 걱정스러움과 다급함에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좀 미안하긴 해도 엄마의 따뜻한 손이 배에 닿으니 기분은 좋습니다. 이대로 엄마의 손이 내 배에 꼭 붙어있으면 내가 백조의 호수를 잘 읽어 드릴테데, 그러면 엄마도 빨리 말을 잘 할 수 있을 텐데요.

“엄마, 가지마, 가지마.” 하면서 손을 들어 흔들어 보였습니다.

엄마는 완강하게 도리질을 합니다. 눈에 힘이 들어가서 하얀 흰자위가 다 드러난 회색 눈동자가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간다. 가 돼.”

발음은 부정확하지만 꼭 가야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더 엄살을 부리며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엄마의 회색 하늘빛 같은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갑자기 나를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엄마가 우는 모습은 처음입니다. 언제나 나에게서는 웃는 모습만 보이는 엄마였는데 내가 아프다니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니 나도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듯이 중얼거리는 말을 나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

습니다.

지금도 엄마는 고향의 ‘비이’라는 땅 귀신에게 잘 보아 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이지만 어떤 뜻인지 귀 기울이지 않으려 합니다. 또 반 친구들에게 이상한 귀신 붙었다고 놀림을 받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웬 일일까요? 엄마의 기도가 왜 이리 내 가슴에 쏙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건지... 아무래도 엄마에게 손을 들어야겠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졌어요. 걱정말고 다녀오세요. 집 잘 볼게요.”

“그내? 비이 소원 들어져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제일 잘 하는 말 ‘감사합니다.’

엄마의 말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알아듣는 말 ‘감사합니다.’를 끝으로 엄마는 오늘도 춤을 추러 나갔습니다.

“시어, 시어.”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쉬라는 말을 뒤풀이 하면서 간절한 눈빛을 보내더니 슬픈 백조같은 몸짓을 하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엄마가 나간 자리에는 자스민 향기만 남아 내 콧췌를 간질이고 있습니다.

어느새 창문이 깜깜해졌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고 바람이 유리창을 잡고 마구 흔들어 댁니다. 창틈에 붙여놓은 비닐 문풍지가 ‘빠~이잉 빠~이잉’ 요상한 소리를 냅니다. 다행히 창문 안으로 초생달과 목성, 금성이 나란히 손을 잡고 나타나서 예쁘게 웃어 줍니다.

“저렇게 예쁜 생일 케익을 만들어 드리면 마법같은 건 맥을 못 칠지도 몰라. 맞아 엄마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잖아.”

송주 누나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습니다. 누나는 나보다 네 살이 많은데 언제나 나를 잘 돌보아 줍니다. 나와도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머리가 은발인 것도 닮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는 것도 나랑 같습니다. 아빠가 집을 나가신 것도, 엄마가 일

을 하러 저녁에 나가시는 것도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송주 누나의 엄마는 우리말을 아주 잘하고 생긴 것도 딱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나는 우리말을 참 잘 합니다. 내가 물으면 뭐든지 척척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춤추러 다닌다는 것도 어디에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꼭 누나의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뭐라고? 케익 오케이!”

누나는 오늘도 가뿐하게 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네이버에 케익이라고 치니 예쁜 케익 사진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판기처럼 돈만 넣으면 케익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송주 누나가 예쁜 별이 장식된 케익을 눌렀더니 거짓말처럼 케익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나는 엄마가 말하던 발레리나를 쳐 달라고 했습니다. “부흐네프라는 천재 발레리노와 지젤을 공연하는 발레리나 네브레코!”

그리고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무용수 네브레코. “와우, 이럴 수가!” 틀림없는 엄마였습니다. 애절한 눈빛으로 상대 무용수를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은 조금 전에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누나, 이것 봐, 우리 엄마 정말 발레리나 맞지. 이것 봐 틀림없는 우리 엄마잖아. 누나.”

“아냐, 이 바보야 너네 엄마는 네브레코가 아니라 안나잖아. 더군다나 너네 엄마는 발레가 아니라 댄스를 춘대. 우리 엄마가 그랬어. 저기 산고개 끝에 있는 파라다이스에서 춤을 춘다니까. 못 믿겠으면 나랑 같이 가볼래?”

나는 그만 그러자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절대 오지 말라고 했는데 들키면 혼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인만 하고 오는 거지. 네 눈으로 똑똑히 봐야 믿을 거 아냐. 너처럼 어린애는 뭐든지 직접 만지고 보고 해야 사실을 안다니까. 그런데 너 무슨 구실 만들 거 없냐?”

“우리 엄마 생일이니까 케익을 갖다 드리자.”

“아쭈 초딩 일학년 밖에 안 된 쪼그만 녀석이 좀 할 줄 아는데?”

송주 누나가 갑자기 어른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뭐든지 아는 누나가 있으니 천만 다행입니다.

케익을 들고 골목을 몇 바퀴나 돌고 건널목을 세 번이나 건넜습니다.

“누나, 돌아오는 길도 알 수 있어?”

“당근이지! 나만 믿어. 이 꼬맹아.”

송주 누나를 따라간 곳은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밝혀져 있는 커다란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야자수 같은 나무가 몇 그루 서 있고 커다란 표지판에는 파라다이스란 글자가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관람 불가!’ 라고 써진 문 앞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아저씨가 길을 막고 섰습니다.

“야, 꼬맹이들이 왜 여기서 얼쩡거리는 거야? 날 저물었다. 빨랑 집에 들어가라.”

갑자기 송주 누나가 아주 겁난 표정을 하고 나를 쿡쿡 찌릅니다. 나는 다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저, 아저씨, 우리 엄마 좀 보려고요.”

“뭐? 엄마? 너네 엄마가 여기 있다고?”

그제서야 송주 누나가 나섰습니다.

“여기 댄서래요. 안나라고 하는 이쁜 외국 아줌마예요.”

“뭐? 네부레코가 니 엄마라고? 야 꼬맹아 엄마는 너네 안방에 가서나 찾아봐라.”

“잠깐만요.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이 케익만 좀 갖다 주면 돼요.”

“뭐야. 이 쪼고만 것들이 어디다 대고 엄마 엄마하는 거야? 손님 떨어지게.”

아저씨가 휘두르는 팔 때문에 내가 내민 케익이 부메랑처럼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퍽!”

“안돼요. 안돼! 우리 엄마 생일 케익이란 말이에요.”

나는 케익이 떨어진 길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부네야! 부네야!”

눈부신 불빛이 비추는가 싶더니 송주 누나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귓가에서 아득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 앞에 오색 빛깔 무지개 강이 흐르고 나비들이 춤을 추며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친구들이 웃으면서 달려옵니다. 나를 괴롭히던 지호가 나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매일 나를 놀리던 지수도 오 늘은 나에게 웃어줍니다. 학교 끝난 뒤에도 국어책 읽기를 도와주시던 선생님도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십니다.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자 나는 고개를 끄덕여 안녕하세요하고 인사를 하려는데 목이 구부러지지 않고 엄청 아픕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신이드니? 몸은 좀 괜찮니?”

낮익은 남자 목소리가 나를 깨웠습니다.

“어? 아야. 아 아파.”

나는 온 몸이 쭈서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의 목소리에 겨우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려 보니 머리 밑에서 엄마

가 감사합니다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언제왔는지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웃고 계십니다. 내 어깨 위에는 꿈처럼 우리 반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나를 외워 싸고 서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그프리트 왕자가 오테트 공주를 만나러오는 것처럼 아빠가 엄마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설마 이것이 마법은 아니겠지요?



학교를 떠난 지 세 달이 되어갑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데 의복처럼 붙어있던 아이들과의 생활이 어느새 아득하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기억들이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이 더 바래지기 전에 작은 조각들이나마 추려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 시린 아이들이 들려서 훈훈한 온기 한 줌이라도 나눠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썼습니다.

첫 술에 용기 한 줌 더 올려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마새와 아기새

인천 중부경찰서
전 병 호

제가 정말 대한민국 군인 신 상병입니다. 제발
한번만 확인해주세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대사관 직원들은 믿질 않았습니
다. 신 상병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받쳐 싸웠는데 죽은 사람이라니?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전사자로 처리하였다니.....,



엄마새와 아기새

“애야 오늘은 일찍 들어오렴, 어제처럼 늦게 들어오면 안 된단다.”

“네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나뭇가지에 등지를 틀고 사는 엄마새가 아기새에게 어둡기 전에 들어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내 말을 저렇게 건성으로 들으니.....,”

그런데 아기새는 엄마새의 걱정스런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개구쟁이처럼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기새는 어제보다 밖에서 놀다가 어두워져서야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밖에서 놀다가 돌아오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엄마새는 아기새가 밖으로 나가 노는 날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아기새가 등지를 틀고 사는 나무 아래에 아랫마을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나무 아래서 기도를 드리다 가곤 하였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은 언제나 한 가지였습니다. 그 소원은 전쟁터로 나간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보니 할머니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나무는 할머니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웃지 않을 것만 같던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해바라기 꽃처럼 만

발하였습니다.

‘할머니가 오늘따라 왜 저럴까?’

아기새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소원을 비는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아기새도 그 소리를 듣고는 자기 일이나 되는 듯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나무님! 조상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사십여 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꿈이라면 깨지 말고 생시라면 이제 우리 아들을 두 번 다시 데려가지 마세요.”

할머니는 그렇게 고마움에 기도를 몇 번인가 하고는 아랫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기새는 자기가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기분이 뿌듯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아기새는 아랫동네에 갔다가 동네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엄마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깊은 산속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논은 아니었지만 산비탈을 일구어 만든 조그만 다랭이논과 비탈진 언덕에 밭을 일구어 곡식을 심고 가꾸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효자라고 수문이 자자했습니다.

“저런 효자도 없을 걸세. 안 그런가 영식이?”

“함요. 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모시고 무슨 일을 하던 간에 하는 일마다 불만이라곤 찾아볼 수 없으니 당연합죠.”

“영식이. 신 씨네 아들 같은 저런 착한 효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을 걸세.”

“예 형님! 두말하면 잔소리 아닌가요?”

동네 사람들은 효자가 따로 없다며 할머니의 아들 칭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애야 이 애미 걱정은 말고 너나 몸조심 잘하고 부디 살아 와다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죽지 않고 꼭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냐. 그래야지. 이 애미도 죽지 않고 널 꼭 기다리마.”

아들은 어머니를 남겨두고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 남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조국을 위하여 전쟁터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할머니 아들도 어린 나이에 할머니와 헤어져 전쟁터로 나가 싸워야 했습니다.

아들은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험악한 산골짜기에 배치되었습니다. 아들은 치열한 전쟁 속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아군과 적군이 잠깐 싸움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는 휴식 시간이 따로 없지만 서로가 눈치를 보기 위해 적군과 아군이 잠깐 싸움을 멈춘 휴전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대는 주변에 철망을 두르고 삼엄한 경비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병사들이 잠시 틈을 내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애인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신 상병은 철조망이 쳐진 주변에서 보초근무를 끝내고 막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참 김 병장이 군복이 헐어 입을 수 없다며 할머니의 아들 신 상병에게 옷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신 상병 군복 좀 빌려 줄래?”

“김 병장님, 옷은요?”

“응 내 것은 여기저기 낡고 헤어져 입기가 좀 불편해서.....,”

“병장님이 빌려달라면 당연히 빌려드려야죠. 김 병장님! 여기 있습니다.”

신 상병은 옷을 빌려 달라는 고참의 말에 서슴없이 자기 옷을 벗어주었습니다.

나라가 가난하여 군인들에게 보급된 군복이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옷이 무척 얇아 추운 바람이 확확 들어왔습니다. 옷을 입고 있어도 추웠습니다. 고참인 김 병장이 입고 있는 군복은 오래 전에 지급 받아 입었기 때문에 군데군데 헐어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할머니의 아들은 그런 김 병장 마음을 알고는 옷을 빌려주었습니다. 전쟁터는 험악한 산과 골짜기이었기에 보급품인 옷과 먹을 것들이 늦게 지급되었고, 어떤 때는 아예 며칠 동안 오지도 않아 식량과 옷 등을 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김 병장님 저는 금방 근무가 끝났으니 제 옷 입고 근무하십시오.”

“그래, 신 상병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해서 고참 김 병장은 할머니의 아들 신 상병의 이름이 새겨진 군복을 입고 보초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마침 적군이 기습공격을 하였습니다. 아군 몇 명을 빼고는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김 병장은 신 상병의 이름이 적혀 있는 옷을 입고 철조망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다 적군의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신 상병이 죽은 걸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신 상병이 죽은 걸로 알고 전사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아들 신 상병이 포로로 잡혀 적군에게 끌려간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신 상병이 적군에게 끌려가는 것을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신 상병은 적군에게 끌려가 참기 어려운 고문을 당하였습니

다. 캄캄한 탄광에서 밤낮으로 일을 하였지만 먹을 것이라곤 강냉이 죽이 고작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두 번이나 주면 다행이었습니다. 신 상병은 배고픔과 피로움을 악착같이 버티어 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 상병은 그렇게 40년을 악착같이 참고 참으며 버텨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실까. 살아 계신다면 어디 아픈 데는 없는 걸까. 밥은 잘 챙겨 드시고 있을까?’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눈물이 줄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탈출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틈을 엿보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을 감행하였습니다. 무서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백두산을 며칠 동안 밤낮으로 걸어 넘어, 두만강을 건너 며칠 만에 중국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신 상병은 하얀 수염이 덩수룩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거지나 다름없는 찌죄죄한 몸 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신 상병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대사관 직원은 “그런 사람은 이미 40여 년 전에 전사하였다”며 조국으로의 귀환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있느냐”

“갓은 말로 수작부리지 말고 저리 가라”며 대사관 직원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며 밀쳐냈습니다.

“제가 정말 대한민국 군인 신 상병입니다. 제발 한번만 확인해주세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대사관 직원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신 상병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받쳐 싸웠는데 죽은 사람

이라니?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전사자로 처리하였다니....., 직원은 몰골이 험악한 신 상병을 보고는 거지취급을 하며 쫓아냈습니다.

신 상병은 어머니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는데. 이제 어디다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막막하였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배신감에 신 상병의 눈에서는 구슬 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잠도 자지 않고 물 건너 산 넘어 탈출을 했는데.....,

‘나는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으로 꼭 돌아가고 말테야.’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을 했습니다. 대사관에서 문전박대를 받고 쫓겨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아야한다. 또 가보는 거야.”

또 쫓겨날망정 다시 대사관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저 좀 도와주세요.”

“.....,”

깡마른 몸에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노인의 갑작스런 말에 대사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대사관에 일을 보러 온 사람들도 초라한 신 상병을 보고는 깜짝 놀라 한 발작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지같은 노인을 보고는 대사관 직원들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쟁 때 끌려간 군인 신 상병입니다. 40년 만에 탈출했습니다. 제발 저를 내 나라 내 조국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제가 신 상병입니다.”

신 상병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애원했습니다. 직원들은 몰골이 험악한 거지같은 사람이 떼를 쓰는 줄 알았습니다. 앉아

있던 직원 한 명이 쫓아낼 듯 한 기세로 신 상병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또 쫓겨나는구나. 이번에 쫓겨나면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두 번 다시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찾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두 눈을 꼭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며칠 전에 신 상병을 쫓아낸 직원이 신 상병을 알아보고 다가와 말을 했습니다. 갑작스런 말에 신 상병은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이번에도 대사관에서 도움을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터였습니다.

“저를 찾았다고요. 왜.....?”

신 상병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어 들릴 듯 말 듯 작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신 상병에게 그 동안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다녀간 후로 혹시나 해서 대사관직원들이 선생님의 군인 시절과 그때 살았던 고향 등에 대하여 수소문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고향에는 팔순이 넘은 노모가 지금도 살고 계시더군요. 그 분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어머니가 이야기한 내용과 선생님이 말한 내용이 너무 똑같았습니다. 선생님이 40여 년 전 전쟁이 발생하여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로 나간 신 상병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선생님을 밤낮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선생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선생님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대사관직원은 신 상병을 앞에 두고 반갑다는 표정을 지으며 연신 무

어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저 신 상병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신 상병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자랑스런 조국으로 돌아가시죠. 선생님을 어머니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신 상병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너무나 기뻐합니다. 나를 조국이 버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아직도 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니.....,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온다
오늘속에 희망을 품었을 때
내일은 더욱 행복하리
우리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재미있고, 뜻있고, 알차고 즐겁게 보내자
오늘 하루를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주관 없이, 헛되이 보낸다면
나에게 내일은 없다
나를 지탱해준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집사람과 벌써 중학생이 된 해용와 수민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할머니의 풍어제

“엄마, 풍어제가 뭐야?”

“사고 없이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마을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야.”

그리고 보니 10년만이구나. 너 두 살 때 마지막으로 풍어제를 봤으니, 무당도 오고 악사도 오고 풍어제하면 마을이 시끌벅적하지.”



포항 동부초교
신 하 나



할머니의 풍어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 전에 비나이다. 동해바다 용왕님이요, 서해바다 용왕님이요, 남해바다 용왕님이요, 북해바다 용왕님이요, 물 밑에는 황실용왕 물위에는 청실용왕, 청실 황실 용왕제를 지극 정성 드리오니.....”

계면굿이 끝나고 드디어 용왕굿이 시작되었다. 악사들의 흥겨운 풍물 소리가 굿당에 울려 퍼지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어른들이 하나둘 모여 들었다. 남빛패자를 입은 무녀가 부채를 흔들며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부님네! 어부님네!”

“예!”

“용왕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예!”

굿당에 모여든 어부와 선주들이 무녀를 향해 합장을 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 전에 비나이다.....”

굿당 나무기둥에 매어둔 너름대*를 빙빙 돌며 무녀가 용왕님을 모시기 위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말 용왕님이 오시기라도 한 것처럼 대나무 잎사귀가 파르르 떨렸다. 악사들의 풍물연주가 점점 더 빨라졌다. 깡충깡충 뛰어다니던 무녀가 너름대를 잡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 늘어놓았다.

* 앞이 달린 큰 대나무. 신간이라고도 함.

넋을 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은애는 침을 꿀꺽 삼켰다. 언젠가 할머니에게 들은 얘기가 떠올랐다.

“뱃사람들 목숨 좌지우지 하는 게 용왕님이제. 용왕님 잘 모시야 괴기도 많이 잡고 바다도 잠잠한기라. 바다가 용왕님 땅이거든. 용왕님 땅에서 농사짓고 살려면 용왕님께 잘 해야 하는 기라. 암, 용왕님을 잘 모셔야제. 용왕님이 우리한테는 옥황상제가 되는기라!”

은애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언제나 용왕님 얘기를 했다. 집안의 모든 길흉은 용왕님의 뜻이라고 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불어 닥친 풍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는 더 이상 용왕님 얘기를 하지 않았다. 방 한 칸에 모셔 놓았던 용왕님 탕화를 할머니가 갈갈이 찢어버린 것도 그때였다.

“지아비 사라*태풍 때 보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바다에 묻었으니 그럴 만도 하제.”

“용왕님도 무심한기라! 남편 데려갔으니 아들은 살피달라고 지극정성 빌고 또 빌었는데 이게 무신 날벼락이고!”

그 일 이후 할머니는 바다 쪽으로 머리를 누이지 않았다. 제 집처럼 드나들던 덕장에도 발을 꿇었다.

“이사 가자!”

한동안 골방에 틀어 박혀 두문불출하던 할머니가 방에서 나와 엄마에게 처음 한 말이었다. 마침 늦은 저녁을 먹고 있던 엄마와 오빠는 밥숟가락을 입에 넣은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은애는 할머니와 엄마의 표정을 번갈아가며 살폈다. 엄마는 당황스러운 듯 오빠의 눈치를 봤다.

할머니는 그 때 물랐다.

오빠가 해양고등학교로 진학하기로 했다는 걸. 원양어선을 타고 세

* 1952년 9월 발생한 태풍. 849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계 곳곳을 다니고 싶다는 오빠의 꿈을.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은석이..... 해양고등학교로 간답니다.”

“거기가 뭐 하는 데고?”

“원양어선을 타고 싶다 카네요.”

“.....”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안 된다! 죽어도 그래 못한다! 너거 아버지 어떻게 됐는지 벌써 잊었나! 인자 바다에는 얼썌거리지 마라는 용왕님 뜻인기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오빠가 손가락을 놓으며 일어섰다.

“할머니. 그거는 사고예요. 용왕님이니 뭐니 그런 미신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런 소리 마라. 니가 몰라서 칸테이. 너거 할아버지, 아버지 다 바다에 묻었데이. 니만은 그래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어멈도 잘 들어라. 우리는 이제 바다에서 살 목숨이 아닌기라. 퍼뜩 준비해라, 이사 갈 준비해라.”

할머니의 성화를 건디지 못한 오빠가 밖으로 뛰쳐나갔다. 돌아앉은 엄마의 울음소리에 은애도 그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러던 어느 날, 어판장 입구에 현수막이 걸렸다.

“동해안 풍어제.”

은애는 덕장에 일하고 있던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풍어제가 뭐야?”

“사고 없이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마을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야. 그러고 보니 10년만이구나. 너 두 살 때 마지막으로 풍어제를 봤으

니. 무당도 오고 악사도 오고 풍어제하면 마을이 시끌벅적하지.”

은애는 오랜만에 기분이 부풀어 올랐다. 할머니와 오빠 때문에 은애는 집에서 늘 마음을 졸이며 지냈다. 할머니도 단호했지만 오빠도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 고집이 황소고집이었는데 피는 못 속이나 보다. 박씨 집안 황소고집을 누가 꺾니?”

엄마는 벌써 마음의 결정을 한 듯했다.

“마음속에 바다가 그득한데 다른 일은 못하지. 암.”

오빠 학교까지 찾아가 담임선생님을 붙잡고 용왕님을 들먹인 할머니 때문에 또 한 번 집안이 발각 뒤집혔다. 좀처럼 눈물을 보이지 않던 오빠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정말로 가고 싶어요.”

“.....”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보냈을 겁니다.”

“.....”

옆에 앉아 있던 엄마가 거들었다.

“어머니, 은석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대를 이어 용왕님 보살핌을 받을 아이라고 하셨지요? 용왕님이 아버지 대신에 주신 보물이 라고 하셨지요? 은석이 눈을 보세요, 이미 마음속에 바다가 그득한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

할머니는 끝내 말이 없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오빠가 일어서며 말했다.

“뭐라고 하셔도 저는 갈 거예요. 죄송해요, 할머니.”

오빠가 돌아서 나가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찌렁찌렁 소리를 질렀다.

“안된다. 그래는 모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흙빛으로 변했다. 안절부절못하던 엄마가 할머니를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였다.

그 때였다.

“억!”

갑자기 뒷목을 잡으시던 할머니가 그 자리에 쓰러졌다. 화들짝 놀란 엄마가 할머니를 부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은애야, 119, 빨리!”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던 은애는 그제야 거실로 뛰어 나가 전화기를 들었다.

“여, 여보세요? 119죠? 여, 여기 구룡포리 79번인데요, 우리, 우리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요, 빨리! 아저씨, 빨리 와주세요! 빨리요, 빨리 와주세요!”

숨이 넘어 갈 듯 다급한 목소리로 은애는 빨리, 빨리란 연거푸 외쳤다.

“어머니! 눈 떠 보세요! 어머니!”

할머니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던 엄마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은애도 정신없이 할머니의 팔을 주물렀다.

멀리서 들리던 앰브란스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구조원 아저씨들이 뛰어 들어와 능숙하게 할머니를 앰브란스로 옮겼다. 요란한 앰브란스 소리처럼 은애의 마음도 내내 쿵쾅거렸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은애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엄마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았다.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앞으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엄마는 그제야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은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응급처치를 받은 할머니는 병실로 옮겨져 링겔을 맞고 누워 있었다.

“할머니!”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온 오빠가 병실로 들어섰다. 할머니를 이렇게 만든 오빠가 미워서 은애는 눈을 흘기며 앙칼지게 말했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고집만 안 피웠어도.....”

“그런 말하면 못 써, 박은애.”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식은 땀을 닦고 있던 엄마가 은애의 말을 잘랐다. 또 오빠 편을 드는 엄마 때문에 설움이 턱에 까지 차오른 은애가 막 울음을 터뜨리려는 찰라, 난데없이 오빠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어린 애처럼 울먹었다. 생각지 못한 상황에 어안이 병병해진 은애는 꿀꺽 울음을 삼켰다.

오빠의 울먹이는 모습 때문이었는지 엄마의 눈시울도 흠뻑 젖어 있었다. 은애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눈치를 살폈다. 원양어선 같은 거 안타깝다고, 오래오래 같이 있겠다고, 울먹이는 오빠의 목소리에 할머니의 눈가에 무언가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은애는 생뚱맞은 딸꾹질 때문에 간신히 숨을 참고 있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 전에 비나이다. 동해바다 용왕님이요, 서해바다 용왕님이요, 남해바다 용왕님이요, 북해바다 용왕님이요, 물 밑에는 황실용왕 물위에는 청실용왕, 청실 황실 용왕제를 지극 정성 드리오니.....”

용왕굿이 절정에 다 달았다. 무녀의 춤과 노랫소리에 귀가 멍할 정도

였다. 동그렇게 둘러앉은 악사들의 풍물연주도 과도소리처럼 시원했다.

남빛쾌자를 입은 무녀가 부채를 흔들며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부님네! 어부님네!”

“예!”

“용왕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예!”

굿당에 모여든 어부와 선주들이 무녀를 향해 합장을 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 전에 비나이다.....”

어부와 선주들이 무언가 써놓은 흰 종이를 제사상 뒤에 지화*로 장식한 넓은 나무판에 한 장씩 붙였다.

“선주 박OO, 어부 김OO.....”

그리고는 무녀를 향해 다시 합장을 했다.

“엄마, 저게 뭐하는 거야?”

은애는 마침 음식 나르는 일을 돕고 있던 엄마에게 물었다.

“저기 이름 써놓은 사람들 용왕님이 잘 기억했다가 보살펴 주세요, 그런 뜻이야.”

은애는 신기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서 나무판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 때였다.

‘어, 할머니?’

어부와 선주들 사이를 비집고 구부정한 할머니가 나무판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할머니가 나오실 리 없는데.....’

은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잠시 망설이던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아까 어부와 선주들이 붙이던 흰 종이었다. 눈이 휘둥그레진 은애가 사람들 사이를

* 오색종이로 만든 꽃

비집고 할머니 곁으로 다가섰다.

“손자 박은석, 손녀 박은애.”

‘할머니.....’

은애는 그만 말문이 막혀 그 자리에 꿈쩍도 않고 서있었다. 할머니는 우리 이름이 써진 종이를 두 손으로 쓸어내리며 지극정성으로 합장을 했다. 무녀의 노랫소리도 악사의 풍물연주도 점점 잦아들었다. 바다 쪽에서 때 아닌 돌개바람이 불어 왔다. 할머니의 옷자락이 무녀의 치맛자락처럼 한바탕 펄럭거렸다.

할머니의 풍어제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았다.



남편과 아들까지 모두 바다에서 잃어버리고 할머니는 이제 그 손자까지 바다로 내보내려고 한다. 그러니 두 손 모아 간절히 빌 수밖에.

바다에서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바다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리라.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끼며 할머니의 품어제가 오랫동안 계속 되기를 기도 해본다.

희곡·시나리오 부문



최우수상

청산도 _ 정재학

우수상

꿈꾸는 도서관 _ 김수만

장려상

외로운 외출 _ 박병두

새정읍사 _ 은종민



청 산 도



청 자: 아니어요. 명자가 오늘 물질하러 간대요.

김선생: (싫다는 듯) 아니, 명자씨가 뭐하러 그런 일까지 합니까?

성기사: 아따, 좋아하는 모양이제.

김선생: 그러니까, 명자 씨가 왜 날 좋아하느냐고요.

성기사: 그걸 몰라서 그러요? 사랑이란 것이 이유 따지고 하는 것인가?

영암 도포중

정 재 학



청 산 도

나오는 사람들

정선생(28세 교사)과 부모, 청자(20세 하숙집 딸), 광자와 명자(청자 친구들), 청자 어머니 박씨, 청자 아버지 곽씨, 성기사(한전 근무), 김선생(초등교사), 명자 부모님, 아이, 동네청년1,2,3

무대

중앙에 하숙집 대청마루 마당, 마루 오른쪽 왼쪽에 하숙방, 무대 왼편에 유채꽃밭 그 위로 갯바위가 있다. 막이 열리면 금방 물질을 마치고 온 듯, 해녀복을 입은 청자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해물을 손질하고 있다. 멀리서 기적소리가 들린다.

청 자 : (노래) ♪ ~ 바라보다 검게 타버린 검게 타버린 청산도아가씨~

정선생 등장. 가방과 짐보따리를 들고 있다.

정선생 : 아가씨, 여기가 하숙집 맞습니까.

청 자 : 예, 맞는데요. (정선생 얼굴을 찬찬히 바라본다. 속으로) 음마

야, 참 잘 생겼네. (얼른 얼굴을 고치고) 하숙 하러 오셨나요. 이리 들어 오세요.(만면에 웃음을 띠며 짐을 받고 안방을 향해 외친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안방 문이 열리고, 박씨 얼굴을 내민다.

박 씨 : 어서 오시우.

정선생 :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신세 지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청 자 : (독백으로) 옴마야, 예의도 바르셔라. 그리고 잘 부탁하는 거는 또 뭐래? 내가 먼저 잘 부탁드릴 판이구만.

정선생, 박씨 안내 받으며 왼쪽 방으로 들어간다. 청자, 신난 듯 전복을 찢어댄다.

청 자 : 아무래도 선생님 같지?(박씨에게) 어머니, 누구시데여?

박 씨 : 이번 중학교에 발령 받은 선생님이시란다. 왜 관심 있냐?

청 자 : 참말로 어머니는 못할 말이 없네. 아, 집에 온 손님 직업이 뭇인지 물어도 못 봐?

박 씨 : 그래그래, 온 성기사가 그렇게도 쫓아다녀도 모른 척 하더만.
(눈을 흘킨다.)

청 자 : (모른 척) 전복 있는데 술상 좀 볼까, 어머니?

박 씨 : 그래라.

이때 김선생, 성기사 입장.

성기사 : 손님 왔다고요?

박 씨 : 옴마, 언제 벌써 알았디야?

성기사 : 부두에서 하숙집 찾는다는 말 들었지요. (정선생 마루로 나온다)

정선생 : 처음 뵙겠습니다.

성기사, 김선생이랑 인사를 나누는 동안, 청자 옷을 곱게 갈아입고 술상을 들고 나온다. 그때 광자 명자 대문간에서 안을 훑쳐보며 가만가만 청자를 부른다.

광 자 : (다가온 청자에게 가만히) 애, 청자야. 누구야?

청 자 : 응, 이번에 온 중학교 선생님.

명 자 : 옴마야, 잘 생겼다야.

청 자 : (명자 머리를 쥐어박으며) 넌 네 꺼나 신경 쓰세요.

박 씨 : 누구 왔냐?

청 자 : 아니, 아니오. (명자, 광자 급히 퇴장)

이윽고 마루엔 술판이 벌어진다. 박씨도 합류한다.

김선생 : (성기사를 돌아보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하숙집 입소 기념 신
고식 합시다.

성기사 : 좋아 좋아.

정선생 : 신고식이요?

박 씨 : 이 집 전통이라우. 한번 잘 살아보자는 뜻으로 온 사람마다 한
다우.

정선생 :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성기사 :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구. 술 사고 노래하고 하면 되는 거유.
술이야 소주 댕병으로 몇 병 사면 되고, 안주야 지천으로 있으
니께. 자, 먼저 노래부텨 부르시오.

성기사 젓가락 장단을 맞추며 노래를 재촉한다. 박씨도 어깨춤을 춘다.
정선생, 마지못해 일어나 노래를 부른다. 제법 잘 부르는 솜씨다. 청자,
부엌에서 엿들으며 좋아서 입이 찢어진다. 밖에선 광자 명자가 와서 듣
는다. 노래 합창소리가 어울려지는 가운데, 바다에 나간 아버지 광씨가
돌아온다. 어깨엔 그물, 손엔 물고기 몇 마리가 들려있다. 광자 명자 뒤
에서 에헴 헛기침을 한다. 광자 명자 놀라서 도망간다. 마당으로 들어
서며

광 씨 : 웬 잔치판이디야?

청 자 : (얼른 나와 고기를 받으며) 중학교로 발령받은 선생님이 오늘
부터 우리 집에 하숙을 한대요.

광 씨 : 그러?

광씨를 발견하고 모두 자리에 일어선다.

정선생 : 잘 부탁드립니다.

광 씨 : (반갑게) 어따, 흰출한 청년이구마. 선생님이시라고?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는다.) 귀한 손님이 왔는데, 애 청자야!

청 자 : 예, 아부지.

광 씨 : 너, 시방 오늘 잡아온 감성돔 모두 다 썰어라. 한번 허리끈 풀
고 먹어 보자아.

박씨, 잔을 돌리는데 정선생에게 뭔가 은근한 표정이다. 박씨도 정선생 곁에 앉아 있다. 성기사 눈치를 채고

성기사 : 제기, 오늘부터 인물 잘난 놈 덕 좀 볼란가비네. (그러나 얼른 장단을 맞춘다.)

무대 마루 쪽이 점점 암전되면서 유채꽃밭이 밝아진다. 노래 소리만 자그마하게 들려오고 있다. 청자, 집쪽을 돌아보며 유채꽃밭으로 온다. 곧 광자 명자 등장.

명 자 : (좋아서 몸을 비비 꼬고 있는 청자에게) 청자야, 너 새로 온 정 선생이 마음에 드는 거냐?

청 자 : (배시시 웃으며) 응.

광 자 : 성기사는 어떻게 하고.

청 자 : 성기사야 광자 네 것 아니니?

명 자 : 난 김선생님이 좋아.

청 자 : 그래, 알았다 알았어.

광 자 : 잘 될까?

청 자 : 그야, 너네들 하기 나름이지.

광 자 : 청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잔 말이지?

셋이 쑥덕거린다. 이윽고 환하게 웃으며 하이파이브를 한다. 청자는 무대 오른쪽으로, 광자명자 무대 왼쪽으로 퇴장.

무대 밝아지면, 아침이다. 정선생이 수건을 두르고 마당으로 나온다.

청자, 부엌에서 나와 인사를 한다.

청 자 : 잘 주무셨어요, 선생님?

정선생 : 아, 네에.

이윽고 하숙집 사람들이 마당으로 모두 나온다. 가벼운 체조부터 세수
까지 각자 할 일을 하는 동안 마루에 아침 밥상이 차려진다. 아침 드시
라는 청자 목소리에 차례차례 밥상에 둘러앉는다. 말없이 밥을 먹는다.
속이 쓰린 듯 김선생이 배를 만진다.

김선생 : 아이고 나 죽겠네.

성기사 : 나도 눈에서 술이 뚝뚝 떨어지우.

김선생 : 근데, 정선생은 멀쩡허네?

성기사 : 노래 부르느라고 술 마실 시간이나 있었간디?

정선생, 빙그레 웃으며 밥을 먹는다. 청자 물그릇을 들고 와서 내려놓는다.

청 자 : 근디 김선생님, 혹시 오늘이 선생님 생일이 아닌가요?

김선생 : (화들짝 놀라며) 아니 그걸 어떻게?

성기사 : 생일이라니, 정말이오?

청 자 : 명자가 그러던디.

성기사 : 아니, 어떻게 알았디야.

곽 씨 : 그거사 학교로 알아보면 금방이제. 그까짓 것쯤이야.

박 씨 : 그럼 잔치 벌여야제. 뭐 좋아하신당가?

곽 씨 : 내 오늘 바다에 가면 ‘샐서방 피기’ 몽땅 걷어 올 것이여.

청 자 : 아니어요. 명자가 오늘 물질하러 간대요.

김선생 : (싫다는 듯) 아니, 명자씨가 뭐하러 그런 일까지 합니까?

성기사 : 아따, 좋아하는 모양이제.

김선생 : 그러니까, 명자 씨가 왜 날 좋아하느냐고요.

성기사 : 그걸 몰라서 그러요? 사랑이란 것이 이유 따지고 하는 것인가?

박 씨 : (겉에서 듣고 있다가) 아무렴, 그것이 그렇고 그런 것이제.

성기사 : (박씨 말에는 아랑곳없이) 청자씨, 안 그러요?

청 자 : 나요? (상 들고 나가면서) 나 그런 것 몰라요. 성씨 아저씨나 많이 아세요.

성기사 :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쉰다) 나이가 죄지.

김선생 : (같이 한숨을 쉬며) 총각이 죄지.

곽 씨 : 꼴값들 하네. 아, 어서들 출근이나 허겨. 난 오늘 문어 통발이 나 걷어 불라니까, 일찍들 오셔.(퇴장)

잠시 후, 정선생이 가방을 들고 출근한다. 청자 부엌문 앞에서 가만히 손을 흔들고, 이어 김선생 성기사 순으로 퇴장. 집에는 박씨하고 청자만 남아 있다. 광자 명자 해너복으로 등장.

광 자 : 애 청자야. 우리 물질하러 간다.

청 자 : 응 그래. 어서 갔다 와.

명 자 : 그동안 준비는 네가 다 해라이.

청 자 : 염려 마.

광자 명자 퇴장하자 명자네 부부가 들이닥친다. 그리곤 청자와 몇 마디 소곤거리고 희희낙락이다.

명자 아버지 : 아예 우리 집안 사위 삼아버린다 이거제?

청 자 : (손가락으로 입을 막으며) 쉬잇!

명자 어머니 : 고맙다, 청자야.

청 자 : 아따, 아주머니도 참. 그 대신 내 일도 잘 부탁해요.

명자네 부모 퇴장하고, 청자 부엌으로 들어간다. 이내 도마소리가 요란하다. 소리 요란한 가운데 김선생과 정선생이 퇴근하여 들어온다.

정선생 : 다녀왔습니다.

청 자 : (얼른 나와서 정선생 가방을 받아든다.) 어서 오세요.

김선생 : 내거는 안 받아 주나요.

청 자 : 받아줄 사람 따로 있대요, 김 선 생 님 ! (강조하듯이 또박또박 끊어서 말한다.) 하여튼 어서 씻기나 하세요.

김선생 정선생 마루에 앉고 성기사 들어온다. 성기사 손에 커다란 가오리가 들려 있다.

성기사 : 도락리 가는 길에 한 마리 얻어왔지. 하숙집 동지 생일인데, 그냥 말 수야 있나. (부엌, 박씨에게 건네준다.)

박 씨 : 제법 크네.

정선생, 가오리 크기에 놀래 입을 벌리고 있다.

정선생 : 저게 짐승이야, 물고기야?

김선생 : 저건 아무 것도 아니라우. 두께가 한 뼘도 넘는 것도 있어요.

사람 두 팔 벌린 것보다 더 크니까. 2미터도 더 넘지요.

꼭씨, 등장. 굉장한 물건을 메고 있다. 엄청난 크기의 문어다.

김선생 : 아저씨, 그것도 통발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꼭 씨 : 아냐, 이건 해녀들이 잡은 거야.

이윽고 광자, 명자 해녀복 차림으로 바구리를 이고 들어온다.

명 자 : 청자야, 고기 가져 왔다.

청자, 나와서 바구리를 본다.

청 자 : 이게 뭐야. 해삼 전복 이런 속 보인다 속보여. 전부 정력에
좋다는 것뿐이네.

광자, 명자 웃으면서 급히 퇴장. 무대, 어두워진다. 청자가 광자 명자를
부르는 소리에 맞춰 무대, 밝아진다. 마루에 술상을 둘러 하숙집 식구들
이 앉아있다. 광자, 명자 등장한다.

광 자 : 김선생님, 축하해요요.

명자, 선물을 내민다. 그리곤 히, 웃으며 청자 뒤에 숨는다. 청자, 얼른
명자를 김선생 옆으로 밀어댄다.

청 자 : 김선생님, 술 한 잔 받으세요.

드디어 노래가 쿵쾅거리고, 사람들은 모두 슬로우 모션으로 마시고 붓고 따르고 춤추고 하다가 술에 취해 김선생, 성기사 순으로 하나 둘 쓰러진다. 콕씨와 박씨는 안방으로 들어가고, 정선생도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간다. 청자와 명자, 광자만 남는다.

청 자 : 자, 시작하자. (명자를 돌아보며) 맘 크게 먹어라이.

명 자 : (고개만 끄덕끄덕 한다.)

셋이서 마루에 쓰러진 김선생을 들고 오른쪽 방으로 간다. 오른쪽 방에는 이부자리가 퍼져 있다. 명자를 남기고 둘은 나온다. 마루엔 쓰러져 자는 성기사만 있다. 광자, 성기사 볼에 뽀뽀한다.

광 자 : 안뇽, 내 서방님. 다음 차례는 당신이야용.

청 자 : 하이고, 가시내. 얼른 가자아! (광자를 끌고 나간다.)

잠시 후, 청자 광자가 명자네 부모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명자 어머니 : (들으란 듯이) 아이고, 청자야. 우리 명자 어디 있냐!

명자 아버지 : 명자야, 명자야!

안방문이 열리고, 박씨 콕씨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온다.

콕씨 박씨 : 뭘 일이어.

명자 아버지 : 우리 명자가 여기 있다는 게 사실이여? 대체 어느 놈 방에

있어,응?

청자, 김선생 방을 가리키면서

청 자 : 우린 몰라요.

광 자 : 알아도 몰라요.

명자 부모, 방문을 열어젖힌다. 불을 켜다. 명자, 김선생을 꼭 껴안고 누워있다. 김선생도 알몸이다.

명자 어머니 : 예그머니, 이게 무슨 꼴이야. (꼭 껴안고 있는 명자를 보고) 세상에나 우리 집안 망했네, 아이고.(주저앉는다.)

명자 아버지, 김선생을 발로 차서 깨운다. 김선생, 잠결에 두리번거리다가 알몸인 것을 확인하고 기겁을 하며 이불을 뒤집어쓴다. 명자도 같이 숨는다.

김선생 : (이불 속에서) 아, 어서 나가요. 아버지가 부르시잖아요.

명 자 : (같이 이불 속에서) 나 혼자 어떻게 나가요.

명자 아버지 : (열통이 터진다는 듯) 아, 어서 안 나와?

김선생과 명자, 고개만 내밀고 두리번거리다가 명자 아버지가 이불을 확 걷어버리자, 할 수 없이 알몸으로 꿇어앉는다. 명자 아버지 곱씨를 보며

명자 아버지 : 형님 내외분은 증인을 서 주시요.

곽씨 박씨 :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렴, 서고말고.

명자 아버지 : 이제 어쩔터, 영!

명자 어머니 : 내 딸 신세 조져부렀네.

김선생 : (정신없이 머리만 조아린다.)

명자 아버지 : 소위, 가르친다는 사람이... 말이여.(하면서 씩씩거리며 다그친다.) 아, 어쩔터!

박씨가, 가엾다는 듯이 혀를 찬다. 청자 광자, 돌아보며 웃음을 참는다. 이윽고 박씨가 나선다.

박 씨 : 사나이 대장부가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제.

명자 아버지 : (그래도 말이 없자 벌떡 일어선다.) 책임 못 질 거여?

김선생 : (씩씩 빌면서) 책임져야지요. 책임집니다.

청자 광자, 두 손 올리며 소리 없이 만세를 부른다. 잠시 후, 옷을 단정히 압은 두 사람을 앞에 두고, 명자 아버지 일장훈계를 하고 있다.

며칠 후 대낮, 청자 혼자 집에 있다. 명자가 들어온다. 싱글벙글이다.

청 자 : 신혼 재미 좋은가 보구나?

명 자 : 참엔 안 온다고 버티더니만, 인지는 나 없으면 못 산대.

청 자 : 하긴, 아저씨 아주머니가 오죽이나 잘 할까.

명 자 : 그 다음날 아버지가 억지로 데려오기를 잘 했제.

청 자 : (웃으며) 옷보따리 들고 줄랑줄랑 따라가던 모습 흰하다야. 근

디 그날 밤 허긴 했냐?

명 자 : (킁킁거리며) 그것도 술 취했더라야.

이때 광자 들어온다.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둘에게 샷대질을 한다.

광 자 : 난 어쩔 거여!

명 자 : 이 가시내 급하긴 급했구나.

광 자 : 아, 어쩔 거여. 나도 다 준비 됐ندی.

청 자 : 그러면 오늘 밤에 일 치룰까. 광자, 너 내가 시킨 대로 해라이.

머스매들 몇 준비 시켜 놓고. 알았제?

광자 명자 퇴장. 박씨 광씨가 들어오자 몇 마디 귀엣말로 일러준다. 광씨 박씨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나간다. 정선생이 들어온다. 청자 낚싯대를 들려주며 갯바위를 가리킨다. 정선생 유채발을 지나 갯바위로 가 낚싯대를 드리운다. 성기사 마침내 들어온다.

성기사 : 다녀왔습니다. 어? 근테, 다들 어디 갔나봐요.

청 자 : 아, 네에. 저 엄니 아버지는 초상 났는 데 갔구요. 정선생님은 낚시 갔어요. 저도 지금 초상집에 가려구요. 밥은 차려놴으니 드세요.

청자, 나간다. 성기사, 밥을 뜨는 등 마는 등 하다가 물리고, 방에 들어가 드러눕는다. 김선생이 가고 난 뒤라, 오른 쪽 방은 혼자 쓰고 있다. 빗소리가 들린다. 담배를 피다가 끄고 책을 본다.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광자가 등장한다. 두리번거리다가 불이 켜진 성기사 방문을 열고 들

어가 문고리를 잠근다. 비에 젖어 온몸이 드러나 보인다. 성기사 자리에 일어나 앉아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광 자 : (두려운 듯이) 저 좀 있게 해주세요, 제발.

성기사 : 뭐 일 있어요?

광 자 : 묻지 마시고 그냥 좀 있게 해 줘요.

성기사 : (가엾다는 듯) 그러지 말고, 이리 아랫목으로 와서 옷이나 말려요.

광 자 : 그래도 될까요.

하면서, 슬금슬금 성기사 곁에 앉는다. 성기사 몸을 피한다.

광 자 : 아, 추워라. (갑자기 손을 내밀어 성기사를 끌어안는다.) 따뜻해요, 우리 서방님.

성기사 : (기겁을 하면서 떼어놓으려 한다) 광자 씨. 이거 좀 봐요. 숨이 막혀요.

광자, 성기사를 쓰러뜨리고 올라탄다. 이때 청자 방문으로 다가가 도정을 살핀다. 이내 미소를 띠며 나간다. 곧 동네청년들이 들이닥친다.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있다. 성기사 방문을 발로 차며 소리소리 지른다.

동네청년1 : 문 열어, 이 잡것들.

동네청년2 : 광자 여기 있는 줄 다 알고 왔어. 문 열어 문!

동네청년3 : 성기사, 너 죽는다이 !

광자 끄떡도 않고 성기사를 누르면서 자기 치마를 찢고 있다. 성기사,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친다. 이윽고 문이 부서진다. 청년들, 방안으로 들어온다. 광자, 얼른 구석으로 피하면서 울먹인다. 성기사 멍하니, 영문을 모르고 앉아있다.

동네청년1 : (광자 찢어진 치마를 들어보며) 요것들 봐라?

동네청년2 : 하, 성기사 이놈아 광자하고 거시기 하고 있었던 것 아냐?

동네청년3 : 일어나, 임마.(하면서 성기사 멍살을 잡는다.)

성기사 : 살려주세요.

동네청년1 : 멋이여? 요놈의 새끼. 감히 청산도 처녀를 털도 안 뽑고 따 먹어?(몽둥이로 친다.)

광 자 : (울면서) 오빠, 허리는 치지 마요.

동네청년2 : 알았다. 거기만 빼고 반 작살 널란다.

성기사 비명을 지르면서 엎드린다. 어느새 청자와 광씨 내외, 들어와서 듣고 있다. 동네청년들 엎드려서 빌고 있는 성기사를 내려다본다.

동네청년2 : 하, 요것이 살고는 싶은 모양이네그라.

동네청년3 : 그냥 경찰서에 넘겨 버리지 그래. 어이, 배 엔진 걸게. 이놈 무시키 완도로 데려가서 경찰서에 넘기자고.

그때 광씨 내외와 청자, 황급히 들어온다. 성기사 광씨 내외를 보고 얼른 뒤에 숨는다.

광 씨 : 성기사, 이게 무슨 일인가.

성기사 : 나도 몰라요. 광자 씨가 살려주라면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

동네청년1 : (눈을 부라리며 몽둥이를 치켜든다.) 멋이여? 요노무시키가
바른 대로 말 안 해?

성기사, 다시 숨고, 박씨가 찢겨진 치마를 들어보며

박 씨 : 힘도 좋네 그러. (광자에게) 안 아프다?

광 자 : (흔겨보며) 아주머니도 참. 몰라유!

동네청년2 : 너 죽을래?

곽 씨 : 아, 그러지 말고. 우리 흥분을 가라앉히고 앉아서 차근차근 이야기 하세.

동네청년들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다. 몽둥이를 흔들면서 연신 협박이다.

곽 씨 : 어이, 성기사. 아무래도 자네가 일을 벌여도 크게 벌여 봤네 그러. 아, 생때 같은 처녀를 욕을 보였으니, 이제 그만 책임지소.

성기사 : (숨 넘어 가는 소리로) 난 억울하요.

동네청년들 : (일제히) 요것이, 콕!!!

성기사, 자라목처럼 움츠리고 있고, 광자는 혀를 낼름거리며 득의양양한 표정이다. 이윽고 무대 암전.

무대 밝아지면서, 박씨 푸념이 시작된다.

박 씨 : 남 좋은 일시키고 나니, 인자는 내 딸이 문제일세 그러. (부엌

에 대고) 청자야!

청 자 : 왜유, 어머니.

박 씨 : 너는 어떻게 할겨?

청 자 : 다 계산이 되어 있어유.

박 씨 : 정말?

청 자 : 하여튼 지켜만 봐유.

박씨 퇴장. 청자, 낚싯대를 챙긴다. 아이 한 명이 미끼를 가져다준다. 준비가 끝난 듯 청자가 채비를 둘러보며 미소를 짓는다. 정선생이 들어온다. 청자, 달려 나가 살갑게 맞이한다.

청 자 : 오늘이 물때가 아주 좋은 날이래유.

정선생 : 미끼는요?

청 자 : 그것도 준비 됐어요.

정선생 : 그럼 일찍 나갈까요.

정선생이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갯바위에 달이 밝는다. 청자 정선생 손을 잡고 유채밭을 지나 갯바위로 올라간다.

청 자 : 릴은 원투로 던져놓고요. 우린 장대로 찌뉘시 해요.

정선생 : 그러지요.

정선생이 릴을 던져 고정시킨다. 청자도 장대를 들고 있다. 고기를 마구 잡고 있다.

청 자 : 선생님, 조심하세요. 갯바위가 물먹으면 아주 미끄러워요. 밤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대요.

정선생, 릴을 놓고 와서 장대를 던진다. 역시 고기가 정신없이 문다.

정선생 : 와, 참돔이다.

청 자 : 저는 흑돔 잡았어요. 호호호!

이때 갑자기 릴이 울린다. 정선생 장대를 놓고 황급히 릴을 감는다. 그러나 아주 애를 쓰는 모양이다. 이때 명자, 광자 살금살금 정선생 뒤로 다가간다. 정신없이 릴을 감는 정선생을 살짝 밀어버린다. 정선생, 갯바위에서 요동치다가 요란한 비명을 울리며 바다로 빠져버린다. 명자, 광자, 청자에게 V자를 만들어 보이며 퇴장.

정선생 : 사람 살려요!

청자, 갯바위에서 훌렁훌렁 옷을 벗는다. 그리고 벗은 옷을 크게 돌리면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친다. 달빛에 하얀 알몸이 선명하다. 지나가는 배 발동소리가 들린다. 명자 아버지 배다. 배에서 비추는 서치라이트에 알몸으로 날뛰고 있는 청자가 잡힌다. 명자 아버지 어머니는 목소리가 들린다.

명자 아버지 : 저거, 청자 아녀?

명자 어머니 : 어서 가봅시다.

배가 다가온다.

명자 아버지 : 청자야! 너, 거기서 뭐하고 있냐?

청 자 : 사람이 빠졌어요.

명자 아버지 : 몇이여?

명자 어머니 : 대관절 빠진 사람이 누구여?

청 자 : (울면서) 정선생님이어요.

명자 아버지 : 정선생님?

청 자 : 네에, 어서 건져주세요.

명자 어머니 : 아, 저기 있네, 저기.

명자 아버지 : 어디? 아, 저기. 정선생님 조금만 기둘리소야. 곧 건져드릴 테니까.

잠시 후, 명자네 부모가 갯바위로 올라오고 정선생이 끌어올려진다. 청자, 얼른 가서 알몸으로 정선생을 감싸안는다. 그리고는 급히 인공호흡을 한다. 정선생, 꿀럭거리며 물을 토한다. 청자, 다시 감싸 안는다.

청 자 : (홀쩍거리며) 정선생님….

정선생 : (정신을 차리고, 청자의 알몸을 바라본다. 이윽고 사정을 깨달은 듯, 감격해 한다.) 나를 그토록 살리고 싶었나요?

청 자 : (고개를 끄덕이며) 네에 선생님. (정선생 품에 안긴다.)

광자, 명자 갯바위 밑에서 쾌재를 부른다. 명자네 부모도 박수를 친다. 청자, 정선생을 부축하고 나머지 모두 갯바위를 내려와 퇴장한다. 무대엔 달만 밝다. 암전.

무대, 다시 밝아지면서 기적소리가 들리고, 왼편으로 정선생이 부모님을 모시고 등장한다.

정선생어머니 : (걸음을 멈추며) 아 글썄, 내 귀한 자식 살리려고 애쓴 처자가 그래, 그때 알몸이었던 말이지?

정선생 : 네에. 그래야 알몸이 밤에는 잘 보이거든요.

정선생 아버지 : 얼마나 장한 일이나 말이여.

정선생 : 성정도 밝고 순수해요.

정선생 어머니 : 삼쳐년테 얼마나 순진하잖나.

유채밭 쪽으로 청자, 마중 나온다. 그리고 모시고 들어가서 정선생 부모님께 큰절을 올린다. 정선생 부모, 흐뭇하게 절을 받는다. 곁에서 청자 부모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 꼴을 보면서 명자, 광자는 입을 막고 웃고 있다. ‘흑산도 아가씨’ 노래 올리면서, 막이 내린다.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께 깊은 존경의 념(念) 보냅니다.

저는 영암도포중학교 교사이면서 시인정신작가회와 문인협회 소속 시인, 그리고 ptimes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동안 공무원 문예대전에서 제9회 수필부문 수상과 제10회 동화부문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번 희곡 부문 당선까지 해서, 전 문학 장르를 소화해 내었습니다.

한 사람의 문학인으로서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국어선생님으로서 시부터 수필, 소설, 희곡 그리고 아동문학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며 개인적인 영광일 것입니다.

그리고 청산도,

완도에서 쾌속정으로 40분 거리에 있는 섬입니다. 날 맑은 날이면 멀리 여서리가 보이고 그 뒤로 아득하게 한라산이 보인다는 섬입니다.

나는 그 섬에서 육지에서 잃었던 수많은 것들을 만났습니다. 관사 앞 문턱까지 다가오는 꽃땀이며 지네랑, 매봉산 앞 작은 야산에 진치고 있다가 사람이라도 올라치면 날아오르는 들까마귀까지.

몽돌이 끝없이 펼쳐진 바닷가에서 나는 바다가 우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깨곤 하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멀리 파도꽃이 피는 섬, 청산도. 서편제 촬영이 있었던 당리 마을길에는 지금도 봄이면 유채꽃이 피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섬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서 보았던 것들 중 가장 큰 달을 보았고, 가장 많은 별들을 만났지요. 어여쁜 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청산도엔 지금도 그 아이들이 남긴 발자욱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시절에 들었던 아름다운 세 편의 이야기만 남아, 이렇게 문학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 온몸을 벗고 갯바위를 뛰어다녔다는 하숙집아가씨, 소풍길에 술을 먹어서 잠재운 선생님 방에 예쁜 딸을 들여보낸 마을 이장님, 바다처럼 푸르며, 달빛처럼 빛깔 고운 사람들의 사랑이야기가 파도꽃과 함께 피어오르는 섬, 청산도.

추억과 더불어 최우수상으로 당선된 이 모든 행복을 청산도와 그 섬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과 바칩니다. 그리고 이번 문예대전을 준비하시는 동안 수고하신 행정안전부 여러분들과 심사위원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전)정독도서관

김 수 만

꿈꾸는 도서관

“에이, 겨우 책이잖아! 우릴 우롱하고 있군!”

“하루종일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는데 책 읽을 기운

이 어디 있습니까!”

“뽀마디마디마다 욕신거리 술이나 마시고 자야겠소.

책은 무슨 빌어먹을 책이란 말이요!

다들 들어가 잠이나 잡시다!



꿈꾸는 도서관

등장인물

관장 : (59세, 남)

사서 : (40세, 남)

여자 : (30세, 여)

노파 : (80세, 여)

수도국장 : (50세, 남)

관외대출실 안. 책상 앞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서. 벽 쪽 서가에는 책이 빼곡히 꽂혀있다. 책상 뒤편 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고, 옆문에 [달동네도서관 관외대출실] 팻말이 걸려있다. 전화 벨소리에 놀라 수화기를 받는 사서.

사 서 : 아, 여보세요. 내일 문 여냐고요? 내일은 국경일이라서 쉽니다. 책은 안 빌리고 공부만 하시겠다고요? 내일은 우리나라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팔일오 광복절이라서 모든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직원이 아침 일찍 열람실 문만 살짝 개방하고 퇴근하라고요? 죄송하지만 공부는 내일 하루 집에서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젠장! 도서관 사서를 독서실 총무로 착각들을 하고 있으니.....(파리채로 신경질 내며 파리를 잡는다)

문 두드리리는 소리 들린다.

사 서 : (파리채를 휘두르다가 멈춘다) 들어오십시오!

여 자 : (애교 있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사 서 : (놀란 듯이)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 자 : 옛날 여고시절 때 생각이 나서왔지요.

사 서 : 여고시절이요?

여 자 : 이 동네에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지나가다 들어와 봤지요. 책 구경 좀 해도 괜찮죠?

사 서 : (반색을 하며) 물론입죠! 이 동네 분께서 더군다나 미인이신 귀 부인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시다니 오히려 저희들이 영광입니다.

여 자 : (냉정하게) 전 아직 부인이 아닙니다.

사 서 : 아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여자 보는 안목이 없어서요. 오죽하면 제가 딸이 둘씩이나 딸린 줄도 모른 채 마누라와 결혼했겠습니까! 그 놈의 정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살긴 살지만, 한테 무슨 책을 원하시죠?

여 자 : 선생님께서 한 권 추천해주시겠어요?

사 서 : 한 권요?

여 자 : 네! 딱 한 권요!

사 서 : 세 권까지도 빌리실 수 있습니다.

여 자 :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무척 바쁘거든요.

사 서 : 그럼, 무슨 분야를 좋아하시나요?

여 자 : 다 있나요?

사 서 : 물론이죠! 도서관은 작지만 철학부터 종교,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 역사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여 자 : 아! 그럼 연애소설도 있겠군요?

사 서 : 그야 물론 있지요!

여 자 : (몸을 비꼬며 수줍어하며) 실은.....

사 서 :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연애소설도 엄연한 문학에 속하니깐요.

여 자 : 좀, 찐한 내용이라서.

사 서 : 아하! 짐작이 갑니다! 국내소설이지요?

여 자 : 아닌데요.

사 서 : 그러면 외국 ?

여 자 : 네!

사 서 : 그렇다면 그걸 말씀하시는군요?

여 자 : 그게 뭔데요?

사 서 : 여성편력으로 일생을 화려하게 풍미했던 카사노바! 맞지요?

여 자 : 아니, 그보다 더 노골적인.....

사 서 : (고민하며) 그래요?

여 자 : 제목이.....

사 서 : 제목이.....

여 자 : 소녀경이라구.....있나요?

사 서 : (당황하며) 예? 그 책은 지금 없는데...

여 자 : 있긴 있다는 건가요?

사 서 : 아하고 퇴폐적인 책 일수록 분실이 더 많아서.....

여 자 : 아, 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전 그 책이 더욱 빨리 보고 싶어지는
군요!

사 서 : 다른 책을 보시죠. 재미난 책이 많으니깐요.

여 자 : 다른 책은 필요 없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럼 시간이 바
빠서, 안녕히 계십시오.

사 서 : 잠깐!

문 열고 나가다가 멈추는 여자

사 서 : 정, 그 책이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전화 벨소리에 수화기를 받는 사서

사 서 : 여보세요! 내일은 우리나라가 노예생활에서 해방된 팔일오 광복절이라서 모든 관공서가 쉬는 날이니까 공부는 집에서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바빠서 이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하루 종일 전화통이 불 나는 군! 젠장! 죄송합니다.

여 자 : 조건이란 게 뭐죠?

사 서 : 부인께서 아니, 아가씨께서 저희 도서관에 평생 도서대출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사 하고요.

여 자 : 아니, 도서관에 책 한 권 빌리러 왔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고 무슨 평생회원까지 가입해야합니까. 차라리 돈 몇 푼 주고 길거리 책방에서 사는 편이 속편하겠어요. 도서관에 없는 책이라고 책방에도 없으란 법은 없지 않을 게 아녜요!

사 서 :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책장수들은 먹고 살기위해서 잘 팔리는 책을 팔 수 밖에 없죠. 물론, 그 소녀경 한권은 책방에 가면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목이 똑같은 책이라도 내용이나 활자체나 출판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랍니다. 더군다나 소녀경과 같이 유명한 번역의학서는 더 하답니다. 도서관은 장사꾼과 달라 국민들의 정신건강까

지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부실 정도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아가씨께서 쓰레기 하치장처럼 악취가 폴폴나는 책을 읽고 계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왕이면 내용이 야하더라도 예술 쪽에 가까운 출판사의 책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도서대출회원이 되시면 고전부터 최근의 베스트셀러까지 노후까지 마음껏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처음 가입 때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책을 빌려주는 저희 입장에서는 성함과 연락처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요.

여 자 : 그렇다면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사 서 : 네?

여 자 : 제가 원하는 책을 내일까지 구해놓으면 그때 회원에 가입하지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낸다) 제 전화번호예요.

사 서 : (시무룩한 목소리로 명함을 건네받으며) 그렇게 하시죠.

여자 문 열고 나간 뒤, 검은 안경에 새마을 모자를 쓴 관장 들어온다. 파리채를 휘두르다가 관장과 마주치자 경직된 사서.

관 장 : 김실장! 자네 돈 것 아냐?

사 서 : (경직된 자세로) 돌다뇨? 전 멀쩡합니다. 관장님!

관 장 : 멀쩡한 정신으로 그렇게 전화를 받나! (사서 목소리를 흉내 내며) 모든 관공서가 쉬는 날이니깐 공부는 집에서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바빠서 이만? 자네가 뭐가 바빠! 파리 잡는 일 때문에? 내가 미친다구! 이용자가 똥! 가도록 친절봉사, 친절봉사라고 얼마나 말했나! 당장 전화 받는 자세부터 고치게 알았나?

사 서 : 명심하겠습니다!

관 장 : 이번 달 신규 이용자는 몇 명인가?

사 서 : (업무일지를 한참 뒤적이다니) 딱 한 명인데요!

관 장 : (수심에 쌓여 한숨 쉬며) 지금 본청에서 이용자 실적을 보고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소. 이제 자네와 난 무능력한 공무원으로 낙인이 찍혀 변방으로 쫓겨날 신세가 되었소.

사 서 :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체 독서를 안 한다는 것은 윗분들도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독서 습관이 군대식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 장 : (용기 있게) 하루 아침에 하게!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내일도 출근이다!

사 서 : 관장님, 내일은 국경일이라서 쉬는 날인데요.....

관 장 : 도서관의 개관일과 휴관일은 관장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도서관법규도 모르나?

사 서 : 알긴 알지만....

관 장 : 내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규자 열 명을 가입시키시오! 고객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시키란 말이오! 알겠소?

사 서 : (큰소리로) 네, 알았습니다! 어둠속에 갇힌 국민들을 해방시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모자라면 제 마누라와 새끼들이라도 끌고 오겠습니다!

관장 퇴장하고, 사서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에 쌓여 실내를 빙글빙글 돌다가 전화기 번호를 돌린다.

사 서 : 남산도서관이지요? 여긴 달동네도서관 관외대출 실장입니다. 이용자 대출도서건인데요, 소녀경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오후에 찾아

뵙겠습니다!(전화 끊고 다시 다이얼 돌린다) 영자씨 계신가요? 지금 자리에 안계시다고요? 집에 언제 들어오시나요? 집이 아니구 술집이라구요? 책 구해놓았다고 말씀 좀 전해주시겠어요? 시립도서관 직원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전해주시겠대구요? 아, 목소리만큼이나 마음씨도 착하시군요. 내일도 도서관은 문을 여니까 꼭 좀 나오시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아가씨도 함께 나오시면 대환영하겠습니다. 책하고는 담을 쌓으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노 파 : (문 열고 들어와서) 주인장 계슈?

사 서 : 네, 제가 주인장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여긴 도서관입니다.

노 파 : 뭐라구?

사 서 : (큰소리로) 도서관이요! 젊은 사람들이 책 읽는 곳 말예요.

노 파 : 예끼! 이 사람아! 내가 도서관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무식쟁이 할망군 줄 알아! 책을 젊은 사람들만 읽으란 법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사 서 : 할머니 제가 한 말 죄송합니다! 근데 도서관엔 어떻게 오셨나요?

노 파 : 이런 바보 같은 양반 봤나! 도서관에 책 읽으러 왔지 자네와 소꿉놀이 하려고 온 줄 알아?

사 서 : 아이쿠! 죄송합니다! 그럼, 무슨 책을 보시려고요?

노 파 : 아주 기똥차게 재미난 만화책 있수?

사 서 : 만화책이요?

노 파 : 심심해서 내가 읽으려고. 왜?

사 서 : 죄송합니다만, 학습참고서와 만화책은 도서관 내규상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 파 : 이렇게 많은 책 중에 왜 만화책은 없다는 거요?

사 서 : 만화책은 대부분이 저질 축에 들어서요. 아마 십년 후 쯤이면 많이 구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노 파 : 바보 양반이 그때 내 무덤까지 배달해주시구려. 안녕히 계슈! 난, 일찍 들어가 반상회 갈 채비나 해야겠수!

사 서 :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반상회.....

전봇대 불빛이 켜지고, 달동네 골목이 나타난다. 쌀가게, 담배가게 나타난다. 양복을 입고 등에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사서가 더위에 지쳐 헉헉 거리면서 올라와 구멍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사 서 : (목소리만 들린다) 아주머니! 창자까지 얼얼한 하드 하나 주세요. (잠시 후) 오늘 반상회하는 집은 어디니까?

아주머니 : (목소리만 들린다) 요 골목 앞에서 해요.

사 서 : (목소리만 들린다) 반상회를 길거리에서 한다구요?

아주머니 : (목소리만 들린다) 무더운 여름밤에는 코딱지만 한 방보다 골목 마당에 명석을 깔아놓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시원해요.

빨간색 얼음과자(쭈쭈바)를 입에 물고 나오면서 손목시계를 보는 사서.

사 서 : 밤 열 한시가 넘었는데도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으니 도대체 이 동네 사람들은 다들 달나라로 집단 이주를 떠난 걸까 아니면 자정이 넘어야 나타나는 귀신들인가.

전봇대와 구멍가게 사이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퇴장하는 인부.

[달동네 사람들도 수돗물 마시면서 인간처럼 삽시다] 현수막 글씨가 보인다.

노 파 : 바보양반! 여기까지 웬일로 올라오셨수?

사 서 : (반색을 하며 할머니 손을 덥석 잡는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반갑습니다!

노 파 : 세상에서 이 늙은이를 반겨줄 사람이라곤 우리 집 강아지뿐이었는데, 바보양반이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반겨주니 눈물이 날 지경이구료.

사 서 : 할머니, 오늘 반상회 있는 거 맞나요?

노 파 : 맞아요.

사 서 : 사람들이 안보이네요?

노 파 : 일터에서 늦게 돌아오다 보니 반상회도 늦을 수밖에요. 그래 무슨 일로 오신 거유?

사 서 : 네, 반상회가 있다고 해서 도서관 이용 홍보하려고요.

노 파 : (현수막을 가리키며) 저것 보셨수?

사 서 : 네!

노 파 : 이 동네는 지대가 높아서 수돗물이 안 나와요. 일주일에 두 번 씩 식수차가 오지만 겨우 밥 짓고 세수할 정도지요.

오늘 반상회에 수도국 직원이 온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야단법석이라요. 저 사람 때문에 도서관 양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요.

사 서 : 괜찮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는 책보다 물이 더 시급하니까요.

노 파 : (걸음을 옮기면서) 그럼, 잘 설득해 보시구료.

사 서 : 반상회에 오신 게 아니예요?

노 파 : 오늘은 피곤해서 들어가야겠어. 적적해서 나왔는데, 늙은이가 뭘 알겠수!

사 서 : 할머니?

노 파 : (걸음을 멈추고) 왜 그러슈?

사 서 : 존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노 파 : 늙은이의 이름은 알아서 무엇하려고 그러우?

사 서 : 도탄 속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매우 송구스러운 말씀 이옵니다만 할머니가 먼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해주신다면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노 파 : 이 늙은이의 나이 이미 팔십인지라 쓸모없는 몸이지만 바보 선생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찌 사양을 하겠나이까. 내 성은 김이요, 이름은 간난이라우.

사 서 : 김간난씨!

노 파 : 호호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이름을 얼마 만에 들어보는지 모르겠구려.

사 서 : 혹시, 손자가 계신가요?

노 파 : 아들놈은 집을 나간 지 십년이 넘었는데도 소식 한 장 없고, 난 메리란 강아지와 단 둘이 산다우.

사 서 : 할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슬퍼지는군요. 손자가 있으면 도서관에 오라고 하렸더니.....(배낭에서 책 한권을 꺼내드리며) 할머니, 옛날 이야기 책이에요. 적적하실 때 읽으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제가 아드님을 대신해 반상회 때마다 들리겠습니다.

노 파 : 말만 들어도 고맙구려! 가장 반가운 건 늙은이 집에 손님이 찾아 오는 거라우! 다음에 오시면 수박 한통 시원하게 얼음에 재워 놓고 기다리리다. 부디 이 나라를 위해 좋은 일해주시구려!

사 서 : 감사합니다. 잘, 살펴서 올라가세요!

“우리들도 인간처럼 살아보자!” 라는 함성소리 들린다.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점점 가까워진다. 수도국 직원 전봇대 불빛 밑으로 등장한다.

수도국장 : (고개 숙여 인사한다) 달동네 주민 여러분!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밤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달동네 여러분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그 해결책을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고자 왔습니다.

“국장님 만세! 만세! 만세!” 함성소리 들린다. 수도국장 옆에 서있던 사서가 국장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다.

사 서 : 국장님! 전 달동네 도서관 사서직원인데요, 제가 먼저 도서관에 대해 홍보하면 안 될까요?

수도국장 : (갑자기 인상을 쓰며) 이 사람이 지금 누굴 보고하는 소리야! 어림없는 소리 마슈! (다시 미소 짓는 얼굴로 주민들을 향해) 사랑하는 달동네 주민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식수난에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숙원사업인 상수도관을 수원지와 직통으로 연결하여 밤이고 낮이고 풍족하게 쓸 수 있는 동네를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만세! 만세! 만세!” 함성소리 들린다.

수도국장 : 그러나 그 사업의 성공을 방해하는 난관이 하나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게 뭐니까?”, “그게 뭐란 말입니까?” 라는 사람들의 목소리 들린다.

수도국장 : 모든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계속 집권여당을 뽑아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보다 몇 배 더 윤택해 질 것입니다. 그동안 달동네 여러분들은 물을 평평 쓸 수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대우를 당하고도 묵묵히 일만 해왔습니다. 저희 수도국에서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무더운 여름철 생수 값이라도 하시라는 의미에서 작은 선물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수도국장이 양복 주머니 안에서 돈 봉투를 꺼내 뿌리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아수라장이 된다.

사 서 :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요?

수도국장 : 무슨 짓이라니! 이 사람이 누구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거야!

사 서 : 아하! 무척 높은 위치에 계시다고 보이는 게 없으신가보군! 내 비록 직급 상으로는 당신의 출개일지 망정 하는 행동을 옆에서 보아하니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구료!

수도국장 : 이 사람이 미쳤군!

사 서 : 당신의 지금 행동은 매국노나 다름이 없어!

수도국장 :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경계하는 눈초리로) 닥치지 못해! (사서의 먹살을 잡고 속삭이듯)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줄거야!

사 서 : 누굴 죽인다는 거요! 광복절 이브 날을 기념해 할복자살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부정부패의 온상이자 썩어빠진 개빠다귀를 여기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사서와 수도국장 몸을 붙잡고 엉켜 싸우다가 바닥에 튕군다.

사서가 수도국장의 배위에 올라앉아 얼굴을 힘껏 갈기자, 수도국장 축 늘어진다. 흐르는 코피를 손으로 닦으면서 비틀거리고 일어나는 사서.

사 서 : 달동네 주민 여러분! 이런 수치스런 꼴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밤에 여러분에게 드릴 아주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배낭에서 책을 꺼내 손으로 높이 들어 보인 뒤 나눠준다)

“에이, 겨우 책이잖아! 우릴 우롱하고 있군!” “하루종일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는데 책 읽을 기운이 어디 있습니까!” “뼈마디마디마다 육신거려 술이나 마시고 자야겠소. 책은 무슨 빌어먹을 책이란 말이요! 다들 들어가 잠이나 잡시다!”

수도국장 정신 차리고 일어나 줄행랑친다.

책을 사서에게 던지고 사람들 떠나간다. 흩어진 책을 배낭에 넣는 사서. 멀리서 여자의 노랫소리〈임을 위한 행진곡〉 들려온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싸움은 용감했어도 깃발은 찢어져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여 자 : (술에 취해 노래하며, 골목어귀에 비틀거리며 나타난다) 어디서 본 듯한 사넬데? 그렇지만 길거리에서 폐지나 줍는 녀마주이가 우리 술집 손님일리는 없겠고..... 오밤중에 고생이 많군. 아! 불쌍도 하지! 여보세요! 우리 집에 가서 한잔하실래요?

사 서 : (책을 배낭에 넣다가 여자를 보고) 안녕하세요, 아가씨!

여 자 : 아찌! 나 알아?

사 서 : 달동네 사서입니다.

여 자 : 아하, 이제 생각이 나는군!

사 서 : 주문하신 책 여기 있습니다! (배낭 속을 뒤져 책을 꺼내 보이며) 소녀경 맞죠?

여 자 : (책을 받아들며) 어디 사세요?

사 서 : 전 이 동네 안 살아요. 도서관 홍보하러 온 거예요.

여 자 : 도서관 홍보요?

사 서 : 네! 이 자리에서요.

여 자 : 흥! 쥐새끼 한 마리 없는 이 시간에 착한 건지 바보인지 모르겠군. 바보 아찌,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러야 잠을 설치고 들을 것 아녜요. (사서에게 손 흔들며 비틀거리고 노래하면서 퇴장한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싸움은 용감했어도 깃발은 찢어져,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사 서 :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며 크게 기뻐한다) 그래! 도서관 꿈을 꾸게 만드는 거야! (흐트러진 복장을 바로 잡은 후, 목청을 높여) 친애하는 달동네 주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요 밑에 달동네 도서관에서 홍보하러 나온 사서직원입니다.

먼저 밤늦게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말만은 꼭하고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도서관 우리 인류의 문화유산과 위인들의 위대한 진리가 숨 쉬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모두들 어렵고 힘들시죠!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 하지 마시고 용기를 갖으십시오.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동네에 도서관이 있어 축복 받은 분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역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자들입니다.

밤늦도록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만 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전날 적어두었던 매혹적인 요리책을 생각하시면 언젠가는 세계최고의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에도 산더미 같은 지식정보가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필요한 것이 마실 물인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 또한 교육입니다. 도서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입니다.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자도서와 시청각 자료가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장 일로 시간이 없으신 분은 저희 직원이 자장면 배달 만큼이나 신속하게 안방까지 갖다드립니다. 도서관 문은 아침 여섯시에 열고 밤 열시에 닫습니다.

저 밤하늘의 초롱초롱한 별처럼(하늘을 가리키며) 빛나는 우리의 아들 딸에게 가난과 무지의 족쇄를 대물림 하시겠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받았던 굴욕과 수모를 또 반복하시렵니까! 술에 쫓아 허우적거리고, 똥구멍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한평생 한탄만하다가 비참하게 죽으실 작정을 하셨습니까! 정 그러시다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도서관에 와 주십시오. (울먹이며 호소하듯) 책 속에는 꿈이

있습니다! 책 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의 미래는 여러분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아름다운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내일 도서관으로 달려오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전봇대 불 서서히 꺼진다)

관외대출 안. 책상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서.
콧구멍에 숨을 끼고, 이마에 반창고가 붙어있다. 관장 짐 가방 들고 문 열고 들어온다.

관 장 : 어제 밤엔 정말 치열한 전투였나 보군!

사 서 : (잠에서 벌떡 일어나) 죄송합니다! (관장이 들고 있는 가방을 보며) 현대, 관장님! 그 짐은 뭘니까?

관 장 : 이제 떠나려고!

사 서 : 간신같은 수도국장놈이 고위층에 일러바쳤군요! 저도 사직서를 쓰겠습니다.

관 장 :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네. 어차피 나는 내년이면 정년이라 떠날 몸이지만, 자네는 아직 처자식을 먹여살려야 할 나이가 아닌가. 나는 자네 같은 용감한 부하직원이 있어서 자랑스럽다네!

사 서 : 별말씀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실적이 없는 걸 뭐합니까.

관 장 : 으하하하! 그래도 어제 밤엔 실적이 있지 않았던가!

사 서 : 겨우, 한명인 걸요. 그것도 팔순 된 할머니였고요.

관 장 : 한명이면 어떤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격언이 있지 않은가! 김실장, 그동안 마음고생만 시켜 미안하네.(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그럼, 도서관 잘 부탁하오! 잘 있으시오!

사 서 : (울먹이며) 관장님, 부디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들려온다.

관 장 : (문 열고 나가려던 관장 발을 멈추고 사서를 쳐다보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사 서 : 글썄요?

점점 크게 들려오는 소리. 조심스럽게 걸어가 문밖을 내다보는 사서. 깜짝 놀라 뒤돌아서서 눈을 크게 뜨고 관장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서.

관 장 : 무슨 일인가?

사 서 : 사람들이 도서관으로 구름떼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관 장 : 뭐?

사 서 : 할머니가 선두에 서서 오고, 그 뒤를 따라 술집여자가 오고 있습니다. 동네사람들과 아이들이 일개 대대 병력 쯤 되는 것 같습니다!

관 장 : 김실장!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거요?

사 서 : 글썄요, 저도 도무지 꿈인지 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꼬집어본다. 점점 가까이 들리는 함성소리.



나는 날마다, 가난과 무지에 힘겨웠던 우리의 60,70년대의 삶을 회상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뛰노는 아프리카의 도서관을 꿈꾼다. 그리고 아름다운 대자연 속으로 모험을 떠나는 오늘 밤도 흥분에 젖는다.

외로운 외출

복자: “참 잘한 일이다. 남 순경님은 사람이 원래 착하잖아요.”

복식: “착하긴, 미친 자식이야.”

복자: “미치긴 왜 미쳤어요? 한 가정이 파괴되는 걸 막았는데, 표창장을 줘야지요. 당신도 그런 면은 배워야 해요.”

수원 서부경찰서

박 병 두



외로운 외출

등장인물

- | | |
|---------------------|--------------------|
| * 남도영 | * 이영애의 아들(7세) |
| * 오복식 | * 이영애의 아들(5세) |
| * 임영란(26세) | * 서창수(30대, 경희의 동창) |
| * 김경희(남도영의 아내) | * 아파트경비원(60대) |
| * 경희의 어머니(60대) | * 서무주임(40대) |
| * 최복자(복식의 아내) | * 검찰청서기(40대) |
| * 순경(순찰차 운전수) | * 인사위원1,2,3,4,5 |
| * 어머니(남도영의) | * 동네사람1,2,3,4,5. |
| * 임영애(33세) | * 신문기자1,2,3,4,5. |
| * 김만석(임영애의 남편, 42세) | * 행상1,2,3,4,5 |
| * 양기문(40대) | * 순경1,2,3,4,5 |
| * 파출소장(50대) | * 버스운전사1,2,3. |
| * 소장부인(50대) | * 합창단원1,2,3,4,5,6. |
| * 파출소 차석(40대) | * 전경1,2,3 |
| * 꺾다리(30대) | * 그 밖의 여러 사람들 |
| * 땅달보(30대) | |
| * 웨이터(20대) | |

S#1.타이틀 백.

맑고 새파란 초가을 하늘에 뭉게구름 한 덩이가 떠간다.

카메라 내려오면, 경찰순찰차가 일반 차들과 나란히 같이 시가지를 달린다. 순경이 운전하는 옆 좌석에 경위 계급장을 단 남도영이 쓸쓸한 얼굴로 바깥을 내다본다. 그 시선으로, 빌딩 숲이 지나간다. 한가한 상점들, 나쁜 주택가도 지나간다. 풍성한 잎사귀들이 흔들거리는 가로수들이 지나간다.

타이틀백이 끝난다.

순 경 : (운전수)소장님!

도 영 : 응?

순 경 : 심경이 착잡하신가 봐요?

도 영 : 그렇게 봐나?

순 경 : 네. 소장님도 초임 순경 때 우리 두리파출소에서 근무하셨다면 서요?

도 영 : 근무했었지. 18년 전에.

순 경 : 도경 공보관실에 계시다가, 지원하신 게 아니라

도 영 : 무슨 소리야?

순 경 : 그저 우연히 발령을 받으셨나 봐요? 그렇지요?

도 영 : 글썸. 우연히, 라..... 우연히.....

혼자소리로 말을 반복하고 있는 도영이를 어리둥절한 눈으로 순경은 바라보고만 있다.

두리파출소 앞에서 차가 멎었다.

운전사가 내려 앞문을 열면 도영이가 내린다.

차는 한쪽 구석진 곳으로 가서 후진, 전진을 하며 자리를 잡고 정차한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현판이 파출소 지붕 앞에 붙어 있다.
현판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도영의 눈이 흐릿해진다.
이윽고 그의 눈이 젖기 시작한다. 그 얼굴, CLOSE UP.

도 영(혼자소리) : 우연히....., 우연이라.....

F.O

S#2. 두리파출소 전경.

진눈깨비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 파출소 건물이 희미한 형체만 보일 정도로 진눈깨비는 무지막지하게 퍼붓고 있다.

그 위로 자막, 1990년 12월.

한쪽 구석에(1신에서 순찰차가 정차한 자리) 눈을 뒤집어 쓴 순찰 오토바이가 서 있다.

민중의 지팡이(1신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의 자리), 현판이 보인다.
카메라 내려와 서서히 다가서면, 유리창에 슬픈 얼굴을 한 남도영 순경의 얼굴이 실루엣처럼 어른거린다. 내리는 진눈깨비가 안의 온기로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금세 물방울이 되어 흘러 내린다. 어디선가 낮은 소리로 크리스마스 캐럴, 징글 벨이 울린다. 점차 슬픔으로 얼굴이 더욱 일그러지는 남도영 순경이다.

도 영(소리) : 그 주름진 손 한번 변변히 잡아드리지 못하고 고향 떠나

던 날. 하늘이 대신 진눈깨비로 울어주었네.

S#3. 인서트. 시골집 앞(낮)

역시 진눈깨비가 형편없이 쏟아지고 있다.

사복차림의 남도영과 어머니가 집 앞에서 작별을 한다.

자막, 3년 전.

어머니는 왼쪽 가슴을 한손으로 쓸어안고 잔기침을 한다.

자그마한 보파리를 어머니가 건네면, 두 손으로 남도영이 받는다.

어머니 : 삶은 계란이야. 가다가 먹어.

도 영 : 어머니.

어머니 :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니 이제 에미 걱정하지 마라. 하루 세 끼밥은 꼭꼭 챙겨 먹고.

어머니는 들고 있던 비닐우산을 도영의 손에 쥐여 준다.

어머니 : 어서 가. 차 시간 늦을라.

도 영 : 어머니.

어머니는 연신 빨리 가라고 손짓을 한다.

도영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가다가 뒤돌아보고 또 가다가 뒤돌아 본다. 진눈깨비에 묻혀 도영이 보이지 않자, 어머니는 기침을 심하게 하며 사립문을 잡고 휘청거린다.

진눈깨비는 사정없이 내린다.

S#4. 파출소 안(낮)

도영이는 여전히 진눈깨비가 쏟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징글벨 소리 여전히 들린다.

한쪽에선 무전기 소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울린다.

카메라, PAN하면.

활활 타고 있는 대형석유난로 옆에서 오복식순경이 권총을 분해하여 손을 보고 있다. 총의 부속들을 형짚으로 닦고 문지르면서 힐끗거리며 도영이 쪽을 본다.

벽에 걸린 시계는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다. 그 아래로 순경1이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다.

대기벤치에는 파라다이스 웨이터가 쭈그린 채 잠이 들어 있다.

카메라, 도영이 옆에서 벗어나면.

도 영(소리) : 첫 월급 타서 내의 사드린다는 약속 미처 지키지 못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런 상여 옷 한 벌 해드렸네. 깃털처럼 가벼워진 어머니 찬 땅에 누이고 돌아오니 하늘이 먼저 아시고 흰 이불 덮어주셨네.

도영이 눈에서 이윽고 눈물이 떨어진다.

허리를 숙이고 도영이는 손으로 눈물을 훔친다.

난로 곁의 오복식순경은 징글 벨을 흥얼거리며, 권총조립을 다 끝냈다.

형짚으로 권총을 닦은 후 철거덕, 하고 장전을 하다가, 힐끗, 도영에게 시선을 주며 보다가 머리를 내흔든다.

오복식은 권총을 옆구리의 권총집에 넣은 후 도영에게 다가선다.

복 식 : 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을 했냐? 이제 삼년이 돼가. 언제까지 그렇게 찢찢찢찢거야?

도 영 : 상관 마.

도영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을 훔치고 코를 킁다.

복 식 : 정말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다.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대기벤치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는 웨이터가 코를 곤다.

오복식이 대기벤치 앞으로 다가선다.

복 식 : 이 자식 봐라? 어휴, 술 냄새야. 야! 보이, 보이!

오복식이 느닷없이 웨이터의 볼기짝을 손바닥으로 거세게 내려친다.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나 앉는 웨이터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쳐다본다.

웨이터 :그게 말이지요, 꺾다리하고 땅달보가요, 어저께 우리 집에 왔는데요. 그 치들이 하는 소리가요.....아이고 머리아

복 식 : 이 자식이 아무래도 뭐가 잘못됐어. 아침부터 꺾다리가 어찌고, 땅달보가 어찌고 횡설수설하더니. 계속 그 소리야. 너 아직 술이 덜 깬냐?

웨이터 : 아네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복 식 : 야, 여기가 술집 보이들을 재워주는 무료합숙소인 줄 아냐?

웨이터 : 보이랴뇨, 아저씨?

복 식 : 그럼 뭐야?

웨이터 : 전 말예요, 파라다이스의 웨이터 보조예요.

웨이터는 기분이 상했는지 툭툭거리며 일어나 신발을 신는다.

복 식 : 보조나 보이냐 그게 그거지 뭐, 자식아

웨이터 : 아저씨는 아주 무식해요. 순 깡패 같고.

복 식 : 이 자식이!

웨이터의 먹살을 잡아 쳐들고 자기 등판에다 올려놓은 오복식은 금세 땅바닥에다 내던질 기세였다.

웨이터 : 아이고, 아저씨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남도영이가 뜯어 말렸다.

오복식의 등에서 내려진 웨이터가 제 목을 어루만지며 숨을 몰아쉬었다.

도 영 : 아까 한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다시 한 번 해봐.

웨이터 : 그게요....., 가끔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인데요, 하나는 마르고 키가 경충 커요. 또 한 손님은 작고 옆으로 많이 퍼졌어요. 그 둘이서 하는 소리가요..... 오늘..... 에이, 그만 둘래요. 영업시간이 돼서 난 이만 갑니다.

웨이터는 오복식을 한번 쏘아본 후 줄행랑을 쳐버렸다.

복 식 : 저 자식을 그냥!

쫓아나가려는 오복식의 팔을 남도영이 붙잡는다.

도 영 : 뭔가 좀 이상한 감이 잡히는 소리 같은데.

도영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복 식 : 정신 나간 새끼의 소리야. 그 자식, 참

도 영 : 그러다 애 팔이라도 부러지면 어찌려고 그래? 남의 팔을 부러 뜨리고 전경대에서 여기로 날라 왔으면 뭔가 반성을 해야지. 또 사고를 치면 이제 어디로 날라 갈 거야?

복 식 : 데모 진압하다 생긴 사고를 또 들먹거려? 그게 어디 저런 놈을 다루는 것 하고 같냐?

도 영 : 조심하란 말이야.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이 말이다. 언제까지 애들처럼 그럴 거야?

복 식 : 어쭙.

도 영 : 왜? 틀린 말 했냐?

복 식 : 곧장 양깎음 일세.

오복식이 큰 소리를 내며 웃었다.

남도영 역시 소리 없이 미소로 답했다.

한바탕 웃어대던 오복식의 웃음이 그치자 주변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순 경1 : 두 분이 대학동창이라면서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서로 아

응 다웅 했어요?

북 식 : 아냐. 재는 태권도학과고, 나는 오테치기학과라, 저런 애들이 어디 우리 근처에 얼씬거릴 수 있었겠나.

남도영은 그냥 웃어 보이기만 한다.

북 식 : 그때가 좋았지. 금메달 하나를 목에 걸려고 참 운동 열심히 했는데. 쇠푼이 뭘지. 가난 때문에 중도에서, 재나 나나 군대에 가는 걸로 종쳤거든. 순사가 돼서 저런 애를 이런데서 다시 만날 줄을 누가 알았겠나?

오복식이 다시 시니컬하게 웃었고, 웃음이 끝나자, 주변이 흐르는 침묵으로 적막감마저 자아냈다.

바깥은 여전히 진눈깨비가 쏟아졌고, 실내에서는 석유난로가 쉬익쉬익 소리를 내면서 불길을 솟구치고 있었다.

당직 순경1의 곁에 있는 무전기에서 가느다랗게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린다.

무전기(소리)금일 날 때는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각종 풀밭이 줄줄이 술생하고, 청소년 범죄와 둘 강, 둘도 및 둘 폭 논밭이 술생 할 우려가 아주 크므로, 전 신사들은 방찰사오에 만전을 기해, 연일 꽃잎 노소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특히 풀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범죄 술생치 않도록 울안 방찰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람.....

오복식이 순경1의 곁으로 다가간다.

복 식 : 그런데 순찰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이 바닥의 도둑놈들을 모두 잡아들일 작정이냐?

순 경1 : (시계를 쳐다보며)이제 교대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오복식은 심심한지, 가운데 빈 파출소장의 의자를 흔들어본다.

복 식 : 소장은 회의 들어가서 함흥차사고. 이놈의 파출소는 마땅한 구석이라곤 한군데도 없어.

순 경1 : (웃으며)소장님은 오늘 안 들어오실 거예요. 회의 끝나고 망년회 겸해서 서(署)의 간부들과 회식이 있답니다. 곧장 집으로 가시겠다고 했어요.

오복식은 난로 곁에 앉으며, 두 팔을 벌리고 기지개를 키며 하품을 한다.

복 식 : 날씨도 참 개쫓갈네. 그냥, 따뜻한 구들에 앉아 예쁜 아가씨 끼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걸쳤으면 딱 좋겠다.

남도영이가 결재서류를 소장의 책상 위에 놓으며 뒤돌아본다.

도 영 : 그야 어려운 일 아니잖아. 퇴근해서 곧장 제수씨한테 가면, 삼겹살에 소주가 가득 쌓여 있을 텐데. 거기다 제수씨가 얼마나 사근사근하게 잘해주나?

복 식 : 야, 우리 마누라 애긴 꺼내지도 말아라. 파출부를 다니다가 해

장국집을 하나 차리더니, 남편은 아예 뒷전이야. 삼겹살이 뭐야? 소주 한잔 못 마시게 해. 나원 참.

도영이 복식의 뱃살을 움켜쥐며 혼든다.

도 영 : 이 삼겹살 때문에 그럴거다. 거기다 혈압이 높다면서?

복 식 : 지아비는 자고로 하늘이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하늘이 먹고 싶고 마시고 싶다면 불문곡직하고 대령해야지. 무슨 당치 않은 핑계야.

복식은 자기 뱃가죽을 잡고 혼드는 도영이의 팔을 뿌리쳤고, 그 겨를에 밀린 도영은 전화기 곁에 선다. 그때, 전화기 벨이 울린다.

순경1이 전화를 받으려고 일어섰으나, 도영이 먼저 송수화기를 든다.

도 영 : 두리파출소, 남도영 순경입니다. 예에?.....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인명 피해는 없는가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셔야지요..... 이 인조군요. 거기 어디세요? 번지요.....백이십칠의 이십이호 이층. 네, 곧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하는 사이 어느 틈에 오복식이 곁에 와 서 있다.

복 식 : 뭐야? 도둑놈?

도 영 : 강도

복 식 : 하야! 난리가 났구먼. 어쩐지 기분이 찼찼하더니만.

두 사람은 벽에 붙은 관할구역 지도 앞에서 선다.

복 식 : 백이십칠, 이라

도 영 : 이십이호, 여기, 다세대주택이야.

복 식 : 집들이 다닥다닥 붙었네

도 영 : 가만, 얼마 전에 한번 출동했던 집이잖아? 주정뱅이 버스기사
가 세간살이를 모두 두들겨 부시고, 소리를 내지르면서 난리를 부렸던
집, 기억 안나?

복 식 : 그 집이군. 좇같이 생긴 새끼가 성질머리 한번 더럽더군.

도영은 뒤에 있는 창고로 가서 우비 두 벌을 가지고 나온다.

복식은 권총에 실탄을 장전한다.

우비 한 벌은 복식이 앞에 던진 후 한 벌은 입는다.

복식은 서부활극에 나오는 총잡이가 하듯이 총을 뺏다가 넣었다 한다.

도 영 : 뭐 하는 거야?

복 식 : 강도를 잡아야지.

도 영 : 강도가 아직도 널 기다리고 있겠냐? 빨리 움직여!

도영이 앞서 나간다.

마지못해 우비를 주워 들고 뒤따라 나간다.

S# 5. 도로(낮)

진눈깨비는 걷히고, 얇은 눈송이가 간간히 내린다.

도영이 운전하고 복식이 뒤에 탄 순찰오토바이가 질주한다.

복 식 : 고물 순찰차 하나 있는 거, 아침부터 안 뵈던데, 어딜 갔나?

도 영 : 차석이 공무로 끌고 나갔나봐.

복 식 : 빌어먹을! 밤낮 애새끼들처럼 두발짜리를 타고 다녀야 하나?

이거 사람 체신이 말이 아니다.

도 영 : 내 년쯤엔 파출소마다 순찰차를 한 대씩 더 사준다잖아.

S# 6. 주택가 골목길(낮)

도로와는 달리 골목길은 내린 진눈깨비로 바닥이 질척거린다.

두 사람이 탄 오토바이가 비칠거리며 천천히 간다. 앞서 가는 사람을 피해 가려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한다.

복 식 : 야, 운전 좀 똑 바로 잘 해라. 강도를 잡으러 가다가 순사를 잡겠다.

도 영 : 내 허리가 부러지겠다. 좀 느슨하게 잡아라.

오토바이는 그런대로 속력을 내며 골목길을 달린다.

복 식 : 사이렌을 울려!

도 영 : 동네가 시끄럽잖아.

복 식 : 나리들이 납시는데 동네에다 알려야지. 사이렌을 틀라고!

할 수없이 도영이 버튼을 돌리면, 요란한 사이렌소리가 난다.

사이렌을 울리며 오토바이는 미끄러지고 뒤틀리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달린다.

도 영(소리) : 빈 거리에 바람 불고 어디론가 끝없이 사람들 날려가네

허수아비처럼 잿빛 건물과 건물 사이 어두운 자리마다 신음소리 흘러
가네 구정물처럼 오늘은 어느 길 잃은 새가 또 비에 젖는가?

S# 7. 다세대주택 앞

주민들 대여섯 명이 서서 구경한다. 우비를 걸친 도영이 앞서서 층계를
오른다. 뒤따르는 복식이 노련한 수사관처럼 눈을 번득이며 사방을 살
피고 난간을 손으로 쳐보기도 한다.

S#8. 집안(거실).

대략 30평정도 되는 실내.

일반 가정의 거실과 비슷하나, 벽 쪽으로 소파가 어긋나 뒤집어져 있고,
창 쪽으로 쓰러지고 깨진 화분 대여섯 개가 멋대로 널브러져 있다.

그 곁으로 빈 맥주병 너댓개가 쓰러져 있고, 화분에서 흘러내린 필터
부분이 노란 색깔의 담배꽁초가 널려 있는 것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두 사람, 들어서면서 이곳저곳을 살피며 두리번거린다. 복식은 벽을 손
으로 두들겨보고 신발장을 열어본다. 30대 중반의 여자가 방에서 나온다.

도 영 : 신고를 받고 파출소에서 나왔습니다.

주 민1 : 어서 오세요. 전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 제가 신고를 했어요.

도 영 : 인명 피해는 없지요?

주 민1 : 네. 그런데 아주머니가.

도 영 : 혹시, 다치셨나요?

아주머니가 뒤돌아서 방으로 들어간다.

S#9. 방안

열려 있는 장롱 문 아래로, 어지럽게 널려 있는 옷가지들.

그 가운데 30대 중반의 여자(임영애)가 머리에 물수건을 이마에다 놓은 채 누워 있다. 누워 있는 임영애는 사색이 된 채 입술을 떨고 있다.

주 민1 : 제 정신이 없어요. 강도야! 하는 소리에 뛰어올라 와 보니까, 강도들은 벌써 도망갔고, 아주머니는 장롱을 뒤지다가, 발버둥을 치며 울었어요. 패물을 강도들이 모두 가져갔다고 했어요.

도 영 : 액수로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주 민1 : 현금하고 해서 삼십만 원 정도라고 해요.

누워 있는 임영애를 들여다보다가 도영은 그녀의 목에 있는 상처를 발견하고, 목을 들쳐본다. 줄을 그은 듯한 한 일자의 핏자국이 안쓰럽다. 그때 물방울이 그녀의 얼굴에 떨어지면서, 깜짝 놀란 그녀가 벌떡 일어난다.

도영이는 자기가 우비를 입고 있음을 그제야 알아차리고 우의를 벗는다. 그 사이 복식은 널려 있는 옷가지들을 들쳐보고, 빼낸 서랍들을 뒤집어 본다.

주 민1 : 칼을 목에다 대며, 반항하면 죽인다고 했대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요.

복 식 : 나쁜 놈의 새끼들. 나한테 걸렸으면 그냥 뼈다귀를 모조리 부러뜨렸을 텐데.

임영애는 안절부절못하고 일어서서 오락가락하는데,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흰 허벅지가 유난히 눈을 끌어들인다.

도 영 : 아주머니, 우리는 아주머니를 도와드리러 온 경찰이니까, 마음을 진정하세요.

도영은 안쓰러운 눈으로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역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다.

복식이 찢어진 여자 팬티 하나를 손가락에 걸고 다가왔다.

복 식 : 이거, 아주머니가 입었던 것이지요?

영 애 : 어머니!

임영애는 맹수가 먹이를 나뉘쳐듯이 반사적으로 팬티를 빼앗았다. 팬티를 든 손을 뒤로 감추며, 장롱 쪽으로 달려가, 그것을 장롱에다 넣으려다 말고, 장롱과 벽 사이에다 구겨 넣는다. 허둥지둥, 제 정신이 아닌 모양이다.

주 민1 : 전, 애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돼서 내려가 봐야겠어요.

주민1이 머리를 숙여 보이고 방안을 나간다.

복 식 : 당했어!

도영이 쳐다보면, 잠시 마주 바라보는 두 사람, 교감이 오고간다. 그랬구나, 하는 도영이 갑자기 눈에 물기가 배기 시작한다.

방안을 땀들 듯이 오락가락하는 영애를 도영이 손을 잡고, 자리에다 편하게 앉힌다.

영 애 : 동사무소에서 왔다고 해서요,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얼굴에 스타킹 같은 걸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둘 다 눈이랑 코가 잘 보이지 않는 이상한 얼굴이었거든요..... 식칼을 내 목에다 대면서, 죽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작은 놈이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다 나를 덮어씌웠어요.

도영이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영애의 손을 잡고 있다가, 이젠 두 손으로 팔을 옮겨 잡았다.

도 영(소리) : 떠나가신 내 곁을 떠나 붉은 흙의 차디찬 집을 짓고 쓸쓸히 살고 계실 어머니 한 송이 마른 꽃이 되어 떨어지기도 하고 시들어질 거나.

복 식 : 그리고, 이불을 벗기고 어떤 놈이 아주머니한테 먼저 덤벼들었나요?

영 애 : 그 게요..... 그게, 큰 놈이 먼저.

도 영 : 또 작은 놈한테도 당했군요?

영 애 : 네..... 그런데요, 그게.....

복 식 : 그게 그 놈들의 상투적인 수법이야. 두 놈이 함께 번갈아 올라타게 되면 여자가 부끄럼 때문에 신고를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지. 개새끼들!

영 애 : 아저씨, 순경아저씨, 우리 애들 아빠가 이 일을 알면, 나는 쫓겨나요.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 영 : 남편을 알지요.

영 애 : 성미가 불같아요. 우리 집은 끝장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순경아저씨, 제발.

영애는 두 손을 짹짹 빌면서 연신 머리를 조아린다.

도 영(소리) :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날들을 캄캄한 어둠 속에 묻어놓고 홀로 죽음과 함께 누워 계실 어머니.

영 애 : 제발 아저씨. 그냥 없었던 일로, 모른 척해 주세요, 네?

영애는 울부짖으며 도영의 팔에 매달린다. 도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손을 마주잡는다. 복식은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쉰다.

복 식 : 두 눈을 뜨고 못 봐주겠군.

복식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S#10. 거실.

방에서 나온 복식이 주변을 살핀다. 넘어져 있는 소파를 바로 놓고, 엎어져 있는 화분도 제대로 놓는다. 단히다 만 커튼을 활짝 열어 놓는다. 쓰러져 있는 빈 맥주병을 들고 흔들어보고, 담배꽂초를 주워 화분에 담다가 하나를 들고 살핀다.

S#11. 방안

도영과 영애가 손을 붙잡고 있다.

영 애 : 방학이라 이모가 애들을 데리고 나갔으니 망정이지. 아저씨, 애들 아빠가 알면 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없었던 일로 한다고 약속해요, 네?

도 영 : 약속할게요.

S#12. 거실.

영란이가 영애의 아들 둘을 데리고 들어선다.

담배꽂초를 종이에 싸는 복식과, 시선이 마주친다.

영 란 : 웬일이세요, 경찰관 아저씨가?

S#13. 방안.

영란이가 아이 둘을 앞세우고 들어서다, 멈칫한다.

영애와 도영이 끌어안고 함께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

영 란 : 언니!

아 들2 : 엄마!

아들1은 바라보고만 있다.

복 식 : 잘 한다.

그제야 두 사람은 제 정신을 차리고 떨어지며, 어쩔 줄 몰라 한다.

F.O

S#14. 일미 해장국집 안(아침)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평범한 식당이다.

탁자에 턱을 괴고 앉아 있는 사복차림의 도영이 앞에, 복자가 선지해장국을 쟁반에 담아 날라 왔다. 반찬그릇 등을 탁자에다 옮기며,

복 자 : 집의 마나님, 요즘도 집에 잘 안 들어온다면서요?

도 영 : 교회 일이 그렇게 바쁘답니다.

복 자 : 세상에, 무슨 교회가 가정주부를 매일 밤 붙잡아 둘까?

도 영 : 말을 하자면 머리가 지끈거려요.

복 자 : 반주 한잔 드릴까요?

도 영 : 네. 소주 한 병 주세요.

복자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와, 유리잔에다 따른다. 황급히 잔을 비운 도영이 자작하여, 또 한 잔을 훌쩍 마신다. 그런 후 공기밥을 기울여 국에다 쏟는다. 복자가 빈 잔에다 다시 소주를 붓는다.

복 자 : 아이가 있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참, 우리 오순경님은 먼저 집에 들어갔나 봐요?

도 영 : 목욕탕에 갔어요.

복 자 : 왜 같이 가지 그랬어요?

도 영 : 목욕탕에 앉아 있는 것도 마음이 편해야 돼요.

허겁지겁 해장국밥을 퍼먹는 도영이를, 복자는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S#15. 방안(한낮)

장롱, 제반 가구들이 대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다.

화장대에 많고 다양한 화장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양이 이채롭다.

벽의 시계가 11시 35분을 가리키고 있다. 이불을 아래쪽에 덮은 채인 도영이 잠이 덜 깬 눈을 부빈다. 아내 경희는 외출에서 금세 돌아온 차림으로 침대 발치에 걸터앉아 도영이를 쏘아보고 있다.

경 희 : 그래서 강간부분은 쏙 빼고 보고했던 말이지요?

도 영 : 한 가정이 파탄나는 거, 막아주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

경 희 : 당신은 사회사업가가 아니고, 경찰관이란 말예요.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예요.

도 영 : 경찰관이기 전에 난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라고.

경 희 : 따뜻한 가슴 좋아하시네. 혹시 그 여자하고 무슨 일을 벌인 건 아녜요?

도 영 : 비약이 심한 애긴 하지 말고.

경 희 : 옷에서 싸구려 화장품 냄새가 나는 건 뭐예요?

도 영 : 그건.....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배인 냄새일 거야. 그런데 당신은 어저께 밤에 왜 안 들어왔어? 아침에 방안에 들어서니 썰렁한 게 온기라곤 하나도 없더군.

경 희 : 철야예배를 봤어요. 왜요? 뭐가 이상해요?

도 영 : 무슨 철야예배를 이 시간까지 봐?

경 희 : 예배 끝나고 속장들 회의가 있었고, 모인 길에 아침식사를 해야하잖아요, 왜?

도 영 : 하여튼 정상이 아니야. 그건 그렇고, 이리 와봐.

도영이 경희의 팔을 당겨 침대에 눕히려 한다.

경 희 : 대낮부터 짐승처럼 또 왜 이래요?

도 영 : 난 당신의 남편이야. 아내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건 정당한 일이란 말야.

경 희 : 쥐꼬리만 한 월급에, 남들은 집에서 쉬는 시간에 밤샘을 하고, 거기다 낮잠을 자다가 징그럽게 구는 게 남편예요? 봐요, 이거!

경희가 도영이를 뿌리치고 침대를 내려서다가, 바닥에 굴러 떨어진다.
도영이 놀라 쓰러지려는 경희를 붙잡으려다 그녀의 정강이를 밟는다.

경 희 : 아아아!

경희는 비명을 지르며 밟힌 정강이를 싸쥔다.
도영은 어쩔 줄 모르며 갈팡질팡하다가 밟았던 정강이를 또 밟는다.
사지를 늘어뜨리고 실신하는 경희.
당황하며 황급히 경희를 끌어안는 도영이 얼굴이 진홍 빛이 된다.

S#16. 거리(한낮)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며 앰불런스가 질주한다.
차창에 흠뻑 도영의 얼굴이 일그러진 채 어른거린다.

S#17. 방안(밤)

도영이네 방과는 달리 가구도 단출하고 화장대도 보이지 않는다. 복식과 아내 복자가 과일 접시를 가운데 놓고, 마주 앉아 과일을 먹고 있다.

복 자 : 참 잘한 일이다. 남 순경님은 사람이 원래 착하잖아요.

복 식 : 착하긴, 미친 자식이야.

복 자 : 미치긴 왜 미쳤어요? 한 가정이 파괴되는 걸 막았는데, 표창장을 줘야지요. 당신도 그런 면은 배워야 해요.

복자가 포크로 찌른 과일을 복식의 입에 넣으려하는데, 복식은 손으로 그걸 막는다.

복 식 : 마시던 소주나 가져와.

복 자 : 아침에 해장국하고, 마셨잖아요.

복 식 : 다 깬어. 가져오라면 가져와야지, 웬 잔소리야!

복 자 : 소린 왜 지르고 난리예요?

서슬에 놀려, 복자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과 술잔 둘을 가져온다.

복자는 병뚜껑을 따고 각각 앞에 놓은 잔에다 술을 따른다.

복 식 : 뭐야?

복 자 : 난 뭐 사람이 아닌가?

복 식 : 잘 한다. 그러다 코가 빨개질 거다.

복 자 : 조심할 사람은 당신예요. 의사선생님이 당신은 금주를 하라고 하잖아요. 혈압이 이백까지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술이 독약이라는 말씀은 잊지 말아야 해요.

복 식 : 돌팔이 자식.

계속 복자가 따르는 술을 두 사람은 권커니 자커니 하며 마신다.

복 자 : 여자가 당한 거는 빼고 보고했는데, 별일은 없겠지요?
 복 식 : 모르지. 말썽이 나면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고 했으니까.
 복 자 : 좋은 일 했는데, 오히려 복을 받겠지요.
 복 식 : 애들은 다 잠들었지?
 복 자 : 진작 끌어 떨어졌어요. 장난이 어찌나 심한지.
 복 식 : 크는 애들이 그렇지, 뭐. 어디 좀 보자.

복식이가 복자를 끌어당겨서, 가슴에다 손을 넣으며 유방을 주물럭거리
 린다. 그러다가 윗도리를 벗기고, 드러난 유방을 빨기 시작한다. 점차
 아래로 내려오고, 치마를 벗기고, 팬티까지 벗긴다.

복 자 : 불이나 끄고 해요.

복자가 전등의 스위치를 찾느라 몸을 바로 하면,

복 식 : 상관없잖아.

복식이 그녀의 뒤에다 자기 것을 우겨넣고 동작을 시작한다. 점차 열기
 가 오른 복자는 음탕한 신음소리를 내며 방바닥을 걷다. 따라서 개처럼
 같이 움직이며 계속 열나게 동작하는 복식이다. 이윽고 절정에 오른 복
 자가 상체를 일으키고 벽을 할퀴듯 하며 열을 올린다.

S#18. 시내버스 주차장.(낮)

적당한 크기의 버스주차장에, 버스가 들어오고 나간다. 어수선하고 번
 잡한 모양이 한눈에 들어온다.

한 쪽에는 서너 명의 버스 관계자들이 서서 담배를 피우며 담소하고 있다. 느슨하게 들어오는 버스를 뒤따라, 버스 한 대가 바쁘게 따라 들어온다. 앞차는 느긋하게 주차하나, 뒷 차는 주차하는데 성급하고, 바쁘다. 앞차의 운전사가 여유있게 내리면, 씹씹거리며 황급히 내리는 뒤차의 운전사는 영애의 남편인 김만석이다. 만석이가 앞차의 운전사1의 앞을 막아서며 샷대질을 한다.

만 석 : 야, 이 새끼야, 제 시간을 맞추지 못했으면 그냥이라도 가야지, 손님을 죄다 신고 가면 난 어떻게 하나?

운전사1 : 차가 밀리는데 어떻게 해? 손님은 태워달라고 사정을 하니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

만 석 : 지금 잘 했다고 우기는 거냐, 이 씨벌새끼야! 내가 계속해서 클랙슨을 울리며 신호를 했잖나, 손님을 태우지 말고 그냥 가라고. 너 뭐 믿는 거 있냐, 이 씨발놈아!

운전사1 :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야, 버스 끌고 다니면 사방에서 클랙슨 소린데, 네 차 클랙슨소리라고 어디 씨 붙였냐?

만 석 : 이런 호랑말코같은 새끼가 그래도 잘했다고 하는 거봐. 너 한번 맛 좀 볼래?

운전사1 : 거 듣자하니, 정말 좇같네. 그래 맛 좀 보자. 자아. 돈 벌어 놓은 거 많으면 한번 때려봐. 자아.

운전사1이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내밀며, 때려봐, 하는 포즈다.

만석이가 운전사1의 목살을 잡고, 박치기를 하려는 품을 잡는다.

만 석 : 어이구, 이걸 박아버리고 학교에 또 한번 갔다 와? 어이구, 이걸!

만석은 여러 번 박치기를 하는 흉내를 내기만 할 뿐, 차마 행동에는 옮기지 못하고 화를 누르느라, 씹씹거리며 숨을 몰아쉰다. 서서 잡담을 하던 사람들이 다가와 두 사람을 뜯어 말린다. 마지못해 씹씹거리며 돌아서는 만석의 등 뒤로,

윤전사1(소리) : 자식, 소갈머리가 저러니 강도가 집에 들었지. 마누리는 온전했을까 모르겠네.

S#19. 방안(낮)

영애의 아들1이 엎드려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영애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이때, 전화벨이 울린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영애가 황급히 송수화기를 든다.

영 애 : 여보세요..... 누구..... 왜 자꾸 전할 하세요? 사람을 그만큼 욕보였으면 됐지, 왜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댁애를 사랑했어요?..... 무서워서 신음소리를 낸 걸 가지고..... 남편이 아는 날에는 전 맞아 죽어요. 우리 애들 아버지 성미를 몰라서 그러는데, 댁애 들도 가만히 안 둘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젠 전할 하지 마세요. 제발요..... 저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요..... 제발요. 제발 사정 할 게요....., 가만, 우리 남편이 왔나 봐요. 선생님, 그럼 전화 끊겠어요.

밖에서 툭탁거리며 사람 걸어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불쑥 만석이가 들어선다. 영애가 일어서서 손을 부비며 안절부절못한다. 만석이가 영애를 힐끗 본 후, 들고 있던 상의를 구석 쪽에 던진다.

아 들1 : 아버지 오셨어요?

아들1은 그리던 그림을 계속해서 그린다.

그림은 버스다. 영애는 아들1과 그림을 보니 괜히 짜증이 난다.

영 애 : 넌 왜 바깥에 나가 놀지 않고 방을 이렇게 어지럽이냐? 얼른 치우지 못해?

영애가 옆의 빗자루를 쳐든다.

아들1은 옆으로 비키며 못마땅한 얼굴을 한다.

영 애 : 빨리 치우라니까!

아 들1 : 괜히 짜증이야.

아들1이 마지못해 그림들을 치운다.

만석이는 장롱문을 열고, 서랍을 뒤적인다. 찾는 게 없는지, 난폭하게 서랍을 닫고, 아래 서랍을 열고 거칠게 뒤적거린다. 영애가 뒤 쪽으로 다가와 송구스러운 듯한 몸짓을 한다.

영 애 : 뭘 찾으세요?

만 석 : 통장. 회사에서 수당을 넣었다는군.

영 애 : 그게.....

만석이 서랍을 다시 닫으려다 말고, 장롱 사이에서 떨어진 찢어진 여자 팬티를 발견하고 주워 든다.

만 석 : 이게 뭐야? 당신 팬티 아냐?

영애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찢어진 팬티를 빼앗아 뒤로 감춘다.

영 애 : 이걸 걸레를 하려고 놔둔 거예요.

만 석 : 지난주에 당신이 새로 샀다고 나한테 자랑한 것 아냐? 벌써 걸레를 해?

영 애 : 속아서 잘못 산거예요. 가짜를 산거예요.

만석이 이상하다 싶어, 영애가 뒤로 돌린 팬티를 빼앗아 자세히 살핀다.

만 석 : 이걸 손으로 일부러 찢은 거 아냐?

아들1이 두 사람의 눈치를 살핀다.

아 들1 : 아까 강도들한테 전화가 왔다? 그리고 요전엔 엄마가 파출소 순경아저씨를 끌어안고 막 울었다?

말을 마친 아들1은 영애에게 약 오르지, 하는 시늉으로 혀를 쏙 내민 후 방안을 나간다.

만 석 : 무슨 소리야? 강도한테 전화가 왔어? 파출소 순경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소리는 뭐고?

영 애 : 그게....., 저어.....,

눈을 부라리는 만석이 앞에서 몸 둘 바를 모르는 영애는 입조차 열어볼
었다.

S#20.병원 앞(낮)

제법 큰 종합병원 앞마당을 가로질러 점퍼차림의 도영이 안으로 들어
가고 있다.

S#21.병실 안(낮)

왼쪽 다리를 허벅지까지 기브스를 한 경희가 그 다리를 허공에 매단 채
침대에 누워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 그 곁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오만상
을 찌푸리고 있다.

어머니 :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세상에, 부러진 다리를 또 밟는 놈이
어디 있나?

경 희 : 아무래도 그 사람하고 계속 못 살겠어. 이젠 보기만 해도 싫어.

어머니 : 애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릴 하나?

경 희 :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마땅치 않아. 아무래
도.....

어머니 : 그러게 애초에 뭐라고 했니? 눈이 멀건 게, 생활력이라곤 전혀
없어 보인다고 했잖나, 왜?

경 희 :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게 매력으로 보였으니깐

어머니 : 눈에 콩깍지가 덮인 거야.

경 희 : 허공을 바라보며 시를 뇌일 때는 몸이 짜릿짜릿했으니까. 참
나도 미쳤지. 이혼을 해야겠어.

어머니 : 애야, 그게 무슨 소리냐?

경 희 : 못 살겠어.

어머니는 슬며시 일어나 보따리를 챙기고, 옷매무새를 고친다.

어머니 : 내 좀 나갔다 오마.

경 희 : 어딜 가시려구요?

어머니 : 내, 이 사람을 만나서 애길 좀 해봐야겠다.

경 희 : 일 끝나고 지금 자고 있을 텐데.

어머니 : 사람을 이렇게 해놓고 잠이 오겠냐?

어머니가 움직인다.

경 희 : 가지 말아요, 엄마!

S#22.병원 복도.

힘없이 어깨가 축 처진 도영이 걸어간다. 병실에서 나온 경희의 어머니가 걸어오는 도영이를 발견하고 표독한 눈을 한다.

도 영 : 장모님.

장 모 : 자네가 사람인가? 어떻게 안 사람의 다리를 밟아 부러뜨릴 수가 있나?

도 영 : 장모님, 그게요, 그런 게 아니라.

장 모 : 그래도 할 말이 있는가?

도영은 억울한데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고, 금세 눈물이 흘러나오

려는 것을 억제한다.

도 영 : 장모님!

도영은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고개를 숙이는데, 어머니가 느닷없이 도영이의 따귀를 갈긴다.

장 모 : 나쁜 놈!

눈물을 찔끔거리던 도영이가 깜짝 놀라며 맞은 자기의 볼따구니를 싸 쥘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도 얼떨떨하다. 장모도 화김에 때리긴 했으나, 스스로 당황한다. 당황하면서 돌아서 황급히 복도를 걸어 나간다. 이때, 병원 한 구석에서 산타크로스복장을 한 여자아이들 대여섯 명이 합창을 한다. 합창단(노래)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F.O

S#23.파출소 전경(아침)

세찬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 저기 녹지 않은 눈이 얼음덩어리가 되어 조금씩 쌓여 있는 게 아직도 겨울이 지나가지 않은 듯 을씨년스럽다. 한쪽에 순찰차와 순찰오토바이가 서 있다.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면,

S#24.파출소 안

회의가 막 끝났다. 한 때의 순경들이 몰려서 밖으로 나간다. 늙수레한 소장이 선채 그들 등 뒤를 바라본다.

소 장 주민들하고 다투지 마라.

아직도 석유난로가 활활 타고 있다.

바깥에서 차 시동을 거는 소리가 나고, 도영은 자리에 앉으며 원고지에 써 놓은 시를 들여다본다.

도 영(소리) : 첫 월급. 물을 향해 출렁이는 뱃머리 곁에서 흙 묻은 치맛자락 감싸주시며 서른이 되어도 어린 아들만 걱정하시던 어머니, 황토밭 긴 이랑. 어깨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땅이 바로 하늘이라고 경배하듯 김을 매어 가시던 허리 굽은 내 어머니, 물에 나가 첫 월급 타서 빨간 내복 사드렸더니 서른 되어도 어리기만 한 아들 그 품에 안겨보기도 전에 어머니 하늘이 바로 땅이라며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김매러 가셨네. 흙 묻은 치마 대신 삼베옷 한 벌 입혀드리고 어머니, 멀리 김매러 가시는 길 서러운 눈물로 배웅해 드렸네.

도영은 큰 사각서류봉투의 겉장을 쓴다. 겉장에 쓴 주소가, 현대경찰지 편집부 귀중이다. 그 봉투에 원고를 넣고 풀칠을 한 후, 고개를 쳐들면, 복식은 난로 옆에서 서성거리며 손을 쪼인다.

복 식 : 바람이 참 더럽게 부네.

소 장 : 이제 봄이 오려고 그러잖아.

복 식 : 소장님, 내년이 정년이라면서요?

소 장 : 그러게 말이야. 이젠 퇴물이야. 집에서 손자들 하고 놀게 됐어.

이때, 출입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이 잔뜩 취한 김만석이가 들어선다.

만 석 : 어떤 새끼야? 강도사건을 담당했던 새끼가?

복 식 :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만 석 : 가정주부를 겁탈한 강도를 잡아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그걸 은폐해? 이 날강도 같은 놈들아! 빨리 나와, 어떤 새끼야?

복식이가 도영이 쪽을 보면, 찢끔해진 도영이가 머리를 숙인다.

소 장 : 무슨 내용인지 차분히 말씀해 보세요.

소장이 만석이의 팔을 이끌며 옆 의자에 앉히려 한다.

만석이가 소장의 팔을 뿌리친다.

만 석 : 니가 소장이나, 이 씨발놈아!

그때, 뒷문을 열고 전경 셋이 들어서며 만석에게 달려든다.

전경들은 만석의 팔과 허리를 부여잡고, 대기석의자로 끌고 간다.

만 석 : 이 씹새끼들!

만석이가 몸부림을 치자, 나약한 전경1이 구석 쪽으로 나가떨어진다.

소 장 : 아침부터 많이 취했네. 이 사람 누구야?

영문을 몰라 하는 소장이 주위를 둘러본다.

만 석 : 나, 도경을 거쳐서 경찰서를 들렀다 오는 길이야. 남도영이가 어떤 새끼야?

소장이 도영이 쪽을 바라보자, 그제야 찡찡한 도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인다.

도 영 : 제가 남도영 순경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만 석 : 이 새끼 봐라? 내가 경찰이냐? 너 강도들하고 찼지? 그리고 우리미누라는 왜 껴안고 지랄을 했어?

도 영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십니까?

만 석 : 이 자식 시치미를 떼는 거 좀 봐? 나 세상에 겁나는 거 없는, 막 가는 인생이라고.

만석이 도영이의 먹살을 잡고 비튼다. 그제야 복식이 나서서 먹살을 잡은 만석의 손을 비튼다. 만석이 몸을 비틀며 아이고, 하고 비명을 지른다.

만 석 : 이 새끼들이 국민을 친다?

소 장 : 그만둬!

복식이 만석의 손을 놓으면, 자기 손을 어루만지며 주저앉았던 만석이 일어난다.

만 석 : 저 순 강패새끼, 이름이 뭐야? 당장 모가지를 잘라야겠어.

소장이 바라보자, 복식이 밖으로 나가버린다.

소장이 다가가 담배를 꺼내 만석에게 권한다. 만석이가 뿌리치면, 담배가 날라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만 석 : 나,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마누라는 도망을 가고, 이제 애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야 해.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이 개새끼들아!

소 장 : 그러지 말고, 우리 차분히 얘길 합시다.

도 영 : 제발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다시 만석이가 길길이 뛰자, 전경 셋이 또 달려든다.

만석이가 몸부림을 치며 전경들을 뿌리친다.

만 석 :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되나봐. 개새끼들!

만석은 툭툭거리며,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간다.

도영이 뒤따라 나가면서, 전경들에게 손짓을 한다.

S#25.파출소 앞

도영이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만석이를 뒤 자리에 밀어 넣는다.

만석이가 뒤로 벌렁 나가떨어지는 듯한 모양으로 자리에 앉는다.

도 영 : 집에까지 잘 모셔다 드려.

도영은 주머니에서 집히는 대로 만원권 지폐를 꺼내 전경1에게 준다.
전경 둘이 뒤 자리에, 앞에 한 명이 자리 잡자 택시가 떠나간다.
도영이 무심히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뭉게구름 한 덩이가 떠 간다.

도 영(소리) : 저렇듯 아득히 멀고 푸른 하늘의 무심함을 닮아라 이
하잘 것 없는 인생을 닮아라. 오갈 데 없는 마음을 너에게 기대지만
온 하늘을 떠돌며 너 역시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S#26.파출소 안(낮)

파출소장에게 그 부인이 두툼한 봉투를 건넨다.

부 인 : 옆집에서 찼어요.

소 장 : 오십 만원 맞지?

부 인 : 그래요. 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난리를 부려요?

돈 봉투를 든 채 소장이 책상에 앉아 있는 도영이를 바라본다.

S#27.우체국 안

경찰복장을 한 도영이, 건너편에 앉아 있는 여직원 앞의 저울에다 큰 사
각서류 봉투를 얹어 놓는다. 여직원이 저울의 계량 표시를 본다.

여직원 : 뭘니까?

도 영 : 원고입니다. 詩요.

여직원이 쳐다보면, 도영이도 마주 본다.

여직원 : 구백 삼십 원입니다.

도영이 계산을 치르면, 여직원이 받아 잔돈을 내준다.

도영이 잔돈을 받아 바지 주머니에 넣는다.

도 영 : 수고하세요.

여직원 : 안녕히 가세요.

여직원이 돌아서는 도영이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도영이는 출입문을 밀고 나간다.

S#28.영애네 집 앞(낮)

여전히 담담한 도영이가 층계를 올라가 벽에 붙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다. 이윽고 영란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온다.

도 영 : 안녕하세요?

영 란 : 네. 어떤 일이세요?

도 영 : 언니를 좀 뵈 수 있을까요?

영 란 : 언니는 지금 집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지요?

도 영 : 어디 가셨는가요?

영 란 : 네. 병원에 입원했어요.

도 영 : 병원에는 왜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영 란 : 머리를 식히려고요. 강도들이 자꾸 집으로 전화를 하나 봐요.

도 영 : 그놈들이 전화까지 해요?

영 란 : 네.

도 영 : 못된 놈들. 어느 병원인가요?

영 란 : 여기서 좀 멀어요.

도 영 : 멀다면?

영 란 : 정신병원예요.

도 영 : 히!

도영이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잠시 멍청히 서서 땅바닥을 내려다보고만 있다. 그러는 도영이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영란이다.

영 란 :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셨으면 좋겠지만.

도 영 : 아니, 괜찮습니다. 형부는 일 나가셨겠지요?

영 란 : 아녜요. 지금 술이 취하셔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예요?

도영이가 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내 건넨다.

영란이 엉겁결에 받는다.

영 란 : 이게 뭐예요?

도 영 : 우리 소장님이 언니에게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사하는 비용에 사용하시라고요.

영 란 : 이사를 해요?

도 영 : 용도는 아무래도 좋다고 합니다. 그냥 위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영이 목례를 하고 돌아선다.

영 란 : 하여튼 전달은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S#29.파출소 앞(낮)

순찰오토바이에서 내린 복식이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있다.

도영이 다가서면,

복 식 : 잘 됐냐?

도 영 : 응.

복 식 : 그런데 어떻게 그 자식이 알았을까?

도 영 : 강도새끼들이 집에다 자꾸 전화를 했나봐. 그러니 아마 마누라를 족쳤겠지.

복 식 : 그랬구나. 나쁜 새끼들.

도 영 : 소장님은?

복 식 : 정년 막판에 이게 무슨 꼴이냐고 한숨만 내쉬다가, 본서에 회의 들어가셨어.

복식이 상의 주머니에서 종이 접은 것을 꺼내 펼치면, 말보로 꿈초다.

도 영 : 그건 뭐야?

복 식 : 증거물이야. 우리 마누라가 세탁할 때마다 귀찮다고 해서.

복식이가 다시 종이를 싸서 도영에게 넘긴다.

도영이 건성으로 받아 자기상의 주머니에 넣는다.

도 영 : 일이 정말 이렇게 벌어질 줄은 몰랐는데?

복 식 : 이렇게라도 해서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

도영이 순찰오토바이를 빼앗듯이 손잡이를 잡는다.

도 영 : 잠깐 집에 갔다 올게.

복 식 : 이혼 어찌고 하더니,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나?

도 영 : 그건 장모가 나서서 다 막아버렸어. 오늘 기브스를 뜯는다고 하니까 잠깐 얼굴이라도 봐야지.

복 식 : 제발 이젠 사고를 치지 말아라. 네가 움직였다 하면 이젠 걱정부터 앞선다, 야.

도영은 못 들은 척 하며, 순찰오토바이의 액셀을 당겨 그 자리를 떠난다.
복식이 걱정스럽게 그 뒤 모습을 바라본다.

S#30.도로.

도영이 조심스럽게 오토바이를 몰고 간다.

도 영(소리) : 찬란한 아침을 기다리는 햇살처럼 따사롭고 환한 나의 아내가 있습니다. 오늘도 혼자서 빈 방을 손질하며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키는 부드러운 깃털을 가진 작은 새처럼 귀여운 나의 아내가 있습니다.

S#31.도영의 집안(낮)

기브스를 한 다리를 길게 뻗고 앉은 경희와, 창수가 밥상을 가운데다 놓고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경 희 : 밖에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만나는 것도 아늑한 기분이다. 그렇지?

창 수 : 그렇다고 다리를 자주 부러뜨리진 말고.

경 희 : 다리 얘기만 하면 치가 떨린다. 오늘 기브스를 뜯어내야 하는데, 마침 자기가 와 줘서 다행이야.

창 수 : 남편은 전혀 관심도 없나봐.

경 희 : 남편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

S#32.도영의 집 앞.

도영이 복도를 걸어와서, 살짝 열린 출입문 안을 들여다본다.

낮선 남자구두가 눈에 띈다. 잠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수의 가슴에 안겨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 쪽으로 가는 경희가 즐겁기만 하다.

경 희 : 남자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써? 조금 더 껍 껴안아 봐.

창 수 : 이러다 불쑥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는 어쩔지 조마조마하다.

경 희 : 걱정도 팔자야. 그 사람은 마누라가 죽는다고 해도 낮에는 집에 얼씬거리지 않는 멍충이야. 멍충이라고.

밖에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던 도영이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선다.

도 영(혼자소리) 멍충이.....

S#33.집 앞 마당.

도영이가 순찰오토바이에 타고 액셀을 거세게 돌린다. 서너 차례 액셀

을 돌리면 주변을 울리는 소리가 거세다.

S#34.화장실 안.

변기에 앉아 있던 경희가 거센 오토바이의 시끄러운 액셀 돌리는 소리에 무심히 창밖을 내다본다. 조감으로, 오토바이에 앉아 이쪽을 올려다보는 도영이가 보인다.

경 희 : 어머, 저 사람이!

경희가 깜짝 놀라며, 잠깐 생각에 잠긴다.

이윽고 도영이가 탄 순찰오토바이가 전속력으로 달려 나간다.

S#35.대로.

도영이가 탄 오토바이가 전속력으로 질주한다. 지나던 차들이 놀라며 비켜선다. 카메라, 질주하는 오토바이 위의 도영이 얼굴을 클로즈 업, 분노와 슬픔이 어우러진 그의 얼굴.

도 영(소리) : 어머니 눈 감으시던 날 석양에 붉게 빛나던 하늘이 사라지고 캄캄한 어둠이 죽음처럼 세상을 덮쳤네.

S#36. 다른 도로.

한쪽에서 도로의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전속력으로 도영이가 탄 순찰오토바이가 질주한다.

땅을 파 뒹긴 울퉁불퉁한 곳에서 오토바이가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떨어진다. 일하던 인부들이 놀라며 바라본다.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토바이는 질주한다.

도 영(소리) : 한숨처럼 고요히 어머니 마지막 숨을 내쉬고는 부둣가에 묶어둔 그 많은 세월을 풀어내어 영영 다시 오지 못할 세상으로 임종의 배를 띄우셨다.

S#37.주택가.

작은 길인데도 오토바이의 속력은 여전하다. 행인들이 얼른 길을 비킨다. 개 한 마리가 하마터면 치일 뻔 한다.

도 영(소리) : 어머니 눈 감으시던 날 거센 파도는 슬픔의 푸른 갈기를 달고 방문을 두들기며 서럽게 울다가 바다로 돌아갔다.

S#38.파출소 앞.

요란하게 들어선 오토바이가 급제동을 한다. 핸들을 잡은 채 잠시 동안 낮을 놓고 앉아 있는 도영이의 얼굴은 땀과 흠먼지로 범벅이 돼 있다. 그 위로,

도 영(소리) : 어머니 홀로 먼산바라기하던 가난한 방문을 열면 별들은 가만히 어둠 속에서 기다리다가 애처로운 눈동자를 깜박이며 슬픔의 문상을 왔다.

안에서 나오던 복식이가 도영을 발견하고 다가선다.

복 식 : 여기서 뭐하는 거야? 또 어머니 생각을 하나?

도영이 묵묵부답으로 한숨을 내쉰다.

복 식 : 얼굴은 왜 그 모양이야? 어디 시궁창에 처박혔었나?

전경1이 나오며 옆에 붙어 선다.

복 식 :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동작이 느리냐? 애새끼들이 군기가 잡혀있지 않아서 말이 아니야. 그냥 빠따로 매일 두들겨서 군기를 잡아야 하는데.

도 영 : 어딜 나가는 거야?

복 식 : 아 그 새끼가 술이 취해서 또 꼬장을 부린다는군. 집안의 세간을 모두 부신 다는 거야.

도 영 : 버스운전수?

복 식 : 그놈 말고 또 누가 있겠어, 이 동네에. 자식, 말 안 들으면 수갑을 채워서 끌고 와야겠어.

도 영 :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 사람 입장에선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나? 살살 달래야 해.

복 식 : 쥐가 고양이 생각하네. 야, 우선 세수부터 해라. 꼭 똥간에서 건져 올린 쥐새끼 같다.

도영이 오토바이에서 내리면,

복 식 : 내일 아침 퇴근하면서 오랜만에 소주나 한잔 하자.

복식이 순찰오토바이를 인계받아 올라타면, 전경1이 허둥거리며 뒤에

올라탄다. 오토바이가 부드럽게 달려간다.

S#39.영애네 집 앞.

동네 사람 서넛이 서서 구경을 한다. 집안에서 세간살이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흘러나온다. 영란이가 영애의 아들2를 옆에 앉혀두고 울고 있다. 아들1은 기웃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복식이 오토바이를 세우면, 전경1이 옆구리에 찬 방망이를 꺼내 잡고 내려치는 연습을 한다.

복 식 : 왜 또 저리는 거요?

영 란 : 소장님이 보낸 돈 50만원을 내드렸더니, 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복 식 : 이웃에서 꺾다 준 돈인데, 고맙게 생각해야지. 또 발작을 하면 어떻게 해?

영 란 : 이사비용에 쓰라는 말이 거슬렸던 모양예요. 풍비박산이 난 집 구석을 또 짓쑤신다고 앙탈이잖아요.

영란이는 연신 눈물을 흘린다.

복 식 : 참 더러운 성질머리야.

복식이 층계를 올라간다.

S#40.영애네 집안.

거실과 주방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가재도구들이 이미 작살나 나뒹굴고 있다. 거기다 대여섯 개의 텅구는 빈 소주병이 마치 쓰레기장을 연상케 했다.

열린 문으로 보이는 안방에서 상의를 벗은 만석이가 비틀거리며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TV와 라디오 등은 이미 부서져서 안쓰럽게 그 쪼가리들이 널려 있고, 휘두르는 방망이는 장롱을 두들기고 있는 참이었다.

복 식 :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복식이 옆으로 다가서면, 만석이 게슴츠레한 눈을 쳐든다.

만 석 : 넌 뭐야? 어어, 이 새끼 봐라? 내 팔을 비틀던 그 깡패새끼 아냐? 너 잘 만났다.

만석이는 쳐들고 있던 방망이를 복식의 머리를 향해 내려쳤다.

복식이 살짝 비켜섰다.

헛방망이질을 한 만석이가 뒤 돌아서면서 방망이를 다시 쳐들자, 복식이 그에게 등을 돌려주면서 그의 팔을 잡았고, 허리를 숙이는 찰라, 만석이는 바닥에 개구리처럼 나가떨어졌다.

복 식 : 대체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사고가 났으면 잘 수습을 해서 새롭게 출발을 하도록 하셔야지.

옆구리를 싸쥐고 쥐 죽은 듯이 엎드려 있던 만석이가 불현 듯 벌떡 일어나더니 빈 소주병을 들었고, 그것을 바닥에다 내려쳐 켰다.

칼날처럼 날이 선 소주병을 든 만석이의 눈은 살기에 번득였다.

그 겨를에 통거지뚱 전경1이 거실 쪽으로 달아나갔다.

유도 4단의 무도인 답게 복식은 침착하고 냉정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만석의 행동거지만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때, 느닷없이 만석이가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자기 배를 그었다. 배에서는 순식간에 피가 흘러내렸다.

만석이가 다시 자기 배를 그으려 하는 순간,

복식이가 달려들어 그의 팔을 비틀자, 깨진 소주병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들1이 달려들어 오며 소리를 친다.

아 들1 : 아버지!

뒤 따라 영란이와 아들2가 달려 들어온다.

복식은, 축 처진 만석이를 누인 후, 피가 흐르는 배에다 자기의 속에다 입은 런닝셔츠를 찢어 감는다.

S#41.도로

119구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질주한다.

운전수 옆에 앉아 있는, 피 칠을 한 복식의 얼굴이 침통하게 일그러져 있다.

S#42.시장어귀.

배추, 무, 파 등의 야채를 가득 실은 작은 손수레를 끌고, 복자가 시장 어귀를 막 벗어났다. 한손엔 지팡이를 짚고, 또 한손은 창수의 팔에 의지해 걷고 있는 경희가 지나가다 힐끗 시선을 돌린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복 자 : 어머, 경희씨!

경희는 좀 무안해, 끼고 있던 창수의 팔에서 자기의 팔을 뺀다.

경 희 : 아,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방금 기브스를 풀었어요.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때 짝궁이에요.

당황하는 경희에게 애써 미소를 지어보이는 복자도 거부하기가 마찬가지이다. 창수가 목례를 한다.

복 자 : 병문안을 못 가서 죄송해요. 가게가 워낙 바빠서요.

경 희 : 아네요. 보내주신 위로금을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복 자 : 약소해요. 그러나 저러나 남순경님이 한시름 놓게 됐네요.

경 희 : 병 주고 약 주고 한 사람. 이젠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금명간 결판이 날거예요.

복 자 : 결판이 나다니요?

경 희 :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좀 바빠서요.

복 자 : 네, 다녀가세요.

창수도 목례를 보내고,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헤어져 간다.

건넌목을 건넌 복자가 뒤돌아서 봤을 때, 경희는 창수의 팔을 끼고 몸을 붙인 채 웃고 얘기하며 간다.

S#43.병원 앞

방금 세면을 마쳤는지, 복식이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손을 닦

으며 걸어 나온다. 옆에서 마치 강아지처럼 전경1이 출랑거리며 따라 걷고 있다.

복 식 : 살다 보니, 별 개새끼를 다 만나네.

전 경1 : 자기 배를 찌를 줄은 몰랐어요.

복 식 : 그게 그쪽 애들의 버릇이야.

전 경1 : 성질이 지독한 것 같아요.

복 식 : 험박이야.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다.

무심히 걷던 복식이 이상하게 한쪽으로 기우뚱한다.

비틀거리며 몇 발자국 더 걷다가 풀썩, 한쪽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는다.

전 경1 : 오순경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복 식 : 이상하다.

일어나려 하나 이미 마비가 된 왼쪽 다리에는 힘이 없다. 전경1이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하나, 복식은 일어서지 못한다. 계속 반복해도 마찬가지다.

F.O

S#44.여관 방(낮)

방바닥에 깔린 침구에서 잠을 자던 도영이가 슬그머니 눈을 뜬다.

천정을 바라보니 낮설다. 벽을 둘러봐도 역시 낮선 곳이다. 깜짝 놀라 일어나 주변을 살펴본다. 창 쪽으로 놓인 탁자위에 빈 소주병과 마시다

남은 소주병, 먹다 남은 오징어 다리들. 달랑 잔이 하나만 있는 것으로 봐 혼자서 마시고, 잔 것이 분명하다. 유리창 밖으로 비스듬히 바라보이는, 해피여관이라는 간판. 그것들을 보다가 그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린다. 일어나 탁자 위의 손목시계를 들고 보다가 잊은 게 생각난다는 듯 자기 머리를 친 후, 옷을 벗고 욕실로 황급히 들어간다. 끈이어 물 떨어지는 소리와 바쁘게 몸을 씻는 소리가 난다.

S#45. 전통찻집(한낮)

수원 근교에 있는 전통찻집이다. 한식으로 지은 건물의 주변은 성이 둘러서 있고, 시야가 넓게 퍼진 곳이 모두 푸른 잔디밭이다.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한 쪽엔 궁(弓)터가 있어, 지금 한창 궁사들이 활쏘기에 여념이 없다. 창가 자리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영란이가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다.

긴장이 되는지, 영란이가 탁자에 놓인 물컵을 들어 마신다.

사복차림의 도영이가 빠른 걸음으로 유리창을 지나, 안으로 들어와 잠깐 두리번거린다. 영란이가 고개를 쳐들면, 그녀를 발견한 도영이 앞자리에 앉는다.

도 영 : 오래 기다리셨지요?

영 란 : 아네요.

도 영 : 뭐 차를 시키지요.

도영이 손짓으로 종업원 여자를 부르면, 종업원이 다가 와 공손히 조아린다.

도 영 : 난 쌍화차. 그리고 약과를 줘.

영 란 : 저도 같은 걸로요.

도 영 : 이 집 한방 차는 다른 다방 같은 데선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 란 : 바쁘신데 뵙자고 해서 죄송해요.

도 영 : 아 아닙니다. 쓸쓸할 때면, 종종 혼자 여길 오지요. 시야가 우선
싱그럽잖아요, 왜?

영 란 : 오늘도 쓸쓸하셨던가 봐요?

도 영 : 방금 잠에서 깬을 때는 그랬지요. 그런데, 미인과 마주 앉은 지
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기분입니다.

영란이가 가볍게 웃고, 도영이도 따라 웃는다. 그런 후 침묵이 흐른다.
무심코 도영이가 시선을 창으로 주면, 따라서 창밖을 바라보는 영란이.
그 시선으로, 카메라, 룡샷으로, 나란히 서서 활쏘기를 하는 네 명의 궁
사들.

S#46. 궁터.

과녁 세 곳에 화살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꽂인다. 그런데, 한 과녁에는
화살이 빗나가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헛 화살을 쏜 궁사가 과녁 쪽
으로 걸어가 빗나간 화살을 찾는다.

S#47. 찾집 안.

영란이 시선을 돌리며 조심스럽게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연다.

영 란 : 방금 언니를 면회하고 오는 길예요.

도 영 : 그랬군요. 언니는 어떠신가요?

영란이가 핸드백에서 흰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영란 : 자꾸 울기만 해요. 자기 때문에 남 순경님이 곤욕을 치루는 것은 그냥 볼 수가 없다고 해요. 형부한테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형부를 만나야 하겠다는 것예요.

도영 : 그런데, 이 봉투는 뭐니까?

영란 : 언니는, 오히려 자기가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데, 이 50만원은 죽어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도영 : 그것, 참!

영란 : 외출 신청을 했더니, 병원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요. 기본 치료가 끝나는 육개월 이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영 : 정신병원의 규칙이 원래 그렇지요.

이때, 종업원이 약과와 차가 담긴 쟁반을 들고 와, 약과는 가운데에, 차는 두 사람의 앞에 각각 놓는다.

종업원 : 맛있게 드세요.

종업원이 조용한 걸음으로 가버린다.

영란 : 언니는 자꾸 죽고 싶다고 울기만 하는데.....

영란이가 머리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흐느낌은 도가 더 높아진다. 바라보는 도영의 눈도 충혈이 된다. 그렇게 시간이 꽤 길게 이어진다. 도영이가 탁자위의 내프킨 여러 장을 꺼내 영

란이 손에 쥐어준다. 영란이 내프킨들을 받으며 흐느낌을 줄인다.

영 란 : 죄송해요. 언니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요. 언니는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를 기르다시피 했거든요. 교육대학 다니는 학비도 언니가 식모살이를 하면서 마련했어요. 차라리 제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도 영 : 그러면 안 되지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저기, 과녁을 빗나간 화살을 주워다 다시 쏘는 것. 삶도 마찬가지로 일 거예요. 잠시 빗나갔다고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화살을 다시 주워 오듯이, 자기의 삶을 다시 추슬러야 되지 않을까요?

영 란 : 그럴까요?

눈물로 젖은 얼굴을 쳐든 영란이의 얼굴에 얇은 미소가 어린다.

도 영 : 그럼요.

마주 보는 도영이의 얼굴에도 미소가 어린다.

두 사람, 잠시 동안 애정 어린 시선을 주고받는다.

S#48.병실(낮)

침대 4개가 있는 병실이다. 두 곳은 비어 있고, 구석 쪽에 환자노인 한 명이 누워 있다. 환의를 입은 복식이가 팔에는 링거를, 양쪽 콧구멍에는 산소 흡입기를 꼽고 상체를 약간 올린 채, 과일을 우적거리며 먹고 있다. 그 곁에 앉은 복자가 복식의 힘없이 늘어진 왼쪽 다리를 주무르고 있다. 음료수 박스를 든 도영이가 천천히 들어서면, 복자가 일어나 반색을 한다.

복 자 : 어서 오세요. 집에서 꼭 쉬셔야 할 텐데.

도영이가 음료수 박스를 내밀면, 복자가 두 손으로 받는다.

복 자 : 어저께도 사오셨는데, 자꾸 이렇게 돈을 쓰면 어떻게 해요?

복 식 : 어저께는 과일이었잖아.

도영이가 보며, 잘 있었나?

복식어도 마주 보며, 그래, 어서 와, 반갑다.

두 사람은 말없이 대화를 나누고, 마주보며 미소를 짓는다.

복자가 뒤쪽의 의자를 끌어당겨 놓으면, 도영이가 앉는다.

복 식 : 짜식, 어제 얼굴에 화색이 도는데? 뒷전에서 뭐 꿇꿇이수작을 하는 거 아냐?

도영이는 미소를 지으며, 복식의 늘어진 다리를 슬슬 쓰다듬다가 꼬집어본다. 위쪽으로 손을 올려 또 꼬집어본다. 아무 감각이 없는 복식이 가다 먹은 과일의 속을 침대 아래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느라 몸을 옆으로 돌린다. 도영이 일어나서 도와주며, 복식의 다른 다리를 쓰다듬다가, 꼬집는다.

복 식 : 아야!

비명을 지르며 도영이를 보면,

도 영 : 엄살은 아니구나.

복 식 : 자식!

복자가 복식의 옆에 걸터앉으며,

복 자 : 풍은 풍인데, 혈관이 터진 게 아니라, 막혔대요. 그래도 천만다행예요.

도 영 : 폭 쉬고. 팔자가 좋은 거지. 나도 이렇게 쉬고 싶다. 아예 쓰러져서 폭 잠이나 잤으면 좋겠어.

복 식 : 미친 자식! 그런데, 어저께 집에 안 들어갔다면서?

도 영 : 만사가 귀찮다. 마누라 꼴도 이젠 보기 싫어.

복 자 : 오전에 왔다 갔어요.

복 식 : 자기가 잘못하고, 딴 소리야? 마누라는 말이야.....

복식이 옆에 앉아 있는 복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다. 쓰다듬고 또 쓰다듬는다. 복자는 싫지 않은 얼굴로 미소를 짓는다.

복 자 : 남들 보는데서 왜 이래요?

복 식 :어루만져 주고, 쓰다듬어 줘야 좋아해. 너처럼 시도 때도 없이 죽은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눈물만 짜면,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나? 자기 잘못을 먼저 생각해야지.

복 자 : 남 순경님 잘못은 없어요.

복 식 :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복 자 : 내가 뭘 몰라요? 다 알고 있다고요.

복 식 :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렇게 맞먹자고 대들 때는 따끔하게.

복식이는 쓰다듬던 복자의 엉덩이를 찰싹, 소리가 날정도로 거세게 두 차례나 후려갈긴다.

복자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나 복식을 노려본다.

복 자 : 이 양반이 미쳤어?

건너편 침대에 누워 있는 노인환자가 이쪽을 보며 낄낄거리며 웃는다.
복자가 웃고 있는 노인을 보다가, 달려들어 복식의 어깨 쪽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계속해 때린다.

복 식 :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복식은 매를 피하며 손을 싹싹 부빈다.

복 자 : 환자만 아니었다면, 그냥!

매질을 멈춘 복자가 씹씹거리며, 주먹을 쥐며 내지르는 시늉을 한다.
도영은 웃는다.

도 영 : 참 배울 점이 많구나.

복 식 : 하여튼 사내새끼가 집 밖으로 나돌지 말고 들어가. 일을 내더라도 집안에서 내야지. 여보, 가게에 가는 길에 이 사람을 집에다 좀 데려다 줘.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른다.

복 자 : 세상사는 거, 왜 이렇게 힘들까.

도영은 천정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쉰다.

S#49.병원 공중전화 부스

같은 병원 복도 한쪽의 공중전화기가 놓여 있는 곳이다. 앞자락을 벌인 환의 안으로 배 전체를 감은 흰 붕대가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만석이가 송수화기를 들고 고함을 치듯이 얘기를 한다. 그 뒤에는 남녀, 세 사람이 서서 대기하고 있다. 전화를 걸고 있는 등 뒤로 도영이와 빨래거리를 손에 든 복자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만 석 : 경찰이라는 새끼들이 이러니까, 이거 우리 같이 힘없는 국민이 어디 살 수가 있습니까? 나 이거 억울해서 환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의 신문이 이런 비리를 까발려야지요. 나, 지금 그 새끼들의 구타로 병원에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처집니다. 네, 그렇지요. 좋은 소식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만석이는 만족한 웃음을 웃는다.

만 석(혼자소리) : 개새끼들, 죄다 모가지다.

들고 있던 메모지를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한곳을 짚으며,
송수화기를 다시 든다. 뒤에 서 있던 여인이 만석이의 어깨를 친다.

여 인 : 아저씨, 혼자서 공중전화기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

금 대체 몇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뒤의 남자 둘이 한 마디씩 한다.

남 자1 : 공중전화를 샀나? 우리도 바쁜데.

남 자2 :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네.

만석이가 뒤돌아보니, 뒤의 세 사람들, 쏘아보는 시선이 무섭다.

만석이가 자기 배를 싸쥐며 옆으로 비킨다.

만 석 : 아이고 배야.

S#50.도영의 집 앞

복자와 도영이가 함께 들어오다가 멈춘다.

도 영 : 혼자 들어갈게요.

복 자 : 그러시겠어요? 아무래도 부부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도 영 : 공연히 심려를 끼쳐 미안합니다.

복 자 : 아네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죄송해요.

도 영 : 별 말씀.

복 자 : 저도 가게에다 아주머니를 하나 뒀는데,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그럼.

두 사람은 인사를 하고 헤어진다.

S#51. 집안

집안에서는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장모가 방에서 청소기를 들고 구석구석을 훑는다.

도 영 : 오셨어요?

장 모 : 자넨가? 식사는 어떻게?

도 영 : 먹었습니다.

장 모 : 얼굴이 많이 안 좋아졌어. 아이고, 왜들 이렇게 살까?

도 영 : 이 사람은 어디 갔나요?

장 모 : 나도 모르겠어. 보따리를 갖고 집에 왔길래, 내가 내쫓았어. 죽어도 남 서방 곁에서 죽으라고.

방안을 살펴보니, 화장대 위의 화장품이 하나도 없다.

옷장을 보고, 장롱서랍을 뒤져봐도 여자의 옷가지는 하나도 없다.

장 모 : 일전에 내가 자네한테 손찌검을 한건 내가 정신이 없었던 거야. 제 정신이 아니었어.

도 영 : 알고 있어요.

장 모 :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됐나봐.

장모는 한숨을 내쉬며 옆방으로 간다. 청소기 소리는 여전히 계속된다.

방안을 서성거리던 도영이가 화장대 위에 놓인 경희와 찍은 사진을 들고 물끄러미 들여다본다.

도 영(소리) : 너의 말 없는 울림에 오늘도 먼산바라기 되돌아 올 메아

리도 없는 첩첩산중만 바라보며 나는 하염없이 기다린다. 세월이 약이
러니 망각의 강물을 건너보아도 내 운명선을 가로지르는 선명한 사랑
의 곡선은 올라가미처럼 나를 묶어두고 있구나.

도영의 눈에 물기가 배기 시작한다.

F.O

S#52.파출소 안(낮)

무전기 소리만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한산하다.

전화기 옆에 순경1이 뭔가를 쓰고 있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소장이 서랍에서 돈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는다.

그 앞에 죄인처럼 도영이가 서 있다.

소 장 : 이걸 되가져오면 어떻게 하나?

도 영 : 죽어도 못 받겠다고 합니다.

소 장 : 그러면 죽어도 드려야 하겠다고 해야지. 저렇게 자해를 하고
병원에 드러누워 있으니, 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있다. 그래 병원에
는 문안은 갔었나?

도 영 : 아직 못 갔습니다.

소 장 : 못 갔는가, 안 갔는가?

도 영 : 죄송합니다.

소 장 : 이 사람아!

소장이 느닷없이 책상을 치면서 자리에서 일어선다.

이때 당직 자리에 있는 전화기가 울리면, 전화를 받는 순경1.

소장이 소리를 지르며 뭔가를 얘기하려다 참는다.

순경1(전화) : 두리파출소..... 네, 있습니다. 이백 십일호요? 남순경님,
전화 받으세요. 검찰청입니다.

소 장 : 또 뭐야? 받아 봐.

도영이가 전화기로 가서 송수화기를 든다.

도 영 : 남도영순경입니다. 네? 집 사람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화기를 내려놓는 도영이, 안색이 새파래지며,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비칠거리며 도영이 다시 소장 앞으로 가 선다.

그 사이 화가 풀린 소장이 돈봉투를 도영이 앞에 던지듯 놓는다.

소 장 : 무슨 일이야?

도 영 : 집안 일입니다. 이백 십일호 검사실에서 내일 아침에 출두하라고 합니다.

소 장 : 참 여러 가지를 하는구먼. 이거 가지고 병원엘 찾아가서 치료
비로 쓰라고 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작자니까, 먼저 입을 틀어막아
야지.

돈 봉투를 집어 들고 자리에 가 앉자, 출구가 열리며 카메라를 든 신문
기자들 다섯 명이 몰려 들어온다.

그들은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 카메라 셔터를 마구 누른다.

소 장 : 이건 또 뭐야?

신문기자1 : 강간사건은 왜 은폐했습니까? 경찰에서는 원래 강도사건만 다루고, 강간사건은 감추는 것입니까?

소 장 : 그게.....

신문기자2 : 모종의 흥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신문기자3 : 남도영 순경이 누굽니까? 성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관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이 카메라맨들은 계속해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다.

소장은 얼떨떨하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기자들에게 의자를 권한다.

소 장 : 앉아서 차분히 얘기를 합시다. 여봐 김순경, 여기 음료수 좀 사 오고, 남순경은 앉아서 뭐 하는 거야?

도영은 차라리 각 죽고 싶은 심정이 들며 머리를 책상에다 처박는다.

S#53. 211호 검사실 문앞.(낮)

문 앞에서 서성거리던 점퍼차림의 도영이가 용기를 내며 문을 두들긴다.

검사서기(소리) : 들어오세요.

도영이 문을 열고 기다시피하며 들어간다.

S#54. 검사실.

도영이가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문을 닫으면, 문 앞에 앉아 있던 검사서기가 거드름을 피우는 태도로 쳐다본다.

도 영 : 두리파출소의 남도영순경입니다.

서 기 : 그래요?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부인이 소장을 냈어요.

도 영 : 뭐라고 소장에 썼습니까?

서 기 : 이 양반아. 당신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 안해?

도 영 : 뭘 말씀하시는 건지요?

서 기 : 이것 봐요. 진단서가 두 장이나 첨부됐어. 하나는 이주, 하나는 사주야. 우리 영감님이 당신을 구속하라는 거야.

도 영 : 구속이라고요?

도영이 놀라며, 슬그머니 칸막이 안쪽을 들여다보면, 커다란 의자가 비어 있다.

서 기 : 남자가 여편네 따귀를 때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발로 밟아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은, 이거 어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이요?

도 영 : 따귀를 때린 건 안 사람이 연락도 없이 외박한 다음 날인데, 그 건 핑계에 그랬는데, 제가 잘못했구요. 다리가 부러진 것은, 그게, 참.

서 기 : 이젠 변명 같은 건 판사 앞에 가서 하셔야 돼. 영감님은 당장 구속하라고 하시지만, 공무원이고 해서 특별히 내가 사흘 간 말미를 줄테니까, 부인과 잘 합의를 하여 빨리 소를 취하하도록 하셔.

도 영 : 그러니까.

서 기 : 시간을 죽이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세요.

도영은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굵신 허리를 굽히고 돌아선다.

S#55.택시 안.

넋이 나간 듯 멍한 도영이가 뒤 자리에 앉아 있다.

택시에 붙어 있는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다.

라디오(소리) :성폭행을 은폐한 경찰은 피해자 남편이 항의하자, 돈50만원을 주며 이사하기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이를 다시 따지자, 경찰은 네가 사람이냐, 하면서 마구 집단 구타해서 현재 병원에 입원 가료 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근래 들어 경찰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날씨입니다.

윤전수 : 개새끼들이야. 경찰새끼들 다 때려 죽여다 돼.

난감한 도영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진다.

S#56.도영의 집 안(밤)

정장차림의 경희가 침대에 걸터앉아 껌을 씹으며 여러 장의 신문을 뒤적인다.

기사 제목들이 장을 넘길 때마다 바뀐다.

__성폭행사건, 쉬쉬한 경찰.

__강간사건을 은폐한 경찰, 들통나자 50만원을 주며 이사를 종용.

__제 정신 없는 경찰, 성폭행사건 은폐.

슬그머니 문이 열리며 들어서는 도영이, 경희를 발견하자 우선은 반갑다.

쳐다보다가 경희는 외면한다. 도영이 침대 위의 신문에 무심히 시선을 주다가 점차 얼굴이 무참하게 일그러진다. 도영이 뒤돌아서며 벽을 바라본다.

도 영(소리) : 바람이 분다. 가로수 이파리가 지고 이파리 같은 우리의 사랑도 진다. 사랑에도 계절이 있는가. 봄은 짧고 겨울은 길어서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질 때 우리의 사랑도 진다.

경 희 : 아침에 검찰청에 들렀지요? 나도 연락을 받았어요. 공무원 신분이니까 구속이 되지 않도록 잘 합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도 영 :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경 희 : 우리의 관계는 진작 끝났잖아요. 이제 헤어지는 절차만 남았어요.

도 영 : 절차

경 희 : 애초에 당신 직업때문에 집에서들 반대했지만, 난 당신의 인간성을 믿었어요.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깐, 내가 생각했던 당신이 아니었어요. 그 동안 내가 한 노동의 대가는 받아야 하겠어요.

도 영 : 노동이라니, 당신이 무슨 노동을 했어?

경 희 : 가사 노동. 또 잠자리 노동.

도 영 : 허!

도영은 기가 막힌다. 차라리 웃음이 나와 시니컬하게 웃는다.

경 희 : 나도 많이 양보해서 제시하는 작은 조건예요. 싫으면 그만두고 법대로 해도 좋아요.

긴 침묵이 흐른다.

도 영 : 이집 전세계약서 당신이 갖고 있으니까, 모두 찾아서 당신이 가져. 나는 하숙을 하면 그만이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이것이 나의 전 재산이잖아.

도영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그 뒤 모습을 여전히 짹짹 껌을 씹으며 무심히 바라보는 경희.

S#57.파출소 안(낮)

한가한 파출소 안에 당직순경1이 앉아 있고, 차석인 경사가 그 옆 자리에서 뭔가를 쓰고 있다. 출구가 열리며 서류를 손에 든 소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힘없이 들어선다. 차석이 재빨리 일어나 소장을 맞는다.

차 석 :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은 고개만 끄덕이며 자기 자리에 가 앉는다. 차석이 그 옆에 조아리고 서며 소장의 눈치를 살핀다. 소장은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는다.

차 석 : 숙직실에 가셔서 잠시 누워계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소 장 : 괜찮아.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야.

차 석 : 엉뚱한 자식 때문에 소장님이 당하셨으니, 인사위원들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소장님은 그냥 경고 정도 때리겠지요, 뭐.

소 장 : 아냐. 방송과 신문에서 경찰 전체를 짜잡아 매도한 사건이라 인사위원들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군. 내년이면 정년인데 꼴이 이

게 뭐야.

차 석 : 그림, 소장님이?

소 장 : 힘들겠어. 옷을 벗어야지.

차 석 : 개자식!

S#58. 징계위, 실내

가운데 총정 계급을 단 위원을 중심으로 양쪽에 경정, 경감 계급을 단 인사위원 세 명과, 사복을 한 위원 한 명이 앉아 있고, 그 앞에 앉은 도영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위 원1 : 그래가지고 어디 경찰생활을 해내겠는가? 우는 이유가 대체 뭔가?

도 영 : 소장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요.

위 원2 : 그러니까 애초에 일처리를 똑바로 했어야지.

도 영 : 죄송합니다.

도영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 코를 킁다.

위 원3 : 잘못은 자네가 했지만 책임은 감독자인 소장이 더 커. 그 사람은 내년이 정년이라 봐주고 싶었지만, 이 사건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이라든가, 경찰 전체에 먹칠을 한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야.

도 영 : 그건 안됩니다. 모든 책임은 저 혼자 지겠습니다.

위원4(사복) : 사실 우리 검찰에서는 소장하고 남순경을 구속하려 했지만, 가재가 게 편이라고, 어디 그럴 수가 있나? 그점 유념하라고.

도 영 : 감사합니다.

위원장 :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면 하게.

도 영 :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소장님은 제외하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 무슨 말인지 알겠네. 한 가정을 보호하려고 사건을 은폐한 사실은, 인정상 개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네. 곧 징계의결서가 발부될 것이니까, 반성하는 마음으로 대기하기 바라네. 이상

도영이 다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코를 킁다.

S#59.병원 재활치료실(낮)

복식이 재활치료실에서 걷기 연습을 하고 있고, 복자가 옆에서 거든다. 징계의결서를 손에 든 도영이가 다가서면,

복 식 : 아주 유명인사가 됐더군. 방송하고 여러 신문에 이름이 났으니 뭐라고 말해 야 할까? 축하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렇게 호되게 해야 찢찢 찢는 버릇이 고쳐질 것이다.

복 자 : 당신, 말을 해도 왜 그렇게 해요? 듣는 사람 심정도 생각해야지요.

도영이는 씩쓰레한 미소를 짓는다.

복 식 : 재 심정이 어때서? 좋다고 웃고 있잖아. 손에 든 건 뭐야?

복식이 도영에게서 징계 의결서를 빼앗아 펼쳐본다.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제 1항 1,2,3호에 의거하여 정직 3개월에 처함.

징계 의결서를 읽은 복식이 큰 소리로 웃는다.

복 식 : 팔자 편하게 됐네. 소장님은 웃을 벗었다고?

도영이는 여전히 씩쓰레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복 자 : 조금 전에 차석이 왔다 갔어요.

복 식 : 팔자라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겠나?

복식이 힘겹게 걷기 연습에 몰두한다.

S#60.공원(낮)

햇빛이 쏟아지는 공원을 영란이와 도영이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산책을 한다.

영 란 :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이 그렇게 크게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도영이는 하늘을 쳐다보며 숨을 크게 내쉰다.

도 영 : 운명이라고 생각해야겠지요.

영 란 : 뭐라고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식사나 대접하고 싶었어요.

도 영 : 이젠 다 결정난 일이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언니는 잘 계신가요?

영 란 :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형부가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한

것도요.

도 영 : 치료비 50만원을 형부한테 가져다 줬을 때는 이혼에 관한 얘기는 없었는데, 참 알다가 모를 일이네요.

영 란 : 역시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내일 치킨이나 한 마리 사가지고 언니를 면회가려고 해요. 언니는 치킨을 좋아 하거든요.

도 영 : 언니가 보고 싶군요.

두 사람은 다정히 한가롭게 걷는다.

S#61.정신병원 앞(낮)

도영이와 영란이 면회실에 앉아 있는데, 환의차림의 영애가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선다. 두 사람 일어나 그녀를 맞는다.

영애가 앞자리에 앉으면 영란이가 영애의 옷매무새를 고쳐준다.

영 란 : 언니, 얼굴이 참 좋아졌다.

영 애 : 그래? 남순정님은 바쁘실 텐데, 고마워요.

도 영 : 뵙고 싶었어요. 평안한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영란이가 앞에 놓인 보자기를 풀고 튀긴 닭고기를 뜯어 영애에게 쥐어 준다.

영 애 : 남순정님을 먼저 드려야지.

도 영 : 아닙니다.

영 란 : 언니가 먼저 받고.

영란이는 영애에게 닭고기를 쥐어준 후, 도영에게도 닭다리를 건넨다.
도영이는 손을 내젓는다.

영 란 : 받으세요. 그래야 언니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잖아요.

마지못해 도영이가 닭다리를 받으면, 영란이가 자잘한 무를 집어 영애의 입에 넣어준다.

영 애 : 너도 먹어.

영란이도 작은 덩어리를 집어 씹으면, 도영이도 닭다리를 뜯어 먹는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미소를 짓는다.

영 애 : 두 사람이 꼭 부부같아 보인다.

밖에는 환자들의 산책시간이어서, 환자들이 떼를 지어 나와 돌아다닌다.
그들을 바라보는 영애의 얼굴이 웬일인지 어두워진다.

F.O

S#62. 여관방(밤)

바닥에 빈 소주병과 마시다 남은 소주, 그리고 먹다 남은 안주들이 널려 있다. 초저녁인데 잠에서 깬 도영이 일어나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본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우산을 들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밤의 거리 모양이 눈에 들어온다. 정직기간이라 무직자 신세가 쓸쓸하다.

도 영(소리) : 아프고 지쳐 쓰러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상처를 알아나갈 때 외로워라, 삶은 한낱 세상과의 끝나지 않는 싸움이려니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 마침내 외로움과 싸우다 맥없이 쓰러지네. 겨울. 빈 별판과 같은 가슴들 눈물로 출렁이고 출렁여 은빛 이랑 하나 이루었네. 세상에 누구인들 울면서 태어나지 않았겠느냐 누구인들 홀로 울며 가슴 쳐보지 않았겠느냐.

도영이 방안을 서성거리다가, 마시다 남은 소주병을 들어 잔에다 따른다. 잔을 들고 마시려다 말고 벽에 걸려 있는 상의를 입고 밖으로 나간다.

S#63.거리(밤)

비가 내리는 거리다. 도영이 비를 맞으며 걸어간다. 길에서 우산을 파는 노점이 있다. 도영이 노점에서 우산을 사서 펴들다가 문득 보면,

S#64. 공중전화 박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도영.

송수화기를 돌리고, 뭔가를 말하는 모양이 빗물이 흘러내려 마치 실루엣처럼 보인다. 도영이 다시 밖으로 나온다. 비를 맞으며 가다가 불현듯 우산을 펴든다.

S#64. 술집 파라다이스 앞

도영이 입구에서 우산을 접으면,

웨이터 : 어서옵서.

급신하다가 도영이를 그제야 알아본다. 도영이가 웃어 보이면,

웨이터 : 아니 남 순경님, 혼자세요?

도 영 : 아니, 조금 있다가 손님이 올거야.

웨이터 : 그 깡패아저씨요?

도 영 : 아니, 여자야. 머리칼이 긴 여자가 날 찾거든 잘 모셔와.

웨이터 : 잘 알았습니다.

웨이터가 앞서면, 도영이가 따라 안으로 들어간다.

S#65. 파라다이스 안

요란한 밴드음악이 실내를 흔든다. 웨이터가 빠르게 안으로 들어오고,

도영이 따라 들어오는데, 입구에서 잘 보이는 자리가 눈에 띈다.

S#66. 구석 쪽 테이블

깍다리와 땅달보가 각각 아가씨를 옆에 끼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

그들이 마시는 술은 폭탄주다. 탁자 위에 놓인 말보로 담배꽂이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

S#67 .다른 테이블.

도영이가 자리를 잡고 앉는다.

웨이터 : 술은 뭘로 하실까요?

도영이가 턱짓으로 건너편 테이블을 가리키며,

도 영 : 저런 걸로.

웨이터 : 폭탄주. 안주나요?

도영 : 알아서 가져와. 그리고 담배 한 껍도 가져오고.

웨이터 : 담배도 알아서 가져올까요?

도영이가 고개를 저으며, 또 건너편 테이블을 가리킨다.

도영 : 저런 걸로.

웨이터 : 말보로 한 껍. 아가씨는 영계가 좋겠지요?

도영 : 아가씨는 필요 없어. 여자 손님이 오니까.

웨이터 : 알았습니다. 곧 술을 대령하겠습니다.

웨이터가 급히 가버린다. 도영이 무심히 시선을 돌리면,

S#68. 구석 쪽 테이블.

꺅다리가 옆의 아가씨 앞자락에 지폐몽치를 넣어준다. 그리고 키스를 하며 유방을 주무른다. 땅달보가 폭탄주 잔을 들어 마신다. 그 옆의 아가씨가 땅달보의 아랫도리를 주무른다.

아가씨 : 자기도 저렇게 좀 줘봐.

땅달보가 지갑을 열어 자기 앞 수표 세 장을 아가씨의 손바닥에 쥐어준다.

아가씨 : 이차를 나가자면 두 장을 더 줘야지.

땅달보가 한 장을 더 준다.

S#69.도영의 테이블.

웨이터가 과일 안주와 양주, 그리고 맥주 세병을 가져다 놓고, 주머니에서 말보로담배를 꺼내 도영이 앞에 놓으면, 도영이 담배를 뜯는다. 웨이터 라이터를 켜 불을 붙여준다.

웨이터 : 남순경님 원래 담배를 안 피우시잖아요?

도 영 : 오늘은 피우고 싶어졌어.

웨이터는 맥주병을 따고 양주를 따르며 폭탄주를 만든다.

웨이터 :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담배가 약이 되지요.

S#70. 구석 쪽 테이블.

땅달보와 껍다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면, 그 사이 외투를 걸치고 핸드백을 든 아가씨 둘이 함께 일어선다. 껍다리가 계산대로 향하면, 땅달보가 탁자 위의 말보로 담배를 집어 주머니에 넣고 움직이면, 두 아가씨가 뒤를 따라 나간다.

S#71. 도영의 테이블

웨이터가 다 만든 폭탄주를 도영이 앞에 놓는다.

도영이가 술잔을 들면 웨이터, 나가는 사람들을 톡짚하며,

웨이터 : 이차를 나가잖아요. 저 사람들은 오기만 하면 꼭 이차를 나가요.

도 영 : 돈이 많은 사람들인가 봐?

웨이터 : 껍다리하고 땅달보. 돈을 물쓰듯이 해요.

도 영 : 너도 한잔 해라.

도영이가 마신 빈 잔을 웨이터에게 건네면,

웨이터 : 규정에 저희는 손님 자리에서 술을 못 마십니다.

웨이터가 손을 내저으며, 내민 잔에 맥주를 붓고, 양주를 따른 작은 잔을 맥주컵 안에 넣어준다.

웨이터 : 그럼 즐거운 시간이 되십시오.

웨이터가 밖으로 나간다. 도영이 다시 잔을 들고 마신다. 경쾌한 밴드 음악이 지루박 음악으로 바뀐다. 도영이가 무심히 밴드들 앞을 보면,

S#72. 무대 전면.

네 쌍의 남녀가 나와 껴안고 지루박을 춘다. 그 네 쌍 중에 경희와 서창수가 있다.

S#73.도영의 테이블.

경희와 서창수를 발견한 도영이, 마시던 술잔을 놓고 깜짝 놀라며 자기 눈을 의심한다. 이때 웨이터 안내를 받으며, 접은 우산을 든 영란이가 들어온다.

영 란 : 안녕하셨어요?

도 영 : 어, 어서 오세요.

도영의 시선은 다시 무대 쪽으로 갔다가 온다. 영란이가 어색한 자세로 자리에 앉는다.

영 란 : 쓸쓸하다고 하셔서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런데 오면 안되는데.

도 영 : 괜찮습니다. 아이들을 바로 가르치자면, 이런데도 있다는 걸
아셔야지요.

웨이터가 가져다 놓은 맥주컵에 도영이 맥주를 따른다. 시선은 다시 정
면 무대로 향한다.

S#74. 무대 전면.

경희와 서창수의 입술이 포개진다.

감미로운 입맞춤이 끝나자 경희는 창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다.

S#75. 도영의 테이블.

도영의 시선을 따라 뒤를 돌아보던, 영란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리
고 도영의 안색을 살핀다.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술잔을 드는
도영이다.

영 란 : 아시는 사람들인가 봐요?

도 영 : 지난달까지는 내 아내였던 사람이지요.

영란이가 다시 뒤돌아 본 후,

영 란 : 그러면 이혼을 하셨군요.

도 영 : 그랬지요. 그 사건 이후.

영란이의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 사건 이후라는 말에 충격을 받으며 슬픔이 몰려든다. 다소곳이 앉아 있는 영란이를 바라보는 도영이 벌써 취했다. 영란이의 얼굴이 오버랩 되며, 영애의 울부짖는 모습이 된다.

S#76. 인서트

썬 9의 중간 부분.

영 애 : 식칼을 내 목에다 대면서 죽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작은 놈이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다 나를 덮어씌웠어요.

S#77.도영의 테이블.

영란이는 쿨쩍거리고 있는데, 펄떡 정신을 차린 도영이가 채떨이의 꿈초를 집어 들어본 후, 제 정신없이 밖으로 뛰어나간다.

S#78. 파라다이스 앞.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다.

우산을 들고 행인들이 지나갈 뿐 거리는 공허하다.

웨이터 : 왜 그러세요, 남순경님?

도 영 : 이 새끼들 어디 갔어?

웨이터 : 누구요?

도 영 : 방금 나간 작은 새끼하고 큰 새끼.

웨이터 : 땅달보 하고 꺾다리요? 벌써 갔지요. 뭐, 김새라도 잡은 거 있

나요?

도영 : 맞아. 맞았어, 그 자식들이야.

웨이터 : 이제야 알아차리셨군요.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하는 소리가
밤낮 남의 집터는 얘기 뿐이었다구요.

도영 : 왜 그 애길 왜 진작 하지 않았어?

웨이터 : 하려고 했는데 아저씨들이 듣지 않았지요, 참

다시 주변을 둘러봤으나 공허하게 비만 뿌리고 있었다.

낭패감으로 한숨을 내뿜는 도영이다.

웨이터 : 다음에 그 자식들이 오면 연락드릴게요. 손님이 계신데 들어가
세요.

이때 영란이가 다가와 도영이의 팔을 껴안는다.

S#79. 여관 방.

팬티만 입은 도영이 이불 밖에서 모로 잠을 자고 있고,
이불을 덮고 있던 영란이 눈을 뜨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일어난 영란이 알몸이 드러나 보이는 슬립 차림이다.
천천히 그녀는 벽에 걸린 옷을 벗겨 입고, 머리를 가다듬는다.
그냥 나가려다 말고, 젖혀진 이불을 끌어다 도영에게 덮어준다.
그런 후 주변을 한번 훑어본 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S#80 .공사장(낮)

아파트를 짓는 공사장이다.

목에 수건을 걸친 도영이가 질통을 지고 층계를 힘겹게 올라간다.

S#81. 파라다이스 앞(밤)

쓰레기통이 옆에 있는 후미진 곳이다.

쭈그리고 앉아 있는 도영이의 시선은 파라다이스 입구에 가 있다.

구멍가게에 갔다 오는 웨이터가 도영이 쪽을 힐끗 보다가 지나간다.

얼마쯤 걸어가던 웨이터가 다시 돌아와 도영이를 자세히 살펴본다.

웨이터 : 아니, 남순경님이 여기서 뭘 하세요?

멋쩍은 도영이 일어난다.

도 영 : 그냥 놓고 있다. 요즘 그 땅달이와 격다리라는 놈들 안 오냐?

웨이터 : 아하, 잠복근무 중이군요. 그 사람들, 요즘 못 보겠는데요.

도 영 : 그놈들 오면 곧장 연락해라.

웨이터 : 알았습니다.

S#82. 공사장(낮)

도영이가 빈 질통에 자갈을 담느라 뒤 돌아서 있고,

인부는 열심히 삽으로 자갈을 퍼 질통에다 담는다.

공사장 안으로 순경1이 운전하는 경찰 순찰오토바이가 들어온다.

도영이를 발견한 순경1이 오토바이를 세운 후 책 한권을 들고 반색을 하며 다가선다.

순 경1 : 아 한참 찾았네. 여관 아주머니가 처음엔 모른다고 딱 잡아 떼

잘아요.

도 영 : 웬일이야?

순경1이 책자를 건네면, 도영이 받으면, 월간잡지 현대시학.

순 경1 : 거기에 남순경님 시가 게재됐어요. 그리고.

순경1이 메모지 한 장을 건넨다.

도 영 : 이걸 또 뭐야?

순 경1 : 신문사 문화부장이라는데 시인이랍니다. 남순경님의 시를 읽고,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거 전화번호입니다.

도 영 : 양기문부장? 아니, 이 양반은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S#83.호텔 스카이라운지(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스카이라운지다.

빵떡모자에 파이프 담배를 문 양기문시인과 도영이 마주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다.

양기문 : 첫 월급이라는 시를 읽고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성폭행사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지요. 시를 쓰니까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거지, 그런데 주인공은 아무나 될 수가 있나? 하하하

도영은 얼떨떨하기만 하다.

도 영 : 죄송합니다.

양기문 : 죄송하긴. 사회부 기자 애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인간적이고 멋진 이야기야.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야. 그 시에서의 표현 중에, 땅이 바로 하늘이라든지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김매러 가셨네, 는 참으로 좋았어. 써 놓은 시가 많지?

도 영 : 그냥 습작품이 조금 있습니다.

양기문 : 다 가져와 봐. 내가 가필정정하고, 추천서를 써서 시집을 한권 내줄게. 앞으로 좋은 시를 쓸 것 같아.

도영이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기쁘다.

S#84. 화성행궁(行宮) 봉수당 앞(낮)

도영이와 영란이가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다.

어쩐 일인지 두 사람은 슬픈 얼굴이다.

도 영 : 전화로 언니가 자살했다는 얘길 듣고, 인생이란 참 허망하구나 하는 걸 또 느꼈지. 어머니의 죽음을 생각하면 그 생각은 지워지지 않아.

영 란 : 전 언니가 불쌍하기만 해요. 그저 고생만 하다 갔어요.

도 영 : 팔자가 기구하다고 해야겠지. 형부란 사람이 왜 또 병원까지 찾아가서 모든 걸 까발리고, 협박하고 그랬을까? 그런 작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부터 어쩌면 악순환의 운명이 시작되었는지 모를 일이야.

S#85. 화성행궁의 장락당 앞.

도영이가 영란이를 팔에다 보듬고 걷는다.

영 란 : 산책하다 주는 유리조각으로 팔의 동맥을 꿰었다는데, 대체 병원 사람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원망스러워요.

도 영 : 열 사람이 도둑 한명을 못 지킨다는 말처럼, 죽기로 작정을 한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 유서에는 화장을 해서 유골을 강에다 뿌려 달라고 했다면서?

S#86. 강 위(낮)

출렁거리는 나룻배 위에 도영이와 영란이 앉아서 유골을 강에다 뿌리고 있다. 가끔씩 얼굴을 마주 바라볼 뿐, 말이 없다. 지나가는 바람이 체념한 듯 냉담한 두 사람의 머리칼과 옷자락을 흔든다. 유골을 다 뿌린 도영이 강을 향해 손바닥을 톡톡 던다. 영란이 아직 뺨가루가 남은 손바닥을 자기 가슴에 넣는다.

영란이 눈에서 소리없이 눈물이 흘러내린다.

도 영 : 애들은 고아원에 보내졌다면서?

영 란 : 네.

도 영 : 데려다 우리가 기르는 게 옳지 않을까?

영 란 : 우리요?

도 영 : 영란이 하고 나하고, 그리고 애들하고 한 가족이 되는 거지.

영란이 흐르던 눈물을 훔치며 미소를 짓는다. 도영이가 영란을 가볍게 껴안는다.

F.O.

S#87.동네 담장(낮)

개나리와 진달래, 철쭉꽃이 활짝 피었다. 만개한 목련도 보인다.

S#88.파출소 안(낮)

정직 3개월이 지난 도영이가 파출소 안에서 서성거린다.

순 경1 : 오순경님도 오늘부터 출근한답니다.

도 영 : 애기 들었어. 지금 인사하느라 서에 있을 거야.

도영이 기지개를 켜며 움직이면,

S#89. 파출소 앞.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도영이 두 팔을 활짝 편다. 뒤쪽에는 여전히 순찰오토바이가 서 있다. 도영이 오토바이에 다가가 살펴보다가 걸레로 닦기 시작한다. 걸음걸이가 약간 불편한 복식이가 걸어 들어온다.

복 식 : 죽지 않으니 또 만나는구나.

도 영 : 좀 더 쉬지 않고, 왜 벌써 나와?

두 사람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든다.

복 식 : 집에서 놀자니 죽을 지경이더라.

이때, 파라다이스의 웨이터가 숨을 헐떡거리며 다가온다.

웨이터 : 아저씨, 남순경 아저씨.

도 영 : 왜 그래?

웨이터 : 봤어요. 땅달보하고 꺾다리요.

도 영 : 뭐?

복 식 : 또 이 자식 헛소리하는 거 아냐?

도 영 : 가만! 어디야? 어디서 봤어?

웨이터 : 아파트요. 아가씨가 어저께 가게에다 화장품통을 놓고 갔다고 해서 그걸 가져다 줬는데, 그치들이 아가씨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도 영 : 그래? 어느 아파트야?

웨이터가 멀리 건너 보이는 아파트들을 손짓으로 가리킨다.

웨이터 : 저기, 금성아파트요. 백 이동 삼백 오호호.

도 영 : 백 이동 삼백오호. 삼백오호.

도영이 오토바이를 끌어내고 시동을 걸다가, 파출소 안으로 정신없이 뛰어 들어간다.

복 식 : 왜 그래?

웨이터 : 아저씨하곤 얘기 안해요.

복 식 : 이 자식이!

복식이 주먹을 쳐들면 웨이터가 도망가버린다.

S#90. 파출소 안.

급하게 뛰어 든 도영이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순경1.

도 영 : 범인을 잡으러 가니까, 찾으먼 그렇게 얘기해.

순 경1 : 무슨 범인요?.

도 영 : 강도, 강간범.

순 경1 : 어딘가요, 위치가?

도 영 : 금성아파트, 백 이동 삼백오호.

도영이가 뛰어나가면, 순경1이 주소를 적는다.

S#91. 파출소 앞

뛰어나온 도영이가 오토바이에 올라탄다.

도 영 : 애는 어디 갔어?

도영이 옆구리의 권총을 빼내 장전을 한다.

복 식 : 무슨 일이야?

도 영 : 먼저 강도범들. 그럼 다녀올게.

복 식 : 그 자식들이야? 그럼 같이 가야지.

복식의 허리에는 아무 무기도 없다.

도 영 : 그래 가지고 되겠나? 들어가서 기다리지.

복 식 : 무슨 소리야?

막 떠나려는 오토바이 뒤에 복식이가 훌쩍 올라탄다. 오토바이는 질주한다.

S#92. 금성 아파트 경비실.

늑수레한 경비원이 졸다가 쳐다본다. 도영이가 거수경례를 한 후 안으로 고개를 디밀면,

S#93. 아파트 305호 앞

경비원을 가운데 두고 복식과 권총을 든 도영이가 양편에 서있다.

경비원이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다.

아가씨(소리) : 누구세요

경비원 : 아래층 경칩니다.

아가씨(소리) : 경비아저씨가 웬일이세요?

경비원 : 택배가 왔어요.

아가씨(소리) : 올 택배가 없는데, 잠시만요.

안에서 자물쇠 여는 소리가 나며 아가씨1이 고개를 내민다.

아가씨1을 밀치고 두 사람이 급히 안으로 들어가면,

주방에서 조리를 하던 다른 아가씨2가 놀란 눈으로 쳐다본다.

아가씨1 : 뭐예요, 아저씨들! 왜 남의 집엘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가씨2 : 깜짝 놀랐네. 아저씨들 영장 있어요? 영장!

두 사람이 두리번거려 보나 찾는 놈들은 보이지 않는다.

도영이 한 방문을 열면 침대가 있고, 창문이 열린 채 커튼만 바람에 펄럭거린다. 쫓아 들어가 창 아래를 내려다보면,

S#93. 아파트 화단

방금 뛰어내린 꺾다리가 발목을 싸쥐고 있다. 그런대로 뛰어간다.

S#94. 아파트 305호안

복식이가 다른 방문을 열면 역시 침대가 놓여 있고 창문이 열려 있다.
창밖을 내다보면,

S#95. 아파트 벽.

땅달보가 익숙한 자세로 가스관을 타고 내려와 가볍게 땅바닥에 선다.

S#96.아파트 앞 길.

쫄룩거리며 뛰는 꺾다리를 부축하면서 땅달보가 함께 뛴다.

S#97.아파트 계단

도영이가 급하게 뛰어내려온다. 비칠거리며 복식이가 뒤따라 내려온다. 경비원이 멍청히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S#98.거리 인도.

땀달보가 앞서 뛰고, 꺾다리가 절룩거리며 뒤따라 뛴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두 사람을 바라본다.

S#99. 도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도영이와 복식이가 멈춘다. 신호등에 차들이 멈췄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올라가려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한다.

S#100. 인도.

여전히 기를 쓰며 땅달보와 꺾다리가 백 미터 경주를 하듯이 달린다. 옆에는 신호를 대기하느라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앞서 가던 땅달보가 되돌아서면 꺾다리가 멈춘다. 여자가 혼자 운전대에 앉아 있는 그랜저 승용차가 눈에 띈다.

땅달보가 턱짓으로 그랜저를 턱짓으로 가리키면, 꺾다리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땅달보는 그랜저 앞문을 열고 운전석 옆으로 들어가고, 꺾다리는 뒤 좌석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S#101. 승용차 안.

운전석의 젊은 여자의 목에다 땅달보가 칼을 들이댄다. 당황하며 겁을 먹는 여자운전사를 옆문을 열고 밀쳐내고, 운전석에 앉은 땅달보가 액셀을 거세게 밟는다. 신호등이 풀려 그랜저는 앞차들을 추월하며 마구 달린다.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온 도영의 오토바이가 그랜저를 따라간다. 앞차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S#102. 교외 도로.

정신없이 질주하는 그랜저.
역시 전속력으로 따라가는 도영의 오토바이.

S#103. 금성아파트 앞.

순경1이 운전하고 옆 자리에 차석이 앉은 경찰 순찰차가 들어선다.
차가 멎고, 두 사람이 황급히 차에서 내린다.

S#104. 교외 도로.

밀리며 느린 앞차들로 속력이 준 그랜저가 앞차를 추월하려고 하나 어렵다. 바짝 따라온 도영의 오토바이. 길이 트여져서 그랜저가 다시 속력을 낸다. 그 옆으로 붙으며 달리는 오토바이. 그랜저가 옆구리로 오토바이를 밀친다.

오토바이가 기우뚱한다. 다시 달리는 그랜저 옆으로 오토바이가 붙는다.

S#105. 금성아파트 마당.

차석과 순경1을 따라 나온 경비원이 손짓으로 저쪽으로 갔다고 알린다. 순찰차는 속력을 낸다. 차 안의 차석이 무전기를 들고 황급히 말하는 모양이 유리창 밖에서 보인다.

S#106. 교외 도로.

옆으로 바짝 붙는 오토바이를 그랜저는 자꾸 쓰러트리려고 부딪친다.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순경1이 운전하는 순찰차가 따라온다. 하늘에는 경찰 헬리콥터가 떠서 빙빙 돈다.

S#107. 다른 교외 도로.

여전히 헬리콥터는 범인들이 전속력으로 내달리는 그랜저 위를 따라간다. 그랜저 옆구리에 바짝 붙은 오토바이가, 그랜저가 부딪치는 충격으로 나뉘군다.

복식은 길바닥에 나가떨어지고, 도영은 오토바이와 함께 가로수를 들

여다 받으며 정신을 잃는다.

그 겨를에 충격으로 그랜저도 비틀거리다가 산기슭을 들여다 박으며 연기를 내뿜는다.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에 복식이가 비칠거리며 일어난다. 연기를 내뿜는 그랜저에서는 땅달보가 기어 나온다. 땅달보를 발견한 복식이 빠른 걸음으로 그에게 달려간다.

따라오는 복식을 발견한 땅달보가 도망가기 시작한다. 두 사람 모두 비칠거리기는 마찬가지다. 계곡 위에서 두 사람은 맞붙어 격투를 벌인다. 땅달보가 보니 복식이 왼쪽 다리가 신통치 않아 그 다리를 부어잡고 넘어진다. 두 사람은 함께 계곡 아래로 추락한다.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오던 순찰차가 멎고, 헬리콥터는 주변을 맴돌다 가버린다.

S#108. 교외 도로 옆.

모로 쓰러진 그랜저 승용차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고, 순찰차들이 줄을 지어 다가온다. 네 대나 된다. 앰블런스가 한 대 서있고, 들것에 누운 복식이가 주변을 살피며 앰블런스에 실린다.

다른 들것에 실린 땅달보는 죽어 있다. 그랜저에서 꺼내진 꺾다리는 수갑을 차고 순찰차에 인계된다.

정신을 가다듬은 도영이는 일어나며 순경1이 건네는 물을 마신다.

F.O.

S#109. 출판기념회장

출판기념회 식당이다.

화기에애한 표정의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정면에 크게 쓴 글자들, 남도영시인의 시집 ‘낮선 곳에서의 하루’ 출판

기념회. 주인공 도영이가 가슴에 꽃을 단 정장을 하고 만면에 희색을 띄고 있다.

그 옆에 영란이가 붙어 있고, 영애의 아들 둘이 또 그 곁에 있는 모양이 이채롭다.

자리게 앉아 맥주 한 컵을 마신 후 파이프 담배를 문 양기문 시인도 즐겁다. 복식이가 앉은 휠체어를 뒤에서 미는 복자도 반갑다.

정복을 입은 차석이 도영에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고, 순경1도 악수를 하며 굽신하고 지나간다.

복 식 : 밤낮 짙짙 짜더니만 용 됐구나. 축하한다.

도영이 미소를 보내며 내민 손을 잡고 흔든다.

영 란 : 어서 오세요.

영란이 복자에게도 인사를 한다.

영애아들1 : 아저씨, 안녕하세요?

영애아들2 : 안녕하세요.

복 식 : 너희들 많이 컸구나.

복식이가 아이들의 머리를 번갈아 쓰다듬어 준다.

복 식 : 아름다운 부인이 생기고, 거기다 아들까지 둘이나 생겼으니, 참 복도 많다. 나도 오늘부터 집에 가서 짙짙 짜는 연습을 해야겠다.

도영이와 주변의 사람들이 웃는다.

복자도 웃다가 복식의 등허리를 주먹으로 두들긴다.

복 자 : 이 양반이 말을 해도 꼭 비틀어서 한다니까.

도 영 : 병원에는 며칠에 한 번씩 갑니까?

복 자 : 요즘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엑스레이 촬영만 해요.

도 영 : 일 계급 특진을 했으니 빨리 완쾌해서 새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하겠는데.

복 자 : 의사선생님 말씀은 다친 척추가 완치는 쉽지 않다고 해요.

도영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복 식 : 일 계급 특진이야 너도 한 것이고. 이러나저러나 집에서 이러구 놀자니 답답해서 미치겠다.

복식이 탁자에 따워진 맥주컵을 들고 마신다. 복자는 안주를 집어서 복식의 입에다 넣어 준다. 도영이가 옆을 보면, 영란이도 쳐다본다. 도영이 슬며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는다. 그런 자세로 좌중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

그 위로,

도 영(소리) : 그리운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부르면 목이 메이는 그리운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불러도 다가갈 수 없는 그리운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다가가도 만질 수 없는 그리운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만질 수 없는 그리운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리운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F.O

S#110. 파출소 유리창

경위 계급장을 단 도영이가 물끄러미 밖을 내다보고 있다.

아득한 기억을 더듬다 깨어난 얼굴이다.

아직도 그 꿈같은 추억이 그림다.



감사합니다

뜻이 이끄는 대로 두벅두벅 아주 먼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새 정읍사 (井邑詞)

궁중음악 수제천이라고도 하지만, 또 망한 백제를 그리워하는 내용도 있
 야, 정읍에 망제동이 있고 돌탑들이 많은게 탑이 소망을 기원
 하던 장소 아닌가? 백제가 망하기전 일본군이 구해주려고 올라갔
 야, 어서 일본군이 와서 도와 달라는 뜻도 있다 하고, 구세주가 빨리 오라는
 뜻도 있다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니 뭐가 맞는지 모르것대요!



정읍시청

은 종 민

새 정읍사(井邑詞)

나오는 사람들

- * 면 장 : 원만히 면정을 추진하려함.
- * 총무계장 : 직원들과 주민들의 화합에 신경을 씀.
- * 산업계장 : 퇴직 일년 남은 연장자
- * 장백산 : 마을문화재를 보호하고 연구하며 전국에 소개한다.
- * 문주사 / 박여사 : 총무계 직원
- * 신주사 : 직원 중 연장자
- * 미스최 : 사회 복지사
- * 장혜라 : 부녀회장
- * 할머니 : 불평이 많은 민원인
- * 할아버지1, 2 : 억지민원을 많이 제기한다.
- * 의원부인 : 남편 선거운동 차 면사무소에 들른다.
- * 마을 이장들 : 전이장 최이장
- * 새터민 : 북한에서 와서 새로 터를 잡은 주민
- * 아줌마 : 유치원비 혜택을 많이 보려한다
- * 영세민 : 저소득으로 거의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
- * 장애인 : 장애인 법을 연구해서 혜택을 많이 보려함
- * 농민 : 콤바인 보조를 받지 못하자 심술을 부림
- * 주민들, 학생들

제 1 장

FI설 명절 며칠 앞 시골 면사무실 안 풍경.

‘아이의 웃음소리 우리의 미래’ 포스터, ‘남 말 않고 칭찬하기’ 포스터,
배경의 민원 테이블 옆에는 난화분과 산세리아 꽃 화분들이 놓여있다.

민원대 위에는 총무계, 산업계를 알리는 아크릴 표시가 천정에 매달려 있다.

민원대 중앙에 남자직원 문주사가 있고, 그 양 곁으로는 박여사, 미스최, 신주
사, 등의 직원들이 앉아 있고, 그 뒤에 여자 총무계장과 중년 남자직원 산업계
장이 세자정도 거리에 앉아 있다.

음악이 잔잔히 흐르며 막이 오르면, 주민들이 찾아와 떠들썩하다. 주민들 사이
에 심각한 표정의 할아버지 민원의자에 앉아서 미스최에게 말한다.

할아버지1 : (심각한 표정으로 묻는다) 내가 수급자고 장애인인데 다리가
아파서 차를 좀 사야겠는디 어떻게 안 될까요?

미스최 : (미소 지으며) 차를 사시면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할아버지1 : (심각한 표정 지으며) 아! 그리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잘 걷
덜 못허겄는디 어찌코 짠 차라도 하나 사고 싶은디 방법이 없을까요 잉?

미스최 : (안타까운 미소 지으며 커피를 권한다) 차를 사시면 부자로 오
해 받을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1 : (아주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가며) 형편이 어려워 수급자 포
기 할 수는 없고!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서 계속고민하다 가고,
학생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들어온다.

미스최 : 학생 언니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어렵다고 해서, 장학금 서류 만들어 주고 생계비도 주려고 오라 전화 하니까, 차비가 없어서 못 온다면서 겨울에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사먹고 와? (큰 목소리로 말하고, 학생을 바라본다)

학생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아무대답도 못하고, 들어와 미스최 앞에 앉아 서류를 만든다. 그 뒤에 손자로 보이는 학생 두 명과 함께, 한복 위에 털 스웨터를 입은 할머니 들어온다.

할머니 : 수고들 하시오! 저기! 설 명절 다가오니, 우리 손자들 잠바라도 하나씩 사 입히야 갓는디요?

문주사 : (안쓰런 미소 지으며) 죄송해요! 명절이라고 더 나오는 게 없어요! 할머니!

할머니 : 아니? 무신 법 땡그는 사람들이! 대명절을 높은 사람들은 안센디야?

문주사 :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는 명절에는 떡값이랑 옷값이랑 좀 드리는 법 좀 만들라고 그럴게요. 오늘은 더 드릴게 없으니 돌아가세요.

할머니 : 내 손자들을 어찌코 허고 죽으라고 혀? 돌아가다니? (돌아가시라는 말을 죽으라는 말로 오해하고 짜증을 내며)

문주사 : (당황한 미소 지으며, 고개를 연신 굽힌다) 아니!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냥 가시라고요?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죄송하네요.

할머니 소리 줄어들고 그 뒤로 사람들이 직원들과 대화 후 헤어지는 풍경 연출되고 총무계장은 사람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간이의자를 퍼주며 대화를 나누고, 개량한복을 입은 장백산 등장.

장백산 : 이 자리에 전에 문화재업무 보시던 분이 계셨는디?

문주사 : 예! 제가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문화재 담당인데요?

장백산 : 그럼 이곳 문화재 소개를 좀 허께요. 이 지역에는 옛날부터, 은 선리에 석탑과 돌방무덤을 보고 사람들이 세 번 놀란답니다.

문주사 : (깜짝 놀라며) 아니 무엇을 보고요?

장백산 : (점점 열변을 토하는 손짓과 자세로) 고인돌 다음시기 삼국시대에 생긴, 우리 고유의 유산인 돌방무덤을 보고 한번 놀래고, 이렇게 많은데 두 번 놀래고, 전혀 개발이 안 된데 세 번 놀라고, 이후 대책이 전혀 없음에 또 놀래요!

문주사 : 그래요! 어떻게 생긴 무덤인데요? (감동한 표정으로)

장백산 : 돌로 깎아서 어른 두 사람 누울 수 있도록 만든 묘인데, 삼국시대 귀족들의 묘일 것으로 추정 된답니다.

문주사 : (계속 감동한 표정) 정말 한번 저도 가보고 싶네요! 정읍에 산 토박이고, 문화 관광과도 근무했던 저도 모르고 있었네요.

장백산 : (계속 열변을 토하는 손짓과 자세로) 제가 안내 허께요. 저는 이곳을 찾는 사학자는 물론이고, 중학생 한명도 안내하고, 일본어 실력만 된다면 일본 인터넷에도 소개 할라고 합니다.

문주사 : 일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겠네요!

장백산 : 시에서는 칠보 선비문화권과, 고부 문화권만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곳들 보다 이곳을 더 시급히 개발해야 된다고 보네요.

문주사 : (미소 지으며)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읍은 역사가 깊은 고장이라 문화재가 여기저기 많다보니까, 부족한 예산으로 전체적인 선후 완급을 따지 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장백산 : 제가 이곳만 너무 고집한다고 하는데요? 고집도 있어야 되요!

(돌방무덤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는데 동조를 안 해주니, 조금 실망한 표정으로 말을 마친다)

면 장 : 문주사 공공근로 모시고 가서, 은선리탑 주변 관광객들이 가끔 오시니, 정비 좀 하고 와.

문주사 : 예, (대답 후 장백산을 보며 일어난다) 저 좀 같이 가서서 은선리탑과 돌방무덤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장백산 : (안내해 주라는 말이, 오히려 고마운 듯 절을 꾸벅하며) ‘아! 예 얼마든지 제가 안내 해 드리지요! 같이 가십시다. (문주사의 앞장을 서며 나간다)

그 뒤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인 다리를 절룩이며 등장 한다.

장애인 : (박여사를 보고당당하게 말한다) 주사님 나 부탁이 있소. 영세민 좀 해주쇼.

박여사 : 아저씨는 비싼 자가용차 있어서 안돼요. 노동능력도 있잖아요?

장애인 : (아직 당당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부탁 허는 것 아니요?

박여사 : 비싼 자가용차 팔고 화물차 사서 일하세요. 그럼 잘 살 수 있어요.

장애인 : (갑자기 불쌍한 표정으로 바뀌며 울먹이며 연기하듯 말한다)

박여사 내가 위암 말기인데 곧 죽는디야 곧 죽을 놈이, 그 차라도 타고 다님서 원대로 살아야지 얼마나 산다고 화물차 타겠서!?

박여사 : 그럼 진단서 받아 와요. 장애인 재심사 하는 진단도 왜 안받으세요? 장애인 재심사 받으라고 했는데 안받으시면 장애인증 무효 됩니다. 교통사고 난지가 언젠데 …….

장애인 : 다음에 받아 올팅게 우선 하줘.(계속 불쌍한 표정으로 울먹이며 연기하듯 말한다)

박여사 : 고급차 때문에 해드리면, 저 감사(監査)에 모가지 나가서 절대 안돼요.

신주사 : (불쌍한 표정으로 울먹이며, 연기하듯 말하는 광경이 너무 코믹하게 보여) 푸하하하.

장애인 : (갑자기 화난 표정으로 바뀌며, 신주사를 노려보며 큰소리로) 웃어 이 씨…….

다시 불쌍한 표정으로 다시 바뀌며 욕설을 하면서 우는 척하며 휠체어타고 나간다.

그 뒤로 한복에 두루마기 까지 입은 할아버지와 장혜라씨 등장한다.

장혜라 : (상장을 던지고 돌아가며) 문주사님 우리 이 상장 필요 없으니 돌려줘요!

총무계장 : 열심히 연습했지만 실제대회 때는 상쇠가 긴장했는지 박자가 점점 빨라지던데! 농악 경연 대회는 항상 뒷말이 많고 저렇게 서운해하니!

할아버지2 : (화난 표정으로 박여사를 바라보며) 아니 나보다 잘사는 사람들도 노령연금을 타는디, 나는 왜 안주는 거요?

박여사 : (일어나 목례로 인사한 후) 성함하고 주소 말해 주세요. 그럴리가 없는데!

할아버지2 : (통명스레 말한다) 거시기에 사는 김 아무개요.

박여사 : (컴퓨터로 조회한 후) 논도 있으시고 아드님 수입이 한달 천만원이나 되어서 할아버지는 안 되겠습니다.

할아버지2 : 그놈 자식 나한테 한 푼도 안보내고, 논도 다 다랭이 논이당께!?

박여사 : (애써 미소 지으며) 제가 전화해서 아드님에게 부양의무 하신다고 할까요?

할아버지2 : 전화 할 것 없고 아니! 나보다 잘사는 사람도 타먹드라 이겨서어?

박여사 : (헛웃음 한번 웃고) 그런 분들 모셔오세요! 우리가 다 컴퓨터로 재산 조회해서 할아버지와 비교해 드릴게요?

할아버지2 : 따뭇헌디에 있는 당신들이 찾아서 좀 데려와요, 내가 왜 헛?

신주사 : (가까이 와서 모니터를 보고 애교스럽게 말한다) 와! 이렇게 부자이시고만 저 할아버지에게 양자로 들어가야겠네요? 저 이 땅 한 필지기만 주세요?

할아버지2 : 산중턱에 있는 다랭이 논이라 값도 안나간당개?

신주사 : (계속 애교스럽게 말한다) 이런 산중턱이 묘 자리로 더 잘 팔려요! 가만있자 이 논이 좌청룡 우백호로 둘러싸인 명당자리라고 소문난 곳 아닌가요? 논 값 두 배로 드릴게 제게 파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2 : 허! 참나! 내가 그 논은 보통 논 값 다섯 배 준다고 해도 안 팔았어!

총무계장 : (아들에게 전화한다) 아드님 되세요? 할아버지께서 영세민 신청하러 오셨는데 아드님 소득이 높아서 안 된다고 했더니, 아드님이 한 푼도 생활비 안 드린다는데 사실이세요?

전화기 : 제가 드릴 만큼 드려요. 죄송하지만 할머니 한분 모셔다 같이 살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젊은 아줌마들 허고 사시다, 여름 피약벌에서 고추마서 알탕갈탕 번 돈까지 전부 가지고 도망가게 마시고! 부탁 드릴게요!

총무계장 : (할아버지를 보며 말한다) 아드님과 통화 했는데요? 비슷한 또래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분 모셔다 같이 살게 소개 해드리라는데요!

젊은 아줌마들 허고 거시기 마시고! (눈웃음치며 작은 소리로 말한다)

할아버지2 : 그놈 자식 또 어떤 소리 허고 자빠졌네! 크-음 (헛기침 한다)

박여사 : 정읍 금봉동에 노인복지타운 시설 좋게 지어서, 노인분들이 전국에서 소문 듣고 찾아와요, 그곳에서는 식사와 목욕도 시켜드리고, 오락시설도 많으니, 같은 또래들 친구 사귀시며 재밌게, 편히 지내시면 좋을 텐데요.

할아버지2 : 녀들이 내가 글도 이곳 유지(有志)다는디 고향을 지켜야지.

박여사 : 그곳도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혼자 힘들게 사시는 것 보다 낫지요.

할아버지2 : 내뉘요! 나는 기냥 혼자라도 내 집이 글도(그래도) 좋아.

할아버지 헛기침 두어번하더니, 슬그머니 나가고 산업계 쪽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린다.

농 민 : (신주사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나는 왜 또 이번에 콤파인 보조 안주는 거요.

신주사 : (팔을 비틀어 소파에 밀어 앉히며) 한동네 사는 동생분께 드렸으니, 고맙다고 하셔야지요?

농 민 : 가는 가 논이나 허고, 내 논 헐라 먼 내가 또 아낀 소리 허게 된 당께.

신주사 : 동생분이 기계도 더 잘 다루고 정비도 좀 할 줄 알고 하니, 그런 분이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배정한겁니다. 아저씨는 경운기 사가지고 폐차 할 때 까지, 엔진오일 한번도 교체를 안 허셨잖아요?

농 민 : 애먼 소리 말고 좌우든가나 죽여벌팅게 다음에는 꼭 나 히주야 혀 잉.

신주사 :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니까 다음에는 제비 뽑읍시다.

농민 : 내가 형인게 나를 모냐 (먼저) 쥐야지! 어떤 놈이 휘발유병을 던졌다더니, 나도 그 심정이여?

신주사 : 그 사람은 영세민 탈락되었다고 던진 것이지, 콤파인이 아니죠? 아저씨도 그럼 열심히 노력해서 ‘영세민’ 되세요.

농민 점잖게 타이르듯 말하며 돌아가고, 나간 후 전화벨이 울리자 박여사 전화 받는다.

박여사 : 감사합니다. 향촌면사무소입니다.

전화기 : (통성명도 없이 큰소리로 말한다) 여보세요? 나는 왜 김치 안줘요?

박여사 : 아! 그 김치는 독지가가 후원한 김치라 우리 맘대로 주는 게 아니어요. 부녀회에서 나눠 드리고 다녔어요?

전화기 : 아니 나보다 잘사는 사람도 잘도 줬다 주들만, 나는 왜 안주냐고? 이 시러배 헐 것들아.

욕설을 한참한 후 전화를 끊자, 박여사 수화기를 놓고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미스최 : 목소리가 면장님 선배 된다고 소란피우면, 면장님이 술값 주어서 보내는 그 사람 같네!

박여사 : 전화로는 안 보인다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발신자 추적 전화를 놓던가 해야지! 좋은 말로 허면 더 잘 될 일을 욕하면 잘되는 줄 알아!

소파에 앉아서 커피마시며 소곤거리던 전이장과 최이장이 박여사를 보며 말을 건다.

전이장 : (슬며시 미소 지으며 말한다) 박여사 존말로 허라니 내가 존말 허까?

박여사 : …….(얼핏 전이장을 보고 농담 시작하는 표정이라, 쓴 웃음만 지으며 대꾸하지 않는다)

전이장 : 왜정 때 일본헌병이 한국사람 아버지와 아들을 고문하다 전화가 오니까 “조또 맞때”하고 나가더래. 그러니 아버지가 “야 너하고 나하고 맞대란다”하고 거시기를 맞대고 있었다야! 일본놈이 와서 보고는 “앵! 빠가야로” 허거든 궁게 아버지가 “야 어떻게 헐다냐 너허고 나허고 박으란다?” 했디야 허허허……. 존 얘가지! (웃으며 박여사를 본다)

최이장 : (미소 지으면서 어깨를 툭 치며 말한다) 에이! 전봉준 전씨라는 이장이 그게 무슨 역사적 자량이라고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못된 소리를 갈치고 있어 에이! 쫓쫓쫓…….

전이장 : 아! 존말허라히서 헛거여 그게 존 얘기 아닌가? 정읍사도 존 얘기담서 샘정(井)자가 원래 여자 자궁을 뜻 허고, 달이 남자 거시기를 위에서 보면 보름달이고 옆에서 보면 반달로 보이니, 남녀가 밤에 노는 뜻도 된답디다. (계속 미소 지으며 말한다)중중때 너무 야하다고 정읍사를 중지한 적도 있대요.

최이장 : 궁중음악 수제천이라고도 허지만, 또 망한 백제를 그리워하는 내용도 있디야, 정읍에 망제동이 있고 돌탑들이 많은게 탑이 소망을 기원허던 장소 아닌가? 백제가 망하기전 일본군이 구해주려고 올라고 했디야, 어서 일본군이 와서 도와 달라는 뜻도 있다 허고, 구세주가 빨리 오라는 뜻도 있다 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니 뭐가 맞는지 모르것대요!

전이장 : 야한 쪽으로 해석하면 유럽에서는 반대 하는 사람들도 있다지만, ‘울산아가씨’ 가사에 ‘큰애기 가슴은 실백자 넣어서 전복쌈일세’ 이 말은 야하게 생각 안하고 ‘뱃놀이’ 도 ‘여자 배워서 놀자’로 해석도 하고 ‘도라지’ 등 민요들이 야하게 해석이 되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구전 된다는 설도 있거든 근디 왜 ‘정읍사’만 야하게 해석 하면 호되게 꾸짖는지 이제는 그런 해석도 관광 상품으로 발전 시켜야 할 때라고 보네!

최이장 : 이미 타 지역은 야 한 것도 다 개발하고, 그런 것이 없어서 난리여!

박여사 언짢은 기분을 풀어주려 시작한 농담을, 박여사는 기분이 아직 풀리지 않은 듯 무표정하게 들으며 서류 정리하고, 몇 사람은 미소 짓는다. 문주사 출장 후 돌아와 보고한다.

문주사 : 탑 주변에 누가 제사 지내고 간 흔적이 있어서 치우고, 저수지 쪽에 누가 쓰레기를 한차 버려서, 주소를 찾아 벌금 부과 헐려고, 이름 써있는 약봉지 찾아왔네요.

면 장 : 은선리 석탑에 제사지내면 복 받는다고, 지금도 제사 지내는 사람이 가끔 있다네!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경고판 하나 세우고, 처음이면 농부들에게 벌금은 부과하지 말고, 주소 조회해서 다시 갔다 치우라고 경고하는 방향으로 해!

약봉지 이름을 보고 컴퓨터로 주소 조회 후 전화를 건다.

문주사 : 여보세요? 은선리 저수지 옆에 쓰레기 버리셨지요.(거짓말 할 여유를 주지 않고 단정적으로 말하자)

농 부 : (전화기 속 음성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안 통하겠구나! 판단하

고.) 아! 예.

문주사 : (좋게 말하면 만만하게 볼까 염려되자, 조금 위협적으로 말한다) 우리면 관광지인데, 사진 찍어 왔으니 벌금 나갑니다.

농 부 : 죄송합니다. 바로 치울게요.(전화기 속 음성)

문주사 : 예 그럼 수고하세요?(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끊는다)

총무계장 : 문주사님 담당 구역만 세금 잘 걷어오면, 우리가 일등 허는 데요?

문주사 : 제 구역은 고질채납자가 많아서, 제가 노인당가서 할머니들 앞에서 참! 창피를 무릎 쓰고 노래까지 부르며, 재물을 떨어도 잘 안걷히니 힘드네요?

산업계장 : (빙그레 웃으며) 뭐가 창피해! 이 사람아 경로 위안잔치 해드리면 좋지. 나는 일부러 소낙비 오는날, 우산 안가지고 가서 대문 앞에서 비 철철 맞으면서 일부러 안쓰럽게 보여서 받아왔네.

면 장 : (웃으며) 다 자기 하기 마련이야 핑계만 대지 말고 열심히 해봐!

산업계장 : (미소 지으며) 다음에 같이 나가세. 세금 우리가 일등 해서 포상금으로 직원님들 회식 한번하게!

미스최 : 가나 노래방도 가는 거죠?

산업계장 : 그 노래방 세금도 잘 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많이 냈으니 자주들 가주소.

문주사 : 제가 영세민 업무 맡은 뒤 공무원이 복지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감사자료 빼라, 조기집행자료 빼라 너무 피곤하네요.

산업계장 : 그런 사건 터지면 선량한 공무원들이 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지.

문주사 : 열사람 도둑을 놓칠지언정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잡지 말라했는데 공무원들은 한사람을 잡기위해, 수많은 억울한 공무원이 고생하

네요!

면 장 : 그러게! 그런걸 봐서라도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일을 해야지, 자기도 가족들 앞에 서기 창피하고 동료들 얼굴 먹칠하고, 쫓 그건 그렇고 FTA를 넘길 좋은 아이디어들 있으면 내놔봐?

문주사 : 돌방무덤 주위에 달맞이꽃을 심고, 산책로를 개설하면 좋을듯 합니다.

면 장 : 달맞이꽃?

문주사 : 예! 정읍사 시(詩)하고 연계도 되는 꽃이고 돌방무덤이 있는 산책로에 심으면, 꽃도 보고 돌방무덤도 보고, 기름의 효과가 좋아서 약용으로 수입한다니 수입대체도 될 것 같네요.

면 장 : 달맞이꽃이 이곳 풍토에 맞는지 모르겠네?

문주사 : 예! 척박한 토양에도 잘 자라는 꽃으로, 밤에 구경하면 숙식을 해야 하니 숙박업도 활성화되고 식당도 잘 될 것 아닙니까?

면 장 : 국화꽃만 심을게 아니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약효가 좋다는 소리는 나도 얼핏 들었네.

문주사 : 관절염 효과, 전립선암, 고 콜레스테롤, 당뇨병, 염증질환, 아토피성 피부염, 모자건강 등 만병통치라고 인터넷에 나왔고 십일월에 수확한다니, 농촌 일거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디요.

산업계장 : 달맞이꽃을 많이 심으면 농촌소득 증대사업과, 관광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네!

문주사 : 지금 달맞이유(油)는 뉴질랜드와 호주산으로, 우리 달맞이유가 신토불이로 우리 국민건강에 더 좋으리라 확신 되고, 새만금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지 개발로 좋을 듯 헌디요!

신주사 : 새 만금 방조제는 왜 막은 겁니까?

산업계장 : 아이! 사람아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여!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전부 물에 잠기는 논들이 방조제 덕에 수해를 안 입는 거여.

신주사 : 잘 이해가 안가네요!

산업계장 : 바닷물이 밀물 때 장마가 오면 밀물 영향이, 고부들녘까지 미쳐서 직원들이 수해 때문에 전부 장화신고 몇 달씩 고생하고, 사표 낸다는 소리까지 나왔어.

신주사 : 그랬었구나!

산업계장 : 지금은 여름에 암만 장마가 쳐도 새만금 방조제에서 수문을 막아, 밀물이 못 들어오게 하니, 고부에서 부안까지 엄청난 논들이 수해를 안 입어 거의 해마다 풍년을 보장하는 거야.

신주사 : 장마 때는 유량도 많아질 텐데, 그걸 다 받을 만큼 방조제가 넓은가요?

산업계장 : 썰물 때 수문을 터서 물을 바다로 보낼 때까지만 버티주면 되는데, 충분히 넓게 설계 되어 있지.

신주사 : 하지만 황금 갯벌이 사라져 자정능력과 어민들 생활터전이 사라져 아쉽다는 등 견해도 많았잖아요?

산업계장 : 서해안 땅이 점점 융기하고 있으니, 갯벌은 다시 생기고 있다는 보고도 있고, 그 문제는 논란이 이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말세.

신주사 : 많이 배웠네요.

산업계장 : 이제는 그것 보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새만금을 연구해서, 국책사업으로 다양하게 추진한다니 FTA를 돌파할 새 희망을 새만금이 주었으면 하네!

장혜라 부녀회장 사과 한 상자를 들고 오고, 잠시 후 농부 들어온다.

장혜라 : 자! 수고들 하시는데 사과 좀 들고 하세요.

총무계장 : (놀라는 음성) 웬! 사과예요?

산업계장 : (웃으며) 유기농으로 재배한 사과지요?

장혜라 : (웃으며 말한다) 내가 사과 헐 일이 조깨 있어서 사과를 가져 왔습니다.

총무계장 : (미소 지으며) 법 없이도 살 분이, 무슨 사과 할일이 있으세요?

장혜라 : 사과를 많이 가져와야 허는디, 조금 가져와서 사과로 사과허는 거여요.

신주사 : (장난스레) 다음에 또 사과하실 일 있을 때도 사과 가져오실 겁니까?

장혜라 : 그럼요? 사과(沙果)가 얼마나 사과(謝過)가 잘되면 과일 이름을 사과라고 했겠어요? (웃으며)

장혜라 부녀회장의 사과유머에 일동 사과 먹은 입으로 전부 웃음꽃이 피고, 농부 입장

농 부 : (화난 표정으로) 말씀하신 쓰레기 다 깨끗이 치웠네요. 미안하네요.

총무계장 : 예! 애쓰셨어요. 앞으로는 버리지 마세요. 사과 좀 드시고 가세요. (웃으며 작은 사과를 준다)

농 부 : 아! 예 제가 사과해야 하는데 사과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쑥스럽게 웃으며 사과를 먹으며) 근데요? 지난달 공사한 하수도가 우리 밭 땅 밑으로 지나갔으니까 좀 옮겨 주셔야겠네요? 그리고 하수도관 공사하느라 담이 부서졌으니까 담장을 다시 쳐주어야 할 것 아니요?

신주사 : (황당한 표정 지으며) 아니! 그때 말씀하시지 왜 공사 끝나니까

말씀하세요?

농 부 : 담이 허물어져서 확실히 내 땅 경계를 알고 싶어서 측량을 했더니 그래요! 미안하지만 좀 옮겨 줘야겠네요. (심각하고 심술 난 표정)

신주사 : 알겠습니다. 면장님하고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농 부 : 꼭 좀 부탁하네요 잉? (사과한입 먹고 인사 후 나간다)

신주사 : 콤바인 안주어서 저러시나! (사과한입 먹고) 에이! 맛이 별로 없네요!

박여사 : 맛있고만! 그래요. (웃으며 신주사에게 눈치를 준다)

산업계장 : 이게 우리가 유기농 비료를, 수천만 원이나 보조해서 만든 겁니다. 원래 유기농이 건강에는 좋지만 맛은 덜하고, 때깔도 안 좋고 비싸서 잘 안 팔리니까, 직원님들이 좀 발 벗고 홍보하고 사줘요.

총무계장 : 선진국들이 자기들 먹을 것은 농약 안하고 비료안주고 유기농으로 만든, 벌레 먹고 맛없지만 몸에 좋은 과일 먹고, 수출용은 빛깔 좋고 맛있게 비료주고 농약 해서 만든 데요.

산업계장 : 국민에게 좋은 과일을 값싸게 보급하려고, 정부에서 유기농 비료를 싸게 공급하고, 품종 개량에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유기농은 맛이 없어 가격 경쟁이 힘드니 직원님들 좀 많이 사서 드세요.

면 장 : 신주사 하수도 공사 다시 해요 별수 있는가! (사과한입 먹고) 저 다섯 상자 주문할게요. 명절 선물로 써야겠네!

장혜라 : 아! 예! 고마워요.

신주사 : 요즘은 주민들 욕구가 너무 지나쳐요! 저는 세 박스 주문요.

총무계장 : 문주사님 성희룡 교육 신청하라는데 좀 다녀오세요.

문주사 : (웃으며) 아니! 제가 성희룡을 모르는 제일 위험한 사람같이 보여서요?

총무계장 : 그게 아니고요 이장님들이 나이를 많이 드셔서, 너무 성희룡

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이자 : (웃으며) 어-어 큰일 났네 일 하시느라, 안 듣는지 알았는데 혼 나것네!

문주사 : 전에 한번 받았는데요. 여직원 많은 사무실에 저처럼 남자 직원 혼자 있을 때, 힘든 노역을 남자한테만 시키는 것도, 성희롱에 가깝다고 합니다.

미스최 : 우리도 힘든 일 똑같이 하잖아요? (정색하며)

문주사 : 저번 크리스마スイ브 때 조류독감 비상 걸려서 남자직원들만 전부와서, 그 아까운 오리 수천마리를 죽였잖습니까? 새벽 한 시까지 일 했습니다!

총무계장 : 남자직원님들 애 쓰셨어요! 우리에게도 연락했으면 간식이 라도 드렸을터인데!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산업계장 : 그 농장주가 처음에는 전부 오천 마리라고 했다가 절반 잡아 마대에 넣은 상태인데, 만 마리라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마대에 넣은 오리를 다시 꺼내서 세어보는 쇼를 다했네요.

문주사 :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농부에게 아무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신주사 : 세어서 숫자가 오천 마리로 맞으니까 이미 사라졌는데 뭐라고 해?

미스최 : 그 뒤에는 여직원들도 갔잖아요? 냄새가 숨 막히게 지독한 축사 안에서 잡아서 땅에 묻는데, 지하수 오염 안 될지 몰라요?

신주사 : 공장이 없어서 지하수 좋다고, 상수도가 집 앞으로 지나가도, 지하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시골도 관정 파놓은 폐공들을 방치해서 그곳으로 오염이 되던 병든 가축들 묻어서 오염되든, 위험한 요소들이 많으니 상수도 물을 드셔야 되는데…….

문주사 : 그나저나 군 가산점이 없어지고 난후, 점점 여직원 합격률이

많아지니 걱정입니다. 행정기관은 노역 할일이 많은 기관이고, 앞으로
 성비균형을 50%로 하자는 소리가 여직원에게서도 나와요.

박여사 : 나도 아들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군가산점 주어야 돼. 제
 대하면 다 잊고 실력이 떨어지고, 머리도 굳어져서 공부하기가 힘든가
 보더라고.

신주사 : 저는 여자에게 출산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니, 출산은 국방의 의무와 맞먹는 가
 산점을 주고 아기도 안 낳고, 군대 안간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면 안
 된다고 보네요.

문주사 : 농촌에 필리핀, 중국, 일본, 등 외국 여자들이 시집와서 아이 낳
 으면, 그 아이가 커서 외국에 있는 외삼촌 등 친척이, 한국에 있는 핵심
 기술을 몰래 달라고 해서 빼가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는 것도 애국이죠.

신주사 : 애기 낳으면 출산장려금 몇 십만 원 주는 걸로는 안 되고, 우선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까지 무상 교육시켜 준다는가, 영세민들만 교육
 비 지원할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애 낳아 교육비 걱정을 안 하게,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네!

문주사 : 멀쩡한 여자가 30이 넘도록 아이를 안낳으면 과태료를 물고,
 그런 사람 수입은 세금으로 75%를 걷어야 되요! 프랑스처럼!

박여사 : 프랑스는 아이 셋 이상 낳은 여자는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면서요?

문주사 : 예! 우리도 셋 이상 나은 사람은 세금을 90% 감해 줄 날이 곧
 올 거요!

신주사 : 우리 동네는 애기 울음소리 그친지가 이미 오래됐네!

전이장 : (자랑스레 웃으며) 우리 동네는 아이가 둘이나 있어!

최이장 : (미소 지으며) 우리 동네는 애기가 셋에다가 다음달에 또 하나 나온당께!

문주사 : (웃으며)그렇게 좋으면! 오늘저녁에 가서 하나 더 만들어요?

최이장 : 나는 다섯이나 낳았는데 국가에 충성혈만큼 어요!

전이장 : 다섯이 많은가? 옛날에는 기본으로 일곱 야닭(여덟)은 낳았어?

자기 동네 아기 많은걸 자랑스레 말하는, 이장들을 보고 일동 웃으며 야릇한 음악 흐르고, 조명 어두워지며 막이 내린다. FO

제 2 장

FI 면사무소 아침풍경,

일찍 출근한 미스최가 여기저기 부지런히 청소하는 가운데, 직원들 하나둘 출근해서, 같이 청소한 후 음악에 맞춰 에어로빅을 잠깐 한 후 근무를 시작한다.

문주사 : (밝은 표정을 지으며, 미스최 뒷모습을 보며) 뒷모습은 이뻐게도 생긴 네!

미스최 : 저번에는 앞모습은 예쁘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옆모습은 예쁘다고 하셨으니, 합하면 다 예쁘다는 거네요?

문주사 : 와! 저 재치 있는 생각 역시 똑똑하네 — 애!

미스최 : 문주사님은 매일 같은 소리를 하시면서 어떤 기대를 하세요?

문주사 : (밝은 표정을 으로, 미스리를 보며) 미스리도 오늘따라 시상천지 달뎡이 같네! 미스최 : 아니 제 얼굴이 그렇게 부었어요?

문주사 :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미스리를 보며) 요즘세대는 달뎡이 같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나?

미스최 : 그럼요?

문주사 : 나는 꽃 화분 사이에 서있는 미스최가 천사 같이 보인다는 뜻인데!

미스리 : (지나친 과찬을 듣고 얼굴이 붉어지며)저녁에 과식하면 저는 얼굴이 붉거든요.

사람들과 장애인 들어오자 직원 들이 커피를 권하면서 같이 마신다.

면 장 : 문주사! 동네 가로등이 아직도 켜진 게 있네! 전업사에 고치라 하고 가로등 안 들어오는 것도 파악해서 고치라 하고, 더 설치 할 곳도 찾아서 공사 발주 하게.

문주사 : 선 스위치가 오래되어서 고장 난 모양이네요. 그리고 한전주가 튼튼하니 위치만 적당하면 한전에 협의하여 한전주에 가로등을 달면 튼튼하고 좋을 터인데요. 한전주 바로 옆에 가로등 강관주 설치하는 것은 도시미관도 안 좋고 낭비가 심한 것처럼 보이네요.[주: 한전 (韓電) 한국전력공사]

면 장 : 그럼! 한전에 상의해서 합의되면 한전 주에 달도록 해.

문주사 : 그런데 농촌이라 가로등 때문에, 농작물이 잘 안된다고 작물 주인은 싫어하고, 통행인은 가로등 설치하라 하고 이해가 상충되니, 스위치를 달아서 주민 스스로 자정이 되면 켜고 끄도록 하면 좋을 듯 헌디요?

면 장 : 그러면 좋은 면도 있지만, 비 오는 날이나 밤에 스위치조작은 위험하지!

산업계장 : 신주사 나하고 같이 저기 분노 때문에 냄새난다고, 신고 들어온 곳 있으니 같이 출장 좀 나가세.

신주사 : 아! 예.

두 사람 퇴장하고 난후 트럭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린 후 트럭 나가는 소리가 난다.
농부 들어와 수도담당이 누구냐고 묻자, 직원이 문주사에게 안내하니 그 앞에 선다.

농 부 : 과장님 오랜만에 어머님 댁에 가보니 혼자사시는 어머님이 수돗물이 안 나와서 물을 떠다 드시는데, 보니까 참 가슴이 아쁩니다. 집 앞으로 바로 수도관이 지나고 있는데 수도 좀 놓아 주세요.

문주사 : (아니? 면사무소 창구에 과장은 없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이, 왜 과장님이라고 하나 이상했지만 ‘나 과장 아니요’ 라고 말하기는 번거롭다 생각하고) 계량기 값 하고 집안 수도 공사는 수용가 부담인디요?

농 부 : 아니? 주먹깨나 쓰고 그런 사람은 그냥 히 주고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안 해주고 그래도 됩니까? 면장님 좀 만나게 해주쇼?

문주사 : 그건 면사무소 일이 아닙니다. 시청 수도과나 수도사업이 수자원공사로 업무가 많이 이관되었고, 면장님은 지금 회의 중 이신데요?

농 부 : 그럼! 거기 전화 번호 좀 알려주소.

문주사 전화를 걸어 수화기를 건네준다.

농 부 : 아! 여보세요 과장님이세요? 오래 만에 어머님 댁에 왔는데, 혼자사시는 어머님이 수돗물이 안 나와서 물을 떠다 드시는데, 보니까 참 가슴이 아쁩니다. 집 앞으로 바로 수도관이 지나고 있는데 수도 좀 놓아 주세요.

전화기 : 계량기 설치하고 계량기부터, 집안 수도 공사는 수용가 부담입니다.

농 부 : 아니? 주먹깨나 쓰고 그런 사람은 그냥 히 주고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안 해주고, 우리보고 허라 허고 노인 분에게 그래도 됩니까?

똑같은 말을 십여 분간 계속 되풀이 하자, 전화기속 대화자가 '상황' 판단을 한 듯

전화기 : 아! 그럼 제 돈 이라도 해드리지요.

농 부 : 예! 그럼 감사합니다. 꼭 좀 해주세요.(화가 난 표정을 짓고 문 주사를 노려보고 주먹을 쥐어 보이고 돌아가며) 이렇게! 말을 해야지, 과장님 그러면 안 돼요 잉!

문주사 : (처음에 과장님 이라고 추켜세울 때, 이상하드라 생각하고)안녕히 가세요.

출장 나갔던 신주사와 산업계장 돌아와 면장에게 다가가 출장 보고를 한다.

산업계장 : 돼지 분뇨로 만든 액비가, 발효가 덜되어서 냄새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 바로 흙을 갈아 덮어서 냄새가 안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주사 : 그 정도는 농촌의 향기 아닙니까? (미소 지으며) 계속 맡으면 몰라도 잠깐은 참을 만 하던데, 유기농 비료로 농사짓는 것이니까 서로 권장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산업계장 : 서로 참아줘야지 풍년들려면, 허지만 그 논임자하고 뭔가 사이가 나쁜 이웃이 고발 하는 수도 있고 그러지, 가보면 신고자가 안보이잖아.

면 장 : 수고들 했어 조금 있다가 다시 가서, 확실히 흙을 덮었는지 확인한번 더해.

신주사 : 예! 오후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스최 점심시간이 되자 문주사에게 영세민 노인 도시락 배달을 부탁한다.

미스최 : 문주사님 제가 운전을 오토밖에 못하는데 운전 좀 부탁해요.
오늘은 이불빨래한 것도 전해드려야 하는데! 운전 좀 도와주시겠어요?

문주사 : 이렇게 미인이 부탁하는데 거절 할 수가 없지, 저번에 자네가
창문 종이로 막아드린 그 할머니 댁 말인가?(눈웃음 지으며)

미스최 : 예! 그 할머니 겨울인데 창문 깨진 채 주무시고, 이웃집 할머니
가 때린다고 가끔 전화하시고, 돈 달라 한다고 전화하시고 그래요.(안
쓰러운 말투로)

문주사 : (헛웃음 지으며) 그런 얘기는 경찰에다 신고 해야지? 자네가 너
무 잘해 드리니 허물없으니까 그러는 모양이구만?

미스최 : 젊었을 때는 시부모님 모시고, 자식들에게 평생 희생하시고 늙
어서는, 자식들이 외면하니, 제일 손해 보시는 시기 노인 분들인데 복지
정책이 많아져서 다행이지만, 더 많은 손길을 기다리는 실정이에요.

미스최와 문주사 나가고 총무계 박여사 앞으로 농부 들어와 앉는다.

농 부 : 이번에는 우리 땅 도로에 편입된 것 보상을 좀 많이히주소 잉?

박여사 : 토지보상은 저희가 광주나 전주에 있는, 감정평가회사 두 곳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평가한 값을 합해서, 둘로 나누어 평균값으로 드리는 것이니
까, 우리에게 아무 권한이 없어요.

농 부 : 아이! 그러면 그 감정 평가사들 나올 때, 잘 부탁해서 좀 많이
주라고 좀 허면 되지?(짜증내며 말한다)

박여사 : 그분들이 언제 오셔서 평가 하고 가는지, 저희는 알지도 못해요.

농 부 : 아! 우리 동네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면 되지?

박여사 : 제가 사무실일은 하지 말고, 언제 올지 모르는 평가사들을 날마다 동네에 가서 ‘정읍사 망부석’ 여인처럼 기다려요? (황당한 미소 지으며)

농 부 : 아글도! 저 참에 나온 땅값이 다른 땅 칠할밖에 안 나왔드라고?

박여사 : 예! 부탁은 드린다 해도, 형평에 맞게 하지 도시땅값 드릴 수는 없지요. 그 길 공사하면 아저씨 경운기도 잘 다닐 수 있고 좋잖아요?

농 부 : 잘 좀 부탁드립니다. 높은 자리 있을 때 잘 좀 봐주쇼 잉?(거칠은 말투)

박여사 : (미소 지으며) 아저씨가 저보다 키도 크시니,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지요!

농 부 : 농담 아닌 게 잘 좀 부탁 하고 안녕히들지쇼잉?

신주사 : (혼자말로) 오늘은 일찍 가시네! 저번에는 해 준다소리 할 때까지 몇 시간을 들들 볶으니까, 박여사가 미리 대답을 잘 하시는고 만!

농부 나가고 중년 아줌마 들어와 미스최 앞에 선다.

아줌마 : 우리 아기 유치원 저소득 혜택을 좀 볼란 디요?

미스최 : 소득이 많고 집이 있으면 혜택이 적고, 주택 임대 시에는 임대계약서 복사하시고, 차가 있으면 차량등록증 복사해오시고, 임신하셨어요?

아줌마 : 차는 오래된 작은 것이고, 임신은 왜 물어봐요?

미스최 : 임신하셨을 경우에는 추정소득 부과를 안 해요.

아줌마 : 추정소득이 무엇이 당가요?

미스최 : 직업이 없는 분도, 무엇인가 가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것이

라 생각하고, 그걸 추정소득이라 보는 것인데, 임신한 경우는 일을 잘못 하니까 추정 소득 부과를 안하는 혜택을 줘요.

아줌마 : 응 그러? 나 오늘 가서 임신 혈팅게 혜택 좀 줄 수 없당가?(미소 지으며)

미스최 : (멋쩍게 웃으며) 산부인과 진단서 받아오셔야 되요.

아줌마 나가고 미스최와 전이장과 들어온다. 문주사는 들어오자 면장 앞으로 간다.

문주사 : 오면서 불법 광고물 몇 개 철거 했네요.

면 장 : 무슨 불법 광고물이 있단가?

문주사 : 외국 여성과 결혼광고, 돈 빌려준다는 광고 들이 많던데요.

면 장 : 일본 야쿠자 자본이 들어와, 한국에서 불법 폭리 돈놀이 한다네.

문주사 : 중국집 도로에 내놓은 간판 좀 치워 달랬더니, 오히려 자기 집 간판이 안보이니까 앞에 있는 가로수 좀 베어 달라고 하네요.

총무계장 : 가로수가 먼저 있었지 당신이 먼저 있었냐고 하지?(미소 지으며)

문주사 : 개업한지 얼마 안 되어서 간판 철거하려다 안하고 봐주니, 무식하면 용감 하다더니 요즘은 주민에게 친절히 대하니, 너무 지나친 친절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면 장 : 그래도 주민에게 친절히 해, 우리가 전화응대 친절도 일등 한 번 했잖아.

문주사 : 우리 면은 한가하니 일등 했지요. 시내 수성 동은 영세민 아파트가 있어, 영세민 업무가 너무 폭주해서 한번도 일등을 못하는데요.

면 장 : 그래도 영세민 일수록 마음가짐을 친절히 해서 도와 드려야겠지.

문주사 : 그곳 복지사들은 임신도 잘못하고, 처녀총각들은 바빠서 연애도 못해서 결혼도 잘 못하는데, 이번에 사무실에서 결혼커플이 생겼대요.

총무계장 : 어찌다가? 참 축하 할일이네! (미소 지으며)

문주사 : 신규 여직원이 처음일이 너무 힘드니까, 곁에 같이 근무하는 총각 직원이 “오빠가 도와 주께” 하며 일과 후 열한시 넘게 매일 같이 하다보니 제아무리 미모의 선녀도 나무꾼 같은 총각에게 넘어 갈 수밖에 없지요.

총무계장 : 수성동에 경사 났네! (미소 지으며)

문주사 : 면장님! 우리면도 노처녀들에게 일을 잔뜩 맡기고, 옆에 총각 직원들을 배치해서 결혼들 시킵시다. (장난기 있는 미소 지으며)

면 장 : 그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 (미소 지으며) 국책사업으로 튼만한 제안도 좀 해봐!

총무계장 : 신용카드 사고가 많이 나니, 신용카드에 본인 얼굴 사진을 넣으면 싸인 확인보다 사고가 덜 날 텐데요?

면 장 : 그래요! 신용카드 싸인 대조하는 가게를 못 봤으니까. 신용카드에 사진 넣는 카드 업체가 있다면, 나도 그런 카드는 하나 더 만들겠네!

산업계장 : 정읍자생차가 수백 년 전 옛날부터 왕에게 진상되던 좋은 차라고, 지금 새롭게 연구되고 있고, 이곳에도 자생차가 산에 자생하고 있으니, 확대 재배를 권장하면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 되는데요?

면 장 : 응 이번에 향토사업으로 선정되었다니 1,2,3차 산업이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하면 좋을 듯하네요. 우리차도 중국 보위차 처럼 황토흙을 깔고 차를 깔고, 열다섯 겹으로 황토흙을 덮어서, 오십년 발효시켜 농구공 크기차가 일 억원에 팔리는 방법을 연구해, 농가에 홍보해서 권장해보면 좋을 텐데!

문주사 : 내장호수와 용산 호수 중간 산위에, 독일 백조의 성처럼 멋진

성을 지어서 그곳에서 복분자술을 팔면, 내장산 위의 달보고, 내장호의 달보고, 용산 호의 달보고, 임의 눈 속의 달보고, 술잔속의 달보고, 그 술을 마시고 마음속에 정읍사의 달을 느끼시고, 수제천 정읍사 궁중음악을 들려주며 마케팅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네요.

신주사 : 어디서 듣던 소리네요? 산림법 등 해제하려면 힘들지만, 백조의성이 디즈니랜드에도 모방된, 세계에서 제일 모방이 많이 된 멋진 성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문주사 : 유럽 여행 때 다른 성들은 세밀한 조각 등이 많아 모방이 어렵지만, 백조의 성은 큰 돌들로 구성되어서, 세계적인 건축기술을 가진 우리가 제일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건물로, 지으면 가까운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산업계장 : 토지보상도 힘들고, 민자유치가 어렵고, 관광사업이, 좋은 아이디어 이지만 추진이 안 되고, 토지보상 중도에 그치는 게 많습니다.

문주사 : 백조의성이 세 개의 호수에서 보이게 설계되었다니, 정읍에 호수가 많아 전국 최고의 적지고, 달맞이꽃을 주변에 많이 심어서 정읍사 설화와 연계하여 마케팅하면 세계적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신주사 : 언 발에 오줌 누듯 자질구레한 시설 많이 만들게 아니라, 세계적인 명품 건물하나 지어서 수백만이 관광 오게 하면 그게 현명한 생각이지요.

면 장 : 문주사는 말끝마다 달맞이꽃이네! 허허허! 이렇게 FTA를 넘기기 위해 고심들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주어서 고맙고, 계속 더 고민들 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의 경제위기를 넘겨야 할 터인데!

의원 부인 입장 여자 수행원과 같이 들어와 직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고 다닌다.

의원부인 : (미소 지으며) 이번에 출마한 박 의원 부인 이예요. 잘 부탁해요.

문주사 : (미소 지으며 악수한 손에다 입 맞춘다) 아이고! 수고가 참 많은데요. 이런 시골 면사무소에 두 번씩이나 들르시고.

의원 부인 외면한 채 손을 맡기고, 여자 수행원과 여직원들은 미소 지으며 바라본다.

미스최 : (자지러지는 미소 지으며) 아이고! 신주사님? 왜 근디야 미치겠네!

장혜라 : 문 서방 잘 있었어?

문주사 : (미소 지으며 장혜라씨에게 커피를 권하며) 아이쿠 장모님 어서오세요?

박여사 : 어찌다 두 사람은 사이가 그렇게 됐어요?(미소 지으며)

문주사 : 남의집 장모님도 장모님이고, 남의 서방도 서방이니까? 우리 장모님 손이 차디차네!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미소 지으며 노래하듯이)

장혜라 : 아이구! 느끼해 다른 사람에게도 다 장모라 한다며? 이젠 안 속아요!

신주사 : 문주사님이 말로만 저러고, 실제로는 여자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 들켰는가 보네요? 장혜라님! 문주사님을 주민들이 동네사위라고 해요!

문주사 : 사무실 분위기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건데 성희롱으로 보지 마세요?

총무계장 : 손 잡힌 여자가 웃으면 성희롱이 아니고, 불쾌해하면 성희롱이니깐! 문주사 조심해 성희롱으로 벌금내지 말고, 표정을 잘 살피세요!

장혜라 : 나에게만 미인이라고 헛게 아니고, 판사람들에게도 미인이라

한다면서?

문주사 : 향촌 아줌마들은 다 미인이시잖아요? 그 집에 있는 골동품 박물관에 기증해 주시면, 제가 장모님만 미인이라고 할게요. 혼자만 보시지 말고 여러 관광객들이 함께 보고 즐기면 좋잖아요? (미소 지으며)

장혜라 : 다음에 드릴게요.

문주사 : 와! 몇 달째 다음에 주신대!

직원들 낄낄대며 웃고 있는 가운데, 의원부인 퇴장하고 할머니 입장한다.

할머니 미스최 앞에 앉아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미스최 앞으로 밀며 말한다.

할머니 : 내 것 노령연금을 내 통장으로 따로 넣어주쇼?

미스최 : 아니? 할아버지 앞으로 함께 넣어 드렸잖아요? 같이 안사세요?

할머니 : 같이 살아도 영감한테 나 돈타서 쓰기 싫은게! 기냥 내 통장으로 따로 줘요? 어먼디다 지멋데로 쓰고 나는 주덜 안헌게? 주덜 안혀요 - 오?

미스최 : 통장 따로 해드렸다고, 저 할아버님께 혼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세요. 따로 해드리면 할아버지들께 저 많이 혼나요? (미소 지으며)

할머니 : 혼나든 뉘 나가든 나는 모릉게, 내거 뭉이나 내야로 히뤄요-오? 아니 누 집이나 살림을 여자가 허는 것 아니요? 남자가 살림 허는 집 있소?

미스최 : (미소 지으며) 그럼 할머니 사이좋게 지내신다고 약속하세요? 따로 해 드릴 테니까!

할머니 : 그동안 영감 앞으로 다 넣으께, 인자 내 앞으로 다 느면 안싸우께요.

미스최 : 와! 할머니는 저 혼나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시나봐?(미소 지으며)

할머니 : 혼내기는 누가 혼내요! 다 늙어서 힘도 없어!

할머니 통장을 받고 투덜거리며 나가시고, 미스최 들어오며 큰소리로 말한다.

미스최 : 불우이웃돕기 쌀이 왔어요! 문주사님, 신주사님, 남자분들 좀 나오세요.

남직원들 :('아니 저 공주는 보링 장에서는 무거운 볼링공 잘도 던지더니, 남자 직원들만 당연히 노역하는 걸로 생각 하네!')

신주사 : 여자분 들도 같이 하세요?

미스최 : 여자분들은 민원 봐야 하고, 옷 버리잖아요? 힘든 일은 남자 분들이 운동 삼아 수고 좀 해 주셔야죠? 호호호(염치 좋은 웃음 웃으며)

문주사 : (쌀을 나르다가 미소 지으며) 여자들도 운동해야 이빠지는법여?

미스최 : 저는 에어로빅 많이 하고 왔어요.

박여사 : 나는 에어로빅 못했으니까 좀 나를께.

신주사 : 에이! 제일 힘없는 박여사님만 나오시고 젊은 미스들은 앉아있네!

문주사 : 요즘 세대는 집에서 전부 공주님으로 커서들 그러니, 기대하지 말고 신간 편하게 운동한다 생각하고 해야죠.

산업계장 : 여직원들도 의식이 바뀌어야지 큰일은 큰일이다!

장애인 조금 더듬거리며 미스최 앞 의자를 찾아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말한다.

미스최 :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장애인 : 제가 장애2급이고요 생활이 어려워 전기세 전화세도 못 내는 디요! 수급자 혜택 좀 보게 해주시면 고맙겠는디라우?(데오)

미스최 : 아버님 (친아버지가 아니지만 친근감 있게 부르는 표현) 가지

고 계신 증권이 저금과 같은 효력으로, 시중금리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 빚도 많으시니 그 증권 다 팔아서, 빚 갚고 그러고 오시면 이자소득도 없고, 그러니 수급자 자격이 생긴다고 저번에 설명해드렸잖아요?(딱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장애인 : (침울하게) 내 것 주식들이 곧 오른다고들 헛 것 같아서 못 팔 것어요!

미스최 : 주식은 신문도 많이 보고 경제 예측을 정확히 분석해서, 하는 것인데 시각장애 2급인 아버님이 소문으로만 투자하시면 너무 위험해요,

장애인 : 그럼 주식 다 팔고 빚 갚고 오면 꼭 해주시는거지요?

미스최 : (고개를 끄덕이며)그럼요! 그럼! 바로 헤드리고 말고요.

장애인 : (착잡한 표정으로) 고마워요! 안녕히 지세요?(계세요)

미스최 : 안녕히 가세요!

주민들 사이에 얼굴에 화상을 입은 새터민 처녀와 중년 아저씨 주민 들어온다.

박여사 : (딱한 표정으로 놀래며) 어서오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새터민 : 북한에서 하던 식으로 식초를 밀가루에 반죽해서 얼굴에 팩을 했더니 북한 식초하고 남한식초는 다른가 봐요?

박여사 : (손을 내저으며) 여기는 싸고 좋은 화장품 많으니까 그런 것 하지마세요.

새터민 : (허탈한 미소 지으며) 다 비싸던데요?

박여사 : 비싼 것은 비싸지만, 싼 것도 많아요! 제가 사드릴게요.

새터민 : 고마워요! 저번에 주신 텔레비전도 잘보고 있어요.

박여사 : 예! 잘됐네요! 제가 냉장고도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새터민 : 예! 고마워요. 하지만 전기요금 걱정되니 작은 걸로 주세요.

박여사 : 글썄요? 작은 거는 중고가 잘 안 나와서요?

새터민 : (고마운 마음에 인사하며) 예!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박여사 : 아네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기분 나쁘지만 얹으시다면 제가 거의 새 것 같은 헌옷도 많이 소개 해 드릴 수 있는데, 자존심 상하실까 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미소 지으면서도, 새터민이 기분상하지 않나 눈치를 살피며)

새터민 : (차분한 미소 지으며)주신다면야 저는 항상 고맙지요!

박여사 : 예 받아주신다니 고마워요 제가 연락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에 같이 가시게요.(진지한 말투로)

새터민 : (조용한 목소리로)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박여사 : 안녕히 가세요.

새터민 나가고, 문주사 면장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간다.

문주사 : (심각한 표정과 눈가에 이슬이 맺히며) 면장님 저 공무원 사표 내겠습니다.

면 장 : (놀란 표정으로) 격무에 너무 시달려서 그래? 요즘 같은 불황에 웬 사표야?

문주사 :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내장에 달맞이 성을 지을 투자자를 찾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투자하겠다는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면 장 : 그래도 일년 정도 휴직하고, 건물 지은 후 다시 복직하면 되지?

문주사 : 주변에 달맞이꽃 단지도 조성하고, 정읍사 여인상 모습으로 호텔을 만들고, 머리에는 비녀를 상징하는 풍력 발전기를 만들고, 치마에

는 출산장려를 상징하는 미끄럼 놀이터 등 만들려면, 일년 만에 세계적인 명작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고 보네요.

면 장 : 잘 생각해서 한 이년 휴직 하던가하고, 행운을 비네!

문주사 :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마웠네요.

신주사 : 정읍사 여인상 모방해서, 호텔을 지어 ‘달맞이 성’(城)이라고 한다고?

문주사 : 예 ‘달맞이 성’ 아니면 ‘님맞이 성’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주사 : 사람 모양으로 호텔을 지을 수 있을까.

문주사 : (확신에 찬 표정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짓고도 남지요.

신주사 : 하기가 뉴욕 자유여신상 이나 불상을 크게 만든 것들은 있어도 평범한 여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최초가 되겠네?

문주사 : 남편을 기다리는 평범하지 않은 요즘 절실히 요구되는 여인상이죠?

신주사 : 잘못 만들어 손님이 안오는 호텔 된다면 귀신상이 될까 두렵네?

문주사 : 최악의 경우 손님이 안오더라도 정읍사 여인상 전망대 정도는 되지요!

신주사 : 호텔과 전망대는 기본 설계부터 틀릴턴디?

문주사 : 도선대사 비기(秘記) 풍수설에도 그곳에 ‘궁궐 터’ 자리가 있네요.

신주사 : (미소 지으며) 요즘에 무슨 왕이 있어?

문주사 : (정색하며) 외국은 아직도 왕족들이 많잖습니까?

신주사 : (미소 지으며) 왕족들만 오는 호텔을 만들자는거야?

문주사 : 저는 도선대사가 말한 터를 찾아 큰 궁궐 같은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신주사 : 달은 남성을 상징하고 옆에 있는 호수는 여성을 상징하고, 호수에 비친 달은 정사를 상징한다면 너무 생각이 야하지 않은가? (미소

지으며)

문주사 : 요즘 너무 아이를 안 낳으니 저출산 고령화 담당으로서 출산 권장하는 의도도 있지요. (같이 미소 지으며)

신주사 : 허기야! 큰일이야 우리나라가 세계최저 출생률 이라면서!

박여사 : 애보면 귀엽고 낳아서 키우고 싶지만, 경제가 너무 어려워니 그렇지?

산업계장 : 무슨 경제가 어려워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도 안 그랬어, 지금 어려운게 컴퓨터 하나 새 걸로 바꾸고 싶고, 자가용 아파트 등 갖고 싶은게 많은데 사기가 어렵다는거야!

면 장 : 허허허! (산업계장 말에 동조하는 웃음주고) 만족할 줄 알면 지금처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살던 때가 오천년 역사에 있었는가? 총무계장님 내년도 신규 사업현장 좀 같이 보러 출장 나갑시다.

총무계장 : 예! (대답과 함께 웃으며 옷걸이에서 코트를 들고 면장 뒤를 따라 나간다)

조금 후 농부 씩씩거리고 거칠게 들어오며 큰소리로 말한다.

농 부 : 저! 반장수당이 왜! 아직 안 들어 왔어요?

신주사 : 죄송해요! 전화해보니 바빠서 명절연휴 끝나면 들어간다는 데요?

농 부 : (화가 난 표정으로 다급히 말한다) 아니 아침부터 내가 빨리 좀 주라고 했잖아요?

신주사 : 명절휴가 끝나고 한번 찍어 주세요. 죄송하네요.

농 부 : 아니 명절 장보게 당신들 돈이라도 좀 먼저 줘요? (계속 다급히 말한다)

신주사 :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 드릴 수가 없으니 미안합니다.

농 부 : (화가 난 표정으로 두 손을 수갑 찬 모양을 만들며 말한다) 만약 다음에 또 안 들어오면 당신들 전부 감옥 보낼꺼요? 당신 이름이 뭐요?

신주사 : (자기 명찰을 보여주며 말한다) 아무개요. 명절 후에 봅시다.

농 부 : 알았어요! 좋아요! 명절 끝나고 봅시다.(말하고 서둘러 나간다)

문주사 : 저런 사람을 누가 반장 시켰지?

신주사 : 이장하다 떨어졌지, 콤바인 보조 못 받았지, 그러니 계속 저렇게 심술 핑계를 찾아 만들어서 부립니다!

직원들 여기저기 전화 받고, 사람들 분주히 오고 가는 바쁜 가운데 영세민 할머니 등장한다.

영세민 : 저 수급자 중지 좀 해 주셔야겠는데요?

미스최 : 왜요? 형편이 좋아지셨어요? (말하면서 전산으로 영세민 재산의 변동내역을 검색 후) 아니 형편이 전혀 나아 지신게 없으신데 왜 그러세요? (의아한 표정으로 놀래며)

영세민 : (말하기 싫은 표정으로 머뭇거리다) 우리 딸애가 내가 영세민 인게 창피해서 싫다고 해서 그래요.

미스최 : 아니! 그럼 제가 따님께 전화 확인한번 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네요! (딱한 표정으로 놀래며, 딸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따님이 시죠?

전화기 : 예 딸 맞아요.

미스최 : 지금 보니까 오남매 중에 따님만 조금 넉넉하여 가족 중 혼자만 어머님께 생활비를 보조하고 계시는데, 따님 여력으로는 십만원 밖에 부양의무가 없어서, 나머지는 드리고 있는데 혼자 오십만원을 다 부담 할 수 있으세요?

전화기 : 아니 오빠들도 같이 부담하면 되잖아요?

미스최 : 오빠들은 넉넉하지 못하셔서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없으세요?

전화기 :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오빠들에게도 연락해서 부담 하도록 할게요, 제 개인정보 공개하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창피해요.

미스최 : 그럼 가족들 전부도장 받으시고, 공인 절차 마치시고, 통장에 가족 부담금 전부 입금 한 것 사본 해오시면, 수급자 해지 해 드릴게요.

전화기 : 꼭! 그렇게 까지 복잡하게 해야 되요?

미스최 :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 할머니님을 보호 할 의무가 있어요?

전화기 : 알았어요. 제가 전부 해 드릴게요. 수급자 해제해주세요.

미스최 : 예! 그런다면 해드리지요.

영세민 퇴장하시고, 농부 이번에는 풀죽은 모습으로 들어와서 산업계장 앞에 앉는다.

농 민 : 산업계장님 나 직불금 안받을랑게 그 논 좀 다시허게 히 주쇼?

산업계장 : (당황한 표정) 아니 저번에는 직불금 타게 해달라고 하셔서 힘들게 타게 해드렸잖아요?

농 민 : 아니! 논임자가 자기가 인자 농사 직영한다고, 논을 안준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게 좀 히 주시야 곳소? (간절한 표정으로)

산업계장 : 논주인하고 말씀하셔서 해결하셔야 할 사항 같은데요?

농 민 : (슬픈 표정 지으며) 산업계장님이 조가 말씀 좀 잘 히 주시면 고맙것는디라우? 제가 또 어찌코 말헌테라우? (말합니다)

산업계장 : 저로서도 난감 합니다만, 정 그러시다면 말씀은 한번 해드리지요.

농 민 : 아이고! 감사합니다. 잉?(허리를 굽실거리며 일어선다)

문주사 : 담장 쳐드린 것 괜찮게 쳐졌습니까?

농 민 : 아예!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절을 꾸
벅하며 퇴장한다)

검정양복을 입고 할아버지 등장, 면장 테이블 앞으로 성큼성큼 입장한다.

할아버지1 : 면장님 계십니까?

문주사 : 안 계시는데요?

할아버지1 : 그럼 총무계장님은?

문주사 : 전부 출장 가셨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할아버지1 : 아니? 나 대통령에게 헐 말 있으니 전화 좀 걸어줘요?

신주사 : (깜짝 놀라 “우리 같은 면서기는 도지사님에게도, 전화한번 못
해 봤어요?” 라는 소리를 참으며 그래도 무슨 중요한 일인가 하고 신경
을 집중하며) 무슨 일이신데요? 어르신!

할아버지1 : 아니? 내가 6.25도 참전도 하고 젊었을 때는 사업해서 몇 십
억씩도 쓰고 그러던 사람인데, 명절이 다가오는데 한 돈백만원은 있어
야 명절을 세것는다! 청와대에다가나 얘기를 조까 히보까 하고?(신주사
눈치를 살핀다)

신주사 : 그래서 요즘은 칠십세 이상 6.25 참전 용사어르신들은 수고 하
셨다고 매월 얼마씩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1 : 아이고! 고마워요. 헌디 그걸로는 애들 세배돈도 안 되잖아요?

신주사 : 그렇죠! 세배돈도 안 되죠! 죄송합니다만, 저희로서는 법과 예
산이 그렇게 밖에 안되어 있어서요 어르신?

할아버지1 : 나 그럼! 면장님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의자에 앉는다)

신주사 : 자! 그럼 여기 앉으셔서 차 한잔하십시오. (미소 지으며 차를

권한다)

미스최 : 우리 맛있는 저녁 먹으러가요? (미소 지으며 남자 직원들에게 말한다)

산업계장 : 나 오늘 약속 있어! 미안해. 유부남이 미스 밥 사주면 오해해!

신주사 : 미안해 나도 오늘 약속 있는데. 미스는 총각하고 놀아야지?

문주사 : 저하고 단둘이만 식사 하라고 선배님들이 자리를 비워주시네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미스최 : (미소 지으며) 문주사는 너무 ‘영계’라 싫은데. 두 분은 오늘 제가 밥 사드린 겁니다.

산업계장 : 두 분 좋은 시간 보내요!

미스최 : 할아버지 식사하러 가시게요? 우리 식사하고 올건데 계속계실 거예요?

할아버지1 : 예! 먼저들 가세요! 나는 면장님 만나고 갈팅게!

미스최 : 우리가 퇴근을 못해요 할아버지계시면? 안녕히 계세요! 먼저 갑니다.

퇴근시간이 되어 하나둘 나가고, 실내등도 하나 둘 점점 꺼지면서 모두 퇴근한다. 할아버지, 면장 응접 테이블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나가고, 허무한 음악 잠깐 흐르고 암전 F.O.



먼저 정읍시청에서 같이 근무하며 친절한 대민 서비스의 모범을 보이시어 제 글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여러분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시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의 애환과, 일선 민원실 공무원들이, 민원실에서 민원인들과 다소나마 불협화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원 안내서 겸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FTA를 넘을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저출산’, ‘관광분야’에 평소 저의 생각을 조금 썼는데 너무 서툰 생각들을 나열한 것 같기도 합니다.

2008년 정읍시의 자치법규에 준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세월이 흐르면 법이 조금씩 바뀌므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주시고,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여러분에게 감사하며 제 글은 저자의 허락없이 복사하여 쓰셔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며, 연극으로 무대에 올린다면 초청해주시거나 녹화한 것 메일로 보내만 주셔도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심사평



시 부문 |

‘공무원문예대전’은 공무원들이 보편적 정서에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접하는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한다.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명 의식은 바로 지적인 해안과 연결하면서 사회적·인간적 정감언어로 표현하여 새로운 정신의 세계를 탐구하게 되고 문학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존재의 근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올해 응모 작품 1,731편에는 모두의 진지한 느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으나 현실과의 괴리된 진실의 탐색에는 약간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시적 소재를 응시하면서 추적하려는 자신의 진정한 진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시 창작에서 요구하는 형상화로써 비유적이거나 운율적 문장을 관찰하게 되는 연유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는 더러 개인의 고백이나 독백의 언어도 많이 발견할 수도 있었지만 모두가 ‘시’라는 새로운 발견을 향한 고뇌의 흔적을 높이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학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것이 공무원문예대전의 목적이기도 할 것이다.

성 춘 복, 김 송 배

｜ 조용한 저녁 _ 안태현 ｜

시적구도와 문장의 연결, 언어의 구조 및 주제의 투영도 담담하게 적시하고 있다. 일상성에서 융합하는 시간과 미지의 세계에서 교감하는 영혼이 주제 창출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 12월의 입 속에서 _ 박해술 ｜

잡다한 일상에서 의미있게 응시하는 시적 구도가 안정적이다. 다만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의 기법을 구사하려는 특성이 있다. 언어가 길어져 산만해질 우려가 있으나 삶과 ‘12월’의 서민적 애환이 형상화되고 있다.

｜ 윗새오름 까마귀 _ 김영옥 ｜

자기의 반성과 성찰에 대한 관념의 승화이다. ‘한라산 윗새오름’의 특수 공간에서 접하는 현실적 감응이 ‘혼돈의 미로’에서 고뇌하는 일상적 사유가 시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 남편의 다림질 _ 곽향련 ｜

‘남편’과 ‘나’에 대한 대칭적 형상화가 시의 맛을 촉발한다. 사물의 의인화에서 인간의 메시지를 포괄하는 묘미가 있다. ‘다림질’의 이미지는 인간생활의 새로운 발견이다.

｜ 조각보 사랑 _ 박순숙 ｜

일상적 소재이지만 정감이 넘친다. 그러나 언어에서 투영하는 은유적 시법은 더욱 우리의 정서와 교감의 폭을 확대한다.

| 아버지의 시집 _ 김일곤 |

‘아버지’의 생활자체가 ‘시집’으로 환원되어 ‘쟁기질’하는 ‘세 마지막 논배미’의 가난한 시인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화자가 ‘오십이 넘어서야’ 시적 진실을 이해하는 은유적 처리가 담담하다.

| 나무들의 무덤 _ 장성호 |

흔히 대할 수 있는 ‘나무’들이지만 ‘슬픔과 기쁨의 소용돌이’를 발견하는 보편적이면서 소박한 정감으로 사물을 응시하고 있다.

| 동피랑 _ 권순태 |

‘노파’와 ‘바다’ 사이에서 전개되는 현실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잃어버린 꿈과 다시 찾은 희망’ 등이 현대인의 고뇌로 승화하고 있다.

| 아버지의 바다 _ 정석교 |

‘아버지’의 보편적 개념이 ‘바다’라는 공간 및 시간성과 조화해서 서정적 기다림이나 기원의식으로 승화하고 있다.

| 바다가 보이는 집 _ 정해광 |

‘이중섭’이라는 특정 인물(화자)이 ‘서귀포’에서 생활했던 일화를 중심으로 하여 인간의 체험과 예술혼의 결합을 적시하는 주제가 선명하다.

| 그림자 _ 윤상근 |

‘별이 되고픈 내가’ 현실적 고뇌를 투영하여 인간의 기원에 대한 형상화가 적시되고 있다. ‘웅축된 시어’ 등의 어로도 함축성이 있다.

| 유리 _ 손현승 |

현실적 고뇌가 ‘달마’나 ‘어머니’와 ‘항아리’ 등이 ‘유리’를 통한 내면적 성찰을 형상화하는 특성이 시적 구도로 나타나고 있다.

| 오동도 _ 이사라 |

‘오동도’와 ‘동백꽃’의 이미지가 열차와 철도로 형상화하면서 ‘나’와 ‘네’의 정서를 교감한다. 일상적 깊이있는 사유를 통해서 현실과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시조 부문 |

다채로운 시적 탐색, 그리고 장르의 아름다움.

장르가 지니고 있는 형식미와 시조의 천년 역사 전통에 부합하는 주제 의식들이 돋보이는 제12회 공무원문예대전이였다. 총 212편의 응모 작품들이 시조 고유의 정형 양식을 개성있게 구현하면서 다루는 내용으로 역사와 자연이라는 크게 두가지 제재가 부가된 것이다. 응모작들은 각각 나름의 빼어난 필력을 발휘하였으나 다채로운 소재 영역을 탐색하는 시도가 더욱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높은 완성도의 응모작들이 많은 가운데, 시조의 구성 요소들을 충실히 갖추고 있어 장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 또한 고무적이었다. 다만 소재가 한정되다 보니, 똑같은 내용을 다룸에 따라 서로 선명하게 비교되어 상대적 평가에서 우위를 놓친 작품들도 나왔다. 따라서 시의 글감으로 타인과 중복되지 않을 참신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입선과 창작 자체의 양측면에서 적극 고려할 사항이다.

다수의 응모작이 소재로 삼은 역사 관련 작품에서 주시할 만한 시편들은 ‘반구대 암각화기’, ‘내 땀줄 속의 말발굽소리’, ‘광개토대왕비’ 등이었고, 자연관련 작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시편들은 ‘소금’, ‘허전한 날’, ‘도요지’, ‘한라산 고사리’, ‘삶의 바다’ 등 이었다. 이들 작품들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수려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시조 시단의 신선한 활기가 되리라 본다

김남환, 한분순

| 소금 _ 문제완 |

바닷물과 햇별이 만들어내는 천일염을 개성있는 내면의 시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피상적으로만 그린 것이 아니라 소금은 바닷물과 햇별과 염전의 농부 그 삼위일체의 노력의 결과물임을 설득력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아 잘 숙성된 문학성이 보인다. 특히 셋째수 종장에서 〈바닷물결이 베란다에서 고운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한 대목이 이 작품 전체의 격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현대시조가 결코 고시조가 아닌 현대의 정형시임을 보여주는 좋은 보기라고 할 수 있다. 더욱 노력한다면 밝은 장래를 기대할 만 하다.

| 내 핏줄속의 이 말발굽소리 _ 방승길 |

무용총 수렵도 속에서 수렵하는 고구려인들의 웅맹스러운 모습을 보며 그 핏줄을 이어받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실감하고 있다. 특히 6수를 끌고 가는 작가의 저력이 예사롭지 않으며 우리 민족의 미래상을 활달하게 잘 그려내고 있다.

| 반구대 암각화기 _ 노희석 |

시적 상상력을 주목하게 되는 응모작이다. 선사시대 큰 바위에 소원을 기원하며 새긴 그림을 소재로 삼아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부드럽게 시로 전환한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우리 국보 제285호를 글감으로 택하여 그 속에 깃든 신비를 묘사함으로써 공감대를 이루는 것도 장점이다.

| 삶의 바다 _ 신기용 |

진솔함과 긍정의 시선이 호감을 일으킨다. 고달픈 고깃배의 일생을 지

켜보며 괴로운 속에서도 절망에 그치지 않고, 희망과 밝음으로 이어진 끝맺음이 고른 시상과 연결되면서 잔잔한 감흥을 일으킨다.

｜ 허전한 날 _ 노경애 ｜

결이 고운 비유가 시선을 이끄는 응모작이다. 상추씨, 고목나무, 설록차 그리고 겨울새 날아간 날의 울적함을 한 폭의 그림처럼 표현함으로써 시상이 명확히 떠오르게 만드는 작품으로 호감을 준다.

｜ 황혼과 파도 _ 이종문 ｜

노을에 물든 바다의 풍경을 불교사상과 접목시켜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내고 있다. 황혼과 파도가 어우러진 대자연의 미학을 느끼게 한다.

｜ 벚꽃 _ 김만옥 ｜

단수지만 깔끔하게 다듬어진 시상 고운 작품이다. ‘달빛에 / 낙화하는 / 벚꽃잎 하얀 속살’ 처럼 초장에서 흰 벚꽃을 ‘하얀 속살’로 표현한 것이 라든지 꽃향기에 취해 잠 못드는 봄밤, 가슴에 고여오르는 ‘그리움’을 봄바람 속에 ‘담는다’는 지은이의 시심이 사뭇 고운 모습으로 형상화 되어 떠오르게 하는 세련된 작품이다.

｜ 서랍속의 기억 _ 정승렬 ｜

어느날 문득 서랍 속을 들여다보며 까맣게 잊고 지내던 어린 시절에 얹힌 사연들을 아름다운 영상을 보는 듯 잔잔히 풀어낸 시상이 공감대를 형성한다. 시상을 조금만 더 세련되게 다듬어 표현했더라면 한결 좋은 작품이 되었을 것이다.

｜ 쇠말뚝 ｜

가슴속 깊이 맺힌 나라 잃은 슬픔을 쇠말뚝을 통해 시적 형상화로 빚어낸 숨씨가 짙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다만 이런 소재는 여러 사람에게 의해 자주 다뤄진 소재여서 새로움과 신선함이 덜해 장려상에 머물렀다. 다른 사람이 다루지 않는 소재 선택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임에 아쉬움이 남는다.

｜ 허전한 날에 ｜

멋지게 꾸민 시어가 아니라 오히려 간결한 표현으로 부각된 작품이다. 쓸쓸한 가을날 자상하던 아버지를 그리는 속내가 애뜻하게 다가온다. 평이한 시어로 짙은 감동을 주는 필력이 주목할 만하다.

수필 부문 |

제12회 공무원문예대전에 응모한 수필 작품은 281명의 622편에 달한다. 응모작의 숫자만으로 시(詩) 다음이다. 이들 작품을 소재에 대한 독창적 해석이나, 주제구현의 여하, 제재의 의미화, 구성과 전개의 밀도감, 메시지 전달의 타당성 등 심사기준에 의거 엄정하게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사대상에 오른 응모작의 상당수는 문장쓰기에 미흡하였으며, 정서법과 원고지 사용법의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소재가 제재를 해석하고 자기 나름의 세계를 형상화하는데 미숙함을 보였다. 언어미학으로서의 수필문학의 성격을 이해하고 체험과 상상을 직조하여 문학적인 형상화를 과정을 밟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 중, 〈뿌리〉는 작품의 구성이 탄탄하여 밀도감이 있으며, 소재에 대한 화자의 독창적인 해석과 존재문제에 천착한 철학적 사유가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다. 특히 정서와 사상의 조화와 아울러 담론의 서사성까지 융화하여 조국이라는 추상적 제재를 ‘뿌리’에 대한 깊은 성찰로 해석해 내고 의미화하여 주제 구현에 성공한 작품이다. 언어구사의 탁월함과 행간에 담은 깊이 있는 철학이 수필문학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으나 추상적, 관념적인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산길〉과 〈숙국〉을 우수상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작품 역시 소재에 대한 독창적 해석이 보이나, 〈산길〉은 진솔하면서도 무리 없는 전개로 산길에서의 미적 감수성을 통해 자기성찰과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확연하여 주제 제시에 성공한 작품으로 판단되었다.

〈쑥국〉은 표현이나 주제 제시에 무리가 없으며, 소재에 대한 통찰과 의미화가 돋보인다. 그 밖에 〈고택〉, 〈속죄양의 눈물〉, 〈손〉, 〈오후 2시〉, 〈점〉, 〈변신〉, 〈등지〉, 〈개꿈〉을 장려상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수필문학은 자아성찰과 자기관조에서 출발하지만, 존재파악이라는 장르적 성격에 닿아야 한다. 따라서 글쓴이의 시선의 참신성, 독창적 해석이 요구되며 자신의 프리즘에 투영된 사물과 대상의 깊이 있는 천착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문장쓰기에 유념하면서 소재나 제재의 해석과 의미화에 관심을 당부하며, 당선자 모두의 앞날의 문학적 행보를 기대한다.

한상렬, 정목일

｜ 뿌리 _ 정성희 ｜

작품의 구성이 탄탄하여 밀도감이 있으며, 소재에 대한 화자의 독창적인 해석과 존재문제에 천착한 철학적 사유가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다. 특히 정서와 사상의 조화와 아울러 담론의 서사성까지 융화하여 조국이라는 추상적 제재를 ‘뿌리’에 대한 깊은 성찰로 해석해 내고 의미화하여 주제 구현에 성공한 작품이다. 언어구사의 탁월함과 행간에 담은 깊이 있는 철학이 수필문학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으나 추상적, 관념적인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 산길 _ 김영복 ｜

〈산길〉은 문맥이 순편하고 구성에 무리가 없다. 산길을 인생에서의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비유하여,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의미화하려 점을 높이 산다. 수필문학은 존재의 문학이요, ‘인간학’이라는 측면에서 일

상을 일상 그 이상으로 통찰하려 한 점은 장점이다. 결미의 함축미가 다시 떨어지는 점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 쑥국 _ 손달호 ｜

〈쑥국〉은 쑥을 소재로 하여 김 교사의 사람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비적 구성을 통해 쑥의 향기를 김 교사의 인품에서 절로 배어나오는 인품에 견주어 의미화하려 한 점이 돋보인다. 소재를 자기화하는 글쓴이의 문학적 기교를 높이 사며 “사람 사는 냄새는 맨 바닥에 있다.”는 해석의 탁월함이 엿보인다. 다소 문맥이나 문장의 거친 부분이 보인다. 이 점은 앞으로 더욱 정련해야 할 과제일 것이며, 서두와 결미의 여운과 함축성을 곁들인다면 좋을 것이다.

｜ 고택 _ 임종훈 ｜

소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지적 사유가 이 작품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택’에서 ‘명문가’로 해석의 깊이를 보이고 있으나, 다소 건조하며 지나친 설명으로 상상력을 차단하고 있다. 소재의 참신성과 과학적인 논리, 대상에 대한 천착과 철학적 사유를 높이 산다.

｜ 손 _ 최계순 ｜

소재를 자기화한 기법이 돋보인다. ‘손’과 관련하여 삶 그리고 존재의 문제에까지 확대하면서 깊이 있게 파고 든 점을 높이 산다. 결미에서 “아름다운 손과 미련한 손과 욕심의 손을 생각해 보면서 제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손은 어떤 모양인가를 잔잔히 되돌아 본다”라는 의미화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 오후 2시 _ 권소연 |

‘오후 2시’라는 낯선 소재를 자신의 시선으로 관조하고 성찰한 기교가 돋보인다.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소재에 해석과 의미화에 충실함으로써 주제 구현에 성공하고 있으며 구성의 전개에 밀도감이 있다.

| 점 _ 하상만 |

소재가 참신하다. 동백꽃의 ‘점’에서 착안하여 클립트의 명화감상과 관련하여 점에 대한 해석을 확장시킨 점은 돋보인다. 그러나 서두의 산만함, 논리적 구조의 결미의 긴축성, 의미화가 아쉽다. 서두와 결미쓰기의 조응과 적절성이 요구된다.

| 변신 _ 이옥희 |

콩나물을 기르면서 그 성장과정에서 보여주는 경이적인 변신에 초점을 맞춘 이 작품은, 후반부에 미래 다가올 아들이아의 변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자신으로 귀화하는 구성을 택하고 있다. 소박하면서도 진솔한 화자의 미적 감수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주제의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다.

| 둥지 _ 강별모 |

소재에 대한 의미화가 돋보인다. 족제비에 의해 참혹한 죽음을 당한 까치 가족의 둥지에 얹힌 화소를 아버지의 건강과 연계하여 무리없이 전개하고 있다. 구성상의 밀도감이나 긴축성이 다소 떨어지나, 결미의 의미화는 그런 취약함을 보완하고 있다.

｜ 개꿈 _ 김영수 ｜

미혼 여성이 소개팅을 통해 상대를 만나는 과정에서 화자가 체험한 예화를 진술하게 표현하고 있다. 결미의 전환을 통한 의미화가 돋보인다. 보다 삶에 천착한 철학이 요구된다.

｜ 표류 _ 최재호 ｜

문장이 순편하며 문체도 양호하다. 다만, 지나치게 관념적, 추상적인 면이 걸린다. 보다 구체적인 정서의 표현과 제재에 대한 해석과 의미화가 요구된다.

단편소설 부문 |

주최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작품은 모두 97편이었다. 이들 작품은 주최 측에 의해 응모자의 주소,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이 철저히 은폐돼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심사위원들은 응모자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오직 작품의 내용만을 객관적으로 집중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공무원문예대전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공무원들이 이렇듯 작품을 잘 쓴다는 것은 자못 놀라운 일이었다. 따라서 응모작의 우열을 가리기도 그만큼 힘들었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입상작으로 올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우리는 모든 응모작을 읽고 또 읽어 1차로 〈停止線 위의 서번트 신드롬〉, 〈연리지〉, 〈모래 묻힌 개〉, 〈그물〉, 〈거미, 다가오다〉, 〈군자란〉, 〈지상의 틈마다 안개가 스며들다〉, 〈고막손〉, 〈덮쳐온 파도〉, 〈獨島〉, 〈춘자의 하루〉, 〈버벽이〉, 〈어느 소방수〉, 〈암소와 꽃등에〉, 〈아내의 친구〉, 〈둥지를 트는 타인들〉, 〈압구정 촌부〉, 〈해룡가〉, 〈은행나무 여무는 길〉 등 19편을 골라낸 뒤 다시 이를 압축했다.

그런 다음 또다시 고심을 거듭하면서 최종적으로 〈停止線 위의 서번트 신드롬〉, 〈연리지〉, 〈그물〉, 〈거미, 다가오다〉, 〈군자란〉, 〈지상의 틈마다 안개가 스며들다〉, 〈고막손〉을 입상작으로 뽑는 한편 차례차례 입상등위를 결정했다. 이 7편의 작품에는 각기 일장일단이 있지만, 단점을 들추기보다는 장점을 찾아내 높은 평점을 주었다.

입상자에게는 아낌없는 축하를, 그리고 비록 입상권에 들지는 못했을 지라도 응모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정연희 이광복

｜ 정지선 위의 서번트 신드롬 _ 김대성 ｜

장애를 가진 형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주제를 형상화하는 능력과 감각이 매우 돋보였다. 특히 앞 못 보는 형과 승용차 안에서 주고받는 맛깔스런 대화는 소설의 재미를 더해준다. 다만 ‘꼬붕’, ‘고수부지’, ‘엑셀’, ‘크락손’ 등 일부 부적절한 어휘는 옥의 티라고 하겠다.

｜ 연리지 _ 김소윤 ｜

두 다리가 없는 청년의 사랑과 아픔, 그리고 이상하게 형성된 삼각관계를 그린 작품으로 뛰어난 서사구조가 호감을 주었다. 특히 블로그를 통해 교환되는 사랑의 대화들은 매우 사실적이어서 생동감이 넘친다. 언어를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는다면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물 _ 남경희 ｜

교사들의 애환을 그린 작품으로 문장이 매우 깔끔하고, 결말 부분의 ‘인생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간다’는 진술도 호감을 주었다. 잘 다듬은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구성이 평면적인 데다 인물을 너무 많이 등장시켜 산만한 느낌을 주었다.

｜ 거미, 다가오다 _ 이재곤 ｜

고모의 기구한 삶을 다룬 작품으로 문장, 구성 등이 안정되어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는 것은 큰 장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 전개가 평면적으로 밋밋하게 흐름으로써 극적인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

｜ 군자란 _ 김영희 ｜

소녀가 아줌마로 변신해 가는 과정이 담담하게 전개되는 작품으로 문장과 구성이 안정돼 있다. 매우 차분하게 쓴 작품이어서 호감을 주었다. 그 반면, 인물 성격의 부각이나 서사구조가 취약하고 지나치게 설명적으로 흐른 느낌이다.

｜ 지상의 틈마다 안개가 스며들다 _ 김명자 ｜

직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남성 부장과 여직원 상호간의 미묘한 관계가 잘 그려져 있다. 문장이 매우 세련돼 있고 공들인 흔적도 역력하다. 하지만 주제를 부각하는 힘이 부족하고 사건이 느리게 전개되어 아쉬웠다.

｜ 고막손 _ 윤찬모 ｜

농부 고막손의 현실, 즉 농촌의 현실을 그린 작품으로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일손 부족으로 농사짓기 힘들어 농약을 쓰고 그 농약으로 말미암아 피해해지는 우리의 현실이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문장이 서투르고 구성의 밀도가 떨어진다.

| 동시 부문 |

제12회 공무원문예대전에서 동시 부문 응모작은 357편이었다. 많은 동시를 읽으면서 예년에 비해 특출한 작품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전체적 수준은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 흐뭇하다. 아동문학의 한 장르인 동시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소재의 참신성, 기법의 변화와 뛰어난 문학성을 요구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작품을 전부 읽었으나 심사위원의 당초 기대와 욕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솔직한 심경이다. 이런 속에서도 〈가로수 아저씨〉, 〈강나루〉, 〈첫 눈 오는 날 창문보기〉, 〈내 짝궁은 자폐아〉, 〈줄업식과 입학식 사이〉, 〈산은 심심하지 않겠다〉, 〈호박풍선〉, 〈혼자서〉 등의 동시는 소재나 시적 구성과 의미가 꽤 재미있고, 동심만이 향유할 수 있는 천진성과 정겨움이 배어 있었다. 많은 작품에서 공통적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작품’으로 느끼는 것은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증거일 수 있다. 응모자 모두의 정진과 분발을 기대한다.

박종현, 엄기원

｜ 가로수 아저씨 _ 박영식 ｜

길가에 우두커니 서 있는 가로수를 의인화하여 생활속의 동심 세계로 끌어들이는 시적 발상과 시적 구상이 매우 재미있다. 또한 가로수를 화자(나)와 비유하여 정겨움을 피어나게 한 좋은 동시다.

｜ 강나루 _ 광해익 ｜

이 동시는 시적 서정성을 잘 살리려고 애쓴 편모가 보인다. 생활시와는 대조적인 이 작품에서 나룻배가 유난히 인상적인 강나루의 정경이 물 안개처럼 아름답게 느껴지는 작품이다.

｜ 첫 눈 오는 날 창문보기 _ 문현식 ｜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구어체 기법으로 쓴 이 동시는 소재부터 매우 흥미롭다.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바깥을 내다 보며, 첫 눈 날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어린이의 동심, 호기심을 엿 볼 수 있다.

｜ 내 짝꿍은 자폐아 _ 남석우 ｜

요즘 어린이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폐아를 소재로 삼은 특별한 동시다. 자폐아의 부족한 행동을 바탕으로 따뜻한 사랑을 담아 놓은 시인의 시적 발상과 의도가 배어 있는 작품이다.

｜ 산은 심심하지 않겠다 _ 김현호 ｜

다소 관념적일 수 있는 이 동시에는 나무, 새, 다람쥐, 담비, 물 등이 등장한다. 별다른 특징은 없지만, 평화롭고 정겨운 산의 모습과 생리가 잘 그려진 동시다.

｜ 호박풍선 _ 한광일 ｜

이 동시는 호박이 차츰 커가는 모습을, 바람 들어가는 풍선에 비유한 기법이 재미있다. 동심을 읽을 수 있다. 가장 쉽고 보편적인 어휘로 잘 빛은 동시라 할 만하다.

｜ 혼자서 _ 임동학 ｜

응모작품 중에 가장 짧은 동시다. 내 친구(영수)가 전학간 허전함에 친구가 갖고 놀던 가오리연, 굴렁쇠, 팽이가 너무 심심해 보이는 심적 의미를 은유적으로 나타낸 동시이다.

｜ 뿌리 _ 김종훈 ｜

동시 ‘뿌리’는 열매나무의 뿌리 모습과 역할을 심도있게. 시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나무에 대한 뿌리의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좋은 동시로 평가하고 싶다.

동화 부문 |

금년 공무원문예대전에는 총 70편이 응모되었다. 다른 장르에 비해 응모편수는 많지 않지만 입상내에 들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이 많았다. 두 심사위원이 전 작품을 각기 통독한 후에 입상가능 편수인 7편의 배수인 14편씩을 선정하여 입상작을 결정하는 논의에 임했다. 두 심사위원이 선정한 14편 후보작이 거의 일치하고, 우열에 대한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아, 서열을 결정하는데도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응모제한이 없어서 배수 후보작에 두 응모작의 작품 5편이 들어있음이 명단 확인으로 뒤늦게 발견되어 3편을 제외하는 혼선을 빚어야 했다. 이번 응모작 중에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가 갖는 애환과 불법체류 노무자 자녀 문제 등 사회성이 강한 작품이 여러편 응모된 것이 동화의 소재나 주제의 확장을 위해서는 크게 주목할 일로 생각되었다. 입상자 여러분에게 축하를 보내고 문운을 빈다.

이영호, 이창수

| 내 이름을 불러줘 _ 우소영 |

불법체류 인도인 노무자 부부의 딸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역시 불법체류자 신세로 낮에도 햇볕을 볼 수 없는 원시의 동굴같은 지하 단간방에 숨어 살아야 하는 열 살 살라메르 메디나의 놀라운 상상력을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무자들의 쫓기는 불안한 생활과 그들 사이에 한국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상상 속에서 탄생한 친구들과 함께 지어낸 단이라는 한국 이름을 단속 나온 아저씨에게 말하는 모습은 처절한 항변으로 들리는, 사회성이 강한 묵직한 주제를 동화적인 환타지 수법으로 짜임새 있게 표현하고 있는 문제작이다.

| 선생님 바보 _ 박재광 |

3학년이면서도 문자 이해득자인 지진아이면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교사의 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문제아 강민수를 사랑과 인내심으로 지도해서 마음을 열고 지도에 순응하게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가작이다.

| 아저씨의 자식들 _ 안상문 |

나무에 영혼을 불어 넣는 장승 깎기 달인인 이웃 아저씨와 친구인 민구. 아저씨가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장승 제작을 가르치다 한 아이의 장난으로 전기톱에 발뚱꿈치를 크게 다쳐 불구가 된다. 밤 새워 작업하다 불이 나자 불구의 몸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소사하자 슬픔에 잠겼던 민구는 아저씨의 뒤를 이어 장승 제작자가 되기로 결심한다는 전통계승의 문제를 다룬 동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그 계승이라는 주제를 감동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작이다.

| 감사합니다 _ 김솔립 |

우크라이나에서 시집 와 술집에서 발레를 추는 엄마의 아들인 부네는 엄마만큼 우리말이 서툴러 반 아이들의 놀림감이 된다. 엄마의 생일날 이웃 누나의 도움으로 생일 케익을 들고 엄마를 만나러 갔다가 문지기로부터 박대를 받고 큰 부상을 입어 입원한다. 정신이 들었을 때 반 아

이들과 선생님이 문병을 오고 집을 나갔던 아버지도 와 있었다.

역시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비교적 매끄러운 문장으로 다루고 있어 메시지가 강한 작품이지만, 부상당할 때의 상황, 아빠 엄마의 불화 모습 등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 엄마새와 아기새 _ 전병호 ｜

제멋대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아기새를 걱정하는 엄마새가 둥지를 튼 나무 아래에, 40년을 한결같이 전쟁터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기도를 드리는 할머니가 있다. 그 기도 영험인지 북한에 끌려가 죽지 못해 살던 아들이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온 날 할머니는 나무 아래로 찾아와 나무와 조상에게 감사하며 해바라기꽃처럼 웃는다.

민족의 비극과 지극한 모성애를 엄마새의 아기 사랑과 함께 녹여낸 동화적인 수법이 눈길을 끌고, 박진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작이다

｜ 할머니의 풍어제 _ 신하나 ｜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태풍에 잃고 이사를 고집하던 할머니는 해양고교로 전학해서 원양어선을 타겠다는 손자때문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다. 마을에 풍어제가 열리는 날 퇴원한 할머니는 용왕에게 손자의 안녕을 비는 종이를 붙인다.

풍랑으로 아픔을 겪는 바닷가 어민들의 염원이 할머니를 통해 리얼하게 표현되었고, 용왕제라는 민속제의 모습을 잘 재현해 보여주는 가작이다. 다만 만연체 문장이 박진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쉽다.

희곡·시나리오 부문 |

예년에 비해 응모작이 줄어들었다지만 내용이나 수준면에서 눈에 띄는 작품이 몇 편 있어서 반가웠다. 하지만 응모자들이 아직도 희곡과 시나리오의 기본 양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거기에 대한 기초공부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어떤 응모작은 희곡인지 수필, 소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분방(?)에 당혹스러웠다. 아마도 TV 드라마에 익숙한 탓이 아닌지, 나름대로 짐작해봤다. 그래서 우선 희곡이나 시나리오로서 모양새를 갖춘 작품을 고르다보니 〈꿈꾸는 도서관〉, 〈외로운 외출〉, 〈청산도〉, 〈새정읍사〉 등 네편이 입상작으로 손색이 없다는 데 두 심사위원은 의견을 모았다.

〈꿈꾸는 도서관〉은 단막극 분량으로서 짜임새는 탄탄한 데 더러 과장된 표현과 교훈적인 주제가 거슬렸다. 〈외로운 외출〉은 시나리오로서 일선 경찰관들의 애환과 휴머니티를 잘 살렸지만, 소재가 식상한게 흠이다. 〈청산도〉는 작가의 무대 이해부족으로 작품 흐름상 시간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지적됐지만 그것은 작가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해결될 뿐더러 연출의 손을 거친다면 당장 무대에 올려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어촌 여자들이 하숙집 남자를 보쌌한다는 발상전환을 코믹하게 잘 그렸다.

〈새정읍사〉는 일선행정 기관 민원창구에서 일어난 일을 실감나게 묘사했다. 하지만 다큐형식을 벗어나지 못해 희곡으로 거듭나는데 미흡했다.

위 네 편의 장단점을 놓고 토론을 거듭한 결과 <청산도>를 최우수상에, <꿈꾸는 도서관>을 우수상, <외로운 외출>과 <새정읍사>를 장려상으로 미는데 최종합의를 봤다. 입상자 여러분들의 건필이 기대된다.

김영무, 최송림

｜ 청산도 _ 정재학 ｜

최우수상에 뽑힌 <청산도>는 당장 연극무대에 올려도 좋은 만큼 상당한 경쟁력의 작품이다. 바닷가 어촌의 하숙집을 배경으로 여자들이 남자를 보쌌한다는 코믹터치의 발상전환이 돋보이는 애정풍속도다. 문제는 희곡집으로 발간할 경우 무대장면 전환에서 불러일으키는 시간과 정치의 혼란을 작가가 충분히 손질해야 될 것 같다.

｜ 꿈꾸는 도서관 _ 김수만 ｜

희곡으로서 형식면만 따진다면 이 작가가 희곡을 그 중 잘 아는 것 같다. 단막극으로서 아주 깔끔한 작품이다. 그릇은 아주 잘 다듬어 졌는데, 내용면에서 과장된 표현과 교훈적인 주제가 작품의 전체적인 무게를 떨어뜨렸다.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주제와 메시지를 잘 숙성시키는 습작을 열심히 하고 내공을 쌓는다면 더 좋은 작품을 쓰리라 믿는다.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

｜ 외로운 외출 _ 박병두 ｜

시나리오 응모작 중에서 제일 낫다. 우선 시나리오로서 틀을 갖췄다는 게 장점이다. 남동영이 순경과 경사 계급의 혼동 등 작은 실수도 눈에 띄지만 상당한 습작량이 엿보여 앞으로의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렇듯 시를 쓰는 남도영을 주인공으로 일선 경찰관의 애환과 휴머니티를 잘 살렸지만, 소재가 식상한데 흠이다. 제목을 바꾸면 어떨까도 싶다.

｜ 새정읍사 _ 은종민 ｜

일선 행정기관 민원창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감나게 묘사했다. 사실적인 묘사는 실감나는데, 그냥 하루 일을 공무원들이 근무일지 쓰듯 재미있게 나열했을 뿐 희곡으로서 거듭나는데 역부족이다. 요컨대 시간 나열식 다큐에서 기승전결 희곡으로 탈바꿈하는 솜씨가 아쉽다.

그리고 그 친구들 옆에 눈이 큰 작은 여자 아이도 보시겠지.
난 엄마에게 내 친구들을 소개시켜 줄거야. 그리고 친구들
옆에 있는 여자 아이를 가리키며 ‘이 아이이름은 단이야.’
라고 말하겠어. 그럼 엄마는 단이가 누굴까 궁금해 하시겠
지. 그럼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할거야. 친구들이 붙여준
내 이름이라고.

엄마는 틀림없이 내 이름 단이를 아주 예쁜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내 귀에 ‘단이야, 엄마는 단이를 사랑해. 무서운
아저씨들은 이곳에 없단다.’ 라며 속삭여 줄꺼야.

